

내설악 관광벨트조성을 위한 지도제작 자료 발굴

내설악 그 명승에 빠지다

이학주

인제문화원

내설악 관광벨트조성을 위한 지도제작 자료 발굴

내설악 그 명승에 빠지다

이 학 주

내설악, 한국 최고의 명산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내설악은 설악산의 으뜸이면서 한국 최고의 명산입니다. 한 번쯤 내설악을 올랐던 사람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단아하고 웅장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산행을 시작하면 하나씩 또 하나씩 그 자태를 드러내며 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발길을 움직일 때마다 어찌면 그리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줄까요? 내설악을 오르신 분들은 정말 신산(神山)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감탄으로 실토하게 됩니다. 한 발짝 걸으면 수려한 계곡에 감탄을 하고, 한 발짝 또 걸으면 천 길 높이서 뿜어대는 물보라 무지개 수놓는 폭포에 감탄하고, 또 한 발짝 걸으면 봄여름 가을겨울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고 뿜내는 자태에 감탄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마저 가린 수목과 새와 바람소리에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돌아오는 산행에서는 오를 때 보지 못한 ‘나’를 보는 감탄으로 가득합니다. 설악산처럼 변해 있는 ‘나’ 말입니다.

도시생활 세파에 찌든 몸, 안온하게 어머니처럼 안아주는 맛도 천하의 일품입니다. 힘들 땐 내려놓으라고 하지요. 내설악은 모든 힘든 삶을 내려놓고 훌가분하게 떠나라 말합니다. 온갖 쓸데없는 짐들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에게 모두 내려놓고 빈 지게마저 어깨에서 벗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벼울까요. 슬픔, 아픔, 욕심, 우리는 참으로 내려놓을 것이 많잖아요. 이런 내려놓음을 모두 받아주는 내설악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 때문에 천하의 시인묵객은 모두 찾아들어 최소한 시(詩) 한 수씩은 남겼습니다. 김시습, 김창흡처럼 속세를 버리고 세파에 찌든 몸을 쉬려고도 찾았고, 그를 흠모한 수 없는 문사들이 줄을 이었지요. 또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찾은 스님들은 셀 수 없습니다. 그 높은 봉정암까지 오르는 힘든 산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설악산을 감상하며 즐기려는 상산객(賞山客)이야 엄청 났습니다. 하기가야 대통령까지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설악산에 머물기도 했잖아요.

인제사람들에게는 내설악이 삶의 터전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를 때, 모험을 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자신을 알고 싶을 때, 화전(花煎)놀이를 할 때도 설악산을 찾으면 되지요. 어디 그 뿐인가요. 자식들 학비며 집안의 생활비를 모두 대어주기도 합니다. 산삼, 봉양 등의 약초를 캐고, 송이, 능이, 표고 등의 버섯을 따고, 철 따라 먹을 것을 찾아 내설악을 찾았습니다. 그 때문에 인제사람들은 설

악산을 하늘처럼 위하며 살았습니다. 매년 산신께 제사를 올려 무사안녕과 복락을 빌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내설악의 찬바람은 인제에 또 하나의 명품을 선사했지요. 풍대리(風垔里), 바람이 많아서 용대리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바로 그 풍대리의 바람이 최고의 먹거리 황태를 인제에 선물로 주었지요. 내설악은 그렇게 매년 겨울만 되면 황태를 품었다가 잉태합니다. 덕장마다 가득 걸린 황태를 볼 때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요. 흥년에 자식 밥 먹는 것 보면 배부르다는 말 거짓이 아닙니다. 내 고향 인제사람들의 풍성한 삶을 볼 때마다 정말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설악, 제게는 정말 한국 최고의 명산입니다. 이에 내설악을 좀 더 알뜰하게 가꾸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고 싶습니다. 설악산의 가장 깊은 맛과 멋은 바로 내설악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외설악처럼 황홀한 맛은 없지만, 산행을 할수록 아름답다는 말을 토해내는 내설악의 진수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이에 내설악 관광지도제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내설악의 지명유래와 문화재설명, 내설악 인근마을의 지명과 그 유래, 시문, 기문, 설화, 먹거리를 한데 엮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자료는 차후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넣은 내설악관광지도로 탄생할 것입니다. 이를 감성적인 이야기가 있는 관광지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1차적인 자료를 모아서 새로움을 창출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설악을 바탕으로 보다 잘 살고 아름다운 인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 내설악 관련 문헌을 뒤지고 현지조사를 열심히 한 이학주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백담사 설악 무산 오현 큰스님께 채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설악의 황홀경

몹시도 더운 여름이다. 올해 따라 비까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엄청 심하다. 소양강댐의 수위가 발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 졌다고 연일 언론에서 메인 뉴스로 내보내고 있다. 게다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 온 나라가 움츠리고 있다. 퐁퐁 언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딱딱 메말라 있는 것이다. 정말 한 방울의 비가 그리울 따름이다.

온 나라가 딱딱하게 메말라 있는 그 순간에도 내설악의 아름다움은 감출 수 없었다. 웅장한 능선을 따라 뿔어대는 설악산의 기운은 진정 하늘의 기를 모두 모은 듯 탐방객을 매료시켰다. 비록 물살은 적으나 대승폭포의 물보라무지개도 볼 수 있었다. 하늘벽을 휘감고 물보라무지개를 뿔어대는 경관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지리실계곡, 백담계곡의 자태는 지칠 줄 모르고 탐방객을 오르게 하였고, 새이령의 마장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회귀해서 산촌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어찌 이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한계산성은 또 다른 경이이다. 우리나라 역사의 어느 현장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이 높은 곳, 험한 곳에 산성을 쌓았고, 천제단을 쌓아서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 이는 아마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절실하게 대항한 흔적일 것이다. 언제 누가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 할 것이다. 그 옛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쌓인 불가사의가 아닐까?

내설악 곳곳은 사람들의 삶으로 가득했다. 산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모았다. 하기야, 우리는 <단군신화>에서 보듯 이미 워낙 산을 좋아하는 산사람이다. 전설이 풍부한 백담사, 오세암, 영시암, 봉정암 등의 사찰은 모든 설악산 탐방객을 공평하게 반기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시문이 있는 줄은 몰랐다. 누구나 내설악에 오르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아름다운 광경에 심취하지 않을 수 없고,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기록이 남아서 설악산의 지명을 남겼고, 전설을 낳았으며, 아름다움을 더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설악은 그야말로 황홀경이었다.

이 책은 내설악의 관광벨트조성을 위한 지도제작을 위해서 모은 자료이다. 지명만 있는 지도가 아닌, 지명에 유래와 감성이 담겨 감상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의도의 지도제작용 자료이다. 그 때문에 내설악에 담긴 지명과 그 유래, 그곳에 얽힌 전설, 역사, 시문, 기문, 민속신앙, 먹거리까지 지도제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문과 기문의 경우는 이미 관련 자료를 모아 펴낸 것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의 자료만 실었다. 번역의 경우는 번역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되도록 출처를 밝혀서 그대로 기재하였다. 번역되지 않은 원 자료만 있을 경우 부족하지만 필자가 번역 하였다. 민속신앙은 내설악사람들의 절실한 삶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되도록 조사자료를 그대로 신도록 하였다. 먹거리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는 황태만 그 어원부터 축제 등을 실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사업비용을 책정하시고 지원해 주신 백담사 설악 무산 오현 큰스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덕우 인제문화원장님, 그리고 기획에서부터 제작과정에 일일이 신경을 써주신 백창현 사무국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내설악관광벨트조성을 위한 자료집이 나올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신 오정진 전원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자료를 인용하고 게재한 모든 선학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은 이처럼 주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감성이 살아있는 내설악 관광지도가 제작될 것이다. 내설악을 사랑하는 탐방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스토리를 넣어서 제작될 것이다. 더불어 내설악 곳곳에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아름다운 안내판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설악산의 가치가 한 층 격상되어 세계에서 우뚝한 명산으로 그 명성을 더욱 드날리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인제군민의 힘이다. 인제군민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년 9월

춘천 무편서실에서 문래산인 이학주 쓰다

목차

발간사: 내설악, 한국 최고의 명산
서 문: 내설악의 황홀경

1. 내설악 지명유래 및 문화재자료
2. 내설악 및 인근 지명집의 지명자료
3. 내설악 관련 시문
4. 내설악 관련 기문
5. 내설악 관련 설화
6. 내설악 지역의 동계
7. 내설악 인근의 대표 먹거리

1. 내설악 지명유래 및 문화재자료

가리봉(加里峰[三兄弟峯])

장수대에서 寒溪川을 건너 남으로 가면 加里峰이다. 높이 1,518m가 되고 멀리 바라보는 풍경은 매우 아름답다. 뽕죽하고 끝이 칼날 같은 선이 나타나는 특유한 봉우리다. 대중소의 세 봉우리가 있어 三兄弟峯이라고도 부른다.(『양주지』)

가마탕

북면 한계3리 장수대의 자양천(紫陽川) 건너서 1km 지점인 가마곡의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탕이다. 탕의 형태가 마치 가마모양에 연유하여 명명된 것으로 피서를 겸한 가벼운 등산지로 적지이다.

이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승폭포(大勝瀑布)를 비롯하여 오승폭포(五乘瀑布), 석황사(釋皇寺), 옥녀탕, 한계고성 등의 관광지를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어 그 경관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렵다.(『인제군사』)

가야동계곡(伽倻洞溪谷)

고찰인 백담사에서 영시암(永矢庵)을 지나 옛터를 지나면 수렴동계곡(水簾洞溪谷) 초입이 된다.

가벼운 보행으로 좀 더 가면 계곡이 두 갈래로 흐르는데 왼쪽 골짜기에 펼쳐진 계곡을 가야동계곡이라고 일컫는다.

천왕문 왼쪽에 위치한 이 계곡은 내설악에서 명고한 명승이고 봉정암

(鳳頂庵)에서 내려가자면 오세암(五歲庵) 길로 약 40분쯤 가다 와룡연(臥龍淵)이라는 여울이 나오는데 여기가 가야동(伽倻洞)으로 가는 첫 어귀이다.

이 와룡연과 천왕문 사이의 계곡이 바로 가야동계곡인데 천왕문(天王門)과 무엇보다 그 속 석벽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옥수가 벼랑에 도드라진 바위에 부딪혀 방울방울 옥이 되어 소반에 튀기는 천왕폭(天王瀑)이 으뜸이다.

이 계곡은 북쪽으로 공룡능선(恐龍稜線)의 기괴한 암벽과 남쪽으로 용아장성(龍牙長城)이 희고 장엄한 연봉(連峰)과 어울려 산수절경으로 이름이 높으며 계곡상류에는 희운각(喜雲閣)이 있어 여름철 폭우시나 겨울철 폭설시에 등산객들의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다.(『인제군사』)

이 가야동(伽倻洞) 계곡은 청아한 곳이다. 이 계곡은 내설악(內雪嶽)의 절경이고 이름 높은 명소는 천왕문(天王門)이라는 석벽이 있다. 이 天王門 석벽 위에서 떨어지는 천왕폭은 이 계곡의 둘도 없는 절경이다. 가야동에서 사방을 살펴보면 북에는 공룡능선, 남에는 용아장성의 연봉이 첩첩(疊疊)하다. 이 계곡의 상류쪽에 희운각(喜雲閣)이라는 산장이 있어 등산객의 휴식처가 된다.(『양주지』)

곡연(曲淵)

곡연은 한계산과 설악산 사이에 있다. 남교역에서 한계의 하류를 건너면 하나의 절터에 이른다. 점점 산세가 험하여 절벽을 따라 겨우 올라가면 아래로 가파른 골짜기와 접해 있다. 다시 하나의 등성이에 이르러 폭포를 바라보면 북쪽에서 흘러내리는데 매우 웅장하다. 대승암을 지나 다시 20리를 가면 소나무 숲과 큰 계곡을 만나는데 이곳이 곡백연 골짜기이다. 연못은 깊이가 2길은 족히 되며, 넓이는 수백 보인데 맑아서 바닥이 보인다. 색깔은 푸른 옥 같다.

또 웅정동을 지나 절벽을 따라 수백 보를 가면 하나의 그윽한 터를 볼 수 있는데 농사를 지을 만하였다. 동쪽으로 수십 리를 가면 오세암에 이를 수 있다. 길골의 황장뢰를 지나면 산자락이 물의 입구를 막고 있는데 천춘령이라고 부른다. 김수증이 지은 이름이다. 1리를 가면 속칭 부전암

과 포전암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 허공교를 건너면 골짜기가 나온다. 연못 위에 네 다섯 봉우리가 있는데 삼연이 ‘오로봉(五老峯)’이라고 명명하였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핑고폭포

북면 용대3리 민박촌에서 한계령 방향으로 가다 좌측에서 흘러내리는 첫 번째 계곡, 국도에서 300m쯤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 바로 밑에는 작은 암자터가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암자에는 젊은 여승이 있었으며 남자승이 밤마다 여승을 찾아와 괴롭히는 바람에 과계(破戒)하고, 사찰은 폐사되었다고 한다.(『인제군사』)

구곡담계곡(九曲潭溪谷)

쌍용폭 중의 좌측에 위치한 자폭(雌瀑, 女瀑)을 지나 상류쪽으로 봉정암(鳳頂庵) 가는 봉정곡(鳳頂谷)을 흔히 구곡담계곡이라고 한다.

계곡에는 아홉 개의 담(潭)이 있으며(The Valley of Gugok-dam) 네 번째 담을 조금 지나 왼편으로 늠름한 자세를 과시한 사자암(獅子岩)이 있고 맨 끝 담(潭)에서 오른쪽 편에 소재한 큰 바윗돌 층계를 백담대(百潭臺)라고 한다.

구곡담의 첫째 담인 방원폭(方圓瀑) 이외에는 하나도 이름을 얻지 못하고 다만 ‘둘째소’, ‘셋째소’라고만 불려지고 있으며, 첫 어귀로 들어서면서부터 좌우의 절벽과 곳곳에 깔린 반석, 녹음, 웅성거리던 피서객들이 사라지면 이내 단풍이 들어 제철을 만난 구곡담계곡은 봉정암까지만 구경은 ‘하이힐’의 주인공들까지 끌어 올리는 마력을 발휘하고 있어 뒷날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해 두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인제군사』)

구선대(九仙臺)

푸른 가을을 이고 단풍 속에 묻혀 있는 구선대(九仙臺)는 칠음대(七音臺)를 지나서 칠음대와 같이 두터운 골짜물이 아홉 번이나 곤두박질하면서 대반석 위로 흐른다.

축 같은 시내가 흐르면서 온갖 묘기를 백출하니 그 경개(景概)는 그대로 금강산(金剛山)의 풍모를 지니고 있어 흥미진진하다. 한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이나 물이 곤두박질하면서 세차게 흐르니 부딪치는 물의 그 모습은 흡사 춤추는 듯하다.

누구나 보고 공통으로 느끼는 일이지만 황홀하기 그지없다. 짐채 같은 물이 천 갈래 만 갈래 부딪쳐 부서지고 다시 하나로 얽혀 당구는 모양은 저 유명한 중국의 구산(九山)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곳 구선대 물의 곡예는 따르지 못할 것이니 열려진 백겁의 성천지(聖天地)이다.

물의 곡예라 함은 물이 떨어지고 떨어진 물이 다시 튕겨 수연(水烟: 물놀이)에 시간을 빼앗기는 줄 모르는 곳이 이곳인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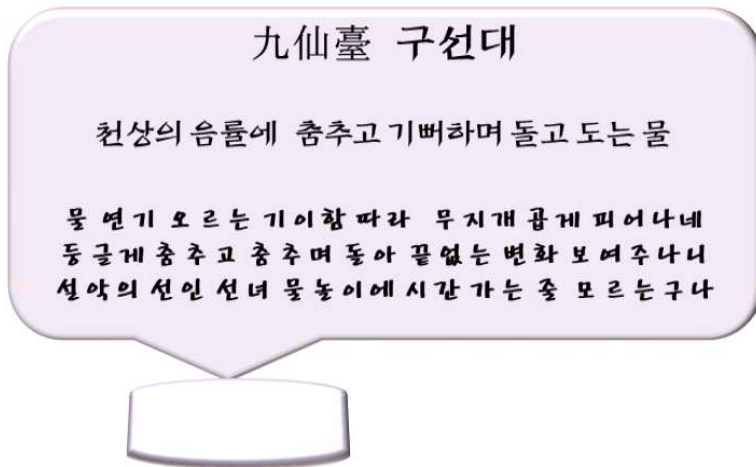


그림 1 구선대 관광안내판 예

원무(圓舞)하는 물, 선무(旋舞)하는 물, 구전(九轉)하는 물 그야말로 물이 기뻐서 손뼉치고 춤을 추는 무변(舞拵)이란 말이 이곳의 물을 두고 생겼던 말이다.

이렇듯 구선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제 나름대로 완상(玩賞)할 수 있는 곳으로 기상천외의 광경을 이루고 있어 등산길에 애교 받는 명승지이다. (『인제군사』)

九仙臺는 七音臺를 지나서 칠음대와 같이 두터운 골짜기들이 아홉 번이나 곤두박질하면서 큰 반석 위로 흐른다. 물이 흐르면서 온갖 묘기를 배출하니 그 모양이 흥미진진하다. 한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이나 물이 곤두

박질하면서 세차게 흐르니 부딪치는 물의 그 모양이 흡사 춤추는 듯하다. 누구나 다 공통으로 보고 느끼는 일이지만 황홀하기 그지없다. 집채 같은 물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부딪쳐 부서지고 다시 하나로 얽혀 뒥구는 모양은 저 유명한 中國의 九山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곳 雪嶽山 九仙臺물의 곡예는 그 어느 곳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물이 곡예라 함은 물이 떨어지고, 떨어진 물이 다시 튀겨 水煙을 일으켜 삼시간에 무지개를 수놓았다가 다시 사라지고 정말 水嬉(물놀이)에 시간을 앗길 줄 모르는 곳이 이곳인가 생각된다.

圓舞하는 물

旋舞하는 물

九轉하는 물

그야말로 물이 기뻐서 손뼉치고 춤을 추는 舞忬(무변, 춤추고 기뻐함)이란 말이 이곳의 물을 두고 생겼다는 느낌이 든다.(『양주지』)

구유소(槽湫)

큰 바위의 斷崖 밑으로 흐르고 떨어지는 물은 마치 말구유와 같다 하여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이 말구유에 天馬를 먹였다고 한다. 이곳 단풍의 풍경은 너무나 좋으며 哀史도 담겨 있다.(『양주지』)

대승령(大勝嶺)

해발 1,210m나 되는 이 영은 대승폭(大勝瀑)에서 북쪽으로 소계곡을 왼쪽으로 끼고 참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뚫고 한 시간 쯤 가면 설악산 서북 능선에서 유일한 영이 되는 갈림길이 있고 십이선녀탕(十二仙女湯)쪽에서 오는 길과 서북 주능으로 가는 길 그리고 대승곡(大勝谷) 즉 흑선동계곡(黑仙洞溪谷) 길을 따라 백담사(百潭寺)나 영시암(永矢庵)터가 있는 수렴동(水簾洞)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 영은 장수대(將帥臺)가 위치하고 있는 한계리(寒溪里) 자양전(紫陽田) 쪽에서 내설악으로 가는 첫 능선고개로 대승곡(大勝谷)에는 구유소(조추(槽湫))가 있으며 또한 주변에는 각종 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한편 기암괴석(奇巖怪石)과 노송 고목이 점철한 산골짜기로 둘러있기 때

문에 자연풍경이 명미(明媚)하여 일구의 경관을 이루고 있어 심산유곡의 느낌을 준다.

가을에 단풍바다 위로 구름다리 건너는 아슬아슬한 맛은 초보 등산객들은 하늘 가린 험준한 산세에 넋을 잃는다.(『인제군사』)

높이 1,210m의 봉우리인데 鞍山인 길마산의稜線에 있는 嶺마루이다. 大勝골 흑서계곡을 따라 百潭寺로 나갈 수도 있다. 능선에는 深山幽谷이 되어 풍경도 아름답다.(『양주지』)

대승폭포(大勝瀑布)

1969년 1월 21일 관광지로 지정된 북면 한계 3리에 소재하고 있는 이 폭포는 장수대 주차장에서 남북쪽 소로로 1km 떨어진 성곡(城谷)에 있다.

면적 20평이나 되는 이 폭포는 신라 제56대 경순왕(敬順王, 927~935)의 피서지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九龍瀑布)와 개성의 박연폭포(朴淵瀑布)와 함께 우리나라 삼대폭포의 하나이다. 세간에서 폭포를 운위(云謂)할 때 누구든지 먼저 금강산 구룡연(九龍淵)이나 개성의 박연폭포를 내세우지마는 실제 답사하니 이 두 폭포보다도 대승폭이 거의 갑절이나 더 크다.

『동국여지승람』 인제현에 동 50리에 한계산(寒溪山): 설악전면에 있고 산 위에 성이 있으며 천(川)이 성중에서 유출하다가 곧 폭포가 되어 수백 척을 내려 펴세 바라보던 백룡이 하늘에서 내려 뺨은 것 같다고 하였다. 곧 여지승람은 조선최초의 통일지지(統一地誌)로서 대승폭이 조선지지(朝鮮地誌)에 실린 것도 이미 이것이 교시가 될 것이다.

높이가 88m나 되는 폭포의 떨어지는 붉은 바위의 벼랑에 수십 개의 물기둥 물줄기의 장관을 직시하고 노산 이은상(李殷相, 1903~1982)은 “과연 만장 대승폭이 천심에 허락하는 신비한 대광경을 대안암상(對岸岩上)에서 건너다보는 때에 그대로 광희(狂喜)에 몸과 마음을 둘 곳을 모릅니다. 더구나 이 대승폭(大勝瀑)의 기우특관(奇又特觀)이라 할 것은 지금 저 아침 햇볕에 반사되어 생긴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같이 보려고 일부러 오전에 이곳을 찾기로 한 것이어니와 위약(違約)없이 그

大勝瀑布 대승폭포

천상의 절경, 하늘의 은하수 여기 내리다

어!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보다 더한 경치 없다고 대승(大勝)이라 했어라,
그 절경 가히 하늘의 은하수에 견주니 구천은하(九天銀河)라?
폭포의 비단물살은 아침햇살에 고운 무지개를 수놓네,

그림 2 대승폭포 관광안내판 예

무지개 여기서 춤을 추어줍니다. 지금 저 폭포 긴 줄기의 한 중간쯤에 바람에 날리는 수연을 따라 상하 좌우로 요동하는 채홍의 신비경은 무어라 전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설악행각에 밝혔다.

이 폭포의 대안의 반석 위에는 조선시대에 풍류를 즐기며 명필로 유명한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글씨라고 전해오고 있는 “구천은하(九天銀河)”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대승폭의 칠홍색 무지개는 설악산 팔경의 하나로서 손꼽혀 시인과 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읊으며 그림도 그렸다.

대승폭의 고시조로 조선시대에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1653~1722) 소유 권상용(小遊 權相容: 雪嶽內記 1829) 여류시인 금원여사(錦園女史, 1817~1851?, 호동서락기), 그리고 현대시조로 노산 선생이 읊었으니 웅장한 그 풍경은 천하선경으로 탐방객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폭포 아래의 사중폭(四重瀑, 일명 중간폭포)도 색다른 멋을 풍겨준다.

설악의 어느 봉 어느 폭포가 장관 아닌 것이 있겠는가마는 내설악 폭포의 왕자는 대승폭(大勝瀑)이다.

이 대승은 “웅이신(雄而神)”이라고 순조 을축년(1829)에 된 권소유의 <용정 설악내기(用正雪嶽內記)>에 적혀 있고 현종 12년 신유(1861)에 작성한 황해도 출신인 고산자 김정호(金正浩, ?~1864)의 <대동여지도>에도 대승폭의 3자가 뚜렷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명국인 옥유정(玉維楨)은 일찍이 대승폭을 가보고 “...寒溪有萬丈大瀑昔壬辰將(한계유만장

대폭석임신장)…見之謂過廬山瀑布(견지위과노산폭포)…”(이중환의 『택리지』산수편)라 하여 노산폭포보다 훌륭하다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산수』에 항일투사인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은 조선 제일의 대승폭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특히 사중폭(四重瀑)의 한쪽 보통이에 1964년 8월 6일 폭포에서 낙사(落死)한 경기 고등학교 산악 반원인 오영수(1948~1963)의 <벗 영수를 그림>이라하는 빗돌이 외로이 서 있어 찾아가는 관광객의 눈길을 끌게 하여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인제군사』)

현의 동쪽 50리에 있다. 산 위에 승암지(勝庵址)가 있고, 앞 산으로 물이 흘러 폭포를 이루어 높이가 수천 장으로, 바라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까지 늘어진 것 같다. 그 위에 올라가서 높이를 재고자 줄을 내리면 2,020척이다.(『국역 관동지』)

관아의 동쪽 50리에 있다. 산 위에 대승암(大勝菴)의 옛터가 있고, 앞산의 샘물이 흘러 저절로 수천 척(尺) 높이의 폭포를 이룬다. 바라보면 마치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워진 듯하다. 그 위에 올라 줄자를 아래로 늘어뜨리면 2천 20척이다. 원통역(元通驛)에서 동쪽 골짜기를 향해 들어가면 좌우로 높고 험한 바위산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맑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혀 있다. 골짜기는 그윽하고 깊으니 여름에 접어들어도 눈이 남아 있고, 가을도 되기 전에 서리가 먼저 내린다.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은 거침없이 이리저리 흐르는데, 물을 건너는 곳이 36곳이다. 가운데에 작은 길이 있는데 겨우 걸어서 통행할 수 있으며 양양부(襄陽府)에 이르는 길이다. 수목이 울창하고 뽕뽕하여 가지가 축축 늘어진 소나무 잣나무가 바위절벽 사이에 저절로 나서 자란다. 골짜기에서는 산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폭포의 남쪽 바위 위에 네댓 개의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 높이 솟아 있는데 그 높이가 천 길이며, 괴상하고 기이한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다. 날짐승이 쓸쓸히 날고 곰과 호랑이도 자취를 감추니,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아래에 이르면 무너져 깔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 아래에 맑은 시냇물이 있는데 바위에 닿으면 물을 뿜는 듯 날리며 더러 연못을 이루기도 한다. 너럭바위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다. 또한 동쪽으로 몇 리를 가면 골짜기 어귀가 매우 좁아져 작은 길이 절벽을 따라 나있다.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듯 골짜기가 탁 트여있는데 여러 차례 층층바위를 이루니 참으로 기이한 볼거리라 하겠다.(『여지도서』)

우리나라 三大 폭포의 하나이다. 대승폭의 떨어지는 물줄기의 장관이야말로 그저 황홀하고 壯嚴하게 느껴질 뿐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다. 수백 척이나 되는 꼭대기에서 물이 내리 쏟아지면 그 물에 햇볕이 반사된다. 이때 水煙이 생기는 무지개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대승폭의 七色 무지개는 雪嶽山의 八景의 하나로서 손꼽힌다. 彩虹의 신비는 천하에 자랑할 만한 것이다. 詩人墨客들이 찾아와 詩를 읊으며 그림도 그린다.

평생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라는 錦周女史[錦園女史인듯?]는 大勝瀑을 보고 “칠봉우리 치솟아 하늘에 끼어 있고 가벼운 안개 걷히니 그림이 아니로다. 이 좋은 雪山의 奇異한 절경이며 대승폭포는 큰 집 보다도 더 낫구나.”(千峰突兀插天餘經霞初收畫不如好是雪山奇絕處大勝瀑布勝匡廡)라 하였다.

또 三淵의 詩에 寒溪瀑이라 하여 그 장엄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見山必其峻 見水必其瀑 危哉寒溪瀑 起自萬大壁 壁高不着水 蒼蒼竟一石 余沫久徘徊 颯颯吹楓栢 楓梧結陰深 不可窺中谷 西峰日既隱 東台坐不得 將以向上源 夜爲招提宿”

이같이 대승폭은 雄壯하고 그 風景은 天下仙境이다.(『양주지』)

도적폭포(盜賊瀑布)

도적소(盜賊沼)라고도 한다. 북면 용대3리 진부령과 미시령 갈림길에서 미시령 방향으로 3km쯤 가서 우측 벼랑 아래 소재하고 있다. 미시령 정상에서는 인제방향으로 1.5km 거리가 된다. 옛적 도보로 미시령을 넘어 다니던 시절 이곳에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길손들의 재물을 빼앗은 뒤 폭포 밑에 있는 소(沼)에 빠트려 죽였다는 전설이 있고, 이름도 도적폭포, 도적소라 한다.

사방이 산으로 가리워져 있고, 아무리 가물어도 유수량(流水量)이 많아 가족 단위 피서지로 적합한 장소다.(『인제군사』)

두문탕(杜門湯)

옥녀탕의 맨 위 용탕에서 얼마간 올라가면 개울이 있고 그 계곡에서 다시 보행하면 긴 폭포가 나타난다.

두문곡(杜門谷)에 위치한데 연유하여 두문폭포(杜門瀑布)라고도 부른다.

별로 특징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가을에 새빨갳고 노란 단풍으로 성장(盛裝)한 때 이곳을 지나가면 다시 개울가에 잡목이 울창하여 승경(勝景)을 이루고 있다.(『인제군사』)

옥선녀탕의 맨 위 龍湫에서 얼마간 올라가면 개울이 있고, 그 계곡에서 다시 가면 긴 폭포가 나타난다. 杜門골짜기에 있으니 두문폭포라고 부른다. 별로 특징은 없으나 이곳을 지나가면 개울가에 잡목이 우거져 勝景을 이루고 있다.(『양주지』)

마등령(馬登嶺)

내설악과 외설악을 연결하는 태백산(太白山)의 지맥으로 높이 1,327m의 준령이다.

설악산의 절경을 신흥사(神興寺)서부터 오세암(五歲庵)까지 뚫으며 험한 영마루를 타고 넘는 이 길은 진부령(陳富嶺)과 대관령(大關嶺)이 열리기 전에는 동해지방과 한양을 잇는 유일한 교통로였다. 당시는 지금의 신흥사에서 와선대(臥仙臺) 조금 못 미쳐 산등성이를 타고 오세암으로 해서 북면(北面) 원통리(元通里)로 빠졌다.

그때는 이 길이 하도 험해 산적이 우글거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기슭 주막에 진을 치고 앉아 집단을 만들어 이 길을 넘었다고 한다. 지금은 신흥사에서 와선대 중간 지점에 산적이 망을 보던 ‘망바위’가 울창한 수목 속에 우뚝 솟아 있다. 이 바위에 올라서면 설악산의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다.

1964년 8월에 한국산악회와 일본대학생 등반대가 비선대(飛仙臺)로 해서 마등령을 오르는 길을 새로 개척했다.

한 사람도 겨우 빠질만한 금강문(金剛門)을 지나 마등령 등마루에 오르

면 설악의 웅봉(雄蜂) 대청봉과 키를 재려 덤빈다.

10월의 내설악 승경 속에 속리의 절터로 시인 묵객의 명단인 오세암이 아슬히 숲속에 가렸다. 멀리 인제벌에서 누런 황금 가을이 몰려올 듯하다. 그 가을은 이제 동해로 가다가 영마루에 걸릴 것이다. 그것은 서서히 산마루를 태우며 기슭으로 내려가 온 산에 불을 집힐 것이다. 그러면 설악은 심한 가을에 취해 버릴 것이다.

정상에 오르면 서쪽으로 내설악일대와 동쪽으로 동해 그리고 남쪽으로 외설악의 남성적인 기암절벽의 절경을 한 눈에 굽어볼 수 있어 매우 장관이다.

마등령(馬登嶺)이라 함은 영이 말등 같다는데 연유해서 ‘말등’이 ‘馬登’으로 되었다고 한다.

산과 봉이 무수히 있고 황금물결치는 가을 단풍이 황홀히 빛의 세계를 이룩할 때면 공룡릉(恐龍陵)이라고 부르는 청봉에서 마등령까지를 바라보는 주위의 절경은 어디서 본듯한 협곡들 그 계곡에 담긴 녹색음으로 빨리 오는 인파의 모습은 이루 헤아릴 도리가 없다.(『인제군사』)

마장터

인제 용대리와 고성 문암리로 넘어가는 설악산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소간령을 지나 조금만 더 대간령 쪽으로 걸어가면 나온다. 현재 이곳에는 가옥이 6채 있으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두 집이다. 그 중에 한 집만 72세 된 정준기 노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속초에 가족들이 있다. 이곳 가옥 중에 3채는 전통적인 산간가옥으로 지붕에는 새를 이었으며, 나무를 활용해서 토막집을 지었다. 통나무 사이에는 진흙을 발라서 마무리를 하였다. 6.25한국전쟁이 끝나 수복 후에 화전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지어진 집이라 한다. 원래 이곳에는 말과 사람들이 넘어 다니면서 말을 매쉬게 했다고 해서 마장터라 하기도 하며, 영동과 영서의 물건을 팔고 사는 장이 서서 마장터라 하기도 한다. 고성에서는 어염을 지고 오고, 인제에서는 잡곡을 지고 가서 물물교환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녔는지, 마장터 입구에는 양조장이 있었다고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양조장이 아니라 주막이 있어서 술도 팔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화전민들은 이곳에서 토막집을 짓고는 산에 불을 놓아 농사를 지었다. 화전

민은 국가에서 화전민정리를 할 때 모두 이곳을 떠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37년 전에 들어와서 약초를 캐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약 20년 전에는 용대리 사람들이 마장터에 땅을 개간해서 무와 당근을 심어서 군용트럭으로 날라 팔았다. 그때는 마장터까지 트럭이 다녔다.

만경대(萬景臺)

북면 용대리와 한계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며 청산에는 낙락장송이 천고부월(千古斧鉞)을 보지 못한 고송군(古松群)으로 오래전부터 그 경색(景色)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으로 망만경대(望萬景臺)라고도 표기하는데 설악의 경관 중 몇 째로 손꼽히며 망경대(望景臺)라고도 표현한다.

그 웅장함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 암각의 장엄한 모습은 두 말 없이 남성미가 아닐 수 없다.

매우 높은 그 꼭대기에 오르면 여러 봉우리가 천만년 간 침식되고 양단되어 연결되어 있는 사면을 신기한 심정으로 자꾸 내려다보면 만경대의 모습은 밑바닥에서부터 흔든다. 멀리 동해의 창파가 넘실거리는 장관과 함께 한 눈 아래에 보이는 그 절승을 이루는 묘경(妙景)이 전개되는 곳이 기 때문이다.

봄이 오면 산화의 향기가 골짜기를 메우고 여름이 오면 녹음방초(綠陰芳草)에 선미(鮮味)를 맛본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단풍의 붉은 물결이 홍해를 이루고 겨울의 개화설경이 또한 가경이며 만경대는 문자 그대로 설악의 온갖 경색을 한 몸에 지닌 곳이기도 하다.

노산 선생도 산대위에서 <만경대(萬景臺)>시 한 편을 남겼다.(『인제군사』)

만경대는 하나의 돌 봉우리이다. 가장 앞에 있는 돌 절벽이 끊어져 있는데 아래로 내려다봐도 땅이 안 보인다. 위에는 다시 가파르게 솟아 있어 겨우 한 사람만 앉을 만하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만해기념관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3리. 1997년 11월 9일 건립. 인제군 북면 용대3리 백담사에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본부”만해 기념관이 건립되면서 만해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만해 한용운은 선사가 불교 유신론을 쓰고 민족시집 『님의 침묵』을 창작한 백담사는 1997년 11월 만해 기념관 만해당, 만해 연구원 등이 완공되면서 겨울 동안 1만여 명의 탐배객들이 찾는 등 역사 기행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만해 기념관은 만해의 출가 및 수행, 3·1운동 옥중 투쟁과 계몽활동, 문학활동, 신간회활동을 분야별로 담고 있고, 유품으로는 육필원고, 저서, 초간본, 문학세계 사상을 보감한 각종논문·평전 등 8백여 점이 전시돼 있다.(『인제군 유적·지명·전설』)

만해 한용운 시비(萬海 韓龍雲 詩碑)

인제군 북면 용대3리 백담사 경내에 1991년 6월 29일에 세워졌다.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이 입산 출가하여 득도(1905)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 사찰에 머무는 동안 만해 선사는 <님의 침묵>과 <불교유신론>을 집필하였으며 선사가 머무르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내설악 깊은 골짜기에 묻어두고 있었던 역사의 산실에 초석을 놓아 길을 가는 모든 나그네들과 함께 그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 보고 그의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고자 선사를 아끼는 ‘한국불교 푸른 마음회’에서 정성을 모아 돌을 깎고 글자를 새겼다.

비 앞면에는 <나룻배와 행인> 전문을 새겨 넣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뒷면에는 <오도송(悟道頌)>을 새겨 놓았다.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男兒到處是故鄉 사나이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거늘
幾人長在客愁中 그 누가 오랫동안 객수에 젖었는가
一聲喝破三千界 한 소리 큰 할에 삼천세계를 타파하니
雪裏桃花片片飛 눈 속에 도화가 조각조각 나는구나
韓龍雲(『인제군사』)

망바위

설악산에서 도적들이 망을 보던 바위이다. 신흥사에서 마등령을 넘어오는 길목에 있다.

매바위

용대3리에 있는 큰 바위이다. 바위의 모양이 하늘을 나는 매(鷹)를 닮아서 매바위라 부른다. 밤에 미시령 쪽에서 보면 영락없는 매의 얼굴이다. 이 바위에는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볼 수 있고, 겨울이면 멋진 빙벽을 볼 수 있다. 용대3리의 명소가 되었다.

마을에서는 매바위에 아이언웨이를 설치해서 일반인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014년 현재 2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코스는 3만5천원, 2코스는 4만5천원을 체험비로 받고 있다. 전문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지도를 하므로 큰 위험은 없다. 절벽으로 설치해 놓은 쇠파이프를 밟

고 올라가서 뒤쪽으로 하산을 한다.

백담계곡(百潭溪谷)

천왕문 왼쪽에 위치한 가야동계곡(伽倻洞溪谷)과 구곡담계곡(九曲潭溪谷)을 흘러내리는 물은 합쳐져 큰 내를 이루어 백담사 앞을 걸쳐 외가평(外加坪)으로 흘러내린다.

이 계곡을 백담계곡이라 부르는데 계수는 태고 그대로 티 하나 없는 명경지수일(明鏡之水一). 여름이면 수만 인이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씻고 간다.



그림 3 백담계곡

경박한 놀이꾼들도 태고의 고요와 풍치에 그만 기 높은 풍류객이 되고 만다.

특히 하천변은 그대로 선경인데 그 위에 만화(萬花)가 피어 설악산 정 먼 모습이 한결 다듬어진다. 하천변으로 암반과 옥 같은 자갈이 깔려 있는데다가 잡목림(雜木林)이 울창하여 청청한 물소리에 귀가 척척이

젓어 오니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놀이터로 적지이다.

계곡에는 희유한 냉수성어족인 열목어(熱目魚)가 서식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면 상류로 올라가고 겨울철이면 하류로 이동하므로 그 활동상을 규시(窺視)하기 어렵다.

인자스럽고 점잖은 백담계곡도 붉게 타면 가을단풍이 시들기가 무섭게 돌변하여 거센 강풍이 휘몰아쳐 와선 아름답리 설화와 빙수(氷樹)를 넘어 뜨리고 마구 눈을 펴 붙는 설경 등 전망이 좋아서 계곡을 등림(登臨)하는 등산객들의 심금을 상쾌하게 하여 발걸음이 끊일 날이 없다.(『인제군사』)

백담사(百潭寺)

북면 용대2리에 있는 백담사는 원래 건봉사(乾鳳寺)의 말사(末寺, 1912)로서 용대리 가평(加平)에서 소로로 동남간 약 8km나 되는 내설악

의 조용히 흐르는 냇가를 앞으로 하고 산기슭에 아득히 자리 잡고 있는 설악산의 주찰(主刹)이다.

신라 제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647)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장경(藏經)을 전하고 율종(律宗)을 창건한 당시에 한계리에 한계사(寒溪寺)로 창건된 고찰이다. 전설이 분명치는 않으나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후에 불교가 국가를 가호(加護)하던 성교(聖敎)로서 터전을 닦게 된 것이라 한다.

이 절은 많은 변동이 있는 절로 신문왕(神文王) 10년(690)에 소실되고 성덕왕(聖德王) 18년(719)에 중건하였다. 또 원성왕(元聖王) 원년(785)에 소실되자 원성왕(元聖王) 6년(790) 사승(寺僧), 종연(宗演), 각동(覺洞), 영희(靈熙), 광학(廣學), 설흡(雪洽), 법찰(法察)이 이곳을 떠나 30리 지점에 절을 세워 운흥사(雲興寺)라 개칭하였으며 그 옛터가 연현(淵峴)에 있다.

운흥사(雲興寺)도 고려 성종(成宗) 3년(984)에 변으로 인하여 회신되고 성종 6년(987)에 동훈(洞薰), 준희(俊熙) 등이 옛터 북쪽 60리 지점에 심원사(深源寺)를 세웠다.

이 절이 세종(世宗) 13년(1431) 소실되자 동왕(同王) 15년(1433)에 해지(海遲) 등이 30리 지점에 선귀사(旋龜寺)를 세웠다. 그 후 9년이 지나 소실되자 4년만에 서쪽 1리에 영취사(靈鷲寺, 1447)를 세웠다. 그 후 세조(世祖) 2년(1456)에 재차 재화를 입고 그 이듬해 1457년 재익(載益), 재화(載和), 신열(愼悅) 등이 20리 지점에 절을 세워 백담사(百潭寺)로 개칭하였다.

이 절도 수차에 걸친 개명과 폐찰중건의 곡절을 겪다가 영조(英祖) 48년(1772)에 또 소실되자 3년이 지난 영조(英祖) 51년(1775) 최봉(最鵬), 태현(太賢) 등의 힘으로 절을 세우고 심원사(尋源寺)라 하였다. 그러나 정조(正祖) 7년(1783)에 다시 백담사(百潭寺)라고 개칭하여 역사를 되풀이한 이 사찰은 1912년 고성군 향로봉(香爐峯) 기슭에 위치한 거찰인 건봉사(乾奉寺)의 말사(末寺)로 된 후 1915년에 또 소실되자 1921년에 인공선사(印空禪師)가 세웠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다시 소실되자 1957년에 재건 후 현재에 이르는 등 역사적 흥망성쇠의 곡절이 많다.

사보(寺寶)로는 자장율사의 유물소종일좌(遺物小鐘一坐)와 인조(仁祖)

때 1632년 설정대사(雪淨大師)에게 하사한 칠층소형옥탑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목조(木造) 아미타불좌상과 부복장유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3.1운동 때 33인 중의 한 분으로 민족시인이며 불교계의 선구자이신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선사가 머리를 깎고 수도한 곳인 동시에 최근에는 제6공화국 전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으로 영욕(榮辱)을 함께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또한 백담사와 인연이 많았던 인물로는 보우대사(普雨大師)가 있는데 그에 얽힌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 부기해 둔다.

보우대사는 호가 허응(虛應) 또는 나암(懶庵)이며 금강산(金剛山)에서 승이 되어 백담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인 1550년 12월 강원감사(江原監事) 추천으로 문정왕후윤씨(文定王后尹氏)를 만나서 선·교의 양종과 승과도승법(度僧法, 승이 되는 수속)을 회복하고 불교를 중흥하러 역전한 스님이다.

보우(普雨)는 너무나 잘 낚고 정치적 수완도 능하여 왕후와 임금을 심복케 하였으므로 유생과 유신의 적대인물이 되었으며 그에 위협을 느낀 중앙과 지방의 유생들로부터 수다한 모략을 받았다.

명종(明宗) 6년(1551) 6월 판선종동부대선사(判禪宗東部大禪師)가 되어 봉은사주지(奉恩寺住持)가 되었고 1562년에는 도대선관교(都大禪官敎)를 부득이 면직당했는데 그 해가 1565년 4월 중종(中宗)이 승하한 해이다.

임금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보우이나 유생 측으로부터 보우가 시역(弒逆, 임금을 죽이는 일)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등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437통의 상소가 있어 부득이 제주도(濟州道)로 유배 시켰다. 제주도에 유배되자 전부터 앙심을 갖고 있던 과천군수(果川郡守)를 걸쳐 제주목사로 간 변협(邊協)이 갖은 수단으로 역사(力士)를 시켜 장살하였다고 하나 명목 없이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전에 역설한 만큼 필경은 죽음을 보이러 순살(殉殺)한 것이었다.

요사이 백담사는 1993년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기 위한 시비(詩碑)가 세워져 관심을 끌고 있으며 대규모 증축 공사가 전개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 되었다.(『인제군사』)

북면 용대리 설악산에 있다. 신라 진덕왕(眞德王) 정미년(丁未年)에 자

장법사(慈藏法師)가 창건하여 한계사(寒溪寺)라 칭하고 미타상(彌陀像) 삼위(三位)를 봉안하였다. 신무왕(神武王) 경인년(庚寅年)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경오년(庚午年)에 승려 종연(宗演)·광학(廣學)·각사(覺詞)·영희(靈熙)·법찰(法察)·설흡(雪洽) 등이 서로 도모하여 옛 터의 북쪽에 중건하고 운흥사(雲興寺)로 개칭하였다. 고려 성종(成宗) 갑신년(甲申年)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사승(寺僧) 동훈(洞薰)·준희(俊熙) 등이 서로 도모하여 옛 터의 북쪽에 이건하고 심원사(深源寺)로 개칭되었다. 조선 세종(世宗) 임자년(壬子年)에 화재로 소실되어 갑인년(甲寅年)에 사승 의준(儀俊)·해섬(海暹)·취웅(翠雄)·신열(愼悅)·재익(載益)·재화(載和) 등이 서로 도모하여 옛 터의 아래에 중건하고 선귀사(旋歸寺)로 개칭하였다. 계해년(癸亥年)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정묘년(丁卯年)에 옛 터의 서쪽에 이건하고 영취사(靈鷲寺)로 개칭하였다. 세조(世祖) 병자년(丙子年)에 화재로 소실되어 정축년(丁丑年)에 사승 재화(載和)·신열(愼悅) 등이 옛터에 이건하고 백담사(百潭寺)로 개칭하였다. 선조(宣祖) 임진년(壬辰年)에 화재로 소실되어 을미년(乙未年)에 사승 최봉(最鵬)·대현(大賢)·태수(太守) 등이 서로 도모하여 중건하고 다시 심원사(沈源寺)로 칭하였다가 정조(正祖) 계묘년(癸卯年)에 다시 백담사로 칭하였다.(『국역 강원도지』)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부 복장유물(百潭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附 腹藏遺物)

보물 제1182호로 지정된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부 복장유물은 1993년 11월 5일에 지정되었으며 인제군 북면 용대2리 백담사 소유로 백담사 극락보전안에 주불(主佛)로 봉안되어 있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목재(木材)로 두 손은 시무외, 여원인에 엄지와 중지 사이에 맞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이고, 두 발은 결가부좌형(結跏趺坐形)이며 높이는 87cm, 머리 높이는 30.6cm, 어깨너비 42cm, 무릎너비 65cm이다. 머리에는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큼직하게 솟아 있고 몸과 머리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나발(螺髮)이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둥글고 단아하여 당시의 사가형적이고 평탄적인 얼굴보다 우수한 편이다.

또 한 눈이 가늘고 입이 작으며 코가 돌출하여 독특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체는 가슴이 넓고 어깨가 둥글어 당당한 인상을 주지만 다소 평판적인 것은 당시의 특징을 따른 것이며, 하체의 얹아있는 형태는 넓고 큼직하여 상체와 조화를 이루는데 이러한 특징은 당시의 목불상 가운데 대표작임을 알려주고 있다. 통견(通肩)의 법의(法衣)는 두꺼운 편인데, 옷주름이 돌출하고 어깨의 Ω형 주름과 무릎사이의 주름들이 곡선적으로 처리된 점, 그리고 가슴은 U자형 중복 주름이나 가슴 내의 상단주름의 곡선적인 주름들은 조선초기의 특징이 내려 온 것으로 이 불상을 좀 더 돋보이게 한다.

이 불상의 제작연대는 조선 영조(英祖) 24년(1748)에 조성되었다. 또 복장유물(服裝遺物)로는 닥종이로 제작된 발원문(發願文)이 4매가 있고, 비단으로 제작된 만자소화문황단삼회장저고리(卍字小花紋黃緞三回裝赤古里) 1점과 유리와 수정 등의 파편 수백 점을 보자기에 싼 것으로 복장물로 대체한 것이 있다. 발원문의 종류는 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佛像新造成回向發願文), 타라니서입회향발원문(陀羅尼書入回向發願文), 황참의 다리연화방거 한글발원문, 자식점지 한글발원문이며 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은 크기가 177.5×39cm이며, 운마산(雲磨山) 보월사(寶月寺)에서 건륭(乾隆) 13(1748)년에 조성했다는 내용이며 보월사에서 이안(移安)했다고 한다.

만자소화(卍字小花) 무늬의 노란색 삼회장 저고리도 영조 14년(1748)에 만든 저고리로서 상태가 매우 아름답고 색상이 선명하며 바느질 상태가 고르다. 등 길이 37.6cm, 화장은 75cm, 품은 41cm, 저고리 깃은 만자소화문(卍字小花紋)을 한 노란색 호박단이고 깃과 결마기는 만자운룡문(卍字雲龍紋) 자색단이다. 끝동은 만자소화문(卍字小花紋) 자색단, 고름은 떨어져 없으나 고름이 달렸던 자리가 2.5cm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고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고름도 깃과 같은 자색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자문(卍字紋)은 길상만복(吉祥萬福)이 모두 모인다는 뜻이다.

이 만(卍)자는 사단(四端)에서 횡으로 선을 연장하여 만(卍)자를 서로 연결한 장각만자문(長脚卍字紋)으로 도안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 저고리의 만자문도 장각만자문(長脚卍字紋)이다. 이러한 장각만자문양은 만불도두(灣不到頭), 또는 부귀단두(富貴斷頭)라고도 한다. 그래서 장각만자문양은 무한한 행복을 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장각만자문은 소화문(小和紋)

을 섞어 사용되었거나 왕실과 행복을 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장각만자문은 소화문(小花紋)을 섞어 사용되었거나 왕실과 관계된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순화한 소화(小花)를 사용하여 도안하였다. 이 옷의 주인공은 깃과 곁마기의 만자운용문(卍字雲龍紋) 자색단으로 보아 궁중에서 사용되었거나 왕실과 관계된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저고리는 안전하게 보존된 점과 함께 당대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인제군사』)

백운동계곡(白雲洞溪谷)

수렴동계곡(水簾洞溪谷)에서 쌍폭에 이르기 전에 왼쪽편에 용아장성(龍牙長城)의 옥녀봉(玉女峰)과 칠형제봉(七兄弟峰)을 끼고 용담폭(龍潭瀑)이 있다.

이 용담(龍潭)에서 남쪽으로 귀떼기청봉이 있는 귀떼기골 한계령능선(寒溪嶺稜線)과 서부주릉(西部主稜)이 마주치는 골짜기를 백운동계곡이라고 한다.

곡백운(曲白雲), 직백운(直白雲), 제벽곡(祭壁谷) 등 세 갈래의 계류에는 이름 모를 담폭이 수없이 소재하고 있어 그야말로 신비의 계곡이다.

왼쪽 상류를 쌍폭동(雙瀑洞)이라고 하는데 손을 담그면 손가락부터 찬기가 아려오며 또한 길은 가팔아서 현기증이 나며 백운동계곡의 신비스런 비경은 또한 내설악의 심산유곡으로 이름이 높고 왼쪽 구곡담(九曲潭)과 어울려 심산(深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대자연의 관광지로서 다듬어지면 각광을 받을 날도 멀지 않다.(『인제군사』)

백운동은 이름만 들어도 白雲이 하늘 높이 감도는 골짜기인 것 같다. 이 白雲洞에는 수렴동골짜기에서 雙瀑에 도착하기 전에 좌편에 龍牙長城의 連峰이 있고 그 連峰 가운데 玉女峰과 七兄弟峰이 있다. 칠형제봉을 끼고 龍潭瀑布에서 다시 남쪽으로 귀떼기청봉에 있는 귀떼기골의 寒溪능선과 서로 부딪치는 계곡을 白雲인 曲白雲이라 하고, 왼쪽을 直白雲이라고 부른다. 더욱 끝은 祭壇谷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소리가 요란하고 물줄기는 좌충우돌하면서 흐른다. 첫 번째가 龍孫瀑 그 위도 龍兒瀑이 있고 또 나아가면 雙龍瀑이 있다.(『양주지』)

백운암(白雲菴)

한계사의 동쪽 40리에 있다. 사방에 아름다운 봉우리가 담장처럼 둘러서 있다. 다니는 길이 험준하여 사람의 자취가 거의 이르지 않는다. 지금은 옛 터만 있다.(『여지도서』)

봉정(鳳頂)

봉정은 설악산의 가장 높은 곳이다. 폐문암을 거쳐 5리를 가면 빙호동 입구에 이른다. 시내를 두고 남쪽으로 가면 봉정으로 가는 길이다. 어두컴컴하여 길을 잃기 쉬워 중들이 돌을 쌓아 표시해 두었다. 대장암에 이르면 바위가 겹겹이 쌓여 있어 불경을 쌓아 둔 것 같다. 수백 보를 오르면 큰 바다가 눈 앞에 가득 펼쳐지고 여러 산들이 모두 허리 아래에 있다. 절벽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우뚝 솟은 탑이 있고 바위가 가부좌를 틀고 있는 듯한 것이 무릇 3개인데, 그 북쪽 틈으로 땅이 점점 평평해지니 이곳이 탑대라고 불리는 곳이다.

동쪽으로 수백 보를 내려오면 암자가 있는데 여러 산들을 등지고 있어 마치 신이 호위하는 듯 엄숙하다. 봉우리 하나가 특히 암자에 임해 있는데 마치 봉황이 뿔을 드리운 것 같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여 암자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봉정골의 구곡담(鳳頂골의 九曲潭)

九曲潭은 雙龍瀑 가운데 왼편에 있는 것을 女瀑 즉 암瀑이라 한다. 이곳은 鳳頂庵골에 흐르는 물이니 첫째의潭은 方圓瀑이라 하여 웅장하다. 九曲潭이면 아홉의瀑이 있어야 하나 方圓瀑 이외는 명칭이 없고 그저 多瀑하다고 할 수 있다. 왼편에 보이는 바위를 獅子岩이라 한다. 수천년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모두가 猛獸像의 자태라고 하여도 과연 아니다. 오른편으로 눈을 돌리면 큰 돌의 계단이 보인다. 이것을 百段臺라고 부른다. 이臺에 올라서면 천년 묵은 찻가 끼어 발디딜 곳이 없다. 신비의 深山幽谷은 妙景이고, 山色은 淸淨하여 금수강산이라 할 것이다.

(『양주지』)

봉정암(鳳頂庵)

북면 용대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악산의 대소사암 중 제일 먼저 창건한 백담사 부속암자로서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12년(643)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입당하여 세존사리(世尊舍利)를 얻어 와서 오층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고 하는데 이 석탑은 암자 서측 석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암자는 전국불교사찰 및 암자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암자에는 고승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다녀가고 고종 때 명승 보조국사(普照國師)가 고종 13년(1226)에 중수하고 이어 조선 중종 13년(1518)에 환적(幻寂)스님이 다시 중수하고 8.15전에 춘계(春溪)스님이 주지로 있었다. 특히 이 암자는 산세가 기고만장하고 괴암기봉이 병풍처럼 암자를 둘러싸고 있어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 암자의 오른쪽 쪽 동측에 솟아있는 봉(峰) 기린봉(麒麟峰), 할미봉, 범바위이고 뒤편 왼쪽의 봉이 독성나한봉(獨聖羅漢峰), 지장봉(地藏峰), 가엽봉(迦葉峰), 아난(阿難) 등으로 이름이 있다.

『양양향토지(襄陽鄉土誌)』(1976)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봉정암(鳳頂庵) 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구름밖에 봉(峰)이요 봉(峰)밖에 하늘이라

아마도 설악장관(雪嶽壯觀)은 여기뿐인가 하노라.”(『인제군사』)

新羅 善德女王 12년(643)癸卯에 명승 慈藏律師가 唐나라에서 돌아와 창건한 것이다. 雪嶽山에 가장 오래된 佛寺이다. 암자를 지을 때 서쪽 石臺 위에 釋迦世尊의 사리를 봉안하며 七層塔을 세웠다. 그 후 高僧 元曉大師가 다녀가고 명승 普照國師가 高宗13년(1226)에 重修하였다. 그 후 仁祖10년(1632)에 雪淨스님이 다시 重修하고 幻空, 睡山스님도 차례로 중수하였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는 春溪스님이 주지로 있었다. 이 암자는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다. 산세가 기고만장하고 기암기봉이 병풍처럼 암자를 둘러싸고 있어 한 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 巨巖 중에서는 聖者로 보이는 峰을 석가봉이라 한다. 또는 수십 척의 높이

므로 성장봉이라 할만하다. 암자의 오른쪽 동쪽에 솟아 있는 峰이 기린봉, 할미봉, 범바위이고 뒤편 왼쪽의 봉이 獨聖羅漢峰, 地藏峰, 迦葉峰, 阿難峰 등으로 이름이 있다.(『양주지』)

백담사 산내에 있다. 신라 선덕왕 갑진년(甲辰年)에 자장법사가 창건하고 5층탑을 세워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하였다. 원효대사가 중수하였다. 봉정암의 건립이 백담사보다 앞선다.(『국역 강원도지』)

인제군 북면 용대2리에 소재하며,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건립하였다.

봉정암 암자는 백담사의 속암자로서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입당하여 세존사리를 얻어와 5층 석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고 하며, 설악산의 대소사 암중 제일 먼저 창건되었고 또한 전국 불교사찰 및 암자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신라시대의 불교문화가 번창함에 명승이 전국 요지에 사찰과 암자를 설립하므로 속세에서 떠나 깊은 산의 사찰과 암자를 찾아 수도를 하는 세인이 많아졌으며 봉정암에도 고승 원효대사가 다녀갔다. 그 후 고종 때 명승 보조국사가 고종 13년(1226)에 중수하였고, 조선 중종 13년(1518)에 유적스님이 재중수하였다. 그후 인조 10년(1663)에 설정스님이 다시 중수하고 8.15에 춘계스님이 주지로 있었다.

이 암자는 산세가 좋고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암자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경관 또한 어디에 비할 바가 없다. 시조작가 노산 이은상은 봉정암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음영하였다.

깊은밤 이 산골에 들리는 저 물소리
구구절절 기묘한 진리로다
인간에 기똥설법은 모두 헛것이였다
물소리 마음 속을 긴골 이뤄 흐르나니
밝으신 달마저 마음위에 비쳤나니
이대로 지녀 돌아가 고이고이 잠들리라(『인제군 유적·지명·전설』)

봉정암 석가사리탑(鳳頂庵 釋迦舍利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31호로 지정된 봉정암 석가사리탑은 1971년 12월 16일에 지정되었다. 북면 용대리 산 76번지에 위치하였으며 백담사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설악산의 크고 작은 사암(寺庵) 중 제일 먼저 창건한 봉정암은 백담사의 속암자(屬庵子)로서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입당하여 세존사리(世尊舍利)를 얻어와서 5층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고 한다. 이 석탑은 암자의 서쪽 석대상(石臺上)에 있다. 또 봉정암은 전국 불교 사찰 및 암자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명하다.

탑(塔)의 모양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함 균형미가 돋보여 지방문화재라기보다는 국보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인제군사』)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리 76. 지정일: 1971년 12월 16일. 지정번호: 도 유형문화재 31호.

산자수려한 내설악 용대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악산의 대소암자 중 제일 먼저 창건한 백담사 귀속 암자인 봉정암 서측 석대상에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입당하여 세존사리를 얻어 와서 5층 석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고 한다.

이곳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산을 찾는 등산객이 줄을 잇다시피 하고 있으며, 특히 이 5층 석탑 주위를 빙빙 돌면서 두 손을 합장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며 안녕과 소원성취의 소망을 빌면 뜻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이 넓은 석대 위에 세워진 것과 균형미가 일품이다.(『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사중폭(四重瀑)

大勝폭포로 가는 도중에 있는 작은 폭포로서 연속적인 四重으로 형성되었다. 여름철 물이 많으면 더욱 장관이며 첫 등산길의 애교 있는 폭포이다.(『양주지』)

삼선봉(三仙峰)

산골마을 壘阿隅(누아우) 쪽에 있는 큰 봉우리 3개를 말한다. 사람들은 장군봉이라고도 하고, 선인봉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三仙峰이라는 말이 옳은 것이다. 우뚝 솟은 부동의 자세는 세 선인이 우뚝 서 있는 것 같다. 이 三仙峰은 억만년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멀리서 바라보면 우뚝 서 있는 것 같다. 수려하게도 보이며 山野를 온순하게 부르고 있다. 평화로운 장부의 氣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다.(『양주지』)

삼연정사(三淵精舍)

삼연정사는 곧 영시암으로 절의 동쪽으로 몇 리 떨어져 있다. 직서루에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일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 금수의 모양과 비슷하다. 형태가 백천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색깔도 또한 깨끗하고 하얀데 곧 고명봉이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상승암(上勝庵)

한계사(寒溪寺)의 옛터 뒤 7리쯤에 있다. 소나무와 노송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촘촘히 나 있다. 남쪽으로는 부용봉(芙蓉峰)이 바라보이는데 하늘 높이 우뚝 선 형세가 마치 칼을 꽂아 놓은 듯하다. 동쪽으로는 사자대(獅子臺)·망폭대(望瀑臺)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옛 우물이 있는데 비할 데 없이 달고 차갑다.(『여지도서』)

상암(裳岩: 치마바위)

수렴동(水簾洞) 구곡담(九曲潭) 골짜기에 위치한 쌍룡폭(雙龍瀑 높이 70~150척) 맞은 편 벼랑으로 된 바위를 말한다.

바위 모양이 마치 치마를 두른 듯 한데 유래하여 불려진 것이며 여성 등산객이면 누구든지 경탄의 제일성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다.

노산 선생도 이곳을 찾아와 시 한 편을 음영하였으며 상암의 묘경을 수채화에 걸어 넣음직한 경색(景色)이며 형상은 언제나 아담하고 신비스럽기만 하다.(『인제군사』)

쌍룡폭(雙龍瀑)

쌍룡폭은 水簾洞 골짜기를 따라가면 永矢庵처를 지나간다. 왼쪽 골이 伽倻洞골, 오른쪽 골짜기가 수렴동 九曲潭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디딜방아 같이 Y자형으로 떨어지는 곳에 이름 높은 雙龍瀑이 나타난다. 흔히 雙瀑이라고도 부른다. 쌍폭 가운데, 오른쪽의 폭포는 150척이 되니 이것은 大靑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고, 왼쪽 편의 폭포는 높이 약 70척인데 봉적동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다. 건너편 높은 병풍같은 바위가 치마바위라고 하는 裳岩이다.(『양주지』)

쌍폭(雙瀑)

백담사에서 소로로 동쪽 12km지점인 북면 용대(龍垜)2리에 소재하고 있는 이 쌍폭은 백담사에서 3시간 용대(외가평)에서 보행으로 5시간이나 소요된다.

수렴동대피소(水簾洞待避所)에서 오른쪽 골짜기인 구곡담계곡(九曲潭溪谷)을 따라 8km(2시간소요) 올라가면 Y자형으로 낙하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쌍폭을 볼 수 있는데 흔히 쌍폭(Twin Waterfall)이라고 부르나 원래 이름은 쌍용폭(雙龍瀑)이다.

이 폭포는 진손목인 용손폭(龍孫瀑)과 용자폭(龍子瀑)을 거느리고 있는 봉정곡(鳳政谷)의 구곡담(九曲潭)과 청봉곡(靑峰谷) 십이폭(十二瀑)의 양계류가 합쳐지는 Y자형의 폭포이다.

우레와 같은 폭음과 진주 같은 물방울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관은 또한 내설악의 명승으로 그 이름이 높다.

건너편 높은 병풍 같은 바위가 치마바위라고 하는 상암(裳岩)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 봉정암(鳳政庵) 가는 가파른 길이 나온다. 청봉곡(靑峰谷) 십이폭의 쌍폭동(雙瀑洞)은 오른쪽에서 낙류하는 높이 50m여나 되는 폭포로서 남폭(南瀑) 웅폭(雄瀑)이라 부르고 봉정암 왼쪽 구곡담계곡(九曲潭溪谷)을 낙하하는 25m 가량의 폭포를 여폭(女瀑) 또는 자폭(雌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지형적인 형태에 연유하여 붙여진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폭포를 그리되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1653~1722)의 시만한 것도 드물고 삼연의 문재(文才)로도 그 가관을 그려 내기에는 어려웠다고 하니 그 가경(佳景)에 짐작이 갈 것이다.(『인제군사』)

설악루(雪嶽樓)

북면 한계 3리 한계령상(寒溪嶺上 960m)의 위령탑 앞에 있으며 국도변에서 108계단을 오르면 누각과 만난다.

박 대통령의 휘호인 ‘설악루(雪嶽樓)’현판을 걸어 놓으니 구름도 쉬어 넘고 산새도 울어 넘는다는 영(嶺)마루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겼다.

108계단은 불교에서 염주를 굴리면서 영욕을 부운(浮雲)과 같이 여기고 오르면 천계의 신성(神聖)을 맛보는 것과 같이 108번뇌를 상징한 것으로 이 누각에 올라 주변의 산하 조화영기(造化靈氣)의 위대성에 마치 속세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버리는 뜻이 우화등선(羽化登仙)의 심정인 것만 같다.

사방을 둘러싼 녹음과 솟구친 기암절벽 그리고 폭포수가 인근에 산재하고 있어 춘추 관광객의 운집으로 매우 붐빈다.(『인제군사』)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3리(한계령 정상), 건립: 1971년 12월 127일.

960m의 한계령 정상(옛날에는 소동령이라고 불렀음)에 있으며 원래는 108개 계단으로 오르게 되었던 것이 한계령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계단은 없어지고 한계령 휴게소 뒤편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로 <雪岳樓>현판이 걸려있는 이곳은 남설악쪽으로 오색약수, 오봉사, 만경대, 선녀탕, 만불동, 옥녀폭포 등이 있고 내설악으로는 십이선녀탕, 한계고성, 옥녀탕, 하늘벽, 구곡담, 오세암, 축성암, 봉정암, 장수대, 영시암, 백담사 등 명승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으며, 여름철에 이곳을 오르면 더위를 잊고 시원한 바람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 한계령은 1966년에 착공 6년만인 1971년 12월에 국방부가 맡아 완공하였으며, 이 공사로 7인의 장병이 순직하여 960m의 정상에 위령탑을 건립하여 놓았다.(『인제군의 유적·지명·전설』)

설악산(雪嶽山)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大靑峰)은 양양군과 인제군의 사이에 위치하고 해발 1,708m로서 금강산의 1,638m의 비로봉(毘廬峰)보다 높다.

오대산과 함께 태백산맥 중의 해안산맥(海岸山脈)과 중앙산맥 사이에 웅립한 이 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험산이 뻗고 팔방으로 수천 수백의 높고 낮은 봉이 모조리 청봉 밑으로 무릎을 꿇고 있어 정상에 오르면 동서남북에 산재하고 있는 자연의 완미(完美)한 표본, 중미(衆美)를 구비한 남성적인 설악산은 입체미를 갖고 상봉에서 보면 설악의 미가 한 눈에 보여 장관이다.

이곳에는 식물 분류상 영거시과에 속하는 높이 10~20cm가량 되는 에델바이스(Edel weiss)를 비롯한 만병초, 전향나무, 금강초롱, 누운жат나무 등 많은 고산식물과 반달곰, 까막딱따구리, 크낙새 따위의 희귀한 양생식물이 번식하고 있어 세계생물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대청봉(大靑峰)은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정상에는 백설이 덮여 있고 또한 6,7월이면 피는 진달래, 철쭉, 벚꽃이 피어 3만여평이나 되는 곳 전체가 화원으로 그 붉은 꽃다리는 고산의 멋을 더 한 층 돋우어 주기도 한다.

설악산은 석산으로 여러돌을 묶어 세운듯 기이하고도 정제(整齊)된 그 형상은 웅대하고 장엄하여 등산객을 압도한다. 형용할 수 없는 장관은 일종의 위협감을 주는가 하면 웅장한 청사채기(靑紗彩記)의 춤추는 가냘픈 한국특색의 시정을 풍기는 경치라서 대자연은 더할 수 없는 조화의 극치를 이룬다.

그러나 다만 폭포의 미나 암석미의 극치로 꼽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힌 전설의 미가 더 있어 이것을 보고 저것을 생각할 때 어느덧 등산인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영감이 생길듯하다. 순간 고산준령이 사면에 병풍처럼 둘러친 계곡을 지나 심미안(審美眼)으로 내려보며 올라가면 설소(雪霄)에 솟은 대청봉에 서게 된다.

동쪽으로 만리창해(萬里滄海)하고 서쪽으로 연산군봉(連山群峰)이 사뭇 서화가 전개된다. 특히 대청봉 정상에는 독일문학자인 한솔 이효상(李孝祥, 1903~경북출신)의 휘호로 그의 서명이 들어있는 '요산요수(樂山樂水)'라고 쓰여진 (석각) 대자연석흑석비석(大自然石黑石碑石)이 있으며 또한 사람 키 만큼한 케른(독어, 등산 '팀')이 기념으로 큰 돌을 주워 모

아 탑 모양으로 세운 것이 몇 개 우뚝 세워져 있다.

더욱이 ‘낙하경비(落霞驚飛)’라 봄에서 가을철에 골짜기마다 안개가 덮힌 운해를 보는 것이 또한 장관으로 다시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다.

대청봉은 흔히들 청봉이라 하지만 이것은 창산 성해응(昌山 成海應)의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 “遠見只縹緗欠而靑 故指其絕 而名曰靑峰(원견지표감흠이청 고지기절 이명왈청봉)”이라고 기록된 이야기이고 그 외 설화산인 무진자의 「오세암사적기(五歲庵史蹟記)」에는 ‘봉황(鳳凰)’, ‘봉정(鳳頂)’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노산 이은상(鷺山 李殷相)은 봉황(鳳凰), 봉정(鳳頂), 청봉(靑峰)이라고 한 것은 옛 신앙의 근원이었던 ‘광명(光明)’에서 나온 말이라고 단정하였다.

설악의 회오리바람은 엄포로 산마루를 뒤흔들고 영기-오썩, 싸노랗게 염통을 얼리우다 탁! 열려진 백겁의 별천지가 설악이 아니고는 만끽하기 어렵다.

봄이면 청태가 바위를 덮고 여름이면 녹음속에 못새가 물려와 노래하며 가을이면 비단 병풍인듯 아름다운 단풍잎이 수를 놓는 설악산 가을이면 이름 그대로 눈바람에 잠겨 아아한 산형을 그대로 내어놓고 있으니 말이다.

설악산을 보지 않으면 천하의 자연경관을 말할 수 없다고 함이 과평은 아니다. 청명한 날에는 북한악의 금강산(金剛山) 연봉(連峰)이 아득히 바라보이며 남으로 오대산(五臺山)이 보이고 특히 두고 온 금강연봉(金剛連峰)을 바라보면 한층 쓰라린 비애를 느끼게 한다.(『인제군사』)

현의 동쪽 50리에 있다. 이 산은 회양 금강산에서 남쪽 기슭이 내려 온 줄기가 용산리에 이르고, 뒤쪽 줄기가 회전령에서 나뉘어져 고성(高城)의 탄둔령(炭屯嶺)이 된다. 탄둔령에서 당장산(堂長山)으로 이어지고 당장산에서 진보령(眞寶嶺)이 된다. 진보령에서 흘이령(屹伊嶺)으로 이어지고, 흘이령에서 서과령(西坡嶺)이 되고, 서과령에서 이어져 미시령(味矢嶺)이 되고, 미시령에서 이어져 설악산이 된다. 산 안에는 백담사(百潭寺), 영시암(永矢庵), 오세암(五歲庵), 또 만경대(萬景臺), 한계폭(寒溪瀑), 쌍폭(雙瀑), 수렴동(水簾洞)이 있어 물과 바위가 절경이고, 산봉우리가 기이하고 장엄함이 금강산과 서로 위아래를 다룬다.(『국역 관동지』)

동국여지승람에는 한계산이라고 하였다. 군 동쪽에 있다. 그 산의 돌은 하늘까지 맞닿아 있고, 색깔은 눈처럼 희어 설악이라고 부른다.

산꼭대기에 성터가 있다. 냇물은 성안으로부터 흘러나와 폭포가 되어 아래로 떨어지는데, 걸려있는 물줄기가 수백 척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워진 듯하다. 원통역으로부터 앞으로 가면 좌우가 모두 큰 산이다. 물이 모여 흐르는 골짜기는 깊고 조용한데 냇물이 이쪽 저쪽으로 마구 흐른다. 나무터가 36개 있다. 나무는 대나무처럼 위로 치솟아 하늘에 꽃꽂이 솟아 있는데, 결가지가 있다. 소나무와 잣나무(柏)는 더욱 높아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 그 남쪽봉우리는 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높이는 만 길이나 되고, 모양도 괴상하여 무엇이라 형상하기 어렵다. 날새도 날아 넘을 수 없다. 길가는 사람은 그 돌이 무너져 깔릴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아래에 맑은 샘물은 바위에 부딪혀 맑은 못을 이루는데 넓은 바위에는 앉을 수 있다. 또 동쪽 몇 리의 골짜기 입구는 몹시 좁은데 실같은 오솔길이 벼랑 따라 나 있고 바위 구멍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봉우리와 산줄기가 힘이 있고 속기가 없어 용이 호랑이를 끌어당겨 움켜쥔 듯 겹겹이 쌓아올린 것 같은 높은 대가 수도 없다. 그 아름다운 경치는 영서에서 첫째다.

권우상(權佑相)의 기문에 snow은 변함없는 빛깔을 말하고 岳은 빼어난 기상을 말한다. 그 골수는 모두 돌이니 설악이란 뜻이 거기에 모두 드러난다. 태조는 금강에서 노닐고는 만 가지 변환을 으뜸으로 쳤다. 금으로 빛고 옥으로 쪼아 만든 듯한 연꽃들이 꿈틀거리며 동쪽으로 치달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절벽은 바다를 지키는 중요한 관건의 하나이다. 그 불쭙불쭙 치솟아 하늘을 칠 듯 번쩍이는 기세는 깃발 같기도 하고 홀 같기도 하다. 높이 나는 듯, 빙빙 돌며 나는 듯, 눈을 돌리면 닿는 곳마다 안개 노을 젖은 조용한 굴과 첩첩이 겹친 험준한 산이 눈앞에 드러난다. 맑은 샘물은 평평 쏟아져 산골을 가득 채우면서 맑은 돌을 갈고 다듬는다. 옥 같은 물이 고인 담은 절구처럼 되어 공이질 할 수 있는데 물이 넘쳐 동으로 흐르기도 하고 고였다가 다시 북으로도 흐른다. 왼쪽으로 굽이지고, 오른쪽으로 비탈져 꾸불꾸불 돌고 도는데 길게 자란 등나무와 늙은 상수리나무는 반쯤은 물에 잠기고 반쯤은 말라죽었다. 빛 고운 새와 기이한 짐승들, 원숭이, 노루, 사슴 등이 짝지어 수놈 따라 숲으로 내달리니 참으로

숨겨진 곳이에요. 비밀스런 곳이다. 골짜기의 길이 다 끝나는 곳에 이르니 아득히 높은 떡줄을 띄워 깎아낸 듯 곧게 깎여 엄청난 양의 물을 날리면서 흐른다. 기이한 한 필의 흰 명주요. 꿰면 긴 무지개나 세속에서 말하는 대승폭이다. 구슬을 울리고 옥을 내뿜으며 우레 소리 울리며 번개가 번쩍번쩍, 물이 넘쳐 팔팔 치솟아 오르며 빨리 내닫는 장건한 기세는 산의 험한 기세를 허물어 버릴 듯 온 골짜기에 광광 울려 퍼진다. 꽃처럼 날리고 눈처럼 흩어지는 물거품이 사람에게 달려들어 이마를 넘으니, 부딪히는 힘이 그렇게 강한 줄 알겠다. 냇이 나가고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한참만에야 정신을 수습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송악의 박연폭포와 신계의 용연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지 결정짓기 어렵다. 물길을 버리고 백담사에 이르렀다. 부도가 검푸른 빛을 띠고 있다. 삼한 때 세워진 것이라고 하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맑은 물이 수렴동을 빚어놓고 있다. 신선이 사는 산에 뭉개구름 흐르니 마치 신선이 된 듯, 동봉 김시습의 오세암, 그리고 삼연 김창흡의 영시암이 금강을 버리고 이곳에 지어져 허망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뜻을 부친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도다.(『국역 강원도지』)

관아의 동쪽 50리에 있다. 이 산은 회양 금강산 남쪽 기슭에서 줄기가 떨어져 용산리의 후룡(後龍: 뒷자리나 집을 지을 터, 도읍할 터의 뒤쪽으로 바로 뻗어 내려 온 산줄기를 가리킨다.)인 회전령(檜田嶺)에 이르러 나뉘어 갈라져 뻗어 와 소성(高城) 탄둔령(炭屯嶺)을 이룬다. 탄둔령에서 뻗어 와 당장산(堂長山)을 이루고 당장산에서 뻗어 와 진보령(眞寶嶺)을 이루며, 진보령에서 뻗어 와 흘이령(屹伊嶺)을 이루고 흘이령에서 뻗어 와 서파령(西坡嶺)을 이루며, 서파령에서 뻗어 와 미시령(味施嶺)을 이루고 미시령에서 뻗어 와 설악산을 이룬다. 설악산에서 뻗어 와 한계산(寒溪山)을 이루고 한계산에서 뻗어 와 오색령(五色嶺)을 이루며, 오색령에서 뻗어 와 기린(麒麟) 박달령(朴達嶺)을 이루고 박달령에서 뻗어 와 춘천 기린 방태산(方胎山)을 이루며, 방태산에서 뻗어 와 인제의 안산(案山)이 되는데 이름은 남산(南山)으로 미륵천(彌勒川)에 이르러 그친다. 또 춘천 기린 방태산 남쪽 기슭에서 줄기가 솟아 구불구불 뻗어 와 정자막리(亭子幕里)의 후룡을 이룬다. 정자막리 후룡에서 뻗어 와 금보옥리(金寶玉里) 후룡이 되고 금보옥리 후룡에서 뻗어 와 건이치(建伊峙)가 되

며, 건이치에서 줄기가 떨어져 홍천(洪川) 가리산(加里山)을 이룬다. 또 건이치에서 나뉘어 갈라져 거꾸로 30리를 뺏어가 마노역(馬奴驛)에 이르러 봉황대(鳳凰臺)를 이루고 주추(蛛湫)에 이르러 그친다.(『여지도서』)

설악의 뜻

설악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보면 이렇다. 먼저, 설악산의 설악은 한자로 눈 설(雪)자에 큰 산 악(嶽)를 쓴다. 『삼국사기』에는 설화산(雪華山)이라 했다. 신라 때는 선산(仙山), 불산(佛山)이라 했으며, 개골산(皆骨山)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그런데 설악 할 때 눈 설자를 쓰다 보니 눈이 많이 쌓인 산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금원여사라는 사람이 쓴 『호동낙기(湖東洛記)』에는 “돌이 눈 같이 희므로 설악”이라 했다고 했으며, 『택리지』를 쓴 이중환은 “어지러운 산이고 깊은 두메이며 위태로운 봉우리가 걸쳐진 뿔부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고어에 눈 설(雪)자는 ‘슬’이라 하는데, 이는 신성(神聖)을 뜻하는 것이다. 곧,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神聖, 崇高, 潔白함을 나타낸 神이 사는 聖域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악은 우리말로 ‘슬피’이므로 ‘신이 기거하는 성스러운 지역의 산’으로 볼 수 있다.

설악 팔경

이 설악의 8경은 조선 시대 그 유명한 양사언, 권상용 등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럼 8가지의 뛰어난 설악의 풍경을 감상해 보자.

첫째, 용비승천(龍飛昇天): 용이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폭포가 있다. 한국의 3대 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이다. 그 중에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내설악의 대승폭포(大勝瀑布)를 비롯하여, 쌍폭(雙瀑), 소승폭포(小勝瀑布), 응봉탕(應鳳湯), 옥녀탕, 외설악의 대왕폭, 12연주폭포, 독주폭포, 대왕폭포, 천당폭포 등은 대표적인 폭포로 물줄기가 낙하하면서 무지개가 발생하니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이 황홀 하다. 그 폭포를 보다 보면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둘째, 설악무해(雪嶽霧海): 설악산의 안개바다. 여름이 되면 봉우리마다

구름에 덮이고 안개에 싸여 있는 신비로운 풍경은 참으로 장관이다. 대청봉은 구름 위에 솟아 있고, 골짜기란 골짜기는 안개 속에 잠겨 설악은 안개의 바다로 변한다. 설악이 아니라 雲嶽(구름 뒀)이며, 樹海(기이한 나무바다)며, 霧海(안개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하운다기봉(夏雲多奇峰, 여름의 구름은 많은 기이한 봉우리를 만든다)이라는 말은 설악산을 두고 말한 것이며, 산봉우리에 있으면 날아가는 우화등선(羽化登仙)이 된 것 같다. 설악산의 구름은 어떻게 보면 구름이 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봉우리에서 쉬다가 다시 흩어져 순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만다. 구름의 흐름은 실로 기이하고도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야말로 유수 같은 행운(行雲)이며, 霧海를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구름이 산을 헤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구름을 헤치고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달리고, 모였다가 헤쳐지고 헤쳐졌다가 사라지는 착각이 드는데, 구름의 조화는 팔경 가운데 제일이다.

셋째, 칠색유홍(七色有虹):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있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아침과 저녁이면 햇빛에 반사되어 떨어지는 비말(飛沫)에는 영롱한 7색의 무지개가 보인다. 선녀가 금시라도 타고 갈 수 있는 듯한 무지개다리가 놓여 지니 정말 진경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무지개가 하늘거리며 움직인다.

넷째, 홍해황엽(紅海黃葉): 붉은 단풍이 바다를 이루다. 가을이 되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나뭇가지마다 누런 잎에 쌓여 골짜기 마다 마치 알록달록 수놓은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은 광경은 정말 금수강산이다. 우수수 낙엽이 지고 붉게 몸을 단장하는 단풍나무는 설악산의 풍경 가운데 진경이다.

다섯째, 춘만적축(春滿躑躅): 봄이면 산에 진달래 철쭉이 가득하다. 대청봉 남쪽에 발달한 진달래와 철쭉 군락을 비롯하여 온 산에 백화가 피어서 봄 설악산을 장식한다. 이때 피는 진달래와 철쭉은 그야말로 등산객의 눈을 어리게 하여,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풍경이다.

여섯째, 월야선봉(月夜仙峰): 달밤에 보면 설악산의 봉우리가 신선과 같다. 가을밤 하늘이 맑아 달이 휘영청 떴을 때 설악산의 봉우리를 보면, 마치 기암괴봉의 모습이 춤추는 선녀 같이 보여 진경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만산향훈(滿山香薰): 향기가 산에 가득하다. 춘삼월부터 초목이 소생하면 그 향기가 산에 가득하여 바람이 불면 향긋한 냄새가 등산객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며 코를 찌른다. 특히, 대청봉, 화채봉, 오색계곡에 군생하고 있는 눈향나무 숲을 지나면 숲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눈으로 보는 풍경도 좋거니와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한층 더 흥취를 돋구어 주니 풍류의 하나이다.

여덟째, 개화설경(開花雪景): 눈꽃이 피어 경치를 장식한다. 겨울이 되면 설악산은 六花(눈의 판 이름, 눈이 6각형이므로 그렇게 일컬음)로 뒤덮인다. 나무나 기암절벽에 눈이 쌓이면 온갖 형태의 눈꽃이 피어 절경을 지니게 되어 그야말로 묘경(妙景)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청봉의 송백(松柏)이나, 주목 같은 기이한 나무를 넣어서 9기(奇)라 하는 사람도 있으며, 8경에 진기한 짐승과 아름답고 고운 소리로 노래하는 새들을 넣어 9경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한 아름답고 진기한 동물을 완상하는 것도 가히 진경이라 할 수 있다.

기괴한 경치를 보면 볼수록 대자연의 심오한 조화를 알아낼 사람이 누굴런지, 그저 묘한 풍경을 보면 삼매경에 자아를 잃고 선경에 있는 감회를 가질 뿐이다. 8경 역시 8기와 마찬가지로 설악산을 감상하는 또 다른 흥취를 주고 있다. 뭐든 알면 더 즐겁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설악팔기(雪嶽八奇)

설악산의 팔기팔경은 우리 옛 선비들이 설악산을 둘러보고서 명명한 것이다. 설악산의 8가지 기이함을 말한 팔기(八奇)를 보도록 한다.

첫째, 천후지동(天吼地動): 하늘이 울면 땅이 진동한다. 여름이면 비가 많이 내려 하늘의 뇌성이 일어나고 번개 불이 번적이며 온통 하늘이 찢어지듯이 울부짖고 땅이 오열하는 듯 지축이 흔들린다. 그 소리의 신비와 울림의 기이함을 고래로부터 신기하게 생각했다.

조선시대인 1580년 강원도 감찰사를 지낸 송강 정철이 설악에서 역적이 난다고 하여 봉정암에 혈을 지르러 왔다가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벽력이 일어남에 “설악이 아니라 벼락이고, 구경이 아니라 고통(苦境)이며, 봉정(鳳頂)이 아니라 난정(難頂)이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둘째, 거암동석(巨岩動石): 큰 바위가 흔들거린다. 짐채 같은 큰 바위가 흔들거리는 것은 기암괴석이 많은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일이다. 흔들바위를 말한다.

셋째, 백두구혈(百斗甌穴): 콩 백말을 넣을 수 있는 사발모양의 구멍이 있다. 인제 북면 용대리 외가평(外加平)에서 백담사(百潭寺)로 가는 백담계곡에는 하식작용(河蝕作用)에 의해 사발모양의 구멍을 형성하고 있어 콩 백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분포하고 있다. 예부터 학이 날아간 흔적이라 하지만 너무 기이롭고 기괴한 형태이다.

넷째, 전석동혈(轉石洞穴): 돌이 굴러 집이 설만큼 바위굴을 만든다. 외설악의 계조암(繼祖庵)은 대표적인 전석동혈로 바위와 바위가 서로 맞대고 있어 하나의 자연동굴을 형성하였다. 이 같은 자연굴이 도처에 있으니 신기하다.

다섯째, 수직절리(垂直節理):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 내설악의 12선녀탕, 하늘벽(길이 300m)과 같이 험준한 지형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 울산바위 할 것 없이 모두 수직절리로 천태만상의 형상을 하고 있어 신기롭고 조화롭다. 또 용의 치아 같이 생긴 용아장성(龍牙長城)의 바위상은 수직으로 뻗어서 험준한 형태를 하고 있으니 신기하다.

여섯째, 유다탕폭(有多湯瀑): 많은 곳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탕이 있다. 폭포가 있는 곳에는 으레 소(沼)나 못(淵)이 있게 마련이다. 이 소나 못은 움푹 패여 방아의 확 모양으로 탕(湯)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식작용에 의한 12선녀탕이다. 이것 역시 신기하다.

일곱째, 금강유혈(金剛有穴): 금강석에 구멍이 패이다. 설악산 비로봉(毘盧峰)의 금강굴(金剛窟) 같은 것은 바위산에 난 큰 구멍으로 매우 기이로운 조화이다.

여덟째, 동계설경(冬季雪景): 한 겨울 눈이 내린 경치이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쌓이고 쌓여서 수 10장을 이루고 사시장창 백설이 보인다. 11월부터 3월까지 내린 눈은 개골산(皆骨山)에 백설이 만건곤(滿乾坤, 천지에 가득 참)하는 설경을 이루어 신기하다.

이렇게 설악산에 있는 기이한 형상 중 8가지를 골라서 옛 선비들은 감상을 하였다. 아무래도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경치를 감상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그 특징을 드러내서 감상을 한다면 더 의미 있는 감상법이라 할 수 있다.

소간령(작은 새이령)

용대3리에서 설악산을 넘어 고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영이다. 소간령 정상에는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씩 놓고 간 돌이 돌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2014년 현재 새로 지은 소간령 산신당이 있다. 2015년 간령(間嶺)을 새이령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소간령 산신당

2014년 봄에 마장터에 살고 있는 정준기(72) 씨가 소간령 정상에 산신당을 지어서 음력 3월3일과 9월9일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산신당은 옛 서낭당 터 옆에 지었는데, 돌을 쌓아 아랫단을 만들고 나무토막을 잘라 엇갈려 중간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소반을 올려 제단을 만들었다. 산신당 뒤에는 커다란 신수가 있다. 지붕은 합성수지를 올려 비를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상위에는 몇 개의 제물이 올려 있는데, 과일과 과자 등이 새로 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고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간령 서낭당터

소간령에 있는 옛 서낭당터이다. 소간령 정상에 있는데, 가운데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고 그 주변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다. 소간령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행로안전을 기원하면서 하나씩 올려놓은 돌이다. 지금은 돌무더기로 된 그 터만 있고 서낭당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소승폭포(小勝瀑布)

한계령 휴게소에서 남서쪽으로 3km 지점인 북면 한계 3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폭포는 높이가 80m에 달하며 주위가 석벽으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250평에 달하는 암반이 깔려져 있어 휴양지로 적지이다.

비교적 코오스가 순탄하여 온가족이 동반하여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이다. 더욱이 산자수명의 풍경과 부근일대가 광활하여 냇을 잃고 한참 바라보는 동안 어느새 황혼은 짙어서 그 잔영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득히 먼 곳으로 사라지게 하는 곳으로 한동안 잊을 수 없는 풍류에 잠기

계 한다.(『인제군사』)

수렴동(水簾洞)

大靑峰에서 中靑峰을 거쳐 龍의 치아 같이 생긴 山連峰에 龍牙長城을 끼고 두 갈래의 골짜기를 형성하니 한 골짜기는 伽倻洞이고, 또 한 골짜기는 九曲潭이다. 이 수렴동 골짜기는 永矢庵 앞 계곡에서 雙瀑까지의 골짜기를 수렴동골짜기라고 한다. 이곳이 內雪嶽의 대표적인 絶景地이고 玉流靑石이 절대적인 佳景을 이루고 있다. 흐르는 물은 깊이를 모를 湍을 형성하는가 하면 潭을 이루고 때로는 沼가 된 것이다. 그러다가 瀑布로 변하여 景致를 만든다. 정말 내설악의 으뜸가는 골짜기이다. 물은 고막을 찢는 듯이 도도히 흐르고 수풀의 냄새는 바람에 실려 코를 찌른다. 천연적으로 生起塔 같은 怪石이 우뚝 서 있다. 奇巖怪石이 극치를 다하니 황홀하고 奇妙하다.(『양주지』)

수렴동계곡(水簾洞溪谷)

설악의 주봉인 대청봉(大靑峰, 1,708m)에 용아장성(龍牙長城)을 끼고 두 갈래의 계곡을 이루었으니 하나는 가야동계곡(伽倻洞溪谷)이라 하고 또 하나는 구곡담계곡(九曲潭溪谷)이라고 부른다.

이 두 계곡은 옥녀봉(玉女峰) 아래 천왕문 거북담에서 합쳐서 백담사 앞을 흘러 다시 초대동에서 외가坪(外加坪)까지 흐르는 초대동계곡을 만든다.

수렴동계곡은 영시암(永矢庵)터 앞골짜기에서 쌍폭까지 계곡을 말한다.

이 계곡의 위석격단(危石激端)과 우거진 숲으로 벽공을 가려 복중의 대낮에도 어두우며 울어대는 산새소리와 수없는 소(沼), 탕(湯), 담(潭), 폭포(瀑布) 등을 형성하였으니 내설악 일품의 절경으로 계곡미의 여왕이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千佛洞溪谷)과 맞서니 노산 이은상은 <내설악각(內雪岳脚)>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수렴동계곡(水簾洞溪谷)에서 얼마쯤 더듬어 오르면 점심청(點沈廳)이라는 넓은 반석을 지나 상, 중, 하 삼수렴이라는 명자 그대로 수렴 세 채가 걸렸습니다. 수렴속에 어느 옥녀(玉女)가 들어 계신지는 모르거니와

면 후일 저 수렴이 걷히기 전에는 그의 얼굴을 세상이 못 볼 것이니 저 속에 들어 있는 그 품은 회포, 너무나 깊은 줄로 알겠습니다. 아니 무엇이 그리워 저 수렴을 걷고 나오리이까.”

소나기만 내릴라치면 쌍폭은 무지개다리를 놓으니 글을 읊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시인묵객의 명당이며 만인으로 하여금 시인이 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그 수량이며 수질 낙차(落差)가 조화를 이루어 화사한 웨딩드레스 처럼 수연(水煉)이 뽀얗게 퍼져 나가니 이른바 비경에 받을 내딛는 것 같이 이 계곡은 여름을 잇는 폭포의 계곡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인제군사』)

승폭(僧瀑, 일명 僧沼)

설악문이라는 천연석문을 지나면 나오는 폭포이다.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이면 고막을 찢을 듯한 물소리가 멀리서도 들린다.

거무스름한 암벽 밑으로 낙하하는 물줄기는 정녕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세차고 바위와 주위의 울창한 잡림이 멋지게 어울려 있는 한편 맑은 물은 이곳을 찾는 탐승객의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옛날 노승이 해탈을 못하여 투신하였다는 유래에 연유하여 승소(僧沼)라 한 것일까? 노산(鷲山)의 설악행각(雪嶽行脚) 승소시(僧沼詩)가 전해 오고 있다.(『인제군사』)

심원사(深源寺)

심원사는 곡백담을 거쳐 여러 번 위험한 잔도를 지나면 높은 고개를 하나 만나고 또 시내를 따라 5리쯤 가면 도착할 수 있다. 앞의 봉우리가 자못 기이하고 가파르며 시냇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는데 맑은 밤이면 더욱 소리가 크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십이선녀탕(十二仙女湯)

인제 고성 간 도로변인 남교리(嵐校里)에서 동쪽으로 북천을 지나

12km 지점인 북면 용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폭포이다. 북천을 건너 동쪽 안산(鞍山) 갈마산(葛磨山)을 바라보고 들어가면 탕수동(蕩水洞) 통수곡에 이른다.

안산(鞍山) 일명 갈마산)에서 비롯된 이 골짜기는 84m여에 걸쳐 폭포와 탕의 연속으로 구슬 같은 푸른 물이 우레와 같은 괴성으로 암반을 뒤흔드는 등 갖은 변화와 기교를 부리면서 흐르고 있다.

이 괴성을 어떻게 들으면 맹수가 크게 으르렁 거리는 소리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범이 울고 황소가 우는 것 같기도 하니 바로 그것이 대폭포요 장폭포의 우레와 같은 소리이다.

탕의 지질 자신이 장구한 세월에 걸친 하식작용(河蝕作用)에 의해 오목하게 파여 반석이 넓고 깊은 구멍으로 된 구혈이 생겨 신기롭게 기괴한 형태가 아닐 수 없다.

금강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의 조화 하식작용의 예술은 가을 단풍과 봄의 싉록과 더불어 내설악의 영기가 이곳에 도사려 신비를 다하고 있으니 선경 영험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인제군사』)

조선조 정조때 성해응(成海應.1760~1839)은 '동국명산기'에서 설악산의 여러 명소 중 십이선녀탕을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용봉폭에서 계곡을 따라 다시 위로 오르면 온갖 풀의 바위를 볼 수 있다. 신기한 이곳의 풍경에 심취되어 오르고 또 오르면 松柏과 靑苔의 냄새가 훈풍에 실려 사람들의 코를 스치고 우레와 같은 怪聲이 巖床을 뒤흔든다. 이렇게 들으면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범이 울고 황소가 성내어 우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長瀑布로 大瀑布의 소리다.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흰 물줄기가 셋으로 나누어져 도도히 흐르고 있다.

다시 살펴보면 세 번 꺾인 듯하나 실은 큰 폭포가 셋이 연달아서 흘러 내리는 것이다. 폭포 밑에서 소용돌이치는 곳을 內雪岳에서는 湯이라고도 부른다. 탕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에 물줄기가 반석에 떨어져서 일어나는 水蝕作用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盪水洞이라고 한다. 탕에는 독탕(瓮盪)이라 하니 그 꼴(形) 독 같다하여 이 이름이 생겼다. 탕에는 梭盪(사탕, 북탕) 虹盪(홍탕)이 있어 북과도 같고 쏟아지는 폭포에 무지개가 서

므로 虹漚이라고도 한다. 십일탕의 마지막 여덟 번째의 폭포의 탕을 龍漚이라 한다. 이 용탕의 폭포가 떨어지는 암벽이 龍穴이 뚫려져 있으니 매우 신기하다. 이곳의 八瀑八漚은 河蝕作用에서 생겨나는 신기한 경치인 것이다. 또 甌穴(구혈)이 되어 오목하게 파여 반석이 점점 넓고 깊은 구멍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漚이 여덟 개나 되니 십이탕십일폭이라 한다. 이 팔폭팔탕은 十二仙女漚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岩丹楓(돌단풍)이 냇가의 바위를 덮고 있어 매우 아름답다. 또 바위틈에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향나무와 절벽에 솟은 소나무, 잣나무, 박달나무의 고목들은 신비감을 던져준다. 가을 단풍의 붉은 물결이 紅海를 이루니 紅海黃葉의 珍景은 설악산 八景中 第一이다. 절벽의 양쪽에는 잡목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꽃들이 되어 계곡의 미에 황홀하기 그지없다. 八奇의 하나인 有多漚瀑은 바로 이곳을 말한 것이다.(『양주지』)

십이폭(十二瀑)

雙瀑에서 오른쪽을 넘어서 靑峰골로 들어서면 十二瀑이 있다. 이곳의 泉石의 美가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東國名山記(昌山成海應)

復有三瀑 거듭 삼폭이 있으니

飛流空濛 공중에 가랑비가 날려 흐르듯

紫翠無際 자줏빛 비취색 끝자락 없으며

綠磴而西 초록빛 돌 비탈 서쪽으로 이어졌네

始抵潭側 潭注然可百聞 溢爲下潭 潭亦 如之上方下圭 下潭又 溢爲亂瀑所見下止爲 十二也

비로소 깊은 못 곁에 다달아 못으로 흐르는 물 가히 백문이 붙여일건이라 물은 넘쳐 아래 못으로 흐르고 아래 못 또한 위에서는 둥글고 아래에선 모나네. 아래 못 또한 넘쳐흘러 어지러이 폭포를 이루니 살펴보니 아래에 그침이 열두 폭이구나.

이것이 靑峰골 十二瀑인데 흐르는 溪流의 大가의 瀑을 형성한 까닭에 이런 명칭이 붙게 되었다.(『양주지』)

십이폭포(十二瀑布)

십이폭은 봉정에서 출발하여 20리쯤 되는 곳으로, 바윗길이 깎아지른 듯한데 험난함을 헤치고 가면 쌍폭이 드리워 있다. 하나의 연못으로 함께 떨어지는데 동쪽 폭포는 짧고 남쪽 폭포는 길다. 남쪽 폭포 위에 다시 세 개의 폭포가 있는데 허공에 나는 듯 흘러 푸른빛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다. 돌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비로소 못의가에 이른다. 못은 매우 넓게 펼쳐져 있어 백 칸은 족히 되는데 넘쳐흐른다. 못을 내려와도 넓이가 또한 비슷한데 위는 모져 있고 아래는 둥그스름하다.

못을 내려와 또 넘쳐 어지러운 폭포가 된다. 본 것이 12개에 그치지 않아 쌍폭을 따라 15리 되는 거리가 상수림이다. 돌은 반짝반짝 매끄럽다. 남쪽으로 바라보니 돌 하나가 허공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이곳이 쌍폭의 근원이다. 다시 5리를 가면 하수림에 이른다. 골짜기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다시 불만한 못과 폭포가 있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아니오니

옛날 아니오니 쪽으로 가면 김 부자 터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무가 덜 나서 그런데. 거기 메. 엄청난 산지기 부자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로 들어간 사람은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 들어 간 사람은 못나온다고 그래서 간 사람은 안 온다고 그래서 아니오니. 한 번 가서 못 오니까 아니오니. 아예 들어가서. (조사자: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왜.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지기들. 산 두목들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불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들어 가지고 농사짓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옛날에. (조사자: 아 그러니까 산 도적들이네요.) 예, 그런 식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넓어요. 그 터가 거기가 산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아름 들이 나무가 몇 백 년 흘렀으니까. 그 전설이 그렇게 흘러 내려오니

까. 저희들은 알지요.

거기 들어가는 데가 입구가 문이 얼마 안 커요. 그리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 능선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니 거기가 길이 이렇게 좁아져요. 거기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면 붙들어가고 했겠지요.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 확실한 것은 모르지요.(장범수(66, 남) 2009. 9. 9. 채록.)

안산

갈마산이라고도 하는데 대승령에서 12선녀탕 방면으로 가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 모양이 우두(牛頭) 같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한계고성을 우두산성이라고도 일컫는다.

암자동 석탑

인제군 북면 용대2리(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백담지소)부근 하천 건너 암자동에 원형을 상실한 채 해체되어 있었다.

백담사의 전신으로 수차례의 화재를 보면서 이전한 기록이 있는데 1447년(세종 29년)에 의준(儀俊), 취웅(翠雄), 재익(載益), 재화(載和), 신열(愼悅)이 이곳에 사우(寺宇)를 세우고 영취사(靈鷲寺)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에 세워진 탑(塔)일 것으로 추측한다.

이 탑은 현재의 백담사 경내에 옮겨져 옛 모습대로 복원되었는데 1991년 김도중(金道中) 스님에 의해 옮겨졌다.(『인제군사』)

영시암(永矢庵)

백담사에서 동북쪽 4km 지점인 북면 용대2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암자는 세조(世祖) 14년(1468)에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이 창건한 백담사의 부속 암자였다. 남쪽에 조원봉(朝元峰)이 솟아 있고 서쪽에 청룡봉(靑龍峰)이 보이는 아담한 수림사이에 놓여 있는 이름 높은 암자였다.

숙종(肅宗) 15년(1689) 2월에 있었던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부친 김수항(金壽恒)이가 사사 당하고 시국이 어수선해지자 세상과 영구히 인연

을 끊기 위해 더욱 효심이 지극한 한을 드리고 사시산색(四時山色)을 구경하며 눈물로서 이곳에 머무르며 암자를 영시(永矢)라 이름 짓고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영시암기(永矢庵記)>에 의하면 그 후 6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암자 뒤 골짜기에서 찬모(饑母)가 범에 물려간 일이 있어 삼연(三淵)은 그 인정을 생각하고 이곳을 떠나 수청산(壽靑山)으로 가고 말았으며 따라서 이곳을 호식동(虎食洞)이라 부른다.

1691년 설정선사(雪淨禪師)가 가시덤불 속에 묻힌 이 암자를 민망히 여겨 여러 대신들과 도감찰사(道監察使) 그밖에 공의 덕을 흠모하는 모든 선비들과 주민들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암자를 재건하고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법당이 24칸 비각이 1칸이었다고 한다.

1925년 기호스님이 중수했다가 6.25동란의 재화로 소실되었다.

부근의 남쪽으로는 조원봉(朝元峰) 서쪽으로 청룡봉(靑龍峰)이 용립하고 있어 그 전망이 가경이다.

구전에 의하면 영시암의 기둥높이가 덕수궁(德壽宮)보다도 높다고 하여 조정에서 납출 것을 중용하여 기둥을 잘라서 낮추었다고 한다. 삼연 김창흡의 유허비가 있었으나 6.25로 인해 회신되었다. 1992년부터 백담사 주지 김도중(金道中)에 의하여 영시암 복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인제군사』)

백담사 산내에 있다. 세조(世祖) 무자년(戊子年)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창건하였다. 기사년에 군수 이광구(李光矩)가 김삼연유허비(金三淵遺墟碑)를 세웠다.(『국역 강원도지』)

영시암(永矢庵)과 호식동(虎食洞)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1653~1722)이 가장 오래 머물던 곳인 북면 용대리 내설악 영시동(永矢洞)의 영시암(永矢庵) 근처에 지금도 호식동(虎食洞)이라는 곳이 있다. 이 호식동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었다하여 호식동이라 한다.

삼연이 이곳에 와 있을 때 밥 짓는 증을 한 사람 데리고 와 있었는데 어느 날 영시암 뒤에 있는 골짜기에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이리

하여 이곳을 호식동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밥 짓는 사람이 없고 보니 침식에 불편도 있었지만 자기 때문에 와 있다가 불의의 환(患)을 당한 종이 불쌍하여 인정으로 차마 그곳에 그대로 머물 수 없어 여기 온지 6년 만에 이곳을 떠나고 말았다.

이곳은 유심(幽深)한 계산(溪山)이기에 양기(養氣)가 알맞아 암기(庵記)에 “或息心之人萬里爭趨 或養氣之士穴合雲集(호식심지인만리쟁추 호양기지사혈합운집)” 곧, “휴식하려는 사람이 만 리 밖에서 찾아오고 양기하려는 사람들이 구름 모이듯 찾아든다.”라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아 들었다 한다.(『인제군사』)

김창흡은 밥 짓는 중 최춘금(崔春金)을 위해서 제문을 지었다.

<거사(居士) 최춘금(崔春金) 제문(祭文)>

유세차(維歲次) 갑오(甲午: 1714)년 11월 5일. 영시암(永矢菴) 주인 거사 김진사(金進士)가 다반(茶飯)을 간소하게 차려 장성인(長城人) 거사 최춘금의 영전에 치제(致祭)하고, 고(告)하는 제문입니다.

야! 슬프도다. 인간의 죽음은 예외일 수는 없지마는 자네 같이 흉한 죽음 만인 중에 없을 게요. 호랑이에게 환을 당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서 이 산에서 백 년 만에 처음 생긴 일이라 해도. 산은 곧 내 산이요. 자네도 내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 죽이다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자네에게 나로 하여금 선(善)하게 베풀지는 못했어도 오로지 정성을 다하는 성품이라. 청렴결백한 그 지조로 빙설(氷雪) 같은 심중으로 강벽(薑檠) 같은 맛으로 주인에게 충성함을 근본으로 하였거늘 헤어져 내 일에 목석(木石)처럼 하는가. 서로 의지하며 운명 같이 하자더니 어찌하여 하늘나라 가셨는가. 자네의 혹독한 벌 따라 같이 하지도 못하는 벌레만도 못한 소인(小人)이면서 굳게 서로 연루(連累)했다고 슬프기 그지없어 차마 말 못하겠네. 을유(乙酉: 1705)년 동짓달 내가 처음 산에 들어올 때 자네는 남쪽에서 와 함께 추위 견디면서 헤진 옷에 붉은 정강이가 내비쳐도 얼음을 깨고 새벽 물을 길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온 몸 같고 닭노라고 고통을 감내하며 이미 낙토(樂土) 잇었었지 일찍이 꿈만 같이 임시로 오령(蘆嶺) 너머 영시암(永矢菴) 세웠을 때 자네는 더없이 기뻐하였지 연하(煙霞)를 좋아함이 나보다도 더하여 이 곡연(曲淵)을 말하기를 남쪽에는 이 같은 곳이 없다며 청숙(淸淑)을 간직하고 길상(吉祥)이 오래

도록 이어져 삼재팔난(三災八難)이 없는 곳이라 하였지. 동대(東臺)는 달이 쉬고 북루(北樓)는 바람이 시원하여 나는 송아지를 안아주며 삼나무 그늘도 마다하였지 삼을 캐는 심마니들 헤진 옷 입은 채로 숲속의 풀집에서 잠을 자도 서로서로 들고 나며 탄탄한 그 길을 끊임없이 오고 간 십년 지난 지금에야 잊었을까 근심스레 시제(時祭)를 오리는 구려. 생전에 소홀히 했던 재앙을 이제 어찌겠냐마는 맹동(孟冬, 음 10월) 27일 달도 없는 저녁에 냉면으로 공양을 마치고 등불도 꺼져 버려 매실(梅室)의 책도 읽을 수 없어 판방(板房)에서 염불을 올리노라니 갑자기 산이 찢어질 듯한 두노(斗奴)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두려움에 뼈가 부서질 듯도 하여 불 밝히고 보았더니 원지(園池)가 시뻘정게 피로 물들었으나 쫓아 보낼 힘조차 없어 물리고 뜯기는 대로 버려둔 채 긴 밤이다 새도록 울기만 할 뿐 사방의 산들은 막막하였지. 날이 샐 무렵에야 스님들 모아 눈이 옴도 무릅쓰고 뒤를 쫓아서 간신히 뺨골만을 거두어 난봉(鸞峰) 아래 깊숙한 곳 옆에서 화장(火葬)을 하였지 선인선업(善因善業)이라 일깨워주고서도 받고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나서 끝까지 믿고 받들어 준 자네를 생각함은 도리라 여기네. 물거품 같이 파리한 몸을 보며 사대가(四大家)도 쇠하면은 죽음을 서러워 않는다 했듯이 거느릴 이물(利物)도 잃었으니 오직 이렇게 할 뿐이네. 또 예전에 있었던 스님들이 살을 짐승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음을 자네도 들었지 아마 이런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어찌 그렇게 하였는가. 쉽게 말해서 자네의 소원이 이 산에서 흔적을 없애는 일이라면 죽은 뒤 화장을 하는 것도 예전부터 있었다기에 갑작스레 변을 만나 분별없이 스님들의 뜻을 따랐으니 내 마음이 아프고 도리를 다 못함이 부끄럽구려. 자네를 생각하는 옛 주인은 외롭게 되었소.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도 내게는 희미하여 자네의 혼령께 묻노니 이 뜻을 어찌겠나? 이미 지난 일이라지만 여한이 있어서 통곡하노라. 시작이야 나도 자네처럼 약속한 대로 이 산 깊은 데서 줄거이 오래도록 의탁하여 백년토록 머무르려 하였지마는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자네의 성명(性命)처럼 나도 흥한 일 당할까 의탁하며 살다가 자네처럼 계획이 헛될까. 좋은 인연이 나쁜 인연되고 복지(福地)가 흉지(凶地)되니 산은 실로 나를 속인 것이네. 이를 어찌리오. 통곡하며 자네와 7일 동안을 정령(精靈)으로 떠돌다가 희미하게 서로 잊고 정(情)도 소용없이 땀감처럼 불에 타 자취도 없으니 첩첩 쌓인 봉우리마다 수심뿐이라 장차 산문(山

門)을 나서면 다시는 오지 않으리니 다반(茶飯)으로 천신(薦新)하여 굶주린 자네를 위로하노라 벽운사(碧雲寺) 동쪽 산등머리에 자리를 만들어 밥그릇을 올리네. 조(趙: 식객을 모아 대접한 춘추전국시대 혜문왕의 아들)가 살아 했듯이 벼 망아 찼어 두노(斗奴)에게 국갱 올리니 비록 잘 차린 공양은 아니더라도 정이라도 있다면 곧 혼백으로라도 와서 포식하기 바라네.(출전 『삼연집』. 『설악산 백담사』)

영시암의 애화(哀話)

조선조 숙종(肅宗) 15년(1689)의 일이니 이 해는 나라에 큰 혼란이 빚어지니 유명한 장희빈(張禧嬪)사건이다.

숙종의 정비(正妃) 인현왕후(仁顯王后) 민(閔) 씨께서는 왕자가 없고 숙빈(淑嬪) 장(張) 씨가 숙종 14년 9월에 왕자를 낳았다.

숙종이 장 씨에게 흑해지니 서인들이 간(諫)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 숙종 15년에 장희빈의 소생을 세자(世子)로 책봉하려 하자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은 “세자를 가르치는 문제가 급하지 세자책봉(世子冊封)이 급하지 않다.”고 김수항(金壽恒), 송시열(宋時烈)을 귀향 보냈다가 그 해 3월에 김수흥의 관직을 박탈하고 윤 3월에 사사(賜死)하였다.

이때 송시열도 제주도에 귀향 갔다가 이해 6월에 사약(死藥)을 받았다. 이때 김수항의 아들인 삼연 김창흡(金昌翕)은 세상의 인연을 끊고 설악산의 영시암(永矢庵)을 찾아 산수를 즐기고 영원히 세상에 나가지 않을 것을 맹세(永久不出世爲誓 영구불출세위서)하였다.

이곳에 정사(精舍)를 짓고 영원히 맹세한다는 뜻으로 영시(永矢)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삼연은 아버지 김수항의 영(靈)을 위해 조석으로 기도를 드렸다.(『인제군사』)

영시암지(永矢庵址)

남쪽에 朝元峰이 솟아있고, 서쪽에 靑龍峰이 보이는 雅淡한 樹林 사이에 쌓여있는 이름 높은 암자이다. 이 永矢庵의 창건 역사를 살펴보면 슬픈 사연이 스며 있고, 더욱 孝心이 지극한 한을 드리고 四時四色을 구경하며 눈물로써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양주지』)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2리. 건립: 1468년 추정.

백담사의 부속 암자로 세조 14년(1468)에 삼연 김창흡이 창건하였으며 백담사에서 동북쪽으로 계곡을 따라 14km 오르는 지점에 있다. 누구나 설악산 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산으로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백담계곡은 사계절 모두가 자연 경관이 빼어나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 및 등산객이 줄을 지어 다녀가는 명승지이다.

영시암지는 평평한 넓은 터에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고 남쪽에는 조원봉이 높이 솟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청룡봉이 보이며 뒤로는 수림이 우거진 아담한 곳이다. 삼연 김창흡이 숙종 15년(1689) 2월에 있었던 기사환국으로 부친 김수행이 사사당하고 시국이 어수선해지자 어지러운 세상과 영구히 인연을 끊기 위해 더욱 효심이 지극한 한을 드리고 사시산색을 구경하며 눈물로 이곳에 머물러 암자를 영시라 이름짓고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永矢庵記』에 의하면 그 후 6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암자 뒤 골짜기에서 범에 물러간 일이 있어 삼연은 인정을 생각하고 이곳을 떠나 수청산으로 가고 이곳을 호식동이라 불렀다 한다.

1691년 설정선사가 가시덤불 속에 묻힌 이 암자를 민망히 여겨 여러 대사들과 도감찰사 그밖에 공의 덕을 사모하는 모든 선비들과 주민들에게 재물을 거두어 암자를 재건하고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법당이 24칸, 비각이 1칸이었다고 한다. 그 후 1925년 기호 스님이 중수했다가 6.25동란의 재화로 소실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영시암의 기둥 높이가 덕수궁보다도 높다고 하여 조정에서 낮출 것을 종용하여 기둥을 잘라서 낮추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삼연 김창흡의 유허비가 있었으나 6.25로 인해 회손되었다.(『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오세암(五歲庵)

원통에서 28km 떨어진 용대2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찰은 백담사의 부속암자로 당초 2층 박달나무 제암(製庵)으로 옛 이름이 관음암(觀音庵)이라고도 하는데 신라시대 설악산에 불원(佛院)을 개창(開創)한 자장율사가 삼국통일 후 불교가 국교로서 숭봉왕성(崇奉旺盛)한 무렵 자경(慈

經)을 전하고 구영(救靈)의 대도를 찾고자 선덕여왕 13년(644)에 창건한 고사(古寺)로 내설악의 심장부라 할 명승지이다.

조선 인조(仁祖, 1643) 때 명승 설정대사(雪淨大師)가 이를 증건하여 오세암(五歲庵)이라 개칭하였는데 그 연유로는 설정대사의 질아(姪兒)가 5세로 여기서 견성득도(見性得道)하여 동국제일선원오세암(東國第一禪院五歲庵)이라 하였다는 설과 세조(世祖, 1456)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梅月堂 金時習 1435~1493)이 속진을 벗어나 대도를 갖고져 이곳에 단발입산하여 오래 있었던 탓으로 오세신동(五歲神童)의 칭호를 따서 오세암이라 했다는 전설이 있다.

학암당(鶴岩堂)의 경각중건기(經閣重建記)에 의하면 “五歲之稱(오세칭) 惑云五歲神童堅性之地(혹운오세신동견성지) 爲五歲(위오세) 而按見諸山祖師所錄(이안견제산조사소록) 果有五歲祖師云(과유오세조사운) 則其設亦或可徵(칙기설역혹가징) 或云梅月先生棲心於此(혹운매월선생서심어차) 嘗稱五歲神童故因號五歲(상칭오세신동고인호오세) 兩設但無文獻(양설단무문헌) 未詳孰是也(미상숙시야)”라 하였으니 고려 오세동자(五歲童子) 또는 매월당신동(梅月堂神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지 개칭유래를 단정하기 어렵다.

고종 을축년(1865)에서 고종 무자년(1888) 사이에 백하(白下) 스님이 재차 증건하였고, 남호대사(南湖大師)가 해판대장경(海板大藏經)을 봉안하였으며 매월당(梅月堂) 유상(遺像)도 있었으나 6.25동란 때 천년국보는 애석하게도 소실되었다.

<매월당 김시습 영정(梅月堂 金時習 影幀)>

643년에 창건하였다는 내설악 오세암 남향의 법당을 중심으로 기다란 승방이 좌측비탈의 나무계단 위에 경관을 보존한 장경고(藏經庫)가 있다. 법당 좌측 벽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은총을 받은 바 있는 강릉인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국보급인 영정을 봉안하던 곳이나 6.25때 애석하게도 소실되어 버렸다. 조선 헌종(憲宗) 9년에 발간하였다는 『인제읍지(麟蹄邑誌)』(1843)에도 “五歲庵自縣東八十里雪嶽山中而梅月先生影幀奉安之所(오세암자현동팔십리설악산중이매월선생영정봉안지소)”라고 기록되어 있다. 약관 21세에 승이 되어 방랑길에 올랐으나 일생을 민중사상으로 일관되누 생애를 마친 매월선생(梅月先生)은 <한계(寒溪)>라고 제영한 고시조로 <鳴引寒溪水空山日夜流(명인한계수공산일야류)> 일편을 남겼다.

(『인제군사』)

고려 때 명승으로 설정(雪頂)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스님은 설악산 관음암(觀音庵)을 중수하여 그의 조카인 다섯 살 된 어린이와 함께 살았다. 그 해 10월 스님은 눈이 쌓이기 전에 겨울 날 양식을 마련하려고 양양 쪽으로 떠나게 되었다. 스님은 산중 암자에 혼자 있게 될 어린 조카에게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있거라. 그러면 내가 내일 돌아오겠다.”

고 이르고 산 고개를 넘어 양양으로 떠났다.

그런 것이 그날 밤에 눈이 내려 산과 같이 쌓였다. 산 고갯길이 통할 수 없게 되자 스님은 하는 수 없이 양양에서 그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스님은 이듬해 봄에야 비로소 암자에 돌아왔다. 암자에 돌아오면서 어린 조카는 이미 죽었으려니 하였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어린 조카는 신기하게도 살아 방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었다. 이것을 본 스님은 놀라서 아직까지 살아있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어린 조카는 대답하기를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늘 찾아와서 젖을 주어 오늘까지 살아왔다”

고 말했다.

어린 조카의 이와 같은 대답이 있자 흰 옷을 입은 선녀 같은 젊은 부인이 관음봉으로부터 내려와 어린 조카에게 「관음지기(觀音之記)」를 주고서는 파랑새로 변하여 홀연히 날아갔다. 스님은 다섯 살짜리 어린 조카가 도를 얻었다하여 그 후부터 이 암자를 오세암(五歲庵)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태백의 설화』)

백담사내에 있다. 신라 선덕왕 갑진년(甲辰年)에 자장법사가 봉정암을 창건할 때 관음암(觀音菴)을 세웠다. 조선 세조 병자년(丙子年)에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여기에 와서 머리를 깎고 검은 옷(승복)을 입었다. 인조 계미년(癸未年)에 설정선사(雪淨禪師)가 중수하고 오세암으로 개칭하였다. 고종 을축년(乙丑年)에 남호대사(南湖大師)가 해판(海板) 대장경을 오세암에 봉안하였는데 지금까지 봉안되어 있으며, 매월당의 속상(俗像)과 도상(道像)이 여기에 있다.(『국역 강원도지』)

옥녀탕(玉女湯)

북면 한계3리의 장수대(將帥臺) 쪽으로 44번 국도변 좌측 한계고성(寒溪古城) 아래에 있다.

이 탕은 장수 제1교 좌측의 수려한 옥녀봉에서 흘러내리는데 위로는 이 단폭포(二段瀑布)가 있는데 위로 두 번 꺾인 작은 폭포와 아래로 한 번 꺾인 긴 폭포가 있는데 아래 것을 흔히 옥녀폭(玉女瀑), 옥녀탕, 옥선녀탕(玉仙女湯)이라고 부른다.

폭포 밑의 탕이 탕수동(湯水洞)의 여러 탕의 모양과 같고 흰 구슬 같이 낙하하는 물방울은 암벽에 확을 만들고 확인 고인 물은 감벽 담을 이루면서 재차 낙하하여 보얗게 닳아진 옥석 위를 흐르는데 그 장관은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실로 일품이라 누구나 탄성을 올린다.

폭포수가 청결하여 옥녀라는 선녀가 내려와 ‘공기놀이’를 했다는 전설에서 옥녀탕이라고 불려졌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곳을 출입하는 관광객이면 으레 쉬어서 세수하고 식사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6km의 긴 계곡이 한결같이 아름다운 바윗돌과 우점종(優點種)의 식물상태에서 단풍을 즐기고 한계고성을 바라보며 안산(鞍山) 십이선녀탕으로 갈 수 있다.(『인제군사』)

옥녀폭의 옥녀탕(玉女瀑의 玉女盪)

寒溪里 古城 아래에 있다. 玉女瀑布는 물줄기가 큰 바위를 뚫고 서너번 꺾인다. 세 번 꺾이는 중에 위에는 두 번 꺾이는 적은 폭포이며 또 맨 아래에 긴 瀑布가 있으니 이것이 玉女盪이다. 물이 청결하여 玉女라는 仙女가 ‘공가놀이’를 했다는 전설이 있다. 玉女盪은 玉女淵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이른다. 그러나 이곳을 盪水洞이라 하기에 으레 옥녀탕이라고 부른 것 같다. 이 계곡은 수목이 우거져 아름답고 가을이면 丹楓으로 절경을 이룬다.(『양주지』)

용바위

용대3리 뒤쪽에 있는 설악산 줄기의 용모양 바위이다. 몇 개의 바위가

길게 늘어서 마치 용이 몸을 길게 하고 있는 모양이다. 원래는 더 멋있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머리 부분이 깨어져 옛 모습과는 다르다.

용아장성의 옥녀봉(龍牙長城의 玉女峰)

玉女峰은 수렴동 골짜기의 정면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수려한 봉우리다. 모양이며 위치가 글자 그대로 옥같이 맑고 깨끗한 峰이다. 이 연봉에는 기암과 절벽이 마치 바위성 같기도 하여 매우 험준한 곳이다. 玉女峰을 보고 누구나 탄성을 울리며 그 고고한 모습이 눈에 잘 뜨인다.(『양주지』)

운흥사지 석탑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으며 원형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잔해만 일부분이 남아 있을 뿐이다. 690년 한계사(寒溪寺)가 소실되고 719년에 다시 중건(重建)하였으나 785년에 다시 불에 타자 790년 아래 동리 320리 지점으로 자리를 옮겨 세우고 운흥사(雲興寺)로 개칭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탑의 건립연대를 790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인제군사』)

운흥사지 운막암 석탑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건립: 790년 경.

이 탑은 인제군 북면 한계 3리에 있으며 원형은 찾아볼 수가 없고 탑신 일부만 산재되어 있다. 690년 신문왕 10년에 한계사가 소실되고 719년 성덕왕 18년에 다시 중창하고, 785년 원성왕 1년에 다시 전소되어 790년 원성왕 6년에 현지에 이전 건립하고 ‘운흥사’로 개칭한 기록으로 보아 제작 연대를 790년으로 추정한다.(『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원명암(圓明菴)

백담사 산내에 있다. 숙종 병진년(丙辰年)에 설정선사(雪淨禪師)가 창건하였다.(『국역 강원도지』)

원명암지(圓明庵址)

백담사 부속 암자로 북면 용대2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백담사 동북쪽 8km 약 2시간을 보행하면 탐방할 수 있다.

숙종(肅宗) 병진년(丙辰年 1676)에 설정(雪淨)이 창건하고 1897년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중건하였다는 길고은 전해지고 있으나 언제 회신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영시암(永矢庵)에서 마등령(馬登嶺)코스로 4km 거슬러 올라가면 원명암(圓明庵)에 다다른다 6.25후 잡초가 무성하여 찾아보기 힘들다.(『인제군사』)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2리. 건립: 1676년.

백담사 부속 암자로 북면 용대2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백담사 동북쪽 8km로 약 12시간을 보행하면 원명암자터를 볼 수 있다. 백담사 계곡은 어디를 가나 자연 경관이 좋아 손색이 없겠으나 특히 옛 사지와 암자터를 보면 주위의 경관 여건이 보면 볼수록 좋다. 이 원명암지도 현재는 건물 이 소실되어 잡초가 무성하나 터가 넓고 주위 경관이 매우 좋다.

숙종 병진년(1676)에 설정이 창건하고 1897년 중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유달폭포(遊達瀑布)

수렴동(水簾洞)과 백운동(白雲洞) 골짜기에 치솟은 암벽과 수줍은 소녀의 앞가슴 같이 불룩이 내민 봉우리들 그 앞을 자랑스럽게 뚫고 나간 쌍폭동(雙瀑洞) 골짜기에 선 폭포이다.

하늘이 푸르고 산이 푸르다. 등산객의 마음도 푸른 신념을 마냥 청빛 공간으로 날려보게 하는 선정이다.

햇빛을 반사하여 눈부시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 폭폭에 잠시 머물러 있노라면 땀이 비오듯 흐르다가도 잠시 쉬는 동안은 싸늘한 기운이 몸을 휘감는다.

피로와 함께 고독을 느끼게 하는 이 폭포는 따뜻한 엄마의 품속 같이

피로한 길손을 맞이해 준다.(『인제군사』)

유홍굴(兪泓窟)

규장각(奎章閣)에서 조선시대 영조 때의 각 고을의 읍지를 총집대성한 대동여지도(영인본, 1970) 인제현편의 고적으로 “兪泓窟 兪相公泓爲本道 觀察使時自寒後寒溪嶺立石 題名于窟至今稱兪泓窟(유홍굴 유상공홍위본도 관찰사시자한후한계령입석 제명우굴지금칭유홍굴)”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한계령(960m) 도로확장공사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유홍(兪泓): 기계인(機溪人) 字 지숙(止叔) 號 송당(松塘) 시호 충목(忠穆). 중종 19년(1524)출생, 1549년에 진사, 1553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 1590년에 광국일등(光國一等), 1591년에 평난이등(平難二等) 부원군. 1592년 임진년에 좌상에 오르고, 1594년에 작고 하니 나이가 71세이다.(『인제군사』)

재상을 지낸 유홍(兪泓)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있을 때 날이 추워진 뒤 삼대령(三大嶺)을 넘다가 굴에다가 돌을 세워 이름을 새겨 넣었다. 지금까지도 ‘유홍굴’이라고 부른다.(『여지도서』)

유홍굴은 귀담의 곁에 있다. 영시암을 거쳐 동쪽으로 시내를 건너 숲속을 뚫고 지나가 까마득한 돌길을 따라 수 리를 가면 운모담에 이른다. 돌이 야트막하고 여울은 운모가 많이 산출되어 이름붙인 것이다. 또 숲을 뚫고 지나가면 귀담과 운송에 이르는데 그윽한 흥취가 자口口시 넉넉하다. 또 앞으로 가다보면 유홍굴에 이른다. 유홍이 강원도관찰사의 신분으로 이산을 유람하다가 비를 피한 곳이다. 시냇물이 굴 곁에서 양쪽으로 흐르는데 남쪽방향이 십이폭이고 동쪽방향이 폐문암이다.(성혜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응봉폭(應鳳瀑)

구선대(九仙臺)에서 북쪽으로 약 120분쯤 골짜기를 타고 오르면 좀 떨어진 곳인 좌측에 자리잡고 있는 폭포로 응봉(應峰) 밑에 있다하여 응봉

폭이라 부른다.

계류의 본줄기에서 떨어져 내가 있으므로 약하기는 하나 청천(淸泉)이 난와 향시 영기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폭포의 길이도 짧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폭포는 약수장폭(弱水長瀑)이라는 별칭도 있다.

응봉의 위로 솟는 봉우리는 흡사 매가 나는 듯한 형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산수의 운치를 한결 드높여 주고 있어 탐방객의 인기를 모으기도 한다.(『인제군사』)

12선녀탕 아래에 있다.

九仙臺에서 북쪽으로 약 20분쯤 골짜기를 타고 오르면 좀 떨어진 곳인 좌측에 있다. 응봉폭은 응봉 밑에 있다 하여 이 이름이 있다. 계류의 본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므로 약하기는 하나 폭포의 길이는 짧은 것이 아니다. 폭포는 弱水長瀑이라는 별칭도 있다. 응봉의 위로 솟은 응봉은 흡사 매가 나는 듯한 형상을 하여 산수의 풍치를 한결 드높여 준다.(『양주지』)

장수대(將帥臺)

북면 소재지인 원통에서 차도로 10km 동북쪽 지점인 한계3리 자양밭(紫陽田)에 소재하고 있는 산장이다.

설악전투의 대승을 기념하고 인근에 대승폭포(大勝瀑布), 옥녀탕(玉女湯), 가마탕, 한계고성(寒溪古城), 하늘벽(天壁)을 찾아드는 관광객들의 휴양처로 세워진 이 한식건물은 규모로 보나 건물의 우아성으로 보아 근래에 보기드문 훌륭한 산장(48평)이다. 더욱이 기암괴석과 낙락장송이 우거진 속에 위치하고 있어 탐방객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 산장은 1959년 10월 1일 당시 제3군단장 소장 오덕준(吳德俊) 장군의 후의로 설악산의 개발을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장수대(將帥臺)라는 큼직한 현판은 6.25당시 장군으로 역임한 바 있는 서예가 창헌 최홍희(蒼軒 崔泓熙)의 휘호이다.

장수대란 이곳에서 6.25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 옛날을 회상하며 전몰 장병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명명한 것이다.(『인제군사』)

장수대는 落落長松이 우거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오열탄을 마주보고 있으며 옛 寒溪寺 자리도 이 부근에 있었다. 6.25동란 때 설악산을 수복한 용사들이 한식 집을 짓고 將帥臺라 불렀다. 부근에 하늘벽이 있어 경치좋은 곳이며 등산가들의 휴식처로서 매우 훌륭한 곳이다.(『양주지』)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3리. 건립: 1959년 10월 1일.

설악전투의 대승을 기념하고 인근의 대승폭포, 옥녀탕, 가마탕, 한계산성, 하늘벽을 찾아드는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세워진 한식 건물은 규모로 보나 건물의 우아함으로 보아 근래에 보기 드문 훌륭한 산장(48평)이다. 더욱이 기암괴석과 낙락장송이 우거진 속에 위치하고 있다. 제3금강이라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설악산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이 산장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찰을 통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장수대란 이곳에서 6.25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 옛날을 회상하며 전몰장병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명명한 것이며 제3군단장인 오덕준 장군의 후의로 설악산의 개발을 위하여 건립되었다.

장수대

오덕준

금강산이 좋다하되 장수대에 비할소냐
구슬바위 푸른나무 구름높이 들러쌓여
백척폭포 떨어지니 자양강물 소리친다

북면 한계3리 장수대의 자양천 교량 건너편 산형의 자연석(1.8×1.4m)에 1958년 10월 제3군단장 소장 오덕준 장군이 음영하고 석각한 것이다.(『인제군의 유적·지명·전설』)

조승찬 공적기념비

북면 한계3리 장수대의 자양천교량(紫陽川橋梁) 바로 건너편 유원지에 위치한 석비이다.

이 석비는 한계초등학교 장수대분교 건립에 공로가 지극한 조승찬 대령의 공적을 영세불멸(永世不滅)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자연석에 석각한 것으로 비문은 다음과 같다.

“1102공병단장 대령 조승찬 장수분교 공적기념비 1966년 4월 주민일동”

장수분교는 폐교된지 오래 되었고, 현재는 중부 영림서 인제 관리소에서 임간학교(林間學校)로 활용하고 있다.(『인제군사』)

조추(槽湫, 구유소)

대승령로(大勝嶺路)를 내려 시내를 건너서 다시 소로를 끼고 한 10분쯤 내려오면 단애횡병(斷崖橫屏)이 천장으로 높이 들렸는데, 이 애전(崖前)에는 광대한 반석이 있는데 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물밑이 마치 ‘말구유’와 같다는데 연유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 말구유에 천마(天馬)를 먹였다는 전설도 전해 오고 있으니, 소유 권상용(少遊 權相容)의 고기(古記)에도 “澗流狹而深如馬槽 跳珠汨汨 名槽湫云(간류협이심여마조 도주골골 명조추운)”이라고 적혀 있으니 구유소인 줄 반추해 준다.

이곳 단풍의 절경은 너무나 황홀하여 많은 애사(哀史)도 담겨져 있다.(『인제군사』)

조탁암(鳥啄岩)

옥녀탕 아래에 있는 큰 바위로 새들이 바위 틈에 서식하고 있는 비층을 포식하려고 쪼아 놓아서 가운데가 움푹 파였는데 연유하여 부른 이름이다.

쪼아 놓은 바위조각(암편)이 흩어져 있는 주위에는 낙락장송이 운치를 한결 드높여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산색은 청정하여 그 고고한 모습이 눈에 잘 띄어 극치를 더하여 황홀하다.(『인제군사』)

지리실(地理室)

남교역(嵐校驛) 동쪽 20리에 있다. 돌산이 우뚝 솟아 성을 이루고,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은 맑고 차갑다. 가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낸다.(『국역 관동지』)

남교역(嵐校驛)의 동쪽 20리에 있다. 바위산이 높고 험하다. 깊은 골짜기 안의 흰 바위 위에는 맑은 물이 흐르다가 물을 뿜는 듯 날리니 마치 가마솥과 같다. 바로 바위 위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다.(『여지도서』)

창바위

용대리에서 소간령으로 오르는 입구 오른쪽 방면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가운데 창문모양의 네모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창(窓)자를 써서 창바위라 한다. 옛날 미시령을 넘어 가던 길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정표 구실을 하였다. 이 바위는 군사지도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청봉(靑峰)

청봉은 설악산의 가장 높은 곳으로, 봉정도 이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높기로는 하늘에 닿을 듯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단지 어렴풋이 푸르기만 하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곳을 가리켜 청봉이라 부른다. 둥글둥글하고 가파르지 않고, 높으면서도 깎아지른 것 같지 않아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이 마치 거인과 같다.

수렴동을 지나 사자목을 올라, 반야대와 비슬대를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산이 높게 솟아 있고 석성이 펼쳐 있다. 가장 높은 곳은 나는 새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이다. 돌은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데 붉은 글씨로 쓴 흔적이 있다. 전하는 말에 영랑의 여러 신선이 돌에다 새긴 곳이라 한다. 여기서부터 봉우리 정상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험하기 때문에 삼연도 겨우 한두 번 올랐을 뿐이고, 도암도 또한 한번 올랐다고 한다.

산은 깨끗하게 하얀 것이 마치 눈과 같아 이에 설악이라 불려진다. 청봉에서 동남쪽으로 매달리듯 이어져 있는 곳이 오색령인데, 이곳이 상설악이다. 상설악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한계가 된다. 중간에 특별히 옮기

되어 있는데 선장봉 등으로, 이곳이 중설악이다. 또 북쪽에서 내려오면 거의 봉정에 이른다. 다시 높게 솟아 있으니 고명봉 등 여러 봉우리의 출발점이다. 이곳이 하설악이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축성암(祝聖庵)과 귀때기靑峰

이 귀때기 골짜기는 西部능선에서 빠져나오고 상류 쪽에는 귀때기청봉(1,578m)이 솟아 있다. 이 귀때기골 祝聖庵 골짜기에 있는 庵子는 지금은 적으나 옛날에는 큰 축성암이 있었다. 이 귀때기청봉은 大靑峰과 연결하는 봉우리이며 서북 主稜線의 중간에 있다. 祝聖庵 뒤에는 972m의 감투봉이 솟아 있고 작은 瀑布가 많이 있다.(『양주지』)

축성암지(祝聖庵址)

백담사의 부속암자인 축성암은 북면 용대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담사에서 동남쪽 12km로 3시간의 보행으로 찾아갈 수 있다. 수렴동(水簾洞)으로 가다가 영시암터 못 미쳐 큰 귀때기곡이 남쪽 서북능선에서 흐르고 있다. 상류에는 1,578m의 귀때기 청봉이 있으며 서북능선에서 가장 높은 봉으로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이 아래로 축성암(祝聖庵)이란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고종(高宗) 21년(1884) 한암(漢庵)이 창건하였으나 1919년 폐허 되었다.

이 암자 뒤로는 감투봉이 장관을 이루었고 작은 귀때기골에는 작은 폭포가 많아 글자 그대로 비경의 극치를 돋우어 주고 있다.(『인제군사』)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2리. 건립: 1884년.

백담사의 부속 암자인 축성암은 북면 용대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담사에서 동남쪽으로 12km 지점으로 3시간여의 보행으로 찾아갈 수 있다. 수렴동으로 가다가 영시암터 못미쳐 큰 귀때기곡이 남쪽 서부 능선에서 가장 높은 봉으로 여기서부터 계류가 비롯되고 이 아래로 축성암이란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고종 21년(1884)에 한암이 창건하였으나 1919년 폐허되었다. 이 암자 뒤로는 감투봉이 장관을 이루었고 작은 귀때기곡의 많

은 폭포가 글자 그대로 풍치를 돋워 주고 있다.(『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칠음대(七音臺)

도도히 흐르는 물이 일곱 번 굽이쳐 흐르니 그 소리가 온갖 소리로 나는데 일곱 가지 소리가 난다고 하여 칠음대라 하였으니 오랜 풍상속에서 닳여진 연륜의 깊이를 말해 준다.

이렇듯 칠음대는 자연의 협주곡이라 할 수 있으니 설악이 아니면 이런 자연의 신묘음(神妙音)을 만끽할 수 없을 만큼 우람한 소리이다.

칠음대의 바위들은 넓고 크기로 이름이 높으며 군데군데 붉은 암태(巖苔)가 덮였다. 그러므로 암석으로 돌아 흐르는 개울물은 자연의 시(詩)이며 온갖 형상을 한 바위 위에 앉아 소리가 춤추는 듯하다. 아침저녁으로 울리는 메아리는 짧고, 넓고 깊은 소리의 장단이 어떻게 이토록 나타날까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훌륭한 음향의 오묘한 여운은 그대로 부처님의 음성이 되어 중생의 잠을 일깨우고 있다.

대산악곡(大山岳曲)이 바로 칠음대의 소리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칠음대(七音臺)의 협화음 근원은 무엇보다도 바윗돌, 즉 암반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칠음(七音)이라는 것은 음악의 일곱 가지 가락을 말하는 것으로 곧 관(官), 상(商), 각(角), 징(徵), 우(羽)의 오음과 반징(半徵), 반상(半商)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칠운상(七韻上)에 있어서의 일곱 가지 성음이란 곧 순음(唇音), 설음(舌音), 아음(牙音), 로음(鹵音), 후음(喉音), 반설음(半舌音), 반로음(半鹵音) 등을 말하니 즉 소리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인제군사』)

칠음대는 도도히 흐르는 물이 일곱 번 굽이쳐 흐르니 그 소리가 온갖 소리로 나는데 일곱 가지(七音)가 난다 하여 七音臺라 하였다. 칠음대라는 것은 음악의 일곱 가지 가락을 말하는 것으로 곧, 官, 商, 角, 徵, 羽의 五音과 半徵, 半商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음운상 일곱 가지의 성음이란 곧 唇音, 舌音, 牙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등을 말하니, 즉 소리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칠음대는 자연의 협주곡이라 할 수 있

다. 이곳 雪嶽山이 아니면 이런 자연의 신비음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람한 소리이다. 칠음대의 바위들은 넓고 크기로 이름이 높다. 군데군데 붉은 巖苔가 덮였다. 온갖 형상을 한 바위 위에 앉아 들으면 소리가 춤추듯 한다. 길고, 짧고, 넓고, 깊은 소리의 장단이 이렇게 이토록 나타날까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大山岳曲이 바로 이 칠음대의 소리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칠음대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바위들 즉 암반의 상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양주지』)

폐문암(閉門巖)

폐문암은 유흥굴 곁에 있다. 양쪽 절벽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데, 서 있으면 돌 부채가 되고 펼쳐놓으면 말안장 같고, 가지런한 것이 계단과 같다. 여울이 폭포와 서로 이어져 있는데 위의 연못은 물결이 잔잔하고, 아래 두 연못은 매우 맑다. 동서로 또 큰 바위가 있어 앉을 만하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풍대리

용대리에 바람이 많아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바람 때문에 용대리 황태가 유명하다. 특히 진부령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용머리와 매바위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하늘벽(天壁, 일명 鶴棲巖)

하늘벽은 큰 바위가 벼랑으로 낭떠러지 바위 덩어리에 직각된 壁이 넓고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암석이 낭떠러지며 돌의 石苔이니 사람의 입을 벌리게 하는 절경이다. 石苔의 냄새가 물씬 풍기며 그 밑으로 들어서면 먼저 重壓感을 느낀다. 전에는 하늘벽 바위틈에 石蒼蒲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볼 수 없다. 하늘벽 바위에서 가장 높게 솟은 바위를 ‘매바위’ 즉 鷹岩이라 한다.(『양주지』)

학서암(鶴棲岩: 하늘벽, 天碧)

북면 한계3리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벽(The Skywall)은 한계리 입구에서 6.5km지점이다.

옥녀탕(玉女湯)을 지나 장수대쪽으로 잠시 가면 장수 제2교가 나타나는데 이 다리의 상류 우측에 높이 674m의 큰 바위벼랑을 하늘벽이라고 부르며 하늘벽이라고 새겨놓은 표석도 있다.

병풍처럼 둘러진 백 길 천 길의 절벽으로 길이가 약 300m, 높이 250m나 되며 원래는 학이 서식한다고 해서 학서암(鶴棲巖)이라고도 부른다. 흰 바위 푸른 송백이 서로 붙들고 매달린 벽(壁)이다.

독사란 놈이 하늘벽을 훑치려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1933년 약관 31세 때 노산 선생이 첫 답사한 이래 1964년 7월 답사에서 하늘벽의 가경을 『산 찾아 물따라』 관동순례편(關東巡禮篇)에 “이 벽(壁)은 하늘의 자서전이요. 나는 하늘의 분신이다. 하늘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 신앙이요. 인간의 대이상이기도 한 것이다. ‘인내천(人乃天)’이 그것이요. ‘불즉아 아즉불(佛即我 我即佛)’이 그것이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것도 그것이다. 하늘! 저 푸른 하늘 생명과 자유의 원천! 바라보면 멀고 만지면 가까운 곳! 오늘은 하늘벽 아래서서 내가 그의 분신이다.”라고 조선일보에 기록하였다.

특히 하늘벽의 중간 허리부터 계곡까지 피는 철쭉과 진달래의 아름다움은 비길 데 없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의 군락지이며 우람하게 깎아 세운 하늘벽은 아름답기보다 암석의 낭떠러지이며 돌의 석태(石苔)이니 사람의 입을 벌리게 하며 그 웅장함에 위압감이 앞선다.

얼마 전에는 하늘벽 밑 바위 밑에 석창포(石菖浦)가 피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지금은 볼 수 없다.(『인제군사』)

한계(寒溪)

한계는 설악산 서쪽에 있다. 남계역을 거쳐 아래로 흘러 고원통을 지나 한계사로 들어간다. 모랫길과 소나무 숲은 금강산의 장안동 어귀와 흡사하다. 또 골짜기를 나와 시내를 따라 동쪽으로 가 북쪽으로 여러 기괴한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또 4~5리를 가니 북쪽에 산과 폭포가 있는데 절벽

을 따라 ‘옥류천(玉流泉)’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물길이 다하는 곳에 옛 성터가 있다. 평탄하여 사람이 살만 하였다.

또 석문이 있는데 그 북쪽을 지리곡이라 부른다. 수십 리를 내려가니 삼룡추가 있는데 매우 기이하고 웅장하였다. 한계사 옛 터를 지나니 그 북쪽으로 여러 봉우리들이 뾰족하게 서 있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그 중에 사자봉이 특히 가파르고 높았다. 여기서부터 대승암에 다다를 수 있는데, 또 그 위가 상승암이고 아래가 망폭대이다. 폭포는 봉우리 정상에서 떨어지는데 거의 삼백 여 길이었다.

또 십리를 가 진목전에 이르렀다. 그 뒷면 봉우리가 높은 곳이 난야봉, 옥설봉이다. 흙으로 된 산등성이 세 지류가 북쪽에서부터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데, 가운데 등성이 가장 우뚝하며 좌우의 등성을 부축하는 것 같았다. 앞의 산은 그리 높지 않은데 푸른빛이 무성하였다. 동쪽으로 5리쯤에 아차막 골짜기가 있는데 시내를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면 폭포가 몇 군데 있다. 냇물을 따라 가다보면 설악산 백운암에 이를 수 있다.

또 진목전부터 골짜기 입구까지 겨우 10리이다. 시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물과 돌이 맑고 그윽하며, 또 5리를 가면 터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암자를 세울 만하였다. 절벽을 등지고 동남쪽을 향해 있는데 희고 깨끗한 여러 봉우리가 빙 둘러 있다. 남쪽에는 상필여봉이 있고 서쪽에는 입모봉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동해를 바라볼 수 있다. 옛날 왕유정이 지은 <한계산기>에 기이하고 그윽하다고 언급하였으니 중국에서도 칭송을 받은 것이 이와 같다.(성해응, <기관동산수>, 『지역원형과 명승』)

한계령(寒溪嶺)

태백산맥의 허리 해발 960m의 한계령(寒溪嶺)은 영동·영서 분수령으로 전라사상 내륙과 동해안을 잇는 침략상 교통의 요로(要路)로 알려져 왔으며 옛날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도 불렸다.

국립공원 설악산이 관광사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60년대 후반에 착공하여 70년대 초반에 완공한 드넓은 국도가 이 고개에 뚫렸다.

한계령 국도는 66년 3월에 내무·국방 건설부가 합동으로 재원은 내무·건설부가 대고 공사는 국방부가 맡아 6년 간만인 71년 12월 완공했었다.

힘준한 산세에 조석으로 급변하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나 인부들이 대역사에 참여하므로 이 국도가 개통됨에 따라 영동지방에서 고성(高城)의 진부령(陳富嶺)과 강릉(江陵)의 대관령을 이용 영서로 가야했던 불편이 덜어졌고 내설악과 남설악의 천연 관광자원도 새얼굴을 드러내게 됐다.

이 고개는 속초와 양양 유생들이 원통과 인제를 거쳐 한양으로 오가던 길목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전란사를 통해 본 교통로를 보면 양양에서 한계령을 넘어 인제로 통하는 이 길이 전략상의 도로의 구실을 하였다. 그래서 양양과 인제지방에서는 정철(鄭澈, 1536~1593)의 일화 등 곧잘 이 고개에 얽힌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현재 1일 10,000~15,000인의 관광객이 관광버스 등으로 이 고개를 넘어 설악산관광을 즐기고 있으며 속초항에서 잡힌 명 해산물이 1일 100여 톤씩 이 고개를 넘어 전국의 소비자에게 반출되고 있다.

이 고개 길목의 남설악 쪽에는 오색약수(五色藥水), 오봉사(五峰寺), 만경대(萬景臺), 선녀탕(仙女湯), 만불동(萬佛洞), 옥녀폭포(玉女瀑布) 등이 있고 내설악으로는 십이선녀탕, 한계고성(寒溪古城), 옥녀탕(玉女湯), 하늘벽(天壁), 조추(槽湫), 구곡담(九曲潭), 오세암(五歲庵), 축성암(祝聖庵), 봉정암(鳳頂庵), 장수대(將帥臺), 영시암(永矢庵), 백담사(百潭寺) 등의 명승지가 곳곳에 벌려 있으며 인제군 남면에서 군축령(軍築嶺)에 이르는 16km의 국도가 소양호(昭陽湖) 상류를 끼고 돌아 관광객의 기분을 한결 돋우게 하고 있다.

이 장기공사에서 순직한 7인의 장병을 위해 960m의 정상에 건립한 위령탑과 그 앞에는 71년 12월 27일 설악루(雪嶽樓)가 아담하게 건립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장하였다.(『인제군사』)

한계사지(寒溪寺址)

강원도 기념물 제 50호로 지정된 한계사지는 1982년 11월 3일에 지정되었다. 북면 한계리 90-1~4번지에 위치하였으며 인제군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한계사(寒溪寺)는 신라 제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元年, 647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큰 화재를 입어 이리저리 자리

를 옮겨 다니다가 지금의 백담사(百潭寺) 자리에 터를 잡게 되었다.

인제군에서는 한계사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학술조사 반에 조사 용역을 주어 1984년 8월말부터 9월 24일에 걸쳐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도자기로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이 발견되었으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없고 거의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토제품(土製品)으로 소탑(小塔)과 염주 등 수점이 발견되었다. 또 금속제품에는 철제마상(鐵製馬象), 숟가락, 사리함조각, 청동제 그릇조각, 청동자물쇠, 걸쇠, 문고리, 철제격쇠 등이 있었으며, 석제품(石製品)에는 3층 석탑 2기와 돌사자상, 불상, 석등옥개석, 배례석, 불상대좌, 불상대좌의 중대조각, 불상광배, 불두(佛頭), 옥제염주, 어망추, 벽돌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현재 사지(寺址) 내에는 석제품인 석탑과 돌사자상을 비롯한 석물(石物)들만 현존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것들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인제군사』)

북면 한계3리 초소에서 9km의 지점인 장수대(將帥臺) 부근에 위치한 사지로 걸어서 2시간가량이 소요된다.

장수대 주차장 좌측 언덕(동부산장)이 바로 사지로서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647)에 명승인 자장율사가 창건한 한계사지이다. 창건 후 5차에 걸친 재화로 용대리로 옮겨 갔으니 현재의 백담사인 것이다.

한계령에서 서쪽 자양천(紫陽川)을 흘러내려 북한강 상류를 만드는 하천은 장수대 앞을 흘러내리고 있으며 흔히들 한계천(寒溪川)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생육신이며 방랑시인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이곳을 명인탄(鳴咽灘)이라고 부르면서 “목메어 우는 한계의 물아 빈산을 밤낮 흐르나!”라고 읊었다.(『인제군사』)

소재지: 북면 한계3리. 지정일: 1982년 11월 3일. 지정번호: 강원도 기념물 50호.

인제군 북면 한계3리 장수대 주차장 좌측 언덕(동부산장 뒤)이 바로 한계사지로서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647)에 명승인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창건 후 5차에 걸친 재화로 용대리로 옮겨 현재의 백담사가 된 것이다. 백담사가 소유한 한계사에 관한 일부 기록은 다음과 같다.

『백담사(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사적』

“일천육백칠사년(신라진덕여왕원년정미) 자장법사일사를 설악산한계리에 창하여 명을 한계사라하고 미시상 삼위를 조성 봉안 하였다. ... ”

앞의 자료를 참고한다면 한계사가 창건된 연대는 현재 북면 용대리에 소재하고 있는 백담사의 전신 사찰로써 신라 진덕왕 원년(647)으로 되어 있다. 그때의 고승인 자장율사는 3년 전에 봉정암과 관음암을 짓고 다시 한계사를 창건하여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였다는 것이다.

그 위 신문왕 10년(690) 불에 타서 다시 성덕왕 18년(719)에 중건하였으며 또 원성왕 원년(785)에 소실되어 같은 왕 6년에 한계사 아래 30리 지점으로 절을 옮겨 운흥사로 이름을 개명했다고 한다. 그 후 운흥사도 고려 성종 3년(985)에 불에 타서 예부터 북쪽 60리 지점으로 옮겨 심원사라 이름 붙이고, 그 뒤에도 절이 소실되어 옮기고 절 이름을 선구사(1433), 영취사(1466) 등으로 바꾸다가 조선 세조 2년(1457) 현재의 백담사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 절터에 현재 남아있는 주춧돌, 기단석, 석조물들의 제작 수법이나 형태가 다양하고 여러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 절이 있었던 1200여 년 동안에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만들어졌던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조물에 훌륭한 솜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통일신라 때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절터 남쪽의 축대 쌓은 수법은 통일신라시대 때의 것임을 명백히 해 준다. 이 절은 몇 차례 화재가 있었고, 그때 따라 중창을 하였으며 먼저 있었던 탑, 석조물, 주춧돌을 이용하여 건축하였다고 본다.(『인제군 유적·지명·전설』)

한계사지 3층 석탑(남측탑)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 1번지. 건립: 통일신라시대 초기 추정(8세기말~9세기초). 지정일: 1998년 4월 6일. 지정번호: 국가 지정 문화재 12175호.

인제군 북면 원통에서 동해안의 양양으로 통하는 44번 국도를 따라 한계령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옥녀탕 휴게소를 지나 장수대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언덕 위 한계사지 내에 있다.

백담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의하면 한계사가 창건된 연대는

신라 진덕왕 원년(647)으로 고승인 자장율사가 3년 전에 봉정암과 관음암을 짓고 다시 한계사를 창건하여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2기의 석탑과 각종 석조물 등의 제작 형식과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말~9세기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4년 8월 31일 인제군에서는 강원대학교에 발굴 용역을 체결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이때 지대석을 제외한 탑재는 모두 현재 동부산장 서쪽 뜰에 옮겨져 복원되어 있었다.

다시 한계사지 조사팀은 1년에 걸쳐 1995년도 9월에 복원을 마쳤는데 이때 현 위치로 옮겨 복원을 하여 놓았다.

조사팀이 지대석 밑의 고인돌을 조사하려고 주위를 발굴하였을 때 1945년 이전에 일본의 아사히 양조주식회사가 만들었던 맥주병("ASAHI"라고 병 밑에 새겨져 있음)과 함께 사리함 조각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일본인들이 사리함을 꺼내기 위해 도괴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크기는 다음과 같다.

3층 옥개 높이: 32cm 너비: 88.5cm 옥신높이: 15.8cm 너비 512.5cm

2층 옥개 높이: 34.5cm 너비: 92cm 옥신높이: 21cm 너비: 55cm

1층 옥개 높이: 34.5cm 너비: 107.5cm 옥신높이: 57cm 너비: 64cm

상대갑 높이: 18cm 너비: 139cm

하대갑 높이: 17cm 너비: 187.7cm

지대석 높이: 10cm 너비: 228cm(『인제군 유적·지명·전설』)

한계사지 3층 석탑(북측탑)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 1번지. 건립: 통일신라시대 초기 추정(8세기말~9세기초). 지정일: 1998년 4월 6일. 지정번호: 국가 지정문화재 1276호.

인제군 북면 원통에서 한계령으로 가는 44번 국도를 따라 약 14km를 오르다 보면 안산 밑에 장수대가 있는데 장수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 한계사지가 있다. 이 한계사지 서북쪽 언덕 위로 45m되는 곳에 있는 탑으로 금당지 앞의 탑(남측탑)과 양식이 비슷하여 통일신라시대 초기 8세기 말~9세기 초에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 9월 강원대학교 발굴복원조사팀에 의하여 이 탑도 현재 모양으로 복원되게 되었다. 복원 전에는 동부산장 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제자리에 복원하게 되었으며 일본인들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도굴관계로 일부가 심히 마모되어 있다. 크기는 남측 3층 석탑과 비슷하며 화강암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남측 석탑과 북측 석탑 등의 유물은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제작 수법과 형식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시 불교 예술의 한 단면을 알 수 있게 해 준다.(『인제군 유적·지명·전설』)

한계고성(寒溪古城)

한계의 옛 城은 寒溪川을 끼고 寒溪里 북쪽에 있다. 城頭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높이가 약 7m 가량이나 되어 보인다. 지금 城壘의 일부만 있을 뿐 그의 全貌를 알 길이 없다.

신라말 敬順王 때 축성하였다는 전설도 있고, 高麗末의 축성이라고도 한다. 恭愍王 21년(1372)6월에 倭寇가 대거 侵入하였는데 江陵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다. 그들의 노략질 대상이 되었으므로 설악산을 넘어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고 한다. 이 옛 城에서 출토된 기와조각의 銘記가 至正 18년이란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지정 18년은 恭愍王 18년이다. 이때 5월 5월 이전에 축성하여 기와에 銘名하였던 것 같다. 寒溪 古城의 주위에 勝景을 이루고 있어 북에는 玉女盪이 있고, 구름 사이에 솟는 三角峰을 가히 이 城으로 하여금 돋보이게 하고 있다. 더욱 城터의 북쪽 언덕에 옛날 大闕터가 있었다고 하고, 그 북쪽에 望京臺가 있으며, 麻衣太子가 이곳에서 경주 金城을 바라보았다고 한다.(『양주지』)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6,278척, 높이가 4척이다. 성 안에 두 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무너져 내렸다.(『국역관동지』)

돌로 쌓았다. 둘레가 6천 2백 78척(尺), 높이가 4척이다. 안에 우물이 둘 있었다. 지금은 허물어지고 깨어졌다.(『여지도서』)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6,178척이고 높이가 4척이다. 성안에 우물자리가 있다. 지금은 반남아 무너져 내렸다.(『국역 강원도지』)

한계산성(寒溪山城)

강원도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한계산성은 1973년 7월 31일에 지정되었다. 인제군 북면 한계3리에 위치한 이 산성은 자연석으로 축조되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인제현 편에 보면 “고한계산 고성석축주육천이백칠십팔척고사척내유일정금즉퇴락(古寒溪山 古城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一井今則頽落)”이라 했고, 그리고 헌종(憲宗) 9년 계유(癸酉, 1843년)에 발간한 인제읍지에는 “고도한계고성석축주육천이백칠십팔척내유일정금즉퇴락(古眺寒溪古城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內有一井今則頽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성에 대한 명확한 문헌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축조(築造)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시대 말기 경순왕(敬順王: 927-935) 때 축조되었다고 하며, 마의태자가 신라부흥운동을 할 때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훈련시켰다고도 한다.

『고려사』 조휘열전(趙暉列傳)에는 고종(高宗) 46년(1259) 몽고군과 조휘가 이끄는 반란군이 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방호별감(防護別監) 안홍민(安弘敏)이 야별초를 거느리고 출격하여 섬멸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도 성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나 규모로 보아 도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빼어난 성이다.

성 안에는 우물터, 대궐터, 절터가 있다고 하나 우물터는 찾을 수 없고 대궐터와 절터에는 기왓장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찾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또 이 성안에는 전망이 좋은 곳에 천제단(天祭壇)이라는 제단이 있는데 작은 돌로 쌓아 놓은 석단(石壇)이 세 개가 있다. 세 개의 석단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비문(碑文)이 새겨져 있다.

◇時國東檀昭金山 道君子誠山揚(시국동단소김산 도군자성산양)

戊申上帝石山壇 南隱師(무신상제석산단 남은사)

附仙天王 申光澤 辛未八月十五日(부선천왕 신광택 신미팔월십오일)

◇坤武誠山揚(곤무성산양)

昭禁江山佛者上弟芙蓉仙王隱師(소금강산불자상제부용선왕은사)

庚午十二月二十七日午時 貞仙陽日月生(경오십이월이십칠일오시 정선양일월생)

金世震(김세진)

◇仙上帝 角山壇 銀隱山 義仙臺將(선상제 각산단 은은산 의선운장)

金成鎭(긴성진)

(『인제군사』)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 지정일: 1973년 7월 31일. 지정번호: 강원도 기념물 17호.

한계산성의 지리적 위치는 옥녀탕 계곡을 따라 위로 약 3km 지점이며 제일 낮은 지역이 해발 700m, 높은 지역이 해발 1,200m에 이르는 산 계곡의 남쪽에 남문을 마련하고 양쪽으로 쌓아 올렸다.

한계3리 북쪽인 해발 1,430m의 안산 8부 능선인 해발 1,100m 되는 곳에서 시작된 성벽은 남쪽으로 점차 내려가면서 쌓았고—성골(또는 옥녀탕 계곡)을 흐르는 계곡물을 동서로 가로질러 막은 후 다시 동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 동쪽 끝 해발 1,200m 되는 산꼭대기를 지나 안산의 8부 능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1.8km 이르는 길이를 따라 축성하였다.

한계산성은 폭 5m, 높이 10m, 길이 70m가 윗부분의 돌만 흩어진 채 거의 완전한 옛 모습대로 있으며 천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청태가 깎인 벽석에서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해주고 있다. 넓이 2m, 높이 3m의 성문은 뒷부분이 흩으로 막혀 있는 것을 1986년 6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2일까지 강원대학교 지표 조사단(단장: 최복규) 1차 지표조사에 의하여 파내어 뚫어 놓았다.

한계산성에 관한 기록이 명확히 기입된 것은 『고려사』<열전> 조휘에 관한 사료에서 발견된다. 그에 따르면 “...明年暉黨自稱官人蒙古兵來攻寒溪城防護別監安洪敏率夜別抄擊盡織之...”이라 있어 “고종 46년(1259)에 조휘의 무리가 고려 관인이라 스스로 칭하며 몽고병을 이끌고 한계산성을 공격하였는데 방호별감으로 있던 안홍민 장군이 야별초를 이끌고 나가 싸워 모두 섬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계산성에서 안홍민 장군이 이끄는 고려 야별초가 몽고군을 섬멸하는 전적을 올린 한계산성 전투가 벌어진 시기는 고종 46년(1259)의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사』<세가> 고종 46년 1월의 기록에 “四十六年春正月...丁來蒙古攻城州崎巖城夜別抄率城中人與戰大敗之東眞寇金剛城遣別抄三千人救之戊年以鄭芝爲四北面兵馬使金允候爲東北面兵馬使”라 있

는 것으로 보아 고종 46년 1월 3일에 몽고군이 평안남도 성주를 침략하였으며 바로 금강산을 계속 침략하자 별초군 3천명을 보내어 구하였고, 같은 달 14일에는 정지를 서북면 병마사로, 김윤후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계산성 전투도 같은 해 1월 중순경에 벌어졌으리라 짐작된다.

그밖에 한계산성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세조대왕실록』<지리지>인 제현편에 “寒溪山石城二在縣北十五里上城周回七百二十九步有一泉旱則渴下城周回一天千八百七十二步有三河水合流爲一小溪長不竭”이라 있어 한계산성은 둘이 있는데 인제현 북쪽 15리에 있으며 위 성의 둘레는 729보로써 샘이 하나 있으나 가뭄 때 고갈되며 아래 성의 둘레는 1,872보로써 세 골짜기의 물이 하나의 계곡을 이루었는데 고갈되지 않는다 하였다.

2)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제편에는 “寒溪山古城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一井今半頽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둘레 6,278척, 높이 4척, 안에 우물이 하나 있고 반은 퇴락하였다는 것이다.

3) 영조 431년(1764)쯤에 편찬된 『여지도서』 인제편에는 “古跡寒溪古城石築周回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二井今則頽破”라고 있어 길이와 높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길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성안에 우물이 2곳 있다고 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현종 9년(1843)에 편찬한 『인제현읍지』 고적편에 “寒溪古城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二井今頽落”이라고 있어 『여지도서』의 기록과 같아 그것을 참고하였다고 생각한다.

5) 고종2년(1864) 김정호 선생이 편찬한 『대동지지』 인제편 성지조 항에 “寒溪山高城 東五十里 周六千二百七十二尺有大泉”이라고 있어 인제현에서 동쪽으로 50리 지점에 있으며, 둘레는 6,272척으로 다른 자료보다 2척이 작으며 높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 안에 큰 샘이 있다고 하였다.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한계산성과 마의태자

마의태자(917~?)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맏아들이다. 경순왕

에 이어 왕위에 오를 위치에 있었지만 경순왕이 935년에 천년사직의 신라를 고려 왕건에게 저항 없이 넘겨주었기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마의태자는 울분을 참으며 금강산을 찾아간다. 강원도 땅에 들어서 통구(通口)를 지나 단발령에 오르니 금강산이 한 눈에 들어왔다. 마의태자는 고개 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이름이 단발령(斷髮嶺)이다. 그는 금강산에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여 초막을 지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풀을 뜯어먹으며 일생을 마쳤다. 베옷을 입고 일생을 마쳤기에 사람들은 그를 마의태자(麻衣太子)라고 부른다. 이것이 널리 알려진 마의태자 전설이다. 그러나 마의태자에 얽힌 전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마의태자는 나라를 통째로 내주려는 부왕의 결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부왕이 항복문서를 고려 태조에게 보내는 날 마의태자는 군사 삼천명을 이끌고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신라를 다시 찾을 계획을 꾸민다. 우선 금강산 속에 대궐을 짓고 성을 쌓았다.

내금강 백천동 골짜기를 계속 걸어 들어가면 저 앞에 우뚝 솟아 있는 명경대가 보인다. 마치 커다란 거울을 산에 의지하여 세워놓은 것 같은 바위인데 벽면이 유리처럼 깨끗하다. 이 명경대가 비쳐 보이는 늪인 옥경담 아래쪽으로 개울을 건너면 오른쪽에 성터가 있다. 무너지기는 하였으나 450여 미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의태자성으로 그때 마의태자가 쌓은 것이다. 이 성터를 지나면 왼쪽으로 명경대가 있고 명경대를 에돌아가면 나지막한 영원문이 있다. 허리를 굽혀 영원문을 빠져나가 조금 올라가면 아름답리 나무들이 서 있는 평지가 나온다. 돌로 쌓은 집터 자리인데 이곳이 아래대궐터로 마의태자의 대궐터이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길옆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그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말고삐를 꿰어서 매어놓기에 적당한 크기이다. 이 바위가 바로 개마석으로 마의태자가 말을 매어두던 바위이다. 개마석을 지나 더 올라가면 또 평지가 나온다. 이것이 웃대궐터이다.

금강산에서 마의태자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겨우 목숨을 보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부의 품격을 가지고 국권회복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궐터 부근 바위에 “東京義烈 北地英風”(동경의열 북지영풍)이라는 새김글이 있다. 누가 새겼는지는 알 수 없으며 동경, 경주에서는 의로운 열사로 이름을 떨쳤고 북지, 즉 금강산에서는 영걸스러운 풍채를 빛내었다는 이 새김글의 뜻은 마의태자의 그러한 기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내금강의 망군대는 마의태자가 고려 군사의 정세를 살피던 곳이다. 어느 때는 삼역동에 수많은 고려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백천강(황천강)에 백토를 풀어 흘러내려 보냈다. 고려 군사들은 백천강에 가득 넘쳐흐르는 허연 물이 신라군의 식사를 위한 쌀뜨물인 줄 알고 기겁을 하여 퇴진하였다.

그러나 마의태자의 힘으로 대세의 흐름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 한계성을 느낀 마의태자는 개마석에서 용마를 풀어 타고 비로봉으로 올라갔다. 태자는 말에서 내려 하염없이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마의태자의 몸은 서서히 식어갔고 용마도 서서히 돌로 굳어져갔다. 마의태자의 무덤은 비로봉 정상에서 외금강으로 내려가는 길 서남쪽 비탈진 언덕에 있다. 돌 축대를 2단으로 쌓은 돌무덤인데 둘레 10미터, 높이 1.5미터로 보통 무덤보다 조금 크다. 비석에는 “新羅麻衣太子陵”(신라마의태자릉)이라 새겨져 있고 무덤 옆에 말이 서 있는 모습의 바위가 있다. 바로 용마석(龍馬石)이다.

그런데 마의태자 전설은 금강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금강에도 있다.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의 청학동은 산수가 금강산처럼 아름다워 소금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도 마의태자의 대궐터가 있다. 망군대 아래에 대궐터가 있고 그 근처에 안군사버덩과 바깥군사버덩이 있다. 마의태자 군사들이 훈련하던 곳이다. 구룡연 계곡 안쪽에 있는 아미산성은 아야산성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의태자의 신라 군사와 고려 군사가 혈전을 벌이던 곳이다. 성 안에 있는 신라 군사들이 성 밑에 있는 고려 군사들을 향해 바위를 굴러내려 고려 군사들이 “아야, 아양”하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 피가 내를 이루어 흘렀기에 그 골짜기에 핏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상팔담에 있는 사형대바위는 지름 4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균을 어긴 신라 군사들을 사형시키던 곳이다. 그리고 무릉계 서쪽에 있는 식당암은 10평 정도의 너럭바위인데 마의태자 군사들이 훈련하고 나서 식사하던 곳이다.

마의태자 전설은 금강산과 소금강뿐만 아니라 설악산과 김부리에도 있다. 경순왕이 개성을 향해 경주를 떠나기에 앞서 마의태자는 신라의 옥새를 가지고 그를 따르는 충신들, 군사들과 함께 강원도 설악산을 향해 떠난다. 마의태자는 설악산에 대궐을 짓고 성을 쌓았다. 지금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한계산성이 바로 그때 마의태자가 쌓은 성이고 한계산성

안쪽 높은 곳에 언덕으로 된 터가 대궐터이다.

마의태자는 한동안 이곳에 있다가 본거지를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로 옮긴다. 김부리 하단지골 북쪽 산 밑에 지금도 옥새바위가 있는데 바위 두 개가 포개져 있어 가운데에 공간이 있다. 마의태자가 옥새를 보관해 두었던 곳이다. 늘 오색빛 뱀들이 옥새바위 주위를 맴돌며 옥새를 지켰다. 남면 갑둔리와 상남면 김부리 사이에 있는 술구네미는 그때 마의태자가 수레(술구)를 타고 넘던 고개이다. 이 고개에는 칩이 많아서 고개 양쪽에 수레를 두고 고개를 넘을 때에는 걸어 넘었다고도 한다. 갑둔리의 옥터골은 군율을 어긴 군사를 가두어 두던 감옥이 있던 곳이다. 맹가골은 마의태자 휘하에 있던 맹장군이 살던 곳이며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는 맹장군이 군량(軍糧)을 비축해 놓았던 곳이다. 그러나 맹장군은 거사하기 전에 병사한다. 마의태자의 무덤터는 갑둔리 오미자골 도로변 입구에 있다. 김부리에 있는 대왕각은 마의태자를 모신 사당이며, 1987년에 마의태자의 후손인 부안김씨대중회에서 남면 신흥리, 곧 김부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마의태자유적지비(麻衣太子遺跡址碑)를 세웠다.(『강원의 전설』)

황장금표(黃腸禁標)

인제군 북면 한계3리 큰 절골에 위치하였다. 국도변에서 큰 절골로 1.25km 오르면 옛 절터가 있으며 절터 뒤편 돌담 중앙부 자연석에 “黃腸禁山 自西古寒溪至東界二十里”라고 음각되어 있다.

강원도 내에 황장금표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와 영월군 청령포, 원주군 소초면 학곡리 세 곳에서 발견되었다(崔承洵 等, 1986)고 한다.

금산(禁山)이란 국가적인 보안림이나 기타 금벌림(禁伐林)을 말하며 또한 왕실의 경제림(經濟林)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입을 억제한 산을 말한다. 또 황장(黃腸)이란 누렁고 단단한 심재(心材)를 말하며 황장목이란 심재의 비율이 커 궁궐의 건축자재, 선박자재, 왕실의 관재(棺材) 등으로 사용되어 왔던 강원도의 춘양목(春陽木)과 같은 소나무를 지칭한다. 따라서 ‘황장금표’ 표석은 한계리 일대의 울창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고문(警告文)이라 할 수 있다.(『인제군사』)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3리(큰절골). 건립: 조선 중기 추정.

조선 중기 무렵 한계리 일대의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석에 음각으로 새긴 표석이다. 황장목은 나무 중심부에 누런 부분의 황심을 가진 소나무로써 조선 시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였던 수종이다.

강원도에서 황장금표가 발견된 곳은 북면 한계리 외에 영월군 수주면 두산2리 황장골과 법흥1리 사자산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 구룡사 입구 등이다. 황장목은 심재의 비율이 커 건축자재 왕실의 관재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였다. 영조2년(1746)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황장목이 있는 산에 산직(山直)을 두어 관리하였고 감관(監官)이 이를 감독하였으며 나무를 벨 때는 경차관(敬差官)을 보내 직접관리 하게 하였다. 경상도 전라도는 10년에 한 번 강원도는 5년에 한 번 날을 택하여 경차관을 임명해 보내 황장목을 베도록 하였다.

벌목된 황장목은 합강리 앞 우소에 집적 되었다가 뗏목으로 엮어 춘천을 거쳐 서울까지 운반되었다.

황장금표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음각되어 있다.

黃腸禁山

自西古寒溪

至東界二十里

황장을 금하는 산이며, 서쪽으로 옛 한계에서부터 동쪽의 경계는 이십리까지이다.(『인제군의 유적·지명·전설』)

2. 내설악 및 인근 지명집의 지명자료

1) 한계리(寒溪里)

한계산 아래 마을이라 해서 한계동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개편시에 구원통, 관벌, 재내, 쇠리, 자양밭을 병합하여 한계리라 했다.

행정리는 3개 리다. 신라 김 씨 대중원의 기록을 보면 마의태자 일행이



그림 4 눈 내리는 한계리 전경

서울을 떠난 것은 단기 3268년(935) 10월 하순 이고 지금의 한계리에 도착한 때는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가 심한 겨울이었다고 했는데 이들 일행이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관내에는 마

의태자와 관련한 많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가마탕

장수대의 자양천 건너 1km 지점의 가마곡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탕으

로 피서를 겸한 가벼운 등산지로 알맞다. 탕의 모양이 가마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허루(架虛樓)

옛적 한계사에 속해 있던 누각이다. 경일(敬一)의 『동계집』<가허루기>에는 “6월 찌는 듯한 더위에도 이곳에 있으면 모골(毛骨)이 서늘하고, 더욱이나 이 가허루에 오르면 큰 폭포가 바라보이는데, 하늘에 큰 띠가 매달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고, 집창문 안으로 뿜어대는 찬 눈발은 찾는 이를 공경하여 찬바람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굽어보면 주위가 텅 비고, 그 표표(飄飄)함이 세상사를 다 잊은 것 같아서 우화등선(羽化登仙)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나의 가슴을 흔들고는 합니다.”(『설악산 백담사』)라는 표현이 있다.

간곡(間谷)

‘소마전’에 있는 골짜기로 우리말 ‘새치골’이라고 한다.

감사놀이터

느와우 동북쪽 냇가에 있는 넓은 바위로 감사가 이곳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다른 이름으로 무당바위라고도 한다.

갈지기

한계리 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적으로 마을 양편에 산과 바위(드림봉)가 우뚝 솟아있어 유래한 이름이다.

갈직촌(葛直村)

갈지기의 한자 표기명

감투봉

두문골 막바지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감투와 같다.

거북바위

부영산 아래 강가 쪽으로 솟아있는 바위로 거북모양과 같다.

건천곡(乾川谷)

자양밭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자주 마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실애곡(高失厓谷)

어두운리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고양이바위

안산 밑에 있는 고양이모양의 바위를 말한다. 최병권(1929년생) 씨의 7대 조부가 경주에 살다가 당시 쥐에 의한 돌림병(페스트)이 유행하여 외아들이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 아들을 업고 한계리에 이주해 왔다. 그 이유는 고양이바위가 있어서 쥐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고원통(古元通)

구원통. 한계 북쪽에 있는 원통리의 원마을로 이조시대 역이 있었다. 인제읍지(1843)의 기록을 보면 기마가 1필, 복마가 2필, 노 4명, 비 1명이 있었다.

공기바위

옥녀탕 위에 있는 묘하게 생긴 바위로 옥녀탕에 왔던 선녀들이 공기받기를 하고 놀았다 한다.

관대(冠岱)

관터. 관벌. 관평. 고원통 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에 관청이 있었다.

광계곡(廣溪谷)

성골의 다른 이름이다.

굉곡

굉계. 쇠리 앞(북쪽) 골짜기로 원래는 고행곡(故行谷), 또는 고행계(故行溪)였으나 단순화 시켜 부르는 이름인데 옛날에 임금이 지나간 골짜기

라는 데서 연유한 이름으로 전해오고 있다. 또 다른 전설로는 이 폭포 밑에 작은 여승(비구니)이 지키는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밤마다 남자 중이 자주 찾아와 괴롭히므로 결국 파계하고 암자는 폐사되었다고 한다.

구선대(九仙臺)

탕숫골 안 칠음대 밑에 있는 너럭바위로 골짜기 물이 아홉 군데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아홉 선녀가 춤을 추는 듯하다.

구암(龜岩)

부영산 아래 강가 쪽으로 솟아 있는 비위이다.

구유소

남교 동쪽 골짜기 어귀에 있는 여러 개의 소로 구유와 같다.

구장곡(九藏谷)

아홉사리골. 고원통에 있는 골짜기이다.

너탄천(磊灘川)

재내와 관벌 사이를 흐르는 물 이름이다.

느와우

한계3리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너와집이 있던 곳이며 ‘너와’가 ‘느와’로 발음이 변하고 ‘우(宇)’는 집을 뜻한다.

높둔지

운흥사지와 모נות골 사이의 산 능선에 위치하며 이곳은 항상 땅이 질퍽하여 높으로 되어 있다.

높재1

쇠리와 모נות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높재[고개] 아래가 된다. 백담사 전신인 운흥사가 이곳에 있었다. 한자로 연현동(淵峴洞)이라고도 한다.

높재2

갈지기에서 내설악으로 가는 재로 매우 높다.

단일로(單一路)

고원통에서 남교리간 도로를 단일로라 하는데 1929년에 개통되었다. 1987년 2차선으로 확포장됨으로써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도로이다.

대궐터(大闕堡)

대궐대. 한계산성(寒溪山城) 내에 있으며, 대궐이 있던 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마의태자(麻衣太子) 김일(金鎰)이 거처하던 대궐터라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된 허응당(許應堂) 보우(普雨)의 시 <한계산(寒溪山) 옛 대궐터를 유람하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 대궐터가 영서(嶺西)에 있다기에
스님과 지팡이 끌며 한계(寒溪)에 이르렀네
연로(輦路: 임금의 수레가 왕래하는 길)는 구름에 묻혀 촉룡(燭龍: 불을 비추어 주는 神)도 가기를 망설이고
궁성(宮城)은 눈이 많아 말발굽도 잠기네
저물녘 갈래진 큰 산의 돌 비탈길은 험하고
몸은 매달려 흐르는 것이 천제(天梯)인양 흠어들어
오호라! 군주(君主)의 관청은 어디 있는가
적막한 천봉에는 새소리뿐이구나.

대삼밭

어은골 안 쪽에 있으며 옛날에 이곳에 큰 삼밭이 있었다.

대승령(大勝嶺)

자양밭에서 백담사로 가는 높이 1,210m 되는 큰 고개로 등산로에서 대승폭포가 있다. 십이선녀탕계곡과 흑선동계곡(대승곡)과 설악산 서부능선을 따라 대청봉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곳이다. 이 대승령을 넘어 어느 길로 가든 기암괴석과 고목들로 점철되어 있어 자연풍경에 도취될 수 있으며 가을에는 단풍바다 위로 구름다리를 건너는 기분에 넋을 잃을 정도이

다.

대승암터

대승폭포 상류에 있던 옛 암자터이다.

대승폭포(大勝瀑布)

자양밭 동쪽 산골짜기(성골) 안에 있는 폭포로 높이가 88m이다. 폭포 맞은 편 언덕 반석에는 ‘九川銀河’라고 큰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선조 때 양봉래가 썼다고 하며, 삼연 김창흡, 소유 권상용, 금원여사, 노산 이은상 등이 크게 칭찬하였다고 전한다.

구천은하 옆에는 ‘사홍치규(使洪穉圭)’라 새겨진 글씨가 있다. 이 글씨는 헌종(憲宗) 3년(1837)에 강원감사를 지낸 홍치규(洪穉圭)가 새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설에는 대승이라는 총각이 동아줄에 의지하여 폭포 아래에서 석이를 따고 있는데 “대승아, 대승아”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서 위로 올라가 보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지네가 동아줄을 쓸어 곧 끊어지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승’이란 말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가 대승(大乘)불교였으며, 이곳에 일찍이 한계사와 대승암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교와 관련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금강산의 구룡폭포(九龍瀑布), 그리고 개성의 박연폭포(朴淵瀑布)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폭포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높다.

덕곡(德谷)

갈직촌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도둑바위골

한계령에서 내려오면서 첫째 골짜기이다.

독탕

웅탕(瓮湯). 탕숫골 위에 있는 탕으로 독과 같다고 한다.

두령소

민예단지에서 용대천을 따라 약 1km쯤 올라가면 물줄기가 굽어지는 곳에 소가 있는데 매우 깊고 둥글게 생겼으며 이곳에서 용이 살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두문골

두문곡(杜門谷). 십이선녀탕계곡의 독탕 위에 있는 길고 큰 골짜기이다.

두문폭(杜門瀑)

두문골에 있는 폭포이다.

드림봉

관광민예단지 옆에 있는 조그만 바위산(바깥드림봉)과 재내 진입로 옆의 작은 바위산(안드림봉)으로 원래는 ‘들어온 봉’이 변해 드림봉으로 부른다. 바깥드림봉 위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이곳에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마산곡(馬山谷)

관별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산곡이란 이름이 왜 생겼는지 전해오는 것은 없으나, 이곳에 역(驛)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말을 놓아먹인 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추측한다.

망경대(望境臺, 望京臺)

한계리와 용대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경관이 아름답기로 설악산에서 몇 채로 손꼽히는 곳으로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설악의 온갖 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한편 이곳에서 옛날에 마의태자(전설에는 경순왕으로 되어 있음)가 경주 쪽을 바라보며 한을 토로하며 신라 재건을 다짐한 곳이라고도 전한다.

말상골

관별 앞 골짜기로 말 같이 생긴 산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골

이 많이 난다고 한다.

모늬골

모노골, 목단곡. 못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삼척 김 씨네 산소가 모란꽃 같이 생겼다고 해서 모란동(牧丹洞)이라 했다고 전한다. 또한 ‘못논골’이 변한 말로 연못의 물로 경작하는 논이 있는 골짜기란 뜻이다. 지금도 연못자리가 있는데 ‘개구리소’라고도 부른다.

목단곡(牧丹谷)

모늬골의 다른 이름. 발음은 모란곡이라 해야 한다.

목적곡(木賊谷)

쇠밭골에 있는 골짜기다.

못재

늪재와 같은 이름이다.

무당바위

감사놀이터의 다른 이름이다.

무명용사충혼비 - 소재지: 인제군 북면 한계3리. 건립: 1967년 9월 29일.

6.25때 유서 깊은 이 고장의 격전지에서 산화한 국군 장병들의 넋을 영세 불멸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 석비는 탑 높이 1.20m, 둘레 0.6×1.15m, 기단 높이 1.67m, 둘레 3.00×3.15m나 되며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본 충혼비는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2,726구의 영령을 길이 추모하고 겨레와 더불어 구국의 신념을 고취하여 이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다 같이 염원하는 군부와 주민의 뜻을 묶어 이 자리에 건립합니다.”

서기 1967년 9월 29일

제12사단장 육군 준장 이근양

인제군수 엄대현 경립(『인제군의 유적·지명·전설』)

무지개탕

홍탕(虹湯). 북탕 위에 있는 탕. 긴 폭포 아래에 있어서 폭포에 무지개가 서며 비친다고 한다.

문필봉(文筆峰)

문필봉은 재내 동쪽(한계초교 뒷산)을 말하는데 이 산은 아홉 봉우리로 되어 있으며 제일 높은 봉우리는 붓 끝 모양으로 생겼다.

미륵바위

한계령에서 내려오면서 세 번 째 골짜기 위에 보이는 우뚝 솟은 선바위로 장군바위라고도 하며 이 바위를 수미륵바위라고도 하는데 이와 똑같은 미륵이 전북 익산 황토2리에 있는데 이를 암미륵이라 한다.

민박촌

쇠리 마을에 새로 형성된 집단촌으로 민박을 하는 마을이다.

밭곡(拔谷)

밭골. 우리말로 밭골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으나 우족곡(牛足谷)의 우리말 쇠밭골의 주린 말로 추측한다.

배바위

쇠밭골로 약 12km쯤 들어가면 배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크기는 20여 명이 누워 설 수 있다고 한다.

백운동산(白雲洞山)

백운암(白雲庵)이 있던 마을로 한계사 동쪽 40여 리 지점에 있었으나 오래 전에 폐동되었다.

백운암(白雲庵)

한계사 동쪽 40여 리 지점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옛터만 남아 있다.

보시암곡(普施庵谷)

자양밭에 있는 골짜기이다.

보조암골

보조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으며 장수대 양영장 북쪽 골짜기이다.

봉바우

봉정암 뒤에 있는 높다란 바위로 봉황새의 모양이다.

봉통곡(蜂桶谷)

벌통골. 관벌 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벌통을 많이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날 벌을 잡아두기 위하여 빈 벌통을 산에 놓는 것을 설통이라고 한다.

부림역(富林驛)

고원통에 있던 역이다. 원통역(元通驛)의 다른 이름으로 철종 12년(1861)에 간행된 <대동여지도>에서 부림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무가 많아 이곳의 나무가 냇물에 뗏목으로 실려 하류 여러 곳의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생긴 이름이다.

부영산

재내 앞에 있는 산이다.

부흥동(復興洞)

재내 마을의 다른 이름이며, '새로 일어나는 동네'의 뜻이다.

복탕

사탕(梭湯). 독탕 위에 있는 탕으로 복처럼 생겼다.

사곡(寺谷)

모란동(牧丹洞)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한다.

사암봉(四巖峯)

네 개의 바위가 있는 봉우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수증(金壽增)의 <한계산기(寒溪山記)>에 “담의 서쪽 암벽 위에는 옥류천(玉流泉)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곳을 지나 걷다보면 우측에 네 개의 바위가 있으며, 그 모양이 난새[鸞]와 봉황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중폭포(四重瀑布)

대승폭포 아래에 잇달아 있는 네 개의 폭포이다.

산주소(散珠沼)

남교 동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비스듬히 떨어지는 폭포로 너럭바위 위에 물이 부딪히고 미끄러져 한 알이 되었다가 다시 마주쳐 흩어지는 경관이 금강산 산주연(散珠淵)과 비슷하다고 한다.

삼선봉(三仙峰)

삼장군봉 위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셋이고 매우 수려하다.

삼장군봉(三將軍峰)

느와우에 있는 웅장한 세 봉우리로 세 장군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형상이라고 한다.

상목곡(桑木谷)

어두운리에 있는 골짜기로 뽕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상승암(上乘庵)

대승암(大勝庵) 조금 위에 있던 암자를 말한다.

상투바위골

상투모양의 바위가 있다하여 상투바위골이라 하며 문 같은 바위를 통해

귀뚜기청봉으로 갈 수 있는 문바위가 있다. 1990년도에 이 상투바위에 벼락이 떨어져 상투모양이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상투봉

자양밭에 있는 산봉우리로 상투 모양이라고 한다.

선호암(仙護岩)

옥녀탕 바로 앞 국도 상에 있는 커다란 바위인데 옥황상제가 옥녀탕에서 목욕을 하던 선녀들을 지네로부터 보호하려고 벼락을 칠 때 떨어진 바위라고 해서 박종문(朴鐘文) 전 강원지사 재임 시 이곳을 지나다가 명명하였다.

성곡(城谷)

성골. 옥녀탕(玉女湯) 상류의 골짜기로 성(城)이 있는 골짜기라 하여 이름 한다.

소동라령(所冬羅嶺)

바드랏재. 한계령의 옛 이름이다.

소마전(小麻田)

소삼밭. 우와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삼밭이 있었다고 한다.

소솔천(所率川)

지금 한계천의 옛 이름이다.

소승폭포(小乘瀑布)

한계령에서 내려오면서 두 번째 골짜기에 있는 폭포로 대승폭포에 대치되어 지어진 이름이며 이곳은 한계리 1번지로 피닉피라고도 한다. 폭포의 높이가 80여m에 달하며 주위가 병풍처럼 석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아래에는 25여 평에 달하는 넓은 암반으로 깔려있어 휴양지로 더할 나위 없다. 이곳에는 형석광산(철악광산)이 있었다.

송곳봉

학서암(鶴棲岩) 북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송곳같이 뾰족하다.

쇠리

쇠발골(牛跋谷) 밑에 있는 마을. 우와(牛臥)형상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안산의 모습이 소 등 모양으로 생겼다하여 일명 우와리라고도 한다.

쇠발골

우족골. 쇠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개울바위에 소발자국이 새겨져 있으며 우족골(牛足谷)이라고도 부른다.

수곡(水谷)

물골. 고원통에 있는 골짜기이다.

승소(僧沼)

승폭(僧瀑) 아래에 있는 소(沼)로 승려가 빠져 죽었다고 한다.

승승곡(承承谷)

탕수골 위 승폭(僧瀑)과 승소(僧沼)가 있는 골짜기이다.

승폭(僧瀑)

탕숫골 위 2km 되는 산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로 높이가 35m 정도이다.

신사곡(新寺谷)

갈직촌에 있는 골짜기로 새 절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 절이란 백담사의 전신인 한계사(寒溪寺)가 1685년에 불타자, 1690년에 옮겨 지은 운흥사(雲興寺)를 말한다.

신원(新院)

옥녀탕 하류로 서쪽에 있었다. 언제 개설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493년에 폐지되었다.

십이선녀탕

남교리 동쪽 용대리와 접경에 위치하며 입구에서 12km 지점 탕수굴에 폭포와 탕을 이루고 있는데 안산(갈마산)에서 비롯된 시냇물에 의해 84m여에 걸쳐 폭포와 탕이 연속된다. 금강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슬 같은 푸른 물이 신기롭고 기괴한 암반을 우레 같은 괴성으로 뒤흔드니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며 이에 봄여름의 산록과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얼음벽이 어울리니 가히 내설악의 영기가 이곳에 도사려 신비를 다하고 있다.

아갈바위

옥녀탕 서쪽에 인접해 있으며, 벽을 이루고 있어 암벽 등반가들의 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차막동(阿次莫洞)

진목전(眞木田)에서 동쪽으로 5리 지점에 있다.

안들바우

구유소 위에 있는 바위로 120도쯤 기울어져 있어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이 바위를 안고 돌아가야 한다.

안산(鞍山)

갈마산. 원래의 한계산이며 한계산성 북쪽을 천연적으로 방어해주는 산으로 말안장 모양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한계산성의 군사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높이 1,430m이다.

갈직촌에 있는 산으로 모습이 매우 뛰어나서 불만한 산이다.

양반바우

양반바위. 송곳봉 옆 냇가에 있는 바위로 바위 위에서 있는 소나무가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앉은 것 같다. 사령바위라고도 한다.

어은골

어은곡(魚隱谷). 소삼밭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옆에는 학모봉(鶴母峰) 학자봉(鶴子峰)이 있다. 응골 안 쪽의 골짜기로 언골(얼어있는 골)이 변한 것이다.

어은천(魚隱川)

어은곡에 있는 물이름이다.

여항어담(餘項魚潭)

옥녀천 밑에 있는 소(沼)로 열목어(熱目魚)가 많다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연현(淵峴)

늪재. 갈직촌에서 내설악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매우 높다.

오색천(五色川)

오색이 내. 자양밭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

옥녀천(玉女川)

성골에서 흘러내리는 물 이름이다. 물빛이 옥같이 맑아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옥녀탕(玉女湯)

옥녀폭. 옥선녀탕. 옥녀천(玉女川)에 있는 탕이다. 장수대 어귀에 있는 탕. 옛날 선녀가 대승폭포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커다란 지네가 나타나 해치려 하므로 이 탕으로 쫓겨 왔는데 지네가 이곳까지 쫓아와 해치려 하자 옥황상제가 벼락을 쳐 선녀들을 구했다는 전설이 있다.

옥류천(玉流泉)

옥녀천(玉女川), 옥녀탕(玉女湯) 모두 같은 이름이다.

용탕(龍湯)

탕숫골 제일 위에 있는 탕으로 뒷벽에 큰 바위굴이 있으며 이곳에서 용

이 나왔다하여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를 올렸다 한다.

용혈(龍穴)

용탕 뒷벽에 있는 바위굴이다.

와천(瓦川)

와골. 와촌. 재내의 한자 표기명. 한계의 중심마을이며, 옛날에 이곳에서 기와를 구워서 사람들이 열을 지어 물이 흐르듯 기와를 날랐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2곳이 가마터로 확인되었다.

우와리(牛臥里)

쇠리. 모란동(牧丹洞) 동쪽에 있는 마을로, 늪재 아래 있는 마을이다. 우리말 이름은 쇠리이며, 우와(牛臥)형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흐르는 물가 바위에 소발자국이 새겨져 있어 우족곡(牛足谷)이라고도 부른다.

우족천(牛足川)

쇠발골에 있는 물 이름이다.

운흥사지(雲興寺址)

초막곡(草幕谷)에 있으며, 백담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사지(寺址) 뒤편 축대에는 황장금표(黃腸禁標) 문안이 새겨져 있다. 늪재 아래 골짜기에 있으며 서기 790년에 한계사를 이곳에 옮기고 운흥사라 했다. 지금은 부서진 탑과 축대만 남아 있다.

울내

한계리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말한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의 한계(寒溪)라는 제하(題下)의 시에 “오열(嗚咽)하는 한계수(寒溪水)는 빈산을 밤낮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시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원통역(圓通驛)

고원통에 있던 역(驛)의 이름이다. 철종(哲宗) 12년(1861)에 간행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부림역(富林驛)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통역(元通驛)

원통역(圓通驛)을 말한다. 기마(騎馬)가 1필 있고, 복마(卜馬)가 2필이며, 사내중 4명에 계집종이 1명 있었다고 전한다.

원통점(圓通店)

원통역 부근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원통천(元通川)

지금의 인북천(麟北川)을 말한다.

유홍굴(兪泓窟)

조선조 영조 때 각 고을의 읍지를 집대성한 대동여지도(영인본, 1979) 인제현 편의 고적으로 “유홍굴 유상공위본도 관찰사시 자한계월삼대령입석 제명 우굴지금 청유홍굴(兪泓窟 兪相公爲本道 觀察使時 自寒溪越三大嶺立石 題名 于窟至今 稱兪泓窟: 유홍굴은 유상공이 강원도관찰사로 있을 때 한계로부터 세 개의 큰 고개를 넘어 돌을 세우니 지금 그 굴의 이름을 유홍굴이라 한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계령 도로 포장 공사 시 훼손되어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유홍은 기계인으로 자는 지숙이고 호는 송당, 시호는 충목이며 중종 19년 갑신(1524) 출생으로 명종 계축(1553)에 문과에 급제하고 경인(1590)에 광국일등에 신묘에 평난이등으로 추속되고 기성부 부군으로 대하였다. 임진(1592)에 좌상에 오르고 선조 27년 갑오(1594)에 작고하였다.

응골

재내 건너 골짜기로 어은골(얼음골)이라고도 한다. 골짜기가 음지여서 얼음이 봄까지 녹지 않아 ‘음골’이 변해 된 이름이다.

응봉(鷹峰)

매봉. 구선대 위에 있는 산으로 매부리 같이 산이 날카롭게 생겼다.

응봉폭(鷹峰瀑)

응봉 아래에 있는 폭포이다.

이목곡(梨木谷)

배나무골. 재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입모봉(笠帽峯)

상설악(上雪嶽)에서 남서쪽에 있으며, 삿갓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양밭

자양전(紫陽田). 재량밭. 우와리(牛臥里) 동남쪽 한계령 아래에 있던 마을이었으나 1975년 산림 내 불법 건물 정리 시 폐동되었다. 이곳을 통해 한계령으로 넘어 되므로 ‘재(고개) 양지쪽 밭’이 변해서 ‘재양밭이 자양밭’으로 된 것 같다.

자연대(紫煙臺)

대승폭포를 관망하기 좋은 맞은편의 바위를 말한다.

장수대(將帥臺)

자양밭(紫陽田)에 있다. 삼군단장으로 있던 오덕준 장군이 6.25 동란 당시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1959년에 한옥산장을 세우고 장수대라 명명한 후에 붙여진 지명이다.

재내

한계의 중심 마을이며 옛날에 이곳에서 기와를 구웠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 흐르듯 기와를 날랐다고 해서 재내라 명명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재채

늪채 부근을 말하며 옛날에 한계사에서 옮겨진 운흥사를 말할 때 재채

라 부른 것 같다. 재채란 재에 있는 집이란 뜻이다.

쟁골

장수대 사중폭포 아래 골짜기로 여기에 바위굴이 있는데 석황사를 처음 세운 곳이며 골짜기로 들어가면 양편이 괴암 절벽이라 한다. 이름은 자안(慈眼: 부처님)이 변해 된 것이다.

조탁암(鳥啄岩)

아갈바위. 광계 아래에 있는 큰 바위로 새들이 바위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쪼아 놓아서 꽤였다고 하며 주변에는 쪼아 놓은 부스러기가 있다고 한다.

제정산(蹄定山)

쇠발골에 있는 산 이름이다.

좌암(坐巖)

자연대(紫煙臺)와 같은 지명으로 여러 사람이 둘러앉을 만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극봉(周克峰)

주걱봉. 자양밭 동남쪽에 있으며, 형상이 주걱 모양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지리실(地理室)

지리곡(地理谷). 남교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오래전까지 이곳에는 제단이 있었고 가뭄이 심할 때면 기우제를 올렸다고 한다.

진목전(眞木田)

자양밭(紫陽田)의 다른 이름이다.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제단(天祭壇)

한계산성(寒溪山城) 남문에서 동북쪽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다. 몹시 험준하기 때문에 자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오르기가 힘들다. 제단에는 세 개의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그 속에 끼인 비교적 면이 고르고 큰 면석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 새겨진 명문은

“선상제(仙上帝)/ 각산단(角山壇)/ 은은사(銀隱師)/ 의선운장(義仙雲將)/ 김성진(金成鎭)”

이고, 중앙에 새겨진 명문은

“곤무성산탐(坤武誠山榻)/ 소금강산불자상제부용선왕은사(昭金江山佛者上帝芙蓉仙王隱師)/ 경오십이월이십칠일오시정선양일성(庚午十二月二十七日午時貞仙陽日星)/ 김세진(金世鎭)”

이라 새겨져 있으며, 왼쪽 명문에는

“시국대동단소금산(時國大東壇昭金山)/ 도군자성산탐(道君子誠山榻)/ 무신상제석산단남은사(戊申上帝石山壇南隱師)/ 부선천주신광택(附仙天主申光澤)/ 신미팔월십오일(辛未八月十五日)”

이라 새겨져 있다. 또 이 제단에 관련한 보우(普雨, 1515-1565)의 <천단축리(天壇祝釐)>란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天壇涼氣深 천단은 서늘하고 으스스한데
玉宇河皎潔 옥우[하늘]은 물같이 희고 맑구나
蓮漏磬群寒 물시계는 비어서 모두가 얼고
雲房僧語輟 운방의 스님도 말 접었구나
心生境亦生 마음은 생기는 곳에 또 생겨서
境滅心還滅 끊으려는 마음에 환멸 느끼나니
心境兩俱空 심경 아울러서 함께 비우도록
祝君誠自切 정성으로 하느님께 축원하오니 바로잡아주소서

철사곡(鐵絲谷)

사실골. 고원통에 있는 골짜기이다.

청동벼래

어두원이 동남쪽에 있는 큰 벼랑. 화천에 있는 비금사를 지금 백담사의 전신인 한계사로 옮길 때 청동화로를 떨어뜨렸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청동소(靑銅沼)

관벌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

초막곡(草幕谷)

백담사의 전신인 운흥사(雲興寺)가 있던 골짜기이다. 예전에 초막(草幕)이 있었다고 한다.

치마골

한계산성의 서남쪽 골짜기를 말하며 바위 모양이 치마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하나 치마 모양의 바위는 없다. 이곳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승병)들이 초막을 치고 왜군과 싸웠다고 하니 이때 여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 준 데서 연유한 이름으로 보인다.

칠음대(七音臺)

승소 위쪽 골짜기에 있는 너럭바위. 물이 바위 위로 일곱 구비를 지어 흐르는데 그 소리가 칠음을 낸다고 한다.

탕숫골

탕수동(湯水洞). 지리실 위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십이선녀탕계곡이라고 부른다.

통천버덩

치마골과 평곡폭포 사이의 산 중부 능선에 있는 넓은 곳을 말하며 유래는 없으나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하늘로 통하는 곳(通天)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니 옛날에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무당들이 곳을 하던 곳인 듯하다. 지금은 그 아랫골짜기를 무당골이라 하며 무당들이 곳을 한

다고 한다.

풍전산(風田山)

바람맞치산. 소마전에 있는 산이다.

피닉피(避匿陂)

소승폭포 부근을 말하며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이 숨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하늘벽

학서암이라고도 하며 옥녀탕에서 장수대로 가는 44번 국도 오른 쪽에 길이 약 300m, 높이 약 250m의 병풍 같은 바위 벼랑이 있는데 이 바위를 하늘벽 또는 학서암이라고 한다. 희고 검은 바위 사이로 푸른 소나무가 서로 붙들고 하늘에 매달린 듯 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인 듯한 바위벽이다. 철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보이니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잡는다.

학모봉(鶴母峰)

학자봉 뒤에 있는 산. 학자봉의 어머니와 같다고 한다.

학자봉(鶴子峰)

재내 뒤에 있는 산. 학모봉 앞이 된다.

한계고성(寒溪古城)

성골에 있는 성의 이름이다. 석축의 둘레가 6,278척이다. 성 안에는 우물이 두 곳 있고, 대궐터도 전해 온다.

한계령(寒溪嶺)

자양밭 동쪽에서 오색리로 가는 큰 고개로 해발 1,004m이다. 인제 양양의 군계를 이룬다. 이 고개는 예부터 영서-영동을 잇는 주요한 고개로 외적의 침입경로가 되었고 문물의 교류역할을 하였다. 이 고개는 당시 내무부, 국방부, 건설부가 합동으로 1966년에 확포장공사를 시작하여 71년

에 완공함으로써 대관령과 진부령과 함께 3대 영동서간 교통의 요로가 되어 설악산 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한계리(寒溪里)

한계산(寒溪山)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한계사지(寒溪寺址)

현 백담사의 전신이라고 하는데, 신라 진덕여왕 원년(647)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전설에 의하면 화천에 있던 비금사(飛琴寺)를 하룻밤 사이에 옮겨왔다고 한다. 대승폭포 바로 밑에 있는 이 사지(寺址)는 강원도 기념물 제 50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남탑(南塔)과 북탑(北塔) 2기가 있는데, 1998년 3월 31일에 보물 제 1275호와 1276호로 각각 지정 관리 되고 있다.

한계천

한계령 서쪽 자양천을 흘러 용대리에서 흐르는 북천과 만나는 지점까지의 시냇물을 말하며 매우 청정하다. ‘한계’란 이름을 남기게 된 시냇물로 조선시대(15세기) 생육신이며 방랑시인이었던 매월당 김시습이 이곳을 명인탄(鳴咽灘: 목메어 우는 여울)이라고 부르면서 “목메어 우는 한계의 물아, 빈 산을 밤낮으로 흐르기만 하느냐(鳴咽灘溪水空山日夜流)”라는 시를 남겼다.

한계폭포

대승폭포의 다른 이름이다.

한령(寒嶺)

한계령의 약칭이다.

험석곡(險石谷)

갈직촌에 있는 산골짜기로 매우 험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2) 용대리(龍垞里)

본래 북면지역으로 용바우 아래가 되어 용의 터 또는 용대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남교리(嵐橋里), 창암(窓岩), 가역리(加歷里)를 병합하여 용대리라 하였고 행정리는 3개 리다.



그림 5 용대리 용의 터 상징물

가야동(伽倻洞)

영시암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가야동계곡(伽倻洞溪谷)

수렴동 계곡 위에 있으며, 수렴동대피소의 뒤로 해서 용아장성능선과 공룡능선을 가르는 약 6km의 계곡으로 희운각대피소까지 이어진다.

가역리(加歷里)

현 용대리의 가평(加坪)지역을 말한다. 백담사 입구가 되며, 조선시대에 가역원(加歷院)이 있었다고 하며, 갈역(葛驛)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가역원(加驛院)

용대리 가평에 있던 옛 역명이다.

가엽봉(加葉峰)

봉정암 북쪽 독성나한봉(獨聖羅漢峰) 아래 있는 산으로 석가봉(釋迦峰)을 향하여 읍하고 있는 형상이다. 가섭봉이라고도 부른다.

가이봉(加耳峰)

남교리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가평(加坪)

가락이버덩. 암자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시대 가역원이 있었다고 한다. 백담사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지금은 가역원의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

간령(間嶺)

새이령.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에 있는 고개로, 한 때 인제와 고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장터를 중심으로 용대 쪽에 있는 고개를 소간령(小間嶺)이라 하고, 고성 쪽에 있는 것을 대간령(大間嶺)이라고 한다. 사이[間]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새이령이라고도 부르다가 셋령으로 되었다. 2015년 국토지리원에서는 새이령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갈역(葛驛)

가역원(加驛院)의 다른 이름이다.

거북못

수림동 안에 있는 거북이 모양의 못이다.

거칠봉(巨七峰)

남교리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검동(黔洞)

오세암이 위치한 곳의 지명이다. 연유는 알 수 없다.

격산(隔山)

부전암(負轉巖)에서 1리 쯤 위에 있는 산 이름이다. 일명 천춘령(千春

嶺)이라고도 한다.

고든 백운

백운동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곡백운(曲白雲)

굽은 백운. 백운동 오른편의 굽은 골짜기를 말한다.

광어봉(廣於峰)

용두동(龍頭洞)에 있으며, 봉의 정상이 널찍하다.

광탄리(廣灘里)

당정곡(堂亭谷)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폐동 되었다.

광협동(廣峽洞)

암내동 서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는 하나 폐동되었다.

교곡동(橋谷洞)

다릿골. 교곡.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골짜기 이름으로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교곡계(橋谷溪)

다릿골에 있는 계곡 이름이다.

구곡담(九曲潭)

봉정암 가는 길로 잘 알려진 구곡담은 수렴동 계곡을 타고 올라가다가, 수렴동 대피소에 이르기 직전에 계곡이 좁아지다가 대피소 앞으로 나오면 다시 좌우로 각각 계곡이 갈라지게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가야동계곡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구곡담이다.

구만동(九萬洞)

구만이. 구만리(九萬里). 평촌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구만(九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구분백운

굽은백운. 백운동의 오른쪽 굽은 골짜기이다.

구연(龜淵)

거북못. 수림동 안에 있는 소(沼)로 거북이 모양처럼 생겼다.

구웅소(九雄沼)

용두리에 있다고 하는 소이다.

구절터

백담사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옛 절터이다.

귀떼기청봉

설악산 서북주능선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해발 1,578m이다. 백담계곡을 지나 수림동으로 가다가 영시암 터 못 미쳐 큰귀떼기골 상류에 있다.

기룡봉(起龍峰)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기린봉(麒麟峰)

봉정암 동쪽에 있는 산으로 기린처럼 생겼다.

김부령(金富嶺)

진보령(陳寶嶺). 현재 진부령(陳富嶺)을 말한다. 인제군 북면(北面)과 고성군 간성읍(杆城邑) 사이의 태백산맥을 넘는 험준한 고개로 높이는 530m이다. 진보령(陳寶嶺)으로도 표기가 되는데,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이 넘었다 하여 ‘김부(金富)’가 ‘진부(陳傅)’, ‘진부(陳富)’로 변했다고 하나, 또 한편으로는 마의태자(麻衣太子)가 넘어 다니던 고개라고 전해오기도 한다. 마의태자를 인제에서는 김부대왕(金富大王)이라 부르고

있다.

남계(嵐溪)

남교(嵐橋)의 다른 표기이다.

남교(嵐橋)

남교리. 당정곡 서남쪽 길가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보안도에 딸린 남교역이 있었다.

남교역(嵐橋驛)

남계역(嵐溪驛). 조선시대에 남교리에 있던 역으로 복마가 3필, 노(奴)가 5명, 비(婢)가 3명 있었다. 12선녀탕과 연결되는 다리를 선인(仙人)이 건너다니는 다리라 하여 남교(嵐橋)라 하였으며, 역(驛)이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평(內加坪)

가평의 안쪽 마을로 가력원(加歷院)이 있던 곳이다.

냉냉정(冷冷亭)

삼연 김창흡이 수렴동 지역에 세웠던 정자라고 김수증의 시에 나온다.

냉천동(冷泉洞)

수렴동의 다른 이름이다.

노동(路洞)

백담의 북서쪽에 있던 마을이었으나 6.25때 폐동되었다.

누데기골

연화동(蓮花洞). 연화동의 다른 이름으로, 화전민이 많이 정착하여 살면서 여기저기 파헤친 것이 누더기 같다고 하여 부른 이름이다.

다릿골

교곡동. 용대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다리가 있었으므로 교곡동이라고도 한다.

단일로(單一路)

용대 앞에서 한계리의 고원통 앞까지의 길로 1.6km 구간이 좁아서 차 한 대가 겨우 운행 가능하며 용대와 고원통에 초소를 두고 서로 전화로 연락한 뒤에 운행하고는 했으나 1987년 도로확포장공사를 마쳐 그 이름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당장봉(當場峰)

남교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당정곡(堂亭谷) 위에 있는 산 이름이다.

당정곡(堂亭谷)

광탄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어느 선비가 이곳에 정자를 짓고 놀았다 한다.

대간령(大間嶺)

고성군 토성면 포원리와 경계를 이루는 영으로 포원리에 위치한다. 소간령 동쪽에 있다.

대청봉(大靑峰)

해발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으로 북서쪽 바로 밑에는 중청봉(中靑峰)이 있고 북쪽으로 소청봉(小靑峰)이 있다. 청봉이라는 지명은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청색으로 보여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도룡봉(道龍峰)

남교리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도적소(盜賊沼)

도연(盜淵). 창암(窓岩) 동쪽 미실령[미시령]의 큰 고개 아래에 있는 소로 도적들이 지키고 있다가 미실령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

앗은 뒤 이 소에 빠뜨려 죽었다고 한다. 이덕수(李德壽, 1673-1744)는 <도연(盜淵)>이란 시에 이렇게 읊었다.

푸른벽은 허공에 뺏뺏이 꽃혀있고
옥규(玉珙, 새끼용)는 산허리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름은 나쁘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며
뒤어 오르는 물방울 잔피로 높이 뒹을 부끄럽게 하네

독성나한봉(獨聖羅漢峰)

봉정암 북쪽에 있는 산이다.

두무소(杜武沼)

용두리에 있다고 『조선지지자료』에 전한다.

두타(頭陀)

오로봉 밑을 지나는 계곡의 이름이다.

두퇴파(兜堆坡)

두타(頭陀) 옆에 있는 높은 언덕이다.

마등령(馬等嶺)

오세암에서 설악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큰 고개로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며 해발 1,327m로 설악산의 주봉인 청봉 다음으로 높고 매우 가팔라서 산턱을 어루만지며 오른다는 뜻에서 마등령이라 한다. 정상에 오르면 멀리 동해바다가 보인다. 줄여서 마령(馬嶺)이라고도 한다.

마산(馬山)

향로봉(香爐峰)에 인접해 있으며, 높이가 1,052m이다.

마장터(馬場垜)

마장대. 옛날에 말장이 섰다하여 마장터라고 부르며 현재는 산에 몇 세

대가 살고 있다. 인제와 고성을 넘나들던 소간령과 대간령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옛 산간가옥이 몇 채 있고, 별장으로 쓰는 가옥도 있으며, 소간령 정상에는 산신당이 있어서 매년 제사를 지낸다.

마항곡(馬項谷)

남교리(嵐橋里)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만해마을

만해 한용운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기념관이다.

말마리

말미리. 정자문리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은 이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지도상에만 표기되어 있다.

멸경암(滅景菴)

영시암에 속해 있던 부속암자의 이름이다.

무선봉(舞仙峰)

용두동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무청정(茂淸亭)

영시암에 속해 있던 정자이다.

문이산(聞耳山)

남교리에 있었다고 『조선지지자료』에 전한다.

미시령(彌失嶺)

미실령.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 고암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해발 826m이다. 현재 터널이 뚫려 속초로 향하는 길이 많이 단축되었다.

미천(尾川)

남교를 지나쳐 흐르는 물 이름이다.

밀현(蜜峴)

꿀고개. 미시령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마장터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장바위 동북향에 인접해 있다. 지금은 꿀고개로 많이 부른다.

바람불이

풍취동(風吹洞). 바람이 심하게 불어 붙여진 이름으로 풍취동이라고도 한다.

백골병단 전적비

백골병단은 1951년 1월 28일 설립된 한국 최초의 유격부대로 640명이 결성되어 대구, 영천, 평창, 인제 설악산으로 진격하면서 산간지방의 적진 후방을 교란하는 전공을 올렸으며, 동년 3월 하순경 필레약수터 부근 설악산에서 인민군 1개 사단의 협공으로 보급이 끊긴 채 일주일 간 산야(山野)를 행군하며 저항하다 굶거나 동사(凍死)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참전하였던 용사들 중 생존자와 유족들은 이 전투에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고 전적을 기리고자 대한유격참전친목회(회장 전인식 당시 작전참모)를 만들고 1990년 11월 9일 북면 용대3리에 전적비(戰績碑)를 건립하였다. 육군 제2307부대가 공사를 맡아 건립한 이 비(碑)는 기단 높이 1.4m, 탑높이는 15m이며 경역면적(境域面積)은 450평이다.

백담계곡(百潭溪谷)

가평(加坪)에서 백담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계곡이다. 7.3km에 달하는 이 계곡은 기묘한 바위와 곡류(曲流)가 매우 아름다우며, 냉수성 희귀 어종인 열목어(熱目魚)가 많이 서식한다.

백담리(百潭里)

백담사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폐동되었다.

백담마을

용대2리 백담사로 들어가는 마을이다.

백담사

가평 동남쪽 8km지점 곧 대승령 북쪽에 있는 절. 신라 진덕여왕 16년(647)에 한계리에다 자장율사가 세우고 한계사라 하였는데 소실되고 그 후 원성왕 6년(790)에 종연, 광학, 영조가 30리 아래로 옮겨 짓고 운흥사라 하였다가 또 불탄 뒤에 고려 성종 6년(987)에 형훈, 준의가 북쪽 60리에 옮겨 짓고 심원사라 하였으나 또 불탔으며 조선조 세종 16년(1434)에 추옹이 다시 30리 아래에다 짓고 선구사라 하였으나 또 불에 타고 세종 29년(1447)에 서쪽 10리쯤 떨어진 곳에 옮겨 짓고 영취사라 하였다가 또 불에 타자 세조 2년(1457)에 재익, 재화, 신열이 옛 절터 위 20리 지점에 절을 짓고 백담사라 하였다. 영조 48년(1772)에 다시 불에 타고 영조 51년(1775)에 최봉, 대현이 다시 세워 심원사라 하다가 정조 7년(1783)에 다시 백담사라 고쳤는데 1915년에 160여 간의 절집이 모두 불탔으며 1919년에 인공이 지금의 자리에 75칸을 다시 세웠으나 6.25동란 때 모두 불탄 것을 1957년에 다시 세웠다.

전설에는 본래 낭천(지금 화천)에 있던 비금사였는데 절 근처에서 사냥꾼들이 자주 와 사냥을 하여 불도에 어긋난 짓을 하므로 이곳 한계리에 옮겨 지었다하는데 옮길 때 춘천 근처에서 절구를 떨어뜨려서 그곳을 절구골이라 하며 또 한계리 근처에 청동화로를 떨어뜨려 그곳을 청동벼래라 한다고 전해오며 옮긴 후에 9차례의 화재를 보아 이곳저곳에 옮겨 새로 지었으며 지금의 자리에 새 절을 짓고 이름을 붙이려 하는데 주지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청봉에서 이곳까지 못을 세어보라.” 선몽하여 그 말대로 못을 헤아리니 백 개가 되어서 백담사라 했다고 한다.

또 이 절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묵으며 많은 집필을 하셨으며 지금도 사찰 뒤편에는 한용운 선사가 봤다는 우물이 보존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寶物) 제 1182호로 지정된 목조아미타불좌상(木造阿彌陀佛坐像) 및 부복장유물(附服裝遺物)이 있다.

전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의 원성을 피해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하다.

백운동(白雲洞)

쌍폭동의 남쪽 골짜기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골마다 폭포가 쏟아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백운동계곡(白雲洞溪谷)

백운동 골짜기로 구곡담계곡(九曲潭溪谷) 상류이다. 설악산 서북능선에서 시발하여 북으로 흐르는데,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골마다 폭포가 쏟아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곡백운(曲白雲), 직백운(直白雲), 제단곡(祭壇谷)으로 부르는 세 갈래의 계류에는 이름 모를 담(潭)과 폭(瀑)이 수없이 많다.

버덩말

외가평 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이다.

범바우

할미봉 위에 있는 바위로 된 산이며 모양이 범처럼 생겼다 한다.

벽운(碧雲)

수렴동의 냇물 이름으로 곡운 김수증이 명명했다.

벽운루(碧雲樓)

영시암에 속해 있던 정자 이름이다.

봉바우

봉암(鳳岩). 봉정암 뒤에 있는 높다란 바위로 봉황새의 모양이라 한다.

봉정암(鳳頂庵)

봉암(鳳岩). 백담사 동남쪽 대청봉 아래에 있는 암자이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짓고 오층석탑을 세워 사리를 모셨는데 문무왕 17년(677)에 원효(元曉)가, 고려 고종 13년(1226)에는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조선 중종 13년(1518)에는 환적(幻寂)이, 인조 10년(1632)에는 설정(雪淨)이 각기 수리하였으며, 6.25동란 때 불에 타서 1996년부터 대대적인 불사(佛事)를 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암자로 더욱 유명하다. 주위에는 강원도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된 봉정암석가사리탑(鳳頂庵釋迦舍利塔)이 있다.

부소(釜沼)

용두리에 있으며, 모양이 가마[釜]를 닮았다 한다.

부영산

재내 앞에 있는 산이다.

부전암(負轉岩)

곡백담 계곡에 있으며, 부회천(負回遷) 옆에 있는 벼레이다.

부회천(負回遷)

곡백담 계곡에 있으며, 위태로운 벽을 등에 지고 뱀이 지나가듯 돌아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미대(沙彌臺)

백담사 상류로 옛 심원사(深源寺) 터에서 6리 쯤 아래가 된다. 대(臺)의 높이가 몇 길이나 된다고 하였다.

사미소(沙彌沼)

사미대(沙彌臺) 밑에 있다.

사현(寺峴)

남교리에 있으며, 절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현(獅峴)

사자항에 있는 고개이다.

삼기현(三崎峴)

남교에서 원통(圓通)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이다.

사자항(獅子項)

유홍굴에서 서쪽으로 7리쯤 떨어져 있다.

상암(裳岩)

치마바우. 쌍룡폭 맞은 편 벼랑으로 된 바위로, 모양이 치마를 두른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석가봉(釋迦峰)

탑바우. 봉정암에 있는 봉우리이다.

석가사리탑

봉정암에 있는 돌로 된 5층탑으로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봉정암은 백담사에 딸린 암자로,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거대한 바위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일반적인 탑과 달리 기단부(基壇部)가 없어 마치 바위를 뚫고 높이 솟아오른 듯하다. 탑을 받치고 있는 바위 윗면에는 연꽃을 새겨놓아 부처님이 계신 곳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탑신의 몸돌에는 각층 모두 모서리에 기둥모양을 본떠 새겼으며 2층 몸돌은 1층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붕은 두터운 편으로 너비에 비해 지나치게 좁아 보인다. 처마는 밑선과 윗선이 평행을 이루어 네 귀퉁이에서 살짝 위로 솟아 경쾌한 맛을 살렸으며, 밑면에는 3단의 받침을 두어 고려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이 온전히 남아 가지런히 놓여 있다. 신라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셔와 이곳에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전해지고, 통일신라 문무왕 13년(673) 원효대사를 비롯한 여러 승려들이 암자를 새로 보수한 후 이를 보존하였다 하니 현재 이 탑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인다. 파손된 부분이 없는 온전한 모습의 탑으로, 주위 설악의 모든 산세와 더불어 웅장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지방문화재 제31호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석파령(石破嶺)

소간령(小間嶺)의 다른 이름이다. 소간령 정상에 옛 성황당의 돌무더기가 잔뜩 쌓여있다.

선귀사(璇龜寺)

백담사의 전신이다. 백담사 입구에 있는데,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백담지소 구매표소 자리에 있었다.

선바위

인제군 북면 미시령 골짜기를 따라 속초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산 아래쪽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위가 서있다고 해서 선바위라고 한다. 선바위에는 무속인이 기를 받아가고, 자식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삼신을 받아가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김창흡의 <상미수령(上彌水嶺)>에 “창암(窓巖)을 근근이 지나니 선바위가 높구나/ 우뚝하게 하늘에 솟은 것이 칼을 쫓은 모습이다/ 위세는 장제(長第)의 마음을 일게 하고/ 기묘함은 오가는 이의 노고를 잊게 한다.”(『삼연집』)고 하였다.

선장봉(仙掌峰)

영시암 남쪽에 있는 석봉(石峯)을 말하는데, 5리 쯤 아래가 된다.

설악사(雪岳寺)

『조선왕조실록』에 강원도관찰사 어계선(魚季瑄)의 장계에 “보우(普雨)가 한계산(寒溪山) 설악사(雪岳寺)에 몰래 숨어 있었는데, 어떤 중 하나가 외방에서 급히 당도하여 밀고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처음 등장하는 이름으로 백담사를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악산(雪嶽山)

한라산(漢拏山), 지리산(智異山)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명산으로 꼽힌다. 태백산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강원도 동북부의 금강산과 동남단의 오대산 사이에 있다.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되었고,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설악산은 『여지승람(輿地勝覽)』이나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보면, “중추(仲秋)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는다.(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焉)”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금원(錦園) 여사의 『호동락기(湖東洛記)』에는 “돌이 눈 같이 희서 옛적부터 설악이라 했다.(石白如雪故名雪嶽)”라고 기록하고 있다. 설악산은 또 설악(雪嶽), 설산(雪山), 설화산(雪華山), 백화산(白華山), 한계산(寒溪山), 청반산(靑盤山)이라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

다.

성황곡(城隍谷)

남교 북쪽에 있는 마을로 서낭당이 있으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산삼을 캐거나 산채채취 등을 목적으로 입산할 때는 서낭당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성황坪(城隍坪)

남교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소간령(小間嶺)

소과령(小破嶺). 창바우 북쪽 소간령 아래에 있는 마을. 대간령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수렴동(水簾洞)

영시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폭포가 있는데 그 모양이 발을 쳐놓은 것 같다고 한다.

승방산(僧房山)

남교리에 있는 산이다.

시집박물관

용대리에 있는 한국시집박물관으로 근현대의 한국시인들의 시집을 볼 수 있다.

신별애석비(新別厓石碑)

남교리에 있다고 전하나 지금은 찾을 수 없다.

신선봉(神仙峰)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로, 높이는 1,183m이다.

신암(新菴)

백담사의 전신인 선귀사(璇龜寺)가 불타고, 세종 29년(1447)에 다시 세웠던 영취사(靈鷲寺)를 말한다.

심원사(深源寺)

심원사(沈院寺). 백담사(百潭寺)의 전신인 운흥사(雲興寺)가 불탄 후에 북쪽 60리 지점에 새로 세운 절을 말하는데, 영시암(永矢菴) 아래가 되고, 백담사에서는 상류가 된다.

십이선녀탕계곡(十二仙女湯溪谷)

남교에서 동쪽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로 6.5km에 달하며, 12개의 탕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을 보지 않고는 설악산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관이 수려하다.

쌍룡폭(雙龍瀑)

쌍폭(雙瀑). 용폭동 제일 위에 있는 두 가락의 폭포로 한 가닥은 높이 150척이나 되고 또 한 가닥은 높이 70척이 되는데 마치 쌍룡이 하늘로 치솟는 듯이 매우 웅장하다.

쌍폭동(雙瀑洞)

수림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쌍룡폭이 있다.

아니오니

아니오니골짜기. 용대2리 마을회관 옆 설악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곳에 산적이 살면서 사람들을 데려가면 아니온다고 하여 아니오니라 하였다. 이곳에는 아니오니제당이 있어서 매년 마을에서 제사를 행하고 있다. 제당은 3개로 되어 있는데 돌담을 쌓아서 만들었다.

아차막동(阿次莫洞)

진목전(眞木田)에서 동쪽으로 5리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안산

설악산 대승령에서 남교리 방향으로 가는 곳에 있는 산이다.

안일원곡(安逸遠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암내동(庵內洞)

암자동(庵子洞). 내가평 안에 있는 마을로 백담사에 딸린 작은 암자가 있었으며 이곳에는 해체된 석탑이 있었으나 1987년에 지금의 백담사로 옮겨 복원되었다.

양지동(陽地洞)

평촌 북쪽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암면(於巖面)

부전암(負轉巖)과 포전암(抱轉巖)을 아울러 이르는 것으로 곡운 김수증이 이름 하였다.

여초서예관

여초 김응현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다.

연작곡(鸞雀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연창곡(蓮漲谷)

용두동에 있는 골짜기이다.

연화동(蓮花洞)

용대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한다.

연화동 공비 전적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연화동). 1998년 11월 12일에 세웠다. 1996년 9월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침투한 무장공비 잔당의 최후섬멸지인 인제

군 북면 용대리 용대자연휴양림 입구에 안보공원이 조성되었다. 인제군과 국방부는 2억여 원을 들여 용대리 연화동 자연휴양림 입구 2천 3백 평에 안보 공원을 조성하여 1998년 11월 12일 연화동 작전 2주기 추모식과 함께 전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안보 공원에는 한림대 정장직 교수가 설계한 12.5m 높이의 공비 도주로와 국군의 추적 상황 등을 기록한 전적비 등이 세워졌으며 주변에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미시령과 진부령이 갈라지는 용대 삼거리에서 진부령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한 전적기념공원은 용대자연휴양림 입구에 자리 잡아 동해안 관광지의 교두보 역할과 함께 고성 통일전망대, 양구 제4땅굴, 화천 비목공원, 철원 구 노동당사 등을 연결하는 안보관광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열천동(冽泉洞)

수렴동의 다른 이름이다. 김시습의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어찌하여 열천동(冽泉洞)이라 하였는가/ 동 틈새로 맑은 물 흐른대서 이름 했네”

염천(簾泉)

수렴동의 다른 이름이다.

영시동(永矢洞)

호식동. 백담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6.25때 폐동되었다. 조선조 인조 26년(1648)에 삼연 김창흡이 이곳에 영시암을 짓고 살았는데 6년 되는 해에 찬모가 호랑이에게 물려가 호식동이라 하기도 한다.

영시암(永矢菴)

영시동에 있는 암자이다. 김창흡의 부친이 숙종 15년(1689)에 기사사화로 죽임을 당하자 세상의 뜻을 잃고 다시는 속세에 나가지 않겠다고 맹서하는 뜻에서 영시암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년이 지난 어느 날 그와 동거(同居)하던 유마승(維摩僧) 최춘금(崔春今)이 범에 물려가는 참변을 당한 후 춘천(春川)의 수청산(壽靑山)으로 떠났다.

1691년 설정(雪淨)이, 1926년에는 기호가 중수하였으나 6.25동란 때

불에 타 버렸다. 암자 서쪽에는 6.25이후에도 삼연선생유적비가 남아 있었으나 언제 누구에 의해서인지 도난당하여 지금은 자취만 남아 있다. 지금의 영시암은 백담사 주지였던 김도중(金道中) 스님이 1992년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영원(鵠原)

할미버덩. 봉정암 동쪽에 있다.

영취암(靈鷲菴)

권섭(權燮)의 <한계설악유한기(寒溪雪嶽遊恨記)>에 “사자항(獅子項)을 지나면 김동봉(金東峯)이 다섯 살 때 살았다는 영취암(靈鷲菴)이 있고...”하는 구절이 있다. 위치상으로 보면, 오세암(五歲庵)이 분명한데, 그 어디에도 오세암을 영취암이라 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이는 백담사의 전신 사찰인 영취사(靈鷲寺)로 착각을 한 듯하다.

영취봉(靈鷲峰)

백담사 입구에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백담지구 매표소 건너편에 있는 산이다.

오로봉(五老峰)

오봉(五峰). 갈역(葛驛)의 서쪽으로 곡백담이 끝나는 지점에 있으며, 다섯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다.

오세암(五歲庵)

원명암 서남쪽 마등령 아래에 있는 암자.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암자를 짓고 관음암(觀音庵)이라 하였는데 인조 21년(1643)에 설정(雪淨)이 헐어진 것을 다시 세워 오세암이라 고치고, 고종 25년(1888)에 백하(白下)가 다시 중수하였으나 6.25동란 때 불에 탔다.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이 단종(端宗)이 물러나자 충절을 참지 못하여 미친 시인이 되어 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러 오랫동안 머물렀으므로 그의 별호 오세신동을 따서 오세암이라 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또 신라(新羅) 때 매월(梅月)대사가 또는 조선조 때 설정대사가 두 살 된 조카를 데리고 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지내다가 늦은 겨울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그 이듬해 봄이 된 뒤 비로소 돌아와 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카가 살아 있으므로 이상히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흰옷 입은 젊은 부인이 나타나 아이를 보살피고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므로 다섯 살 된 아이가 불도에 통한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도 전해오고 있다.

암자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마모된 석물들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어 암자의 고풍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오세폭포(五歲瀑布)

오세암 아래에 있는 폭포이다.

옥녀봉(玉女峰)

수렴동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순하고 아름다워 옥녀 같다 한다.

옥수골(玉水谷)

옥수곡(玉水谷). 용두동에 있는 골짜기로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하여 옥수골이라 한다.

와룡여흘

가야동에 있는 여울이다.

완심루(琬心樓)

영시암에 삼연 선생이 세운 정자이다.

용대동(龍垔洞)

용대리의 이칭이다.

용두(龍頭)

용마우. 용암(龍岩). 용대 북쪽 길 양쪽에 우뚝 솟아 있는 큰 바위로 쌍룡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다 한다.

용두동리(龍頭洞里)

현 용대리의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는 용바위 부근 마을을 말한다. 바위의 형상이 용머리를 하였다 하여 취한 이름이다.

용산(龍山)

지금의 용대리를 말한다. 삼연 김창흡(金昌翕)의 시가 있다.

“용산은 인제에서도 두메산골/ 민물(民物)은 구름처럼 깊구나/ 스스로 고상하게 가난도 낙으로 삼는/ 순박한 마음을 지니고 있네”

용손폭(龍孫瀑)

용연폭(龍淵瀑). 쌍폭동에 있는 세 폭포 중 가장 작은 폭포이다.

용아폭(龍兒瀑)

용손폭보다 조금 큰 폭포이다.

용아장성(龍牙長城)

소청봉에서 봉정암 뒤를 지나 칠형제봉을 거쳐 옥녀봉에 이르기까지 능선을 말하는데, 마치 용의 치아 모양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용이터

용대리

원명암(圓明庵)

오세암터와 영시암터 사이에 있는 백담사의 속암으로 숙종 2년(1676)에 설정이 세우고 1897년에 원호가 크게 고쳤으나 6.25때 소실되었다.

원벌

원평(院坪). 가평 북쪽 400m에 있는 10만여 평의 들로 조선조 때 가력원이 있었다.

윗남교

남교 윗마을이다.

유목령(楡木嶺)

용두동(龍頭洞)에 있으며, 느릅나무가 많다고 하여 유목령으로 이름 하였다.

음지곡(陰地谷)

평촌 북쪽 음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레가리

윗 남교에서 당정골 사이에 있는 논밭을 말하며 넓이가 약 7,000여 평에 달하여 소 한 마리로 7일을 간다는 뜻에서 부르는 지명이다.

이목고(梨木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입석봉(立石峰)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자오곡(子午谷)

음지곡(陰地谷). 용두동에서 진부령(陳富嶺)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해와 달이 자정(子正)이나 정오(正午)가 돼야 빛이 드는 곳이라 한다.

장경바우

장경암(藏經巖). 시루떡바우. 떡바우. 봉정암 북쪽 골짜기 장경바우골에 있는 큰 바위로 대장경을 쌓아 놓은 것 같다.

장경바우골

장경골. 봉정암 북쪽 골짜기에 장경바우가 있다.

장소(長沼)

지소. 진소. 남교리에 있다.

장암(長岩)

학암(鶴岩) 아래 있으며, 바위가 마당 같이 널찍하다.

저항령(低項嶺)

늘목령. 인제와 속초를 왕래하던 옛 길목으로 동쪽으로는 길골을 거쳐 정고평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길골을 거쳐 백담사에 이른다. 달리 늘목령이라 하는데, 늘어진 고개라는 뜻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늘목이 느르목으로 되고, 다시 느르목이 노루목으로 변하다 보니, 한자 표기상 장항(獐項)이 되었는데, 여기에 령(嶺)자가 합쳐져서 장항령(獐項嶺)이라 하다가, 다시 저항령(低項嶺)으로 변한 것으로 본다.

적담(賊潭)

도연(盜淵)의 이칭이다.

점심청

수렴동에 있는 넓은 바위로 선녀가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정자문(亭子門)

정자문리. 남교 서남쪽 북천가에 있는 마을로 강가에 정자가 있었고, 길 옆에는 열녀정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자도 정려문도 찾아볼 수 없다.

정지곡(亭芝谷)

남교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조원봉(朝元峰)

조명봉(朝明峰). 영시암 북쪽에 있는 산이다.

조장곡(助藏谷)

용두동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리실곡(知理室谷)

지리실(地理室). 지리곡(支離谷). 남교리 동쪽에 있는 계곡으로 약 5km에 달하는데, 지금은 12선녀탕계곡으로 더 많이 부르고 있다. 지리곡(地離谷)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오래 전까지 이곳에는 제단(祭壇)이 있었고, 가뭄이 심할 때면 기우제(祈雨祭)를 올렸다고 전하는데, 실제로 박종영(朴宗永, 조선말기의 문신) 현감 재임 시에 <지리실기우제문(地理室祈雨祭文)>이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지극히 높은 설악산(雪嶽山)은 굳센 원기(元氣)가 방박(磅礴, 가득 참)하고 신령님이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흰히 트인 골짜기를 지리(地理, 12선녀탕)라고 부름은 구름이 일고 안개를 토해내어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늘 매번 둔고(屯膏, 혜택이 미치지 않음) 하와 기우제(祈雨祭)를 올리고자, 이제 이에 읍(邑)에서 비로소 群神(군신)에게 두루 갖추어 제물을 바칩니다.”

지장봉(地藏峰)

봉정암 북쪽에 있는 산으로 지장보살상과 같다고 한다.

직백운(直白雲)

곧은백운. 백운동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창바우

창암(窓岩). 용바우 북쪽에 있는 큰 바위로 창처럼 구멍이 뚫려있는데 용이 뚫고 나간 자국이라 한다. 소간령으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는데, 미시령으로 올라가는 옛 국도에서 보면 바위에 창문 같은 구멍이 있다.

창봉(窓峰)

용두동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창수곡(漲水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창암점(窓岩店)

창마우가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었으나 6.25때 폐동되었다.

처음터

초대동(初垔洞). 내가평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때 폐동되었다.

천왕문(天王門)

가야동 어귀에 있는 벼루로 된 바위로 문처럼 생겼다.

천춘령(千春嶺)

본래 이름은 격산(隔山)인데, 곡운 김수증이 새로 지었다. 아래로 1리쯤 떨어져 부전암(負轉岩)이 있고 그 밑으로는 포전암(抱轉巖)이 있다.

초대동(初垔洞)

내가평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처음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폐동되었다.

축성암터

축성암지(祝聖庵址). 영시동 남쪽 골짜기에 있는 암자터. 백담사의 속암으로 고종 21년(1884)에 한암(漢庵)이 세워 축성암이라 하였으나 6.25때 소실되었다. 백담사에서 동남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암자 뒤로는 감투봉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작은귀떼기골에는 숨은 작은 폭포가 있어 풍치를 더하고 있다.

취대봉(鷲臺峯)

영취봉(靈鷲峯)의 이칭이다.

치마바우

쌍룡폭 맞은편 벼랑으로 된 바위로 모양이 치마를 두른 것 같다.

칠경동(七耕洞)

이레가리

담바우

석가봉. 봉정암 북쪽에 있는 웅장한 산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을 따서 석가봉이라고 한다.

태시(太始)

수렴동계곡의 이칭으로 김수증이 명명하였다.

통랑곡(通浪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평촌(平村)

버덩말로 구만동(九萬洞)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폐문암(閉門巖)

오세암(五歲庵)에서 왼쪽 고개 너머 30리 지점이 된다. 양쪽으로 벽이 가파르게 있어 관문(關門) 같다하여 폐문암이라 한다.

포독곡(抱犢谷)

곡백담 상류 지역으로 길이 몹시 험하여 소가 다닐 수 없으므로 송아지를 안고 들어가 얼마동안 길러서 밭갈이를 했다고 한다. 안을 포(抱), 송아지 독(犢) 자를 쓴다.

포전암(抱轉巖)

곡백담 계곡에 있으며, 포회천(抱回遷) 옆에 있는 벼레이다.

포회천(抱回遷)

곡백담 계곡에 있으며, 벼레를 안고 돌아간다고 하여 포회천이라 하였다.

풍취동(風吹洞)

바람불이골. 바람도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이다.

하남교(下嵐橋)

남교 아랫마을이다.

학암(鶴巖)

포독곡에 있는 바위인데 학(鶴)의 형상이라고 한다.

한문(寒門)

한문안. 연화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바위가 마치 문처럼 솟아 있다.

할미봉

봉정암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할머니상이라 한다.

함문봉(合門峰)

용두동에 있는 산 이름이다.

향로봉(香爐峰)

진부령(陳富嶺) 북쪽에 인접한 산 이름으로 칠절봉(七節峰)과 마산(馬山) 사이가 된다. 고개의 높이는 1,296m이다. 인제, 고성, 속초의 경계가 되며, 1973년 7월 10일 천연기념물 제247호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옛적 이름은 마기라산(摩耆羅山) 또는 가리라봉(迦里羅峰)이다.

현구사(玄龜寺)

백담사의 전신이다. 내가평의 암자동(庵子洞)에 있던 절인데, 선구사(旋龜寺)로 더 많이 전해온다.

호식동(虎食洞)

영시동(永矢洞)이 있던 마을의 이름이다. 실제로 김창흡 선생을 따르던 유마승(維摩僧) 최춘금(崔春今)이 호환(虎患)을 당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창흡은 최춘금의 영전에 바치는 <거사최춘금제문(居士崔春今祭文)>을 지었다.

호암(虎岩)

할미봉 위에 있는데, 모양이 범처럼 생겼다 한다.

황정연(黃精淵)

곡백담 상류 20여리 지점에 있는 소(沼)이다.

황장우(黃腸隅)

곡백담 상류 20여리에 있다. 황정연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황정(黃精)은 황장(黃腸)의 오기이다.

황철골

황철곡(黃鐵谷). 남교리에 있다고 한다. 몇 십 년 전까지 마을 입구에 황철나무숲이 우거져 있었고 그로 인해 황철골이라 불렀다.

후가산(後伽山)

용두동에 있는 산으로 절 뒤에 있다.

흑선동계곡(黑仙洞溪谷)

일명 대승골이라고도 하는데 장수대에서 대승령을 거쳐 백담골로 빠지는 계곡이다.

흘리령(屹耳嶺)

진부령 남쪽 흘리에 있는 고개이름이다. 용대리와 진부리를 이어주던 중로(中路)로 진부령이 개통되기 전까지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인제조상의 얼』, 『麟蹄의 地名』, 『인제군사』 및 현지제보자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3. 내설악 관련 시문

<가야동(伽倻洞)> - 이은상

가야동(伽倻洞) 가야고을 타는 이 기 뉘신고
청아(清雅)한 저 소리를 듣는 이 기 뉘신고
타는 이 천녀(天女)이온데 내가 있어 듣노라

관상각징우(官商角徵羽)를 고로고로 짚을제
소리를 갖을터니 손 더 아니 고우신가
취(醉)하여 듣거니 보거니 해지는 줄 몰라라(『인제군사』)

<강릉도중망설악감회작(江陵途中望雪岳感懷作)> - 허목(許穆, 1595~1682)
강릉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며 감회를 쓰다

雪岳之山高萬丈 설악산 높이가 만 길 되어
縣空積氣連峰瀛 봉래산(蓬萊山)과 영주(瀛州)까지 그 기운 면하였네.
千峰映雪海日晴 천봉의 눈빛은 해일에 반사되고
縹緲群帝集玉京 저 멀리 옥경(玉京)에 상제(上帝)를 보셨구나.
東峯老人住其間 동봉노인(東峯老人, 김시습)이 거기에 머물러
高標歷落干青冥 거룩한 그 기상 하늘까지 뻗었다.
嘯風叱雨弄神怪 비바람도 꾸짖고 귀신을 희롱하며
逃空托幼藏其名 불교에 의탁하여 그 이름 숨겼네.
乞食都門傲卿相 장안거리 걸식하여 경상(卿相)을 멸시하고

縱謔翻爲市童驚 해학을 일삼아 시동(市童)을 놀라게 했다.
 猖狂不獨事高潔 광태를 부림이 고결에만 국한될까.
 此心長如日月明 그 마음 영원히 해와 달처럼 빛나리.(『인제군사』)

<강물> - 오세영(吳世榮)

무작정
 앞만 보고 가지마라
 절벽에 막힌 물은
 뒤로 돌아 전진한다



그림 6 백담사 오세영 시비

조급히 서두르지 마라
 폭포속의 격류도
 소(沼)에선 쉴 줄을 안다

무심한 강물이 영원에 이른다
 텅 빈 마음이 충만에 이른다(『설악산 백담사』)

<경침선생 안후지감(敬詹先生 案後志感)> - 박종영(朴宗永)

吾祖曾臨地 나의 선조님도 일찍이 임하셨던 이 자리에
 後孫復莅官 후손인 내가 다시 올 줄 뉘 알았으랴
 桐鄉何杳茫 이 고을은 어찌하여 고요하고 물만 질펀한가
 梅閣尙平安 매화 피는 누각이 오히려 편안하구나
 御下心猶別 어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追先政益難 선조의 정사를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明朝看雪岳 아침마다 설악산을 쳐다보면서
 白首我濛寬 머리 숙여 속죄하고 마음가다듬나이다.(『인제군사』)

※박종영(朴宗永)은 1863년 6월부터 1866년 12월까지 인제현감을 지냈다.(1843 인제읍지)

<고한(高閑)> - 허응당 보우

한적한 곳

庵在雲重處 암자는 겹겹 구름 속
 從來不說扇 본디 사립문도 없다네
 臺杉含晚翠 늦 푸른 삼나무와
 庭菊帶斜暉 저녁 햇살 어린 국화라네
 木落經霜菓 서리 맞은 열매 떨어지고
 僧縫過夏衣 스님은 여름 지난 옷을 꿰매나니
 高閑吾本意 이 한적함이 내 옛 뜻이거늘
 吟賞自忘歸 돌아갈 길 잊고 시 한 편 읊네(백담사 경내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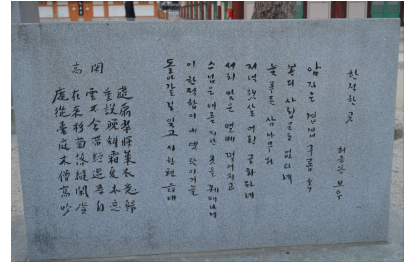


그림 7 백담사 보우 시비

<곡백담(曲百潭)> - 안석경(安錫敬, 1718-1774)

百曲山溪濯我衣 백 구비 산 시내에 내 옷을 빠니
 沼流曲曲戀清輝 못과 시내 구부구비 맑게 빛남이 맘에 든다
 千岡走石雙襟合 천 개 산등성이 내닫는 돌은 두 옷깃에 합해지고
 萬壑飛湍一道歸 만 개 골짜기에 날리는 여울은 한 줄기로 돌아간다
 日射淪連鋪錦繡 햇빛이 잔잔한 물결에 비쳐 비단으로 수놓은 듯 펼쳐지고
 雲披瀑瀨湧珠璣 구름이 폭포와 여울에 걸히니 구슬처럼 물방울 솟구친다
 神龍應伏深潭裏 신령스런 용이 응당 깊은 못 속에 웅크리고 있을 터
 奮起何時雨九圍 어느 때나 용솟음쳐 천하에 비 뿌릴까 (『2012설악산』)

<곡백담동중(曲百潭洞中)> - 홍태유(洪泰猷, 1672-1715)

굽은 백담 골짜기 안에서

兩崖皆石又鳴溪 양쪽 절벽 모두 돌이고 시냇물은 울어대는데
 盡日人行不踏泥 종일토록 사람의 행적 이르지 않네
 僧歇衲衣紅樹暎 쉬고 있는 중의 옷은 붉은 단풍 숲에 비치고
 我吟藜杖白雲齊 시 읊는 나의 지팡이 흰 구름과 나란하다
 鷄聲洞折一村隱 닭 울음소리 골짜기의 정적을 깨트리니 마을이 있을 터
 雪色山橫千疊迷 눈 내린 산은 천 겹으로 펼쳐 있어 햇갈린다
 百里遠來償宿願 백 리 먼 길 와서 오래된 숙원 감상하니

秋晴諸伴喜相携 맑은 가을에 여러 벗들과 함께 와 기쁘다(『2012설악산』)

<과한계산하(過寒溪山下)> - 오윤겸(吳允謙, 1559-1636)

한계산 아래를 지나며

聞說寒溪勝 한계산이 명승지란 말만 들어
平生夢想饒 평생동안 몽상만 엄청 하였다네
雪飛千壑暝 눈이 날리니 모든 골짜기 어두워지고
河落九天遙 물줄기 아득한 저 멀리 하늘에서 떨어진다
王事身猶繫 이 몸 공적인 일에 얽매여 있어
仙區思獨超 신선 사는 곳에서도 생각은 초조하구나
今朝山下路 오늘 아침 산을 내려가는 길에서
空復望峯嶢 헛되이 다시 높은 산 바라만 본다네(『2012설악산』)

<구선대(九仙臺)> - 이은상

구선녀(九仙女) 너홀너홀 제 춤이 따로 있어
원무(圓舞), 전무(轉舞), 곡무(曲舞)로다
인간(人間)에 못 보는 춤을 여기 와서 보는 구나

저 사람 저 무슨 춤 저리도 우서운고
허허 모르시거던 가만히나 서 계시오
구선(九仙)도 갈라 추는 춤을 모뉘 추니 그렇소(『인제군사』)

<귀때기청봉> - 이상국

나는 설악 상상봉에 가보지 못했네
이 山 밑에 나서 마흔을 넘기고도
한 해에 수천 명씩 올라가는 그 곳을
나는 여태 가보지 못했네
그 곳에서 세상이 훨씬 잘 보인다지만
一生을 걸어도 오르지 못할 山 하나는 있어야겠기에

마음속 깊은 곳 대청봉 묻어 놓고
나는 날마다 귀때기청봉썸만 바라보네.

<기봉정(寄鳳頂)> - 김창흡(1653-1722)

봉정에 부치다

高攀帝座挾天紳 하늘의 띠를 두르고 천제의 자리 높이 떠 받쳐
冉冉君爲上界人 영락없이 그대는 천상의 인물이었겠지
然後培風出埃壘 그런 후에 바람을 일으켜 속세에서 벗어나
眞成步月俯星辰 참으로 달에서 거닐며 별들을 굽어본다네
衰能濟勝僧何力 늙어도 명승지 구경할 수 있으니 스님은 무슨 힘이든가
禱既潛心岳有神 기도하자 마음이 고요해지니 산은 신이함이 있구나
頽臥東亭嗟我憊 동쪽 정자에 지쳐 쓰러져 피곤함에 한숨 쉬는데
杳如韓衆莫能親 아득하니 신선인 한중과 친해질 수 없구나(『2012설악산』)

<내설악> - 이성선

달 하나가 마음의 고향으로 내려간다

산을 들으러 가는
느릿느릿한 걸음이
시처럼 아름답다

역새풀과 쭉대로 덮인 새와 구름의 집 영시암

골짜기가 다 들어가 자는 물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스런 얼굴로
승이 문 열고 나와
하늘 쪽을 살피다가 들어간다

노루나 산양 새끼의 눈빛도
떨어져 꽃이 되는 밤

가랑잎 하나가 산을 싸고 간다

<농환정(弄丸亭)> - 三淵 金昌翁

歲暮歸來 雪嶽靈 설달그믐에 설악산에 돌아와
超然復座 弄丸亭 초연히 농환정에 다시 앉아 있노라
門岩簾洞 氷將合 문암과 수렴동은 어둠에 덮여 있고
鳳頂鸞峰 雪欲冥 눈 같이 흰 봉정 난정에는 어둠이 깔리누나
處頂輿誰 談太極 한적한 이곳에서 뉘와 더불어 담소할꼬
憑虛聊自 詠黃庭 듣는 이도 없는데 홀로 황정경(黃庭經)을 읊노라
三庚患渴 塵中遞 깊은 밤 목마름 같은 세상을 떠나고자
神馬東馳 每此停 신마(神馬)타고 달려 봐도 제자리만 맴돌 뿐(『인제군사』)

<대승령(大勝嶺)에서> - 이은상

적막(寂寞)한 깊은 산에 나무 쫓는 탁목조(啄木鳥)여
행인(行人)이 여윈 가슴 쫓는 듯이 아프구나
네 소리 못새와 달라 남을 이리 상(傷)하나니(『인제군사』)

<대승령(大勝嶺)> - 소유 권상용(小游 勸相容)

草樹蒙密 나무숲 뺨뺨하게 덮여
仰不見天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구나
諷吹葉動 바람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고
輒相驚 문득 서로 놀라네
曰虎過也 호랑이 지나갔다 말하지만
然竟無虎 그러나 끝내 호랑이는 없구나(『인제군사』)

<대승령(大勝嶺)> - 조인영(趙寅永, 1782-1850)

대승령

兩日留雪嶽 이틀간 설악산에 머무니
 雪嶽通靈慧 설악산은 영험하고 지혜로움과 통하네
 又向寒溪去 또 한계 향해 가노라니
 神情實相契 정신과 실제로 들어 맞다네
 峻泉左右走 험준한 샘물이 좌우에서 흐르고
 崇嶺西南蔽 높은 고개 서남쪽 가렸다
 連步絕頂登 쉬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데
 登登多障滯 올라갈수록 장애물이 많구나
 那得愚公力 어찌하면 우공의 힘을 얻어
 移山格上帝 산을 옮겨 달라 상제께 아뢰까
 秋日正極短 가을 태양은 정말로 짧으니
 光景不可繫 광경을 잡아둘 수 없구나
 好境方在前 좋은 경치 눈앞에 막 펼쳐지니
 險阻安所計 험준한 곳임을 어찌 헤아리랴
 青藜夾道生 좁은 길에 청려 자라나
 折枝藉扶曳 가지 꺾어 지팡이 삼는다
 休息且攀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자니
 前行復後繼 앞길이 다시 뒤와 연결된다
 正須努力處 바로 힘을 쏟아야 하는 곳
 上乘非難詣 상승은 이르기 힘든 곳이 아니라네
 忽驚風力剛 깜짝 놀랐다네, 바람이 갑자기 강해져
 拂去快衣袂 옷을 스치고 불어가서
 躡履雲如海 바다 같은 구름을 밟고 올라가니
 迷隔人間世 인간세계와 아득하게 떨어져 있다네
 回首望青峰 머리 돌려 청봉 바라보니
 別意益迢滯 특별한 생각 더욱 멀리까지 솟아나네
 乃知身到此 이제 알겠노라, 이 몸 여기 이르니
 襟懷悅無際 가슴속 생각 끝없이 황홀해짐을
 猶恐山不高 걱정되는 것은 산이 높지 않아
 未薄青天勢 푸른 하늘 기세를 꺾어버리지 못함(『2012설악산』)

<대승폭(大乘瀑)> - 안석경(安錫敬, 1718-1774)

可愛千尋瀑 천 길 폭포 맘에 드나니
 春鳴絕壑中 외진 골짜기에 방아 찧는 소리 들리는 것이
 臨天飛皎潔 하늘에서 날릴 때는 희고 깨끗하며
 映日散青紅 햇살에 비쳐 푸르고 붉게 흩어진다
 蕩滌瑤臺霧 요대의 안개 쓸어버리려는 듯
 飄揚玉樹風 흰 나무숲 바람 불어온다
 何時梅雨裏 어느 때나 매화 비 맞으며
 快觀噴長虹 긴 무지개 뿜어냄을 호쾌히 볼 수 있을까(『2012설악산』)

<대승폭(大勝瀑)> - 소유 권상용(小游 勸相容)

鐵壁直削 白光貴 절벽을 수직으로 깎아 놓아 햇별도 귀한데
 天者瀑也 천연으로 된 폭포구나
 瀑之上下 폭포의 위아래는
 略不依石 대략 석벽에 기대지도 않았구나
 虛落千尋 虹暈壁 천 길 허공 떨어지며 벽에 무지개 서리니
 爲纈 紋紗 무늬 넣어 짠 비단처럼 아름다운데
 穀日射之 달리는 햇살이 여기에 쏘아드네(『인제군사』)

<대승폭(大勝瀑)> - 금원 여사(錦園 女史, 1804~?)

天峰突几插天餘 천봉우리 치솟아 하늘에 끼어 있고
 輕霞初收畫不如 가벼운 안개 걷히니 그림이 이만하랴
 好是雪山奇絕處 이 좋은 설악산의 기이한 절경이여
 大勝瀑布勝匡廬 대승폭포는 여산폭포보다 더 좋구나(『인제군사』)

<대승폭(大勝瀑)에서> - 이은상

만장(萬丈) 저 암벽(岩壁)이 솟아 어디 닿았는고
 떨어져 오는 근원(根源) 우리봐도 모를려니
 천심(千尋)에 운림(雲林)이 어려 밀을 못 볼러라

흰 허리 문득 끊겨 연기되고 구름되고
날려서 흩뿌릴제 비되고 바람되고
그 속에 산무지개 들어 춤을 추며 돌더라(『인제군사』)

<대청봉(大靑峰)에서> - 이태극(李泰極)

천칠백도 넘는 고지위에
백칠십의 키가 서서

눈앞의 금강(金剛)을 부르며
선뜻 바람을 삼킨다

허허허 대공을 저겨
섰는 줄기 산줄기

철쭉, 소나무가
무두 땅으로 기다

오직 홀로 속은 봉은
범범한 흙과 바위

저 멀리 항해의 표적
푸르게만 산다나

동북쪽 두 후미에
숫아 선 암검(岩劍)들은

천불(千佛)과 죽음의 골짜기
유명(幽明)도 다른 듯다

희멀건 해도 오히려

솔바하는 이 영력(『인제군사』))

<도백연 차숙씨운(到百淵 次叔氏韻)> - 김창즙(金昌緝, 1662-1713)

백연에 도착하여 작은 형님의 운에 차운하다.

鶴原幾相待 형제가 몇 번이나 기다렸던가
不敢緩吾來 내 오는 것을 감히 늦추지 않는다네
已遠龍淵瀑 이미 용연폭은 멀어졌고
欣瞻鳳頂臺 봉정대를 기쁘게 바라본다
同人亦奇矣 형제를 만나니 또한 기이한 일이고
圓月正佳哉 둥근 달 정말로 아름답구나
對話渾忘寢 이야기 나누느라 잠드는 것도 완전히 잊고
徐傾蜜水盃 천천히 꿀물 잔을 기울인다네(『2012설악산』)

<도오세암(到五歲菴)> - 김창흡(1653-1722)

오세암에 도착하여

自我爲山主 내가 이 산의 주인이 된 이래로
頻頻到此菴 빈번히 이 암자에 왔었다네
方能詞客伴 바야흐로 시인과 짝이 될 수 있고
已厭老禪參 노승 참불하는 것도 이미 싫증난다네
聽磬仍呼韻 경쇠소리 들으면 곧 운을 떠올리고
眠雲共倚龕 구름 속에서 잠들며 함께 감실에 기댄다네
淸寒知己在 청한자에게도 지기가 있었나니
孤月照松楠 외로운 달만이 소나무와 녹나무 비춰준다

月往西峯寂 달은 서쪽 봉우리로 가버려 적막한데
東南尙數星 동남쪽에 몇몇 별은 아직 남아 있네
巖雲留澹白 바위에 걸친 구름은 담백함 남아 있고
庭栢貯深靑 뜰의 잣나무는 깊은 푸름 속에 싸여 있다
得友融仁智 벗을 얻어 인과 지에 녹아들고
惟詩發性靈 시는 성령을 드러내네

高林有黃鳥 높은 숲속엔 찌꼬리 있어
今古所淸聆 고금에 청령이라 불린다네(『2012설악산』)

<동(冬)> - 김구용(金丘庸)

용(龍)트림진 고매(古梅)등걸 밤에 눈 맞더니
이끼 툭툭 털고 하늘로 날아올라
먼 새벽 향기인가 하마 꽃이 피었네(『설악산 백담사』)

<등만경대(登萬景臺)>-오정진(吳偵辰, 1936~)

해질녘 만경대 찾아 허위허위 올라서서
九天淸風을 안고 四圍를 굽어 보니
丹楓의 雪岳連峰이 고개들어 뵈더라

太初에 造化主 高臺 여기에 쌓으시고
金剛의 無盡勝景 덜어 옮겨 돌려놓아
오는데 가는이 마다 올라보라 이르던가

싫도록 보자구나 丹楓에 타는 連峰
가는 해 쉬이지어 쉬엄쉬엄 넘는 夕陽
東天에 흰 구름 뚫고 달아 하나 솟았구나

南으로 定向하니 景이 더욱 勝하구나
험준한 바위산이 우줄우줄 솟았는데
그 위에 繡놓은 夕陽별에 타더라(『인제군사』)

<등봉정(登鳳頂)> - 이복원(李福源, 1719-1792)

봉정에 올라

下界聞名三十年 지상세계에서 명성 들은 지 30년 만에
飄然今日若登仙 오늘에야 날 듯 오르니 신선이 된 듯하다

一輪輾近江心鏡 등근달 점점 강가 중심으로 가까워지고
 萬朶開低石室蓮 만 개의 연꽃 석실 아래에 피었다
 安得褰裳超碧海 어떻게 바지 걷어붙이고 푸른 바다 건널 수 있을까
 祗堪搔首問青天 단지 머리 긁적이며 푸른 하늘에 물어볼 수밖에
 淸峰此去無多路 맑은 봉우리 지금 가면 다시 찾을 길 없겠지만
 留作浮生未了緣 뜬구름 같은 인생 머물고자 해도 끝내 인연이 없다네

空濛天海色 흐릿한 하늘과 바다의 빛 사이에
 獨立俯千尋 홀로 우뚝 솟아 천 길 굽어본다
 南嶽披雲喜 남악에서 구름 걸힌 즐거움
 東山小魯心 동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긴 공자의 마음
 往塵殘塔問 지난 날 먼지는 탑 사이에서 사라지고
 虛籟半峰沉 맑은 소리만 봉우리에 잠긴다
 山外非眞面 산 밖에서 보는 것은 진면목이 아니니
 須從頂上臨 모름지기 정상에 올라 봐야한다네(『2012설악산』)

<등봉정(登鳳頂)> - 김원행(金元行, 1702-1772)
 봉정에 올라

海上冷風絕搯埃 바다 위 시원한 바람에 속세와 단절하고
 塔臺高處獨徘徊 탑대 높은 곳을 홀로 배회하노니
 方知鳳頂非天外 알고 보니 봉정이 아니라 하늘 밖이라
 自是遊人小得來 스스로 찾는 이가 적다고 하네(『설악산 백담사』)

<마등령(麻登嶺)에서> - 이은상

비 지난 아침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
 어찌다 하나 둘씩 그리마는 비 오듯이
 날려서 어지러운 마음 더 괴롭게 하는 구나

낙엽(落葉)에 싸인 돌길 막대로 헤치면서
 가다가 문득 돌려 지나온 길 살펴보니

어딘지 낙엽(落葉)에 도로 묻혀 알길 바이 없는 것을

태초(太初)라 조화(造化)사공 설악(雪岳) 큰 배 만드시고
구만리(九萬里) 하늘 길을 멀리 이리 오실 적에
저 짐대 네 공이 크다 여기 우뚝 세웠나니(『인제
군사』)

<만의(晩意)> - 김시습

萬壑千峰外 맑은 골짜기와 봉우리 밖에
孤雲獨鳥還 외로운 구름 새로 새 홀로 돌아오네
此年居是寺 이 해는 이 절에서 지낸다지만
來歲向何山 내년에는 어느 산으로 갈 것인가
風息松窓靜 바람 자니 송창은 고요하고
香銷禪堂閑 향불 꺼진 선당은 한적하구나
此生吾已斷 이승의 인연일랑 내 이미 끊었으니
棲迹水雲間 물과 구름 새에 발자취나 남기며 살리라(백담사 경내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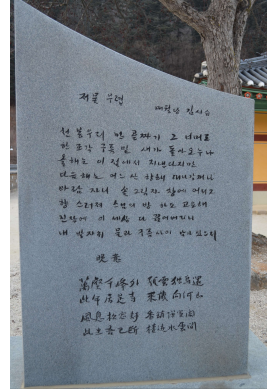


그림 8 백담사
김시습 시비

<만저 인제현(晩抵 麟蹄縣)> - 홍경모(洪敬謨, 1774-1851)

繫舟紅蓼下 홍삼밭 아래 배를 매고
驅馬白沙間 흰 모래밭 사이로 말을 몰아
松影高低路 소나무 우거진 길목에 다다르니
秋光遠近山 멀고 가까운 산들은 가을빛이로구나
峽農得無歉 산협의 농촌에는 탐해도 얻을 것 없고
巖邑寂多閑 전각은 한산하기 그지 없구나
雪岳橫天半 설악산이 하늘의 반을 가리웠느니
明朝政可攀 명일 아침 정사를 바로 할 수 있을까(『인제군사』)

<모등동대(暮登東臺)> - 김창흡(1653-1722)

저물녘 동대에 올라

新霽暮山紫 날씨가 개어 저녁 산 붉고
 照曜我東臺 햇빛이 나의 동대를 비춰준다
 長嘯一徙倚 길게 휘파람 불며 한 번 누대에 기대 있으니
 神情出九垓 신령스런 감정이 하늘 밖으로 솟아난다
 溪流白龍跳 시내가 흘러 흰 용이 뛰는 듯하고
 吼作萬壑雷 온 골짜기에 우레가 치는 듯 소리가 난다
 東南金芙蓉 동남쪽 금부용
 鳳頂赤崔嵬 봉정이 또한 우뚝 솟아 있다
 如睹姑射僊 고야라는 신선을 바라보는 듯 새하얀데
 腕顏向人開 윤기 나는 얼굴로 인간세계 바라본다
 高風吹榭葉 떡갈나무 잎으로 높이 바람이 불어와
 雨散仍徘徊 비가 흩어져 이리저리 배회한다
 巾袂與飛動 두건과 소매 함께 날리는데
 白雲冉冉來 흰 구름만 멍계멍계 솟아난다
 望望採薇岡 고사리 캐던 언덕 바라보자니
 淸寒安在哉 청한자 어느 곳에 계셨던가
 蒼然暮色至 어스름푸레 저녁 빛 이르러
 恐惹樂中哀 즐거움 속에 근심 생길까 두렵다네
 (山中有梅月堂故居) 산속에 매월당의 옛 거처가 있다(『2012설악산』)

<미시령> - 이태극(李泰極, 1913~2003))

내 태백 허리의
 안개에 안겼노라

단풍도 골짜기도
 긴 줄기로 뵈잖노라

그래도 그 동해의 파돏소린
 귀속 깊이 스몏노라

천애(千涯) 길섶 날리는

옷깃을 여미면서

목탁이 들리는
산가(山家)를 생각하노라

찌들은 땀 내음 반기며
이속에 살고과서

연보라 산국(山菊)하나
모퉁에서 맞아주고

놀랜 다람쥐
돌각담에 숨고 나나
차체(車體)는 그냥 그대로
인간 향해 내린다.(『인제군사』)

<미시령 노을> - 이성선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너무 가볍다

<미시파령 이수(彌時坡嶺 二首)> - 이식(李植, 1584-1647)

平生弧矢志 평소엔 호시(천지사방을 경륜할 뜻)의 뜻을 품고서
四方經險艱 사방의 험준한 길 두루 밟고 다녔나니
南登鳥道棧 남쪽으로 조령의 잔도 건넜고

北上磨天山 북쪽으론 마천령을 넘어도 보았어라
 不謂東峽路 그런데 뜻밖에도 동쪽 산골 가는 길에
 復有彌坡關 또 다시 미시령이 버티고 서 있다니
 一川百折渡 돌고 돌아 일백 굽이 건너야 할 강물이요
 一嶺千峒環 일천 겹 에워싸인 준령이로세
 側足滄波上 한 발 빼끗하면 곧바로 푸른 바다
 舉手青雲間 손을 들면 잡히나니 푸른 구름
 始怪地何依 처음에는 디딜 땅도 없을 듯 겁나더니
 更擬天可攀 하늘까지 오를 욕심 다시금 샘솟누나
 方知濊國東 이제야 알겠도다 예맥 나라 이 동쪽에
 別是一區寰 따로 별세계가 감추어져 왔던 것을
 將窮觀覽富 여기저기 좀 실컷 구경하려 하였는데
 豈計腰脚頑 말 안 듣는 허리 다리 이를 어찌나
 時時頌奇絶 때때로 접하는 기막힌 경치만으로도
 且爾開塵顏 속세에 찌든 얼굴 펴기에 족하도다

五步一回顧 다섯 걸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고
 十步一停留 열 발 걷고 나서 다시 멈춰 휴식하며
 三朝上峻阪 삼일 동안 아침나절 험한 비탈 올라
 三暮登上頭 사흘 저녁에 정상에 우뚝 섰어라
 巨石傷我足 거대한 바위에 발도 다치고
 顛崖眩我眸 깎아지른 낭떠러지 눈이 아찔했나니
 大哉穹壤內 굉장하도다 미시령이여
 茲嶺誰與侔 천지간에 그 무엇이 그대와 짝하리오
 回車與叱馭 수레를 돌렸거나 마부 꾸짖었거나
 忠孝心所求 모두가 충효심의 발로라 할 것인데
 何意携老母 노모를 모신 이 길 무엇 때문에
 乃反窮遐幽 깊은 골 뒤질 생각 거꾸로 한단 말가
 餘生慕苟全 남은 인생 성명을 보전할 수단 있다면
 絕跡甘遠投 자취 끊고 먼 산골로 들어가도 좋으련만
 臨風發長歎 바람결에 날려 보내는 나의 장탄식
 吾道知是不 나의 이 길 과연 옳은 것인지(『2012설악산』)

<방오세동매월유지명(訪五歲童梅月遺址名)> - 김시보(金時保, 1658-1734)
오세암을 방문하다 매월당의 유적지 이름

不見清寒子 청한자를 직접 뵈지 못하고
聊尋五歲童 애오라지 오세암을 찾았다
絕壁無人迹 절벽엔 인적이 없고
雲氣日空濛 구름 기운 날마다 몽롱하다
山荒採薇岡 고사리 캐던 산등성이 황폐해졌고
歲暮攀桂叢 한 해 저무는데 계수나무 부여잡고 오른다
我來百世下 나는 백대 후에 태어나
悲歌拊遺蹤 슬픈 노래만 유적지에 남긴다
微月嘯山鬼 희미한 달빛에 산귀신 울어대고
淸風度崖松 맑은 바람 절벽 소나무에 스친다
秋霜滿天白 가을서리 온 하늘에 하얗게 내려
冥冥萬里鴻 아득하니 만 리의 기러기
日暮下石門 날이 저물어 석문을 내려가
回首望三峰 머리 돌려 삼봉을 바라본다(『2012설악산』)

<방원폭(方圓瀑)에서> - 이은상

둥근 채 모나시고 모난 채로 둥그시니
둥글다 말하리까 ‘모’라 말씀하오리까
둥근지 모나신지를 나는 미처 모릅니다.

둥글게 보이오니 둥근줄로 믿으리다
모나다 하오시니 모난 줄로 아오리다
둥그나 모나나 간에 입으로만 섬기라다.

둥글어 계웁소서 모나셔도 계웁소서
모만은 마웁소서 둥글만도 마웁소서
둥글고 모나신 후에야 쓰일 곳이 있습니다.(『인제군사』)

<방한계주로각사여우 용참료자시운증지(訪寒溪住老覺師旅寓 用參寥子詩韻贈之: 한계사의 주지 노각사의 여우를 방문하여 삼료자의 시운을 따라 지어 주다)> - 이규보(李奎報, 1168-1241)

霞想雲情逸天半 안개인 양 구름인 양 반공중에 노니니
 玉龍金鎖莫我絆 좋은 벼슬 많은 녹이 날 잡지 못하리
 平生自學元次山 나는 평생에 원차산을 배웠기에
 欲往寒溪稱浪漫 한계로 가서 낭만랑(浪漫郎)이라 불리고 싶었네
 寒溪主人偶此逢 한계의 주인을 우연히 여기서 만나
 聊復軒眉一笑同 재미있게 눈썹 펴고 함께 웃는구나
 禪味何妨飲餘滴 중이지만 술 한 잔쯤이야 어떡하리
 談鋒更愛生雄風 그 얘기 숨씨 신바람이 나는 구나
 相從不覺西日側 노느라고 해지는 줄도 몰랐는데
 十里青煙催晚色 저녁연기 십리 길에 석양을 재촉하누나
 不須更憶寒溪遊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겠네
 見公眼色奪溪碧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이(『2012설악산』)

<백담계곡(百潭溪谷)> - 이희승(李熙昇, 1896~1989)

백담에 고인 물이 물마다 거울일레
 거울 속에 비친 얼굴 봉봉이 홍장(紅粧)일레
 그 속에 흠어진 그림자 태고 찾는 나그네

유구(悠久)를 흘러흘러 돌과 바위 같고 닦아
 모양도 동굴 동굴 빛조차 깨끗하고나
 인심을 닦아온지는 역사 아직 젊더냐(『인제군사』)

<백담사(百潭寺)> - 양근열(梁根烈, 1938~)

설악산(雪岳山)
 청산(靑山)무늬

잣나무 울
백담사 목탁은
잣 석 섬 까고
피암의 청태(靑苔)는
만해(萬海)의 처흔(處痕)인가
물속에 담긴 구름
백담 쫓아 흘러감은
모난 돌 다듬어
백팔염주 만듭인가
설악산
청송무늬
잣나무 울(『인제군사』)

<백담사(百潭寺)> - 성암(聖庵, 1954.9음영)

하늘빛 맑은 유곡(幽谷)의 가을 내
도영(倒影)에 잠근 설악(雪岳)의 성봉(聖峰)
단풍(丹楓) 옥어져 풍겨오는 탐실한 서정(媚情)이
반주(伴奏)하오니 통일목탁(統一木鐸)소리에

아득한 옛날 신라(新羅) 백담사(百潭寺) 불전(佛殿)에서
화랑도(花郎道) 석유(碩儒)들이 무예도(武藝道) 명사(名士)들이
궁시장복(弓矢裝服) 단정(端正)하고 백담사(百潭寺) 앞에
화살은 높이 날아 북소리에 맞았다

나도 백담사(百潭寺) 앞에 서서
고요한 달밤 백담사(百潭寺) 불당(佛堂)에서
멸공기도(滅共祈禱) 올리던 쟁쟁(錚錚)한 목탁(木鐸)소리
분노(憤怒)에 지새우던
등불아래 장부(丈夫)의 구국경륜(救國經綸)
나도 명상(冥想)에 잠겨보세(『인제군사』)

<백담사(百潭寺)> - 정범조(丁範祖, 1723-1801)

백담사

山事經三宿 산속일 때문에 삼일을 머물러
仙游到百源 신선지역 유람하다 백원에 이르렀다
身深依塵住 몸은 오래도록 속세에 의지해 살았고
境寂易花昏 주위는 적막하니 쉽게 눈이 침침해 진다
遠瀑連林磬 먼 폭포는 숲 사이에서 울려 퍼지고
春星繞洞門 봄별은 동문을 에워싸고 떠오른다
分明諳所歷 지나온 자취 또렷이 기억하나니
後約與僧論 훗날 스님과 담론할 것을 기억한다네(『2012설악산』)

<백연곡구잡영(百淵谷口雜詠)> - 김창흡(1653-1722)

백연 골짜기 입구에서 잡다하게 읊다

人還谷口草先生 나 골짜기 입구로 돌아오니 풀이 먼저 자랐고
板屋遙聞碧澗聲 판자집엔 멀리 푸른 물소리 들린다
書幌煙煤還宿迹 서재에 쳐놓은 휘장에 묻은 그을음 잠깐 흔적이니
壁西畝臥木燈檝 벽 서쪽에 기대 쓰러져 있는 나무 등잔

終古雲嵐鎖碧山 옛날부터 구름과 이내가 푸른 산 감싸고 있는데
尋春誰復扣松關 봄을 찾으러 누가 다시 소나무 관문 두드리나
巖阿花發潭心赤 바위틈으로 꽃이 피어나 연못은 붉게 물들자
得意游魚自往還 때 만난 물고기만 절로 왔다 갔다 한다(『2012설악산』)

<봉정고탑(鳳頂孤塔)> - 이해조(李海朝, 1660-1711)

봉정의 고탑

鳳頂菴 在雪嶽絕頂 俯視萬峯 東臨大海 爽豁無比 菴西 有大巖 廣可坐數
千人 當心造塔 突兀孤起 不知創自何世 而傍有石罅二孔 傳是浩劫繫舟處云
鳳頂下二十里許 有十二瀑 瀑西 有清寒子舊基

봉정암은 설악산 가장 높은 정상에 있다. 온갖 봉우리를 내려다보고 동

쪽으로 큰 바다에 임해 있어 시원함과 탁 트임은 비할 데가 없다. 암자의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수천 명은 족히 앉을만하다. 한 가운데 탑이 우뚝 홀로 서 있는데 어느 시대에 만든 건지 알 수 없다. 곁에 돌틈 사이로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오래도록 배를 묶어두었던 곳이라 전해진다. 봉정 아래로 20리쯤에 12폭이 있다. 폭포 서쪽에 김시습의 옛 유적이 있다.

翼翼孤鳳頂 날개를 편 듯한 외로운 봉정
 對峙蓬萊嶽 봉래산과 마주하고 있다네
 俯海石勢壯 바다를 굽어보는 바위의 형세 웅장하고
 摩空塔影矗 하늘 위로 솟은 탑의 그림자 뽕족하다
 洪荒莽難窮 태고적 신비 갖추고 있어 찾기도 힘든데
 誰是維舟客 배를 묶은 나그네 누구이던가
 清寒亦磨滅 청한자도 이미 사라져버렸으니
 何處尋雲瀑 어느 곳에서 구름 폭포 찾을까(『2012설악산』)

<봉정암(鳳頂菴)> - 홍태유(洪泰猷, 16712-1715)

봉정암

絕頂尋行迹 산 정상에서 행적을 찾노라니
 空菴落葉中 텅 빈 암자만 낙엽 사이에 있다
 齋僧何處去 불공 올리던 중들은 모두 어느 곳으로 갔나
 茶別竈猶紅 차 끓이던 부엌에 불은 아직 그대론데
 躋攀眼欲暗 넝쿨 부여잡고 오르느라 눈이 희미해졌는데
 峯際一菴明 봉우리 사이로 암자 하나 선명하게 보인다
 火知僧去暫 불을 보니 중이 잠시 외출한 것임을 알겠고
 香到佛前清 향냄새 불상 앞에까지 맑게 전해온다
 地界乾坤別 아래에서는 하늘과 땅이 나뉘었는데
 登臨嶽岫平 올라보니 산과 굴이 나란하구나
 中宵巖壑動 한밤중에 바위와 골짜기 흔들리고
 風激海濤聲 바람이 바다의 파도소리 전해온다네

緣溪上雪嶽 시내 따라 설악산 오르는데

溪盡小菴開 시내 다한 곳에 작은 암자 자리 잡았다
 僧亦休糧住 중들도 또한 곡기를 끊고 머물며
 人方採藥來 사람은 약을 캐러 온다네
 山寒楓病葉 산이 차가와 단풍잎 병들었고
 雲濕石斑苔 구름이 습하니 돌에는 이끼 투성이
 玆境吾何到 이곳에 내 어떻게 왔던가
 却爲泉石媒 천석이 매개가 되었었지(『2012설악산』)

<봉정암(鳳頂庵)에서> - 이은상

깊은 밤 이 산골에 들리는 저 물소리
 구구절절(句句節節)이 오묘(奧妙)한 진리(眞理)로다
 인간(人間)에 기풍 설법(說法)은 모두 헛것이었다

물소리 마음속을 긴 골 이뤄 흐르나니
 밝으신 달 이 마저 마음 위에 비쳤나니
 이대로 지녀 돌아가 고이고이 잠들리라(『인제군사』)

<봉정암(鳳頂庵)에서> - 이목영(李牧英)

一杖穿天三步立 저 보오 저 하늘! 걸음마다 탄성이라
 山靑石白間間花 푸른 산 흰 바위 틈틈이 꽃이로다
 若使畫工描此景 만일에 화공시켜 이 경치 그리라면
 其於林下鳥聲可 숲속의 저 새소리 무엇으로 그리리오(『인제군사』)

<산시(山詩)30> - 이성선

나죽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저 물속에는
 산 그림자 여전히
 혼자 뜰 것이다.(『설악산 백담사』)

<산행(山行)> - 고정희(高靜熙)

-설악(雪岳)1-

산그늘 봉봉(峰峰) 청동소리 푸르러
산(山)안에 울리는 청동소리 따라
줄을 서서 들어가는 사내들은
넋을 따라 들어가는 사내들은
산(山)안에 가득한 청동소리 후려치며
곧은 사지(四肢) 골골 청동소리 내며
저 마다 수십 개 천재(天才)의 눈을 뜨고
숲과 하늘의 사내가 되었다
산(山) 밖에서 입고 온 옷을 벗은 사내들은
청동소리 나는 몸 하나씩 지고
하늘과 숲의 자궁에 닿고 싶은 사내들은
뼈국 뼈뼈국 소리도 지났다



그림 9 백담사 이성선 시비

-설악(雪岳)2 내설악(內雪岳)연가-

<아썩하여라>

숲쟁이에 아직 어둠 림림(凜凜)한 새벽
산지기는 산맥(山脈) 깊이 솟불을 묻으며
일만이천 계곡(溪谷)으로 불심지 내리고
떠도는 혼불들 다 날아와
셋바람 몰아 별을 걷어 내릴 때
솟이 된 별 한 짐씩 지고
산(山)을 내려가는 사내들 등 뒤에서
산맥일대(山脈一帶)가 우뢰소리로 울 때
별판 같은 하늘 하나 떠올리는 산(山)
죽순(竹筍) 뿌리 같은 절망(絶望)을 켜며
사내들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을 때
<아썩, 아썩하여라>
잠깐 눈뜨는 즈른 영혼(靈魂) 질어 밝고

깊은 밀림(密林) 날날이 흔들고 가는
순례차의 크고 환한 웃음소리
대청봉(大靑峰) 절정가

-설악(雪岳)3-

마술(魔術)에 걸린 늑대 한 마리
대청봉(大靑峰) 꼭대기로 치닫습니다
수백년 칙칙한 밀림(密林)을 가로질러
흔들리는 나뭇잎 저치며
사지(四肢)에 불을 켜 늑대 한 마리
내설악(內雪岳) 골짜기 올라갑니다
박달나무 사시나무 사납게 치솟아서
늑대 털뿌리 희게 뽑히고
가시나무 칩덩쿨 제철을 만나
살 찢기는 늑대울음 계곡(溪谷)아래 구룹니다
오래전 죽은 길도 나무뿌리에 누워
날짐승소리 아썩한 깊은 산(山)
깊은 산속 늑대 한 마리
바윗등에 붙어진 독버섯 문지르며
천년자는 늪지대 이슬에 찢기며
높은 곳 산봉(山峰)에 다다릅니다
어디선가 산(山)아래 늑대 부르는 소리 들리고
사방(四方)에 열린 거울 속으로<아아>
흰 옷 입은 사람 하나
대청봉(大靑峰)에 서서
떠오르는 구름에 실려 갑니다(『인제군사』)

<삼각봉(三角峰)> - 이은상

청(靑)비단 고운 보에 싸두었던 붉은 옥(玉)을
남도 다 보라시고 펴 놓으니 저 삼각(三角)을
내품에 말아 넣고서 웃고 돌아내리리라(『인제군사』)

<삼선봉(三仙峰)> - 이은상

종구나 삼선봉(三仙峰)이 웃고 한 번 솟았구나
물소리 흘러 놓고 흥거로이 솟았구나
활개 곧 돌기만 하면 나도 등실 뜨겠구나(『인제군사』)

<상미수령(上彌水嶺)> - 김창흡

미시령에 오르다

廳巖才過立巖高 창암을 근근이 지나니 선바위가 높구나
撐突雲霄似插刀 우뚝하게 하늘에 솟은 것이 칼을 꽂은 모습이다
負勢眞能長弟起 위세는 장제의 마음을 일게 하고
屺奇似慰往來勞 기묘함은 오가는 이의 노고를 잊게 한다
名山磅礴斯爲裔 명산은 하나 같이 이곳에서 이어지고
詞客牢籠偶爾遭 사객은 무리지어 너를 만나는 구나
亦有佳潭蒙惡號 또 가담이라 하지마는 더러운 이름이니
須君洗雪在揮毫 너의 누명 벗겨준은 부끄러움을 씻을 뿐이라(『인제를
소재한 국역 한시집』)

<상암(裳岩)> - 이은상

길게 드리우신 저 임의 무명치마
거친 듯 어지시고 승한채 빛나시네
주시는 푸진 사랑도 이리든든 하시구나

든든한 사랑이 오매 믿고 아니 잊으리다
켜켜이 쌓인 설움 다 버리고 가읍니다
이 뒤에 생각만 하고도 웃고 살아 가오리다(『인제군사』)

<쌍룡폭(雙龍瀑)에서> - 이은상

쌍룡(雙龍) 저 두 어른 어느 적에 만나신지
백자천손(百子千孫)을 무릎아래 두시고서
상기도 사랑이 넘쳐 어깨 걷고 웃으시오

가련(可憐)한 인생(人生)들은 청춘(靑春)이 삼시언만
이 두 분 천만년(千萬年)에 늙을 줄 모르고서
만날 때 부르던 노래 이제토록 부르시오

저 밖에 봉자인손(鳳子隣孫) 인물도 잘 나시고
학덕(學德) 높은 이에 기예(技藝) 또한 능(能)한 이에
이 세상 어느 뉘게도 모자랄 것 없소이다(『인제군사』)

<쌍폭(雙瀑)> - 삼연 김창흡

詩家寫瀑古來稀 글로서 폭포 그리기는 예부터 어려운데
以此尤奇孰發揮 이와 같은 기이를 어찌 더욱 그리리(『인제군사』)

<쌍폭(雙瀑)> - 삼연 김창흡

虹插井中元對飲 무지개 우물 가운데 서려 원기를 마주하여 마시니
驚騰雲際豈孤飛 놀랍다 구름 가에 올라서 어찌 홀로 나는가
春撞落勢爭衡壯 춘당의 세력은 떨어져 다투어 장엄함을 저울질 하네
窈窕來源一體記 그윽함을 훔쳐 근원으로 오니 일체를 기록하다(『인제군사』)

<쌍폭(雙瀑)> - 이유원(李裕元, 1814-1888)

쌍폭

拍地歸同波 땅을 치며 함께 흘러가는 물줄기
落天濶兩頭 드넓은 하늘 끝 두 산 사이에서 떨어진다
人功非所致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을 터
造化與之謀 조화옹이 아마도 생각해냈겠지

緣壁路傾仄 절벽 따라 길은 아슬아슬 이어져 있고
 匝林洞狹幽 숲을 돌아 골짜기는 좁고도 그윽하다
 居僧亦罕到 여기 사는 스님들도 자주 찾지 못한다는데
 過客焉能搜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佛書筭恒沙 불경에는 항하의 모래라고 장난쳤고
 齊諧詭方壺 재해에는 방호라 속여 기록되어 있다네
 何須舍正趨駭異 어찌 올바른 것을 놓아두고 기이한 것을 따르랴
 吾道源泗洙 나의 도는 공자님을 근원으로 한다네
 半畝方塘亦足矣 반 이랑의 못이라도 또한 족하나니
 誰爲之智誰爲愚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자이겠는가(『2012설악산』)

<쌍폭대(雙瀑臺)> - 문익성(1525-1584)

面面高撐削玉峯 곳곳엔 높이 하늘 떠받치고 있는 깎아지른 흰 봉우리
 淸溪交注碧玲瓏 맑은 시내 교대로 푸름 속으로 흘러 영롱한 소리 퍼진다
 孤臺俯瞰三千尺 외로운 누대에서 내려다보니 삼천 길
 悅駕晴空鶴背風 맑은 하늘에서 학을 타고 바람에 날려가듯 황홀하다(『2012설악산』)

<쌍폭득비자(雙瀑得飛字)> - 김창흡(1653-1722)

쌍폭에서 비자를 얻어

詩家寫瀑古來稀 시인들 폭포를 묘사한 것이 예로부터 드무니
 似此尤奇孰發揮 이와 같이 기이함을 누가 비슷하게나마 표현할 수 있으랴
 虹插井中元對飲 무지개 우물에 꽃혀 있어 원래 함께 마시려는 듯하고
 鷺騰雲際豈孤飛 해오라기 구름 사이로 솟구쳐 어찌 홀로 날아가나
 春撞落勢爭衡壯 절구질하듯 떨어지는 형세 웅장함 다투고
 窈窕來源一體肥 멀리 깊숙한 곳에서 흘러오는 샘물은 한결같이 살지다
 停瀉看他鎔鑄巧 폭포 잠시 두고 쇠를 녹여 만든 공교로움 바라보자니
 化翁其亦費心機 조화옹이 또한 많은 마음 썼겠지(『2012설악산』)

<설악(雪嶽)> - 이유원(李裕元, 1814-1888)

설악

雪花滿眼白 눈 꽃 날려 보이는 건 모두 하얀데
雙瀑掛山腰 쌍폭은 산허리에 걸려 있다
蓬萊宜伯仲 봉래산과 백중지간이니
一斗我胸澆 한 말로 내 마음 속 씻어준다 (『2012설악산』)

<설악문승폭(雪岳門僧瀑)> - 이은상

가을날 달 밝은 밤을 저 노승 근심에 싸여
깊은 이 산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소에 그 몸을 다 잊으려 하옵던가

늙도록 울어 살고 눈물 아직 또 남으니
천 번 헤어보고 만난 님아 생각하되
산다는 인생 일생이 그렇게도 슬프던가

지금 물속으로서 보이는 저 ‘곡뒤’가
상기도 근심 그득한 그 얼굴 그대물세
가서도 인간번뇌(人間煩惱) 벗기 저리 어려운가

죽는다 산다 함이 같은 줄을 아시던들
구태 늙은 몸이 여기에야 들었으리
닭은 도(道) 채 부족하여 깨던 미쳐 못하셨나

저 승(僧)의 하는 일을 사람이 의논마소
제 몸을 던졌거니 남의 말씀 부질없소
수중에 드신 저 혼(魂)이 부디 편안 하시과져(『인제군사』)

<설악산(雪嶽山)> - 조명리(趙明履, 1697-1756)

설악산(雪嶽山) 가는 길에 개골산(皆骨山) 중을 만나

중다려 물은 말이 풍엽(楓葉)이 어떠터니
이즈음 인하여 서리치니 때 맞았다 하더라(『인제군사』)

<설악산(雪嶽山)> - 조위한(趙緯韓, 1567-1649)

萬古崢嶸鎮海陬 만고토록 우뚝 솟아 바닷가 억누르며
茲山雄壯擅東丘 이 산의 웅장함은 우리나라 제일이지
雪從太始留深寶 눈은 태초부터 깊은 굴에 남아 있고
雲爲恒陰覆上頭 구름은 항상 그늘 되어 꼭대기를 덮고 있다네
愁色慘悽擎落日 근심스런 빛으로 처량하게 지는 해를 들어올리고
癯容寂寞送殘秋 파리한 모습으로 고요히 가을을 보낸다네
此間知有幽棲處 이 사이에 깊이 은거할 곳 있음을 알겠거니
桂樹攀援欲少留 계수나무 부여잡고 잠시 머무르고자 한다네(『2012설악산』)

<설악산(雪嶽山)> - 이경석(李景奭, 1595-1671)

迥立含雲氣 멀리 구름기운 머금고 우뚝 서서
層巔逼紫霄 층층 봉우리는 하늘을 압박하네
應知太始雪 응당 알겠노라 태초의 눈이
六月不曾消 유월에도 녹지 않음을(『2012설악산』)

<설악산(雪岳山)> - 김선현(金先現, 1932~2000)

오늘밤, 말이 없는 저 사람과
꿈속에서 서로 얘기해 보지 않으리오

선인장(仙人掌)처럼 부피가 자라서
아름다운 모습이 된
이상한 식물인가

누가 한 번
의심을 해 보아라

철보다 더 굳은
구리쇠 광맥(鑛脈)
화강암석(花崗巖石)
웃석층(上石層)

쇠붙이
황금청석(黃金靑石)으로
속이 짝 찬
봉우리 바깥은
천태만상(千態萬象)의 오묘한 형상을 지닌
골짜기와 바위

거기에 무수한 영양소(營養素)가 배인
산(山)의 피를 빨아 먹고 자라는
억(億)가지 초목(草木)들
술술히 부는
산바람...

이 거대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식물같은
형체가

조그마한 무슨
극(極)히 낮은 한마디 부름 소리에
하나씩 둘씩
뚝뚝 떨어져 나가
바닷물에 잠겨서
순식간에
저 투명한 해면(海面)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누가 한 번 크게

의심을 해 보아라

오늘밤, 말이 없는 저 낭만(浪漫)들과
꿈속에서 서로
노래 불러 보지 않으려오.(『인제군사』)

<설악산 영가> - 이만선(李萬善, 1924~?)

죽음을 모르고 태연하게
영원을 사는 산중인이 있다
무엇과도 바뀌어지지 않는

태고적부터 줄곧 앉아서
그리며 조각하며 창조한다
술한 역사의 탈바꿈 속에서도

하늘도 땅도 그 속의 모든 것이
머리를 조아리며 가슴을 연다
준엄한 무릎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의 시를 읽고
조물주의 창조의 숨씨를 보며
창조주의 능력을 체험하려는가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산신령을 타고 앉는다
못 이룬 소원을 갈망하여

손등 무릎허리에 개미처럼
기어오를수록 일렁이는 여인체
만고의 신비를 더하는 아

꿈을 심고 소원을 읽어주며
산은 늘 현실에 앉는다
바람따라 구름따라 손짓하며

천연(天然)을 돌며 세월은 가고
세월을 붙잡고 변하는 철학을
산봉우리 휘파람 소리에서

우뚝 구름위에 허리를 드러내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산의 유방
뒤에 떼어두고 떠나는 마음

연임처럼 자꾸만 뒤돌아 본다
아쉬움과 서러움을 씹으며
다시 만날 것을 다지며 떠난다(『인제군사』)

<설악산(雪岳山)에서> - 정완영(鄭完永, 1919~ ?)

아득히 백발(白髮)이 앉듯
적적산월(寂寂山月) 눈 옵니다

고(苦)되고 아픈 세월(歲月)을
보좌(寶座)인양 눌러 앉아

침침산 막막(冥冥)히 싸여
돌아갈 길 없습니다.(『인제군사』)

<설악산 시초(雪岳山 詩抄)> - 이명도

I
또 하나 아픈 사연이
산악같이 굳었구나

안으로 맺은 피는
돌이끼로 터지는데

버티어 다물은 표정(表情)
아예 물소리도 삼가라

II
탐스러운 젓가슴
안반 같은 불기짝들

하얀 맑은 몸매
감추듯 들내는 듯

층층이 내리는 물에
눈이 부신 반석(磐石)들

III
못 여는 것입니까
안 열리는 것입니까

당신 숨결
내 핏줄에 느껴운데

흔들고 두드려도 한결
돌아앉은 뜻입니까(『인제군사』)

<설악산황엽(雪岳山黃葉)> - 이은상(李殷相)

천(千)길 돌벼래를 단풍으로 입혔는데
곁에 선 누른 잎들 제 이름 다 버리고
못 붉어 누르면서도

단풍인 척 하더라

단풍은 붉으라 하라 타듯이 붉으라 하라
남이 붉다고 너도 따라 붉어야 하나
네 자랑 황금(黃金)빛이어나
빛대로 섰거라.(『인제군사』)

<설악송(雪岳頌)> - 변영태(卞榮泰, 1892~1969)

창공(蒼空)에 높이 솟은 암벽만도 신기(神奇)커던
틈틈이 층층이 청송(靑松)마저 들러섰네
저희도 풍경(風景)에 취(醉)해 갈 줄 잊은 양 하여라

천인단애(千仞斷崖)에 대승폭 금(錦)인듯 드리워서
아마득한 협곡(峽谷)새로 급류(急流)일워 달(走)고 있네
장(壯)하다 조화신공(造化神功) 이에서 더 할손가?

높이 솟은 ‘하늘벽(壁)’ 이름도 잘 지었네
바위틈의 노송(老松)이 살다 못해 죽었네
우리도 이런 곳에 살다 가고 싶고너

‘옥녀탕(玉女湯)’ 돌바닥에 비취(翡翠)밑물 고희씨고
뒤에 돌린 설봉(雪峰)들 수병풍(繡屏風)과 같아라
‘장수대(將帥臺)’와 아울러 이 선경(仙境)의 쌍벽이리(『인제군사』)

<설악(雪岳)의 꿈> - 정민(程民)

영(嶺) 넘어 태고(太古)의 비탈
가슴을 엄습하는 눈발
칠흙의 암벽(岩壁)을 끼고
한계마루의 동천홍(東天紅)
지곡(地穀)에 물들면

마음은 장승(長丞)되어 영겁(永劫)을 간다

보랏빛 병풍(屏風) 겹겹이 퍼면
그와의 사연이 심연에 잠기고
먼동을 치닫는 숨결 속
어디선가 선녀(仙女)의 울부짐이
눈사태(沙汰) 속에 숨져가고
수절과부(守節寡婦)의 녀두리인가
골짜기에 여운(餘韻)을 남기며
귀여운 눈망을 속에 초침(秒針)이 간다

꿀을 삼킨 밤 설악(雪岳)
귀밑머리 서리 서리고
두 손 맞잡고 정(情)에 겨워
그의 품속에 잠자리 차려
엄마의 젖무덤인양
오색(五色)길을 단숨에 치 단는다.(『인제군사』)

<설악청광(雪岳晴光)> - 이해조(李海朝, 1660-1711)

설악산의 맑은 햇빛

雪山長戴雪 설악산이라 오래도록 눈이 쌓여 있는데
況是雪下時 하물며 다시 눈이 내림에라
晶晶霽後色 수정처럼 빛나는 눈 그친 뒤 풍경
同我白接羅 나와 함께 온통 하얗게 덮여 있다
冰魄少清輝 차가운 달빛이 잠시 맑은 광채 드러내
交暎扶桑池 해 떠오르는 동해를 함께 비춘다
欲喚訪梅客 매화 찾는 손님 부르고자
同賦看山時 산을 바라보는 시 함께 짓는다네(『2012설악산』)

<설악행(雪岳行)> - 박목월(朴木月, 1916~1978)

오죽(烏竹)에 가을바람 입발에 서러운 낙산사(洛山寺)의 가을 배맛
 어슬어슬한 하오(下午)에 상면(相面)한 설악단풍(雪岳丹楓)
 동인(東仁)의 생애(生涯)를 비선대(飛仙臺) 가는 길에 반쯤듣다
 호텔의 로비의 심야(深夜)의 커피를 굶는 파이프
 서울 천리(千里)를 두고 가랑잎 하나 줍다
 담자색(淡姿色)마위 이 편을 아마 동해미시령(東海彌矢嶺)
 선글라스에 소멸(消滅)하는 비행운(飛行雲) 이박삼일(二泊三日)
 백국(白菊) 만발(滿發) 돌아온 집의 아내의 음성(『인제군사』)

<송설악운상인(送雪嶽雲上人) - 김구용(金九容, 1338-1384)>

方寸渾無一點塵 방촌에 흐르는 물 한 점 티끌 없으니
 眼前諸法自天真 눈앞에 모든 사물은 하늘의 진리로다
 何須萬里勞參訪 어찌 모름지기 만 리의 수고로움을 찾으랴
 達磨西來誑我人 달마가 서방에서 왔다니 나를 속임 아닌가(『2012설악산』)

<수렴동(水簾洞)> - 김창흡

百折源長萬嶺稠 백 번 꺾여 근원 말고 만 봉우리 뻗뻗한데
 以誰雙脚遍探搜 누가 있어 걸어서 모두 탐색 하였는가
 於中勝有簾泉選 그 중에 으뜸은 빼어난 절승이라
 與爾謀爲蠟屐遊 너와 더불어 납극의 유람을 하련다
 楓飽霜水猶映壁 단풍은 찬 서리를 겪었어도 오히려 절벽을 비추고
 龍收雷雨別開湫 용은 우레비를 거두고 특별히 웅덩이를 열었구나
 松根吹簫烹茶返 소나무 밑에서 피리불고 차 끓여 마시고 돌아와
 要使靑煙憩處留 푸른 안개로 하여금 쉬는 곳에 머물게 하리라(『인제를
 소재로 한 국역 한시집』)

<수렴동(水簾洞)> - 이복원(李福源, 1719-1792)

松桂煙霞積 소나무 계수나무에 연기노을이 쌓여
 神仙洞府開 신선동 마을이 열리네

水聲隨地別 물소리 좃다가 별계에 들었네
 岡勢抱天廻 산능선은 하늘을 감아 돌고
 爽郎仍逃暑 청순한 사나이 거둬 더위를 피하니
 淸高不受埃 맑고 높아 티끌에 물들지 않네
 蘿蹊休遣問 담쟁이 우거진 길 쉬어 갈 길 묻노니
 且傍六環來 또한 육환 곁으로 오노라 (『2012설악산』)

<수파령(水波嶺)> - 김시습

수파령, 새이령을 일컬음

小巘周遭水亂洄 작은 산 둘러있고 물 휘돌아 흐르는데
 千章喬木蔭巖隈 일천 그루 큰 나무와 바위에 가려있네
 山深不見人蹤跡 산 깊어 사람 자취 보이지 않고
 幽鳥孤猿時往來 이따금 산새와 잔나비만 오가네 (『인제를 소재로 한 국
 역 한시집』)

<숙대승암(宿大乘菴)> - 김창협(金昌協, 1651-1708)

대승암에서 잠자며

古寺木皮瓦 나무껍질 지붕의 해묵은 절집
 僧去薛荔鎖 중은 없고 덩굴풀이 문을 엮었네
 小鑪燼檀香 작은 향로 향 사른 흔적이 있고
 陰壁蔓山果 응달 벽엔 산과실 덩굴 뻗었네
 蒼鼠眠佛龕 청설모 불감에서 잠을 자다가
 驚人竄復墮 사람보고 달아나다 떨어지기도
 幽深此焉極 이곳은 그야말로 깊은 산이니
 荒落固自可 황폐함도 당연한 일이라 하리
 灑掃寄枕簟 청소하고 자리에 몸을 누이니
 白雲來就我 흰 구름 나에게로 다가오는데
 篔泉試甘冽 대 홈통 나온 샘물 달고 차가워
 茗團發包裹 차 덩이 포장 풀어 우려 마시네
 中峯採參子 봉우리 중간에서 삼 캐던 사람

日暮路坎坷 해 저물고 산길이 험난하여서
相偶宿不歸 귀가 앓고 나와 함께 밤을 지낼 제
隔窓耿松火 창 너머 관솔불이 깜박이누나(『2012설악산』)

<숙대승암망곡백연(宿大乘菴望曲百淵)> - 김시보(金時保, 1658-1734)
대승암에서 잠자며 곡백연을 바라보다.

深藤茂樾際天長 크고 무성한 등나무 넝쿨이 하늘가에 높이 자랐는데
穿到禪門背雪岡 그 사이를 뚫고 절간에 이르니 눈 쌓인 등성이를 등지고 있네
佛倚廢龕苔錯落 부처는 망가진 감실에 기대 있는데 이끼는 어지러이 자랐고
燈懸破壁雨蒼涼 등불은 무너진 벽에 걸려 빛소리 더욱 서늘하다
橫空鶴與雲歸海 하늘을 가로질러 나는 학과 구름은 바다로 돌아가고
負楚僧隨鹿過場 가시나무를 진 스님 사슴 따라 마당을 지난다
回首百淵猶隔嶺 머리 돌리니 백연은 고개 저 너머
也應今夜夢連床 오늘밤 꿈속에서는 응당 함께 나란히 눕겠지(『2012설악산』)

<숙봉정암(宿鳳頂菴)> - 이덕수(李德壽, 1673-1744)
봉정암에서 자다

靈籟剛風徹夜寒 신령한 소리, 강한 바람 불어 밤새도록 차가운데
松藤交戛響飛湍 소나무, 등나무엔 교대로 여울 소리 울린다
夢裡錯疑東海岸 꿈속에서 동해안에 있는지 의심 되었는데
不知身在萬重山 몸이 만 겹 산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겠네(『2012설악산』)

<숙영시암(宿永矢菴)> - 김중후(金鐘厚, 1721-1780)
영시암에 머물며 오세암을 찾다

東峰心是儒 동봉의 마음은 선비였고
三淵迹如釋 삼연의 자취는 스님과 같았다네
奇哉此山裏 기이하구나! 이 산속에서
千載同一宅 천 년간 하나의 집을 같이 한 것이
竦厲千峰尊 가파르게 우뚝 솟은 높은 천 개의 봉우리

轟騰萬流激 천둥소리 내며 요동치는 만 개의 물줄기
 擇棲棲於此 살 곳을 정함에 이곳을 택했으니
 豈非象其德 어찌 그 덕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山水優餘韻 산수에는 어림פות이 운치가 남아 있는데
 我來事如昨 내가 오니 마치 어제 일어난 일 같다네
 板龕像徒設 관감의 동상 부질없이 설치되어 있는데
 瓦簷碑可讀 와침의 비석은 읽을 수 있다네
 愛近而忘遠 가까운 것을 좋아하고 먼 것을 잊어버리니
 誰爲解此惑 누가 이 의혹 풀어줄거나 (『2012설악산』)

<시적 오세암(矢蹟 五歲庵)> - 聖庵

恍惚燦爛秋岩園 황홀하고 찬란한 가을의 바위동산
 上空流轉瑞氣運 상공에 흐르는 상서로운 기운이여
 矢蹟靈臺五歲庵 화살의 자취* 신령스런 돈대 있는 오세암엔
 貫神妙力降雲逢 신묘한 힘을 뚫어 내려온 구름을 만나네(『인제군사』)
 *화살의 자취(矢蹟): 삼연 김창흡이 영시암(永矢庵)을 지어 머물렀는데, 화살을 쏘아 돌아오지 않듯이 속세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해서 영시암이라 이름짓고 기거하였다.

<심원사(深源寺)> - 이경석(李景奭, 1595-1671)

佳境眞堪暢客懷 가경이라 참으로 나그네 회포 펼만하니
 淸遊得興二三偕 두 셋이 더불어 놀 수가 있었네
 分溪幾處春雲確 갈라진 물 여기 저기 구름 방아 찧고
 種樹成行護石階 줄줄이 선 나무들은 돌계단을 보호하네
 雨助風光來細細 비는 풍광을 도와 세세하게 내리고
 鳥供詩興語啾啾 새는 시흥을 돋우며 개개하게 지저귀네
 平生素有幽棲志 평생에 그윽한 곳에서 살렸는데
 此計應須早晚諧 이 계획 머지않아 이루어 질 것이네(『설악산 백담사』)

<심원사(深源寺)> - 김시습(金時習)

古木千章下 쪽쪽 뻗은 고목 아래
 岑巖有梵宮 험준한 봉우리에 절집이 있거늘
 鳥啼庭樹靜 정원의 나무에 선 새소리 맑고
 齋罷客廊空 재 끝난 행랑은 쓸쓸하네
 高岫夕陽薄 드높은 봉우리에 석양 빛 희미하고
 小溪楓葉紅 작은 시냇가에는 단풍이 붉어
 行行皆勝地 가는 곳마다 모두가 승지인데
 何必哭途窮 하필이면 막다른 곳에 있는가(『설악산 백담사』)

<심원사(深院寺)> - 이천보(李天輔, 1698-1761)

已道新霜重 길가에는 이미 서리 거둑 내렸는지
 楓林萬樹明 숲속 많은 나무들 단풍색이 분명하네
 吾能及秋到 나는 겨우 가을에야 도착했건만
 僧已出雲迎 스님은 이미 나와 손님을 맞네
 石路行潭影 돌길을 가는 모습 물가에 어리고
 天風聽磬聲 하늘에 이는 바람 쇠 소리처럼 들리는데
 空門留宿債 공문에 빚을 지며 머물러 하니
 吾欲學無生 내 생각에 학문할 뜻이 없구나(『설악산 백담사』)

<아득한 성자> - 무산 조오현(霧山 曹五鉉)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 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설악산 백담사』)

<암유매월당김공(시습)유상감부(菴有梅月堂金公(時習)遺像感賦)> - 정
범조(丁範祖, 1723-1801)

암자에 매월당 김시습의 유상이 있어 느껴 짓다

衆峯鬱以紆 여러 봉우리가 울창하게 두르고 있고
流瀑何迢遞 시내와 폭포는 어찌 그리 아스라한가
幽蘿四際垂 그윽한 넝쿨이 사방에 드리워져 있고
靄雪所蒙蔽 싸락눈 내려 흐릿하게 가려있다
往者金先生 지난 날 김시습 선생은
胡爲此淹滯 어찌하여 이곳에 머무셨던가
心跡有餘悲 마음과 발자취엔 넉넉한 슬픔 남아 있고
木石存冥契 나무와 들엔 마음속 깨달음이 남아 있다
徘徊潭月來 연못가 달 비칠 때 배회하면서
偃息巖霞閉 노을에 가린 바위에 기대어 쉬었었지
禪室象平生 선실은 평생의 행적을 본떠 세워졌고
遺眞儼百世 남겨진 초상화는 백세토록 보존되리
神彩爛不昧 신령스런 빛깔로 반짝거리며 사라지지 않아
森然以流睇 마치 살아 있는 듯 흘겨보고 있다
再拜瞻衣冠 의관을 바라보며 두 번 절하고
顧步循庭砌 뜰의 섬돌을 산책하던 발걸음을 돌아본다
夜深羣籟靜 밤이 깊어 모든 소리 사라졌는데
淸風起叢桂 맑은 바람만 계수나무 숲에서 불어온다(『2012설악산』)

<영산담(影山潭)> - 이은상

영산담(影山潭) 맑은 물에 저기도 내가 있네
누가 참이 온지 어느 것이 그림잔지
물속에 지나는 구름보고 웃고 돌아서니라(『인제군사』)

<영시암(永矢庵)> - 삼연 김창흡

吾生若無樂 내 세상에 나 괴로움 뿐
於世百不堪 세상사 참 견디기 어렵다.
投老雪山中 늙은 몸 설악산에 던져
成果永矢庵 여기 영시암을 이룩하다.(『인제군사』)

<영시암(永矢菴)> - 김창흡(1653-1722)

西遊日月浪消除 서쪽으로 유람 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였는데
倦後來尋白板廬 권태로워진 후에 하얀 판잣집 찾는다
損病味優無病日 병 덜자 미각은 병 없을 때보다 좋아지고
還山興倍入山初 산으로 돌아온 흥취 처음 산에 들어올 때보다 갑절이나 된다
雪前盆養林家樹 눈 앞의 화분엔 임 가의 나무가 자라고
雲裏房藏李氏書 구름 속 산방엔 이 씨의 책이 보관되어 있다
整頓牀帷身亦斂 잡자리 정돈하니 이 몸도 또한 차분해져
萬緣冥入一心虛 온갖 인연 그윽함 속으로 들어와 마음이 텅 빈다

雲守虛樓鹿守園 구름이 텅빈 누대 지키고 사슴이 정원을 지켜
檢看春井宛然存 방아 찼는 우물 살펴보니 완연히 남아 있다
牛於耕日勸生犢 소는 밭가는 날 새끼 낳느라 분주하고
蜂在花時鬧出孫 벌은 꽃필 때라 시끄럽게 새끼 낳는 구나
可村山奴治事密 산속 종들 하는 일 밀접하게 헤아릴 수 있나니
亦知隣寺護綠敦 이웃 절에서 인연 지킴 돈독함을 또한 알겠노라
西游得喪都休說 서쪽으로 유람하여 얻은 것과 잃은 것 다 말하지 마시게
且據殘冬受飽溫 장차 남은 겨울 동안 배부름과 따뜻함 다 누릴 테니(『
2012설악산』)

<영시암(永矢菴)> - 이천보(李天輔, 1698-1761)

板屋寥寥澗水邊 시냇가 주위에 판잣집 적막한데

高人棲息問何年 고인이 살고 있어 몇 살인지 물어본다
 樓頭峰聳蓮花影 누대 끝으로 봉우리 솟아 있고 연꽃 그림자 비치며
 洞裏僧傳桂樹篇 골짜기 안엔 중들이 계수편 읊어준다
 悵悵白雲如有待 흰 구름 누군가 기다리는 듯 애달파 보이고
 徘徊孤月偶成圓 외로운 달은 우연히 둥근 모양 되어 배회한다
 西飛一鶴天邊去 서쪽으로 학 한 마리 하늘 끝으로 날아가
 獨立霜崖更黯然 서리 내린 절벽에 홀로 서니 다시 어두컴컴해진다(『
 2012설악산』)

<영시암(永矢菴)> - 정범조(丁範祖, 1723-1801)

雲峰百轉盡清溪 구름 낀 봉우리 백 번 굴러 맑은 시내 다 했는데
 金氏菴深鳳頂西 김시습의 암자 봉정암 서쪽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地勢何緣通馬跡 지형은 어떤 연유로 말의 발자국과 통하며
 僧言無稅入麟蹄 중들은 세금이 없어 인체에 들어왔다 말하네
 靑葱灌木鵲聲老 푸르고 무성한 떨기나무에 두견새 소리 늙어가고
 深淺菴雨厓色迷 높고 얇은 벼랑은 비 내리려 어둑하다
 但使靈山有眞分 신령스런 산이 참된 분수 있게 한다면
 於菟未害近人棲 호랑이가 사람 가까이 살더라도 해로울 게 없겠지(『
 2012설악산』)

<영시암득심자(永矢菴得心字)> - 김창흡(1653-1722)

영시암에서 심자를 얻어

天寒小雪逼 날이 차가우니 소설이 가까이 다가온 바
 雪山氣蕭森 설악산 기운은 쓸쓸하면서도 삼엄하네
 夫何白雨作 무릇 어찌하여 하얀 비 내리나
 洒落松桂林 솔숲과 계수나무숲 시원하게 씻어준다
 雲從大嶺來 구름이 큰 고개에서 솟아나
 合爲四山陰 합쳐서 사방 산 모두 어둡다
 板屋且高臥 판잣집 높이 걸쳐 있어
 簷鈴赤好音 처마의 방울소리 또한 듣기 좋아라

鴻濛視戶庭 집의 뜰을 바라보고
 煙靄寄枕衾 아지랑이 침소에까지 들어왔다
 可知所處高 내가 있는 곳이 높은 곳임을 알겠거니와
 塵世隔幾岑 속세와 몇 겹 봉우리 떨어져 있을까
 無已太闐寂 지나치게 고요하고 적막함 어찌할 수 없건만
 二子偶相尋 두 아들 짝을 지어 서로 찾는다
 權言開講評 강평회를 연다는 말 기쁘게 말하노니
 諧若奏琴琴 조화가 금슬을 연주하는 것 같다네
 紙牕引虛白 종이 바른 창에 햇빛 비춰와 밝고
 燈花照孤襟 등불은 외로운 마음 비춘다
 濂翁有圖書 주렴계에게 도서가 있으니
 洞然天地心 천지의 마음과 통하리라
 迢迢蓮花峰 아득한 연화봉
 紺寒一源深 푸르고 차가운 시내는 근원이 그윽하기도 하여라
 巖泉此不乏 바위와 샘물이 여기에 빠지지 않으니
 妙契庶在今 번쩍 떠오른 깨달음 지금에 있다네(『2012설악산』)

<영시암우후(永矢菴雨後) - 김창흡(1653-1722)>

영시암에 비온 후

久雨廖廖坐小菴 오래도록 비 내리는 적막하고 조그만 암자에 앉아 있자니
 種麻庭院碧蘿參 삼을 심은 뜰엔 푸른 넝쿨 우거졌다
 前溪十日無僧渡 앞 개울엔 열흘 간 건너온 스님도 없어
 但見閒雲過石潭 다만 한가로운 구름만 석담을 지나가는 게 보인다(『2012설악산』)

<영시암유허비(永矢菴遺墟碑)> - 안석경(安錫敬, 1718-1774)

영시암 유허비

櫟叟蒼然木石顏 벽계노인 푸르른 목석같은 얼굴로
 當年玩易此林間 당시 이 숲속에서 주역을 연구하였지
 惟將天地輸談詠 오직 천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읊으셨는데

可惜英雄老曠閒 영웅이 늙어 사라짐이 애석하구나
 俄卷青霞歸碧落 잠깐 머문 푸른 노을 파란 하늘가로 돌아가
 獨留明月照空山 홀로 남은 밝은 달만이 텅 빈 산 비춘다
 遺墟短碣休揮淚 남겨진 짧은 비갈에 눈물 뿌리지 마소
 鳳頂峯嶢聽爾攀 가파른 봉정이 너의 등반을 들어줄 터이니(『2012설악산』)

<영시암유허 삼연선생소거(永矢庵遺墟 三淵先生所居)> - 김원행(金元行, 1702-1772)

영시암 유허 산연 선생이 거쳐하던 곳

當年滅景此山深 당시에 경관 사라져 이 산은 깊기만 한데
 敗礎荒榛不可深 황량한 가시나무속이라 무너진 주춧돌도 찾을 수 없네
 獨有高明峰上月 유독 봉우리 위로 높고 밝게 떠오른 달만이
 至今留照詠歸心 지금도 남아서 돌아가려는 마음 읊조리는 날 비취준다
 (『2012설악산』)

<영시암 화숙씨운(永矢菴 和叔氏韻)> - 김창즙(金昌緝, 1662-1713)
 영시암에서 작음 형님의 운에 화답하다.

塵埃苦覺拔身難 속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괴롭게 깨닫노니
 回首高山會未團 머리 돌려도 높은 산 아직 다정스럽지 않네
 今夕雲梯兄一笑 오늘 밤 구름사다리에서 형이 한 번 웃고
 百淵秋月我同看 백연의 가을 달 나와 함께 바라본다네
 松杉羣影陰陰直 소나무와 삼나무 숲 그림자 서늘하게 서 있고
 澗壑幽音灑灑寒 시내와 골짜기의 그윽한 소리 시원하면서 차갑다
 板屋青燈堪講易 관갓집 등불 주역을 읽을 만하니
 淹留不得竟長嘆 머물러 있으면서 긴 탄식 그칠 수 없다네 (『2012설악산』)

<오도송(吾道頌)> - 한용운

男兒到處是故鄉 사나이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거늘
 幾人長在客愁中 그 누가 오랫동안 객수에 젖었는가

一聲喝破三千界 한 소리 큰 할에 삼천세계를 타파하니
雪裏桃花片片飛 눈 속에 도화가 조각조각 나는구나

<오세동자유기(五歲童子遺基) - 김창흡(1653-1722)>

오세동자의 옛터

維東靈淑囿 동쪽 영험하고 맑은 곳에
佳者列如碁 아름다운 풍경 바둑판처럼 널려 있다
我行末其半 내가 갈길 아직 반도 되지 않았는데
投足俾忘饑 한 발길마다 배고픔을 잊게 한다
慶雲朝濯髮 경사스런 구름이 아침마다 머리를 씻어주고
華陰暮振衣 화려한 그늘이 저물녘 옷깃에 펼쳐진다
山高澗何濬 산이 높는데 시냇물은 어찌 그리 깊게 흐르나
日落雲彌馳 날이 지니 구름이 더욱 빨리 흐른다
淸源下昭陽 맑은 근원 소양강으로 내려가고
宛轉此靈基 완연히 이곳이 영험한 터전이로다
餘響感余策 남은 메아리 내 채찍에
延首溯淸暉 고개를 넘어 맑은 햇빛 따라 간다
莽莽欲詢古 아득하니 옛일 묻고자 하여도
道荒漁樵稀 길이 황폐하여 어부나 나무꾼도 드물다네
霜崖惟落葉 서리 내린 절벽엔 오직 잎만 떨어지니
何處問柔薇 어느 곳에서 연한 고사리 물을까(『2012설악산』)

<오세암(五歲菴)> - 정범조(丁範祖, 1723-1801)

玉岵瓊峰面面新 옥같이 아름다운 봉우리 면면이 새로운데
靈源一氣此氤氳 신령스러운 기운 이곳에 가득하다
人間路絕無邊瀑 인간세계의 길은 끝없는 폭포에 끊어져 있고
花裡僧深太古春 꽃 속 스님은 태고의 봄 깊기만 하다
頗怪東游如物相 동쪽으로 유람 온 것이 사물 구경함과 같음이 자못 괴이한데
明知一宿是僊因 하룻밤 머무는 것도 신선의 인연임을 확실히 알겠노라
徘徊不語紗籠下 사롱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배회하자니

梅月先生暗會神 매월 선생과 정신이 몰래 들어맞네(『2012설악산』)

<오세암(五歲庵)> - 이유원(李裕元, 1814-1888)

數椽五歲窟 몇 개 서까래로 엮은 오세암 토굴
萬古一東峰 만고토록 한 분의 김시습
托跡地相近 살아온 발자취 지상에서 가까운데
歸雲天上從 구름으로 돌아가니 하늘 위로 따라갔다
薦香尊廟宇 향불 피워 사당에서 절하고
來拜愧懷慵 돌아오니 늙고 게으름이 부끄럽구나
神影留于釋 신령스런 초상화 불가에 남겨두어
存髯尙識容 수염 있지만 얼굴은 알아보겠네 (『2012설악산』)

<오세암(五歲庵)> -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봄날이 고요기로 향(香)을 앓았더니
삼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꾸구기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스별 등에 지고 유마경(維摩經)을 읽노라니
가벼웁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 밑 글자를 읽어 무엇하리오.(『인제군사』)

<오세암(五歲庵)> - 이은상

임은 가셨건만 입을 여기 뵈웁니다
끼치신 이 얼굴이 너무 분명 하오이다
눈감고 임의 영혼도 이제 마저 뵈웁니다.

산사(山寺)에 깊은 황혼(黃昏) 물소리 더욱 차다
뜰 밖을 내다보매 사람은 하나 없고
낙엽(落葉)만 바람에 불려 헤락피락 하는 구나.

늦가을 깊은 밤 이 산에 비가 오네
괴로운 내 가슴에도 찬비 또한 오는 구나
끊임없는 빗소리에 생각도 끝없어라.

노선(老禪)도 눈을 감고서 말이 없이 앉았구나
불 켜진 장명등(長明燈)이 빛속에 밝았구나
어두운 내 마음에도 저 등불이 그리워라(『인제군사』)

<오세암 침배매월옹유상(五歲菴 瞻拜梅月翁儒像)> - 안석경(安錫敬,
1718-1774)

오세암에서 매월당의 유상에 절하다.

五歲孤菴雪嶽中 외로운 오세암 설악산 가운데 있어
淸寒遺像凜生風 청한자의 유상엔 서늘한 바람 불어온다
魁顏獨抗千峰秀 기결 찬 용모로 홀로 천봉의 수려함에 맞서고
朗目雙臨萬壑通 맑은 두 눈동자 모든 골짜기 다 바라보듯 한다
莫把動榮輕節義 공훈과 연화 가지고 절의를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
須於濩落見英雄 모름지기 배포 큰 가운데 영웅을 볼지어다
此翁心事留千古 이 늙은이 마음 천고에 남아 있는데
松際團團月出東 소나무 사이로 둥글게 동쪽에서 달이 떠오른다(『2012
설악산』)

<옥녀폭(玉女瀑)> - 이은상

어여쁜 백옥선녀(白玉仙女) 공기받던 그 모양이
하마 보일가 해 기다리고 앉았건만
흐르고 솟고 떨어지고 물소리만 들리더라

옥녀(玉女) 별것이라 이 물이 곧 옥녀(玉女)로다
물가에 저 공기도 지금 한창 받는 것을
사람은 옥녀(玉女)를 헛 알아 없다 말만 하더라(『인제군사』)

<운주봉(雲住峰)에서> - 이은상

구름은 좋을러라 구름은 슬플러라
내 사랑 쏟는 그곳에 아픔 또한 있을러라(『인제군사』)

<유냉천동(遊冷泉洞)> - 김시습

냉천동에서 노닐며

六月甚酷熱 유월이라 더위가 극심하여서
大地如洪爐 대지가 뜨거운 큰 화로 속 같네
謁來冽泉洞 어찌하여 열천동이라 했는가
石罅清瀾號 돌 틈새로 맑은 물 흐른대서 이름 했네
浴乎復風乎 목욕하고 또 풍월 읊으며
嘯詠而蜘蛛 큰 소리로 노래하며 머뭇거리니
此樂料知少 이 즐거움 아는 이가 적다 했는데
點爾爲吾徒 증점아! 너만이 내 동지로구나(『설악산 백담사』)
* 냉천동 수림동계곡에 있음. 열천동이라고도 함

<유백담사(遊百潭寺)> - 오윤환(吳潤煥)

高明峰出百淵深 고명봉에서 나오는 백연 깊은데
盡日行行別境尋 진종일 가고 가서 별천지 찾았네
如滿社前流水淨 여만사 앞 흐르는 물은 맑고
惠休樓上碧霞陰 혜휴루 위 푸르른 산기운 응달이네
塵經浩劫憑殘夢 호겁으로 못 이룬 꿈 속세에 두고
語到清真覺本心 맑고 참됨 깨달아 본심을 말하네
叢栢寒花堪供賞 총총한 잣나무와 국화꽃 감상하기 그만이라
此懷那惜費長吟 이 마음 어찌 읊조리지 않으리오.(『설악산 백담사』)

<유한계(遊寒溪)> - 문익성(文益成, 1526-1584)

石門深鎖洞天寬 석문은 깊숙이 잠겨 있고 골짜기는 넓은데

千丈丹崖萬丈山 천 길 붉은 절벽에 만 길 산이라
寄語吹笙王子晉 생황 부는 왕자 진에게 말하노니
倘分驂下一青鸞 혹시 수레 풀어서 푸른 난새 하나 내려주지 않으시런
가?(『2012설악산』)

<응봉폭(鷹峰瀑)> - 이은상

까마귀 못 까마귀 내로라 다투어도
청강(淸江)에 숨어들지언정 백로(白鷺)아니 좋을는가

사해(四海)에 이름 날려 저 뿐인야 할지라도
과묵힌 천재호걸(天才豪傑)이 더욱 아니 그리운가

잘나고 품(品)도 좋아 저리 시원하건마는
경(景)에도 불우(不遇)! 있다니 다시 한 번 애닭아라(『인제군사』)

<입설악산(入雪嶽山)> - 윤봉구(尹鳳九, 1683-1767)

설악산에 들어가

見一峯尖潭一曲 뽕족한 봉우리 하나, 등근 못 하나만 봤는데
已知山水幾層奇 산수가 얼마나 기이한지 알겠노라
一回神駭再回笑 한 번 볼 때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볼 땐 미소 짓게 하니
百轉令人舞蹈之 백번 본다면 나도 모르게 춤추며 방방 뛰게 하겠지(『
2012설악산』)

<자연탑(自然塔)> - 이은상

불설(佛說)이 진실(眞實)하사 다보탑(多寶塔)이 솟으시니
자연(自然)의 읊으심을 천조탑(天造塔)이 보이시니
우중(愚衆)도 이 앞에서야 아니 믿고 어이리(『인제군사』)

<장수대(將帥臺)> - 오덕준(吳德俊)

금강산이 좋아하되 장수대에 비할소나
구슬바위 푸른나무 구름높아 둘러싸여
백척폭포 떨어지니 자양강물 소리친다(『인제군사』)

<전진추경 백담사(戰塵秋景 百潭寺)> - 鏡心

路窮層岩重水隔 층암이 다한 길 많은 물이 놓였고
深山幽谷重大利 깊은 산 그윽한 곳 사찰이 있구나
三報不遷在何處 삼보를 옮길 수 없으니 어느 곳에 두리오
白雲松柏亦丹楓 흰 구름 송백에 또한 단풍까지 있다오(『인제군사』)

<제한계사(題寒溪寺)> - 정필달(鄭必達, 1611-1693)

(在麟蹄東北三十里 山水之勝甲於嶺西 新羅太子不忍國亡 入此倚巖爲屋
金先生時習隱居于此洞 又有飛仙書一絕于絕壁云 “生先檀帝戊辰歲, 眼及箕
王號馬韓, 留與永郎游水府, 又牽春酒滯人間.” 至今傳爲古蹟)

한계사에 제하다.(절은 인제 동북쪽 30리에 있다. 산수의 뛰어난 풍경
은 영서에서 으뜸이다. 신라태자가 나라가 망한 것을 잊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와 바위에 집을 지었다. 김시습이 이 골짜기에 거처하였다. 또 비선
대에 절구 하나를 절벽에 새겨놓았는데, “단군 무진년을 앞서 났고, 보기
는 기자가 마한을 일컫던 때에 미치도다. 우연히 영랑과 더불어 수부에
노닐다가, 또 봄 술에 끌려 인간 세상에 머물도다.” 지금도 전해져 옛 고
적이 되었다.)

雪嶽高臨大海觀 설악산 높게 큰 바다
靑天萬鈿玉巖岬 푸른 하늘 위로 만 길 옥빛 산 솟아 있다
巖泉森森嵐光濕 바위의 샘물은 졸졸 흘러 산 빛을 적시고
松洞陰陰日色單 소나무 골짜기는 그늘져 태양빛도 외롭다
寂寞前朝還廢堞 적막한 앞 시대 왕조는 도리어 무너진 성첩
淸寒遺躅自空壇 김시습 남긴 자취는 텅 빈 제단으로 남아있다

人間春盡晝安在 人間세계 봄은 다 했는데 글은 어디에 있는가
欲往尋之思羽翰 가서 찾고자 하니 신선을 떠 올린다.(『2012설악산』)

<조입한계동심폭(朝入寒溪洞尋瀑)> - 조재호(趙載浩, 1702-1762)

아침에 한계동에 들어와 폭포를 찾아보다

谷勢窈而深 형세가 그윽하고도 깊어
輿路轉無窮 수렛길도 끝이 없네
危壁相對起 가파른 절벽이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데
掩映蘿薜叢 녁쿨 숲에 가려 있다
清泉既脩廣 맑은 샘물 이미 넓어져
白石何玲瓏 흰 돌 어찌 그리 영롱한지
襟纓淨如洗 마음속 씻은 듯 깨끗해지고
埃壒一以空 속세의 먼지 한 번에 사라진다
山霏潤成雨 갈비 산속이라 비가 되고
林崖颯有風 숲속 절벽엔 바람이 세차게 분다
四顧何寂歷 사방 돌아봐도 어찌 그리 적막한가
悵恍迷西東 황홀하여 동서 구분도 못 하겠네
行見茅茨出 가다 초가집을 보니
鳴吠與之同 닭과 개도 한가지 일세
宿尙在絕俗 숙소도 속세와 단절된 곳에 있어
猶喜人境逢 사람 사는 마을 만난 게 오히려 기쁘다네
辛苦上危巔 온갖 고생하며 험한 고개 오르니
奇觀自茲通 기이한 경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네
瀑流知漸近 폭포 점점 가까워짐을 알겠거니
聲在朝霞中 아침노을 속에 소리가 들린다 (『2012설악산』)

<조추(槽湫)에서> -이은상

천마(天馬)의 만리행공(萬里行空)이 산위를 지날 적에
예 내려 이 영수(靈水)를 마시고 가옵더니
사람이 이곳을 일러 구유소라 이르더라

무형(無形)한 천마(天馬)이때 속안(俗眼)이 못보오나
지금도 이 산위를 행여 아니 지나는지
이따금 솔바람 소리에 고개 절로 돌려라

천길 돌 벼래를 단풍으로 입혔는데
곁에 선 나무조차 제 이름 다 버리고
못 붙어 누를지라도 단풍인체 하려더라

단풍은 붉으라 하라 타듯이 붉으라 하라
너희는 너희대로 황금빛이 제 사랑을
씩이어 어울린 곳에 경이 더욱 좋으니라(『인제군사』)

<조탁암(鳥啄岩)> - 이은상

공중에 나는 저 새 쉬는 곳곳 제집이오
먹으려 입으려 근심이란 없는 것이
공명(功名)도 본시 모르고 제뜻대로 사는구나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아침 이슬 저녁놀이 고운노래 부르면서
목숨이 지는 날까지 제뜻대로 사는구나(『인제군사』)

<진부령(陳富嶺)> - 설의웅(薛義雄)

영마루
보얀 안개비
할아버지
수염 곱어보면
숲이
천 길
있다 없어지는

딱장벌레 자동차
개미허리 산길
하늘이
돌고 있다.(『인제군사』)

<청봉(靑峰)에서> - 이은상

높은 산 이 적막(寂寞)이 내 맘에 이리 좋아
가고 오고를 다 잊고 앉았는데
남들은 내 뜻 모르고 소리질러 부르더라

앞서고 뒤서고를 다투지 말았으라
쫓는 이 없는 길을 바삐 간다 자랑 마라
누구나 이를 데 이르면 더는 가지 못하나니(『인제군사』)

<추억의 백담사> - 작사: 이호섭 작곡: 안치행 노래: 금방울자매

풀벌레도 울어대다 잠이 들고 밤도 깊은 백담사
호롱불 밝혀놓고 호롱불 밝혀놓고 잠 못 이룬 저 길손아
합장한 두 손 위에 흘린 눈물 저 하늘에 사무치면
더러는 잊으리라 언젠가 잊으리라
그 슬픈 그 상처도 세월에 묻혀질거야



그림 10 백담마을에 있는 <추억의 백담사>노래비

속삭이던 별빛마저 잠이 들고 달도 기운 백담사에
등촛대 밝혀놓고 등촛대 밝혀놓고 시름하는 저 길손아
합장한 두 손 위에 흘린 눈물 저 하늘에 사무치면
더러는 잊으리라 언젠가 잊으리라
그 슬픈 그 상처도 세월에 묻혀질거야(백담마을에 있는 노래비)

<출산(出山)> - 김창준

산을 나가며

結念名山凡幾秋 명산을 생각한지 모두 몇 해 이런가
 今來僅辦水簾遊 이제 겨우 수렴동에 올 수 있었네
 萬峰寧發琳琅蘊 많은 봉은 옥 같은 모습 드러내는데
 雙瀑空聞河漢流 쌍폭은 은하가 흐른다는 소문은 거짓인가
 老疾宗生堪歎息 형님은 노환을 탄식만 하니
 淸暉謝客未淹留 맑은 모습 못 보고 떠날 수밖에
 祇應歸去塵寰後 티끌 같은 세상으로 돌아간 뒤엔
 無限泓崢與夢謀 한없이 높은 산과 맑은 물 꿈에나 보리(『인제를 소재로 한 국역 한시집』)

<칠음대(七音臺)에서> - 이은상

칠음대(七音臺) 이 곡조(曲調)를 누구나 들으려면만
 듣는 이 그 누구가 기뻐 춤을 추옵건만
 여보소 어느 당신이 깊은 그 뜻 아시오

천만음(千萬音) 한데 열려 한 곡조(曲調)로 들리어도
 한 곡조(曲調) 깊은 속에 천만음(千萬音) 들었나니
 화옹(化翁)의 크신 예술(藝術)을 분별하기 어려워라(『인제군사』)

<탕수동(湯水洞)> - 이은상

년만년(年萬年) 큰 공드려 탕(湯)을 여기 파내시고
 사람 짐승을 다 못 들게 하시거늘
 놀 위해 이 맑은 옥수(玉水) 밤낮 괴어 두시는고

송림(松林)에 높은 달이 하늘 먼 길가 울적에
 이 탕(湯)에 잠깐 들어 쉬어가라 하심이리
 원(願)컨대 이 허울 벗고 나도 달이 되옵고자

떠도는 구름이 송이 떠오고 떠가다가

뜬 채로 여기 들어 근심 없이 춤추나니
차라리 이 허울 벗고 구름이나 되옵고자

공산(空山) 나무나무 떨어지는 마른 잎도
마지막 걷우어서 고이 씻어 보내시네
슬프다 사람된 한(恨)을 다시 알것구나

이대로 좋으이다 이대로 보시오들
사람이 짓는 이름 천부당(千不當) 만부당(萬不當)을
말로써 부리지 말고 마음으로 부르시오(『인제군사』)

<폐허 오세암(廢墟 五歲庵)> - 鏡心

前後左右奇岩山 전후좌우가 기이한 바위산
靈氣衝天峰疊疊 신령스런 기운이 봉우리마다 충천했구나
觀音妙力五歲庵 관음보살의 묘한 힘 오세암이 되었으니
不時不雪亦神道 때에 눈이 없지 않아도 신의 길이었으리(『인제군사』)

<하늘벽(天壁)> - 이은상

하늘, 저 푸른 하늘
생명과 자유의 원천
바라보면 멀고 멀어도
만지면 가까운 곳
오늘은
하늘벽 아래서서
내가 그의 분신이 되다.(『인제군사』)

<한계(寒溪)> - 梅月堂 金時習

鳴引寒溪水 울며 예는 한계수

空山日夜流 주인 없는 공산에 밤낮 흐르네
 不能隨俊乂 잘 나신 그 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且可任優休 차라리 마음대로 쉬어서나 가려무나
 地僻雲牙淨 땅이 편벽하니 운아가 깨끗하고
 潭清石髮柔 소담 맑아서 이끼는 부드럽네
 夢魂歸未得 꿈에라도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
 飄轉實堪愁 바람에 굴러다니며 시름겨워 하노라(『설악산 백담사』)

<한계(寒溪)> - 이은상

한계야
 너 피 흘린 물아
 장수들
 칼 씻은 물아
 목메어 우는 냇가에서
 나도 목멜 줄 알았더라면
 아뿔사
 이 길로 왜 오리
 딴 길로 재를 넘을 걸(『인제군사』)

<한계고성(寒溪古城)에서> - 이은상

이 성(城) 쌓은 이들 다 어디로 가 계시고
 풍우천년(風雨千年)에 성(城)마저 헐린 터를
 무상(無常)한 길손이 지나니 눈물 아니 흘오리까

몇 덩이 남은 돌이 더욱 남을 울림이라
 낙엽(落葉)이 불려 날며 쌓여 덮여 가립니다
 상(像)하여 눈물지는 밤 낸들 어이 하오리까(『인제군사』)

<한계관폭(寒溪觀瀑)> - 오도일(吳道一, 1645-1703)

한계에서 폭포를 보다.

爲尋銀瀑上峯嶢 은폭을 찾아 험한 산 오르니
 危磴離天路不遙 가파른 비탈길 하늘과 그리 멀지 않다네
 高處霽虹垂石竇 높은 곳엔 무지개 돌 굴에 드리워져 있고
 中間飛霰挂巖腰 중간엔 싸라기 눈 바위허리에 떨어지네
 雖嫌勢減雷千鼓 형세가 북소리처럼 들리는 우레 소리 덜어줌이 비록 싫지만
 且愛形如玉一條 한 줄기 옥 같은 형태는 사랑할만하다네
 擬待秋來山雨足 가을 오기를 기다려 산비 맞으며 와서
 快看狂沫噴層霄 하늘에서 미친 듯 뿜어대며 떨어지는 물 상쾌하게 보리라(『
 2012설악산』)

<한계관폭(寒溪觀瀑)> - 이인상(李麟祥, 1710-1760)
 한계에서 폭포를 보다.

神嶽千峰擁 신령스런 큰 산 천 개의 봉우리가 웅위하며
 天河一氣分 하늘의 강 하나의 기로 나뉘었다
 瀦藏深日月 물 저장된 것이 해와 달 보다 깊고
 鎔鑄出煙雲 빚어놓은 듯 아지랑이 구름 사이로 솟아났다네
 瀉輝松鎖合 쏟아지는 햇빛 소나무에 가려지고
 飛沫石芬飜 날리는 포말 돌에 뿌려 향기롭다
 搜源易懾魄 근원 찾아가자니 정신이 두려워지는데
 陰雨灑紛紛 음산한 빗방울 부슬부슬 흩뿌린다

不聞神鳥響 신조의 소리 들리지 않는데
 雷轉大乘天 우레 대승 하늘에 구른다
 晴日虹生壑 맑은 날에 무지개 골짜기에 생겨나고
 絕峰雲決泉 높은 봉우리에 구름은 샘물을 터지게 한다
 顯清通帝座 맑게 반짝거리며 옥황상제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幽冷隔人煙 그윽하고 차가와 속세와 떨어져 있다
 隱隱鳴珠珮 은은히 주렴소리 들리는데
 僊飈更肅然 신선이 타던 바람 다시 숙연해진다

巖臺環萬木 바위 누대는 온갖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데
 倚杖眺寒空 지팡이 기대어 차가운 하늘 바라본다
 日隱排青壁 태양은 푸른 절벽 사이로 얼핏 보이고
 雲蒸飲素虹 구름은 몽게몽게 흰 무지개 머무시는 듯
 陰風吹淅淅 서늘한 바람 췌아췌아 불어오고
 急雪下濛濛 갑자기 눈 내려 킁킁하다네
 君看成潭處 그대 보게나 연못 이룬 곳에서
 始知積水功 비로소 알리라 물의 공을 (『2012설악산』)

<한계령 단풍> - 정완영

우리 집 거울 속에는 내 얼굴만 비쳤는데
 설악산 불 단풍 속에는 정도 한도 다 비치네
 푸르고 붉었던 날들이 만장으로 다 비치네(『구름 山房』)

<한계반석(寒溪盤石)> - 배삼익(裴三益, 1534-1588)

清流激激亂喧豗 맑은 냇물 쿵쿵 거리며 흘러가다
 渟滯爲淵一鑑開 머물러 못이 되어 거울 하나 펼쳐졌다
 神物定應藏石底 신령스런 동물 정말로 깊숙한 바위 아래 머물러 있을 터
 不知何日發雲雷 어느 날에나 구름과 천둥소리에 날아갈지 모르겠다(『2012설악산』)

<한계사(寒溪寺)> - 명찰(明察)

爲愛寒溪境絕奇 사랑스런 한계는 절경 뛰어나다기에
 偶携瓶錫叩禪扉 이끌리듯 행랑 꾸러 선방 문을 두드렸네
 山含淑氣清嵐濕 맑은 안개 기운이 산을 품어 축축하고
 瀑帶重雲白練微 흰 명주 같은 구름 폭포를 띠처럼 가렸네
 松月影臨眠鶴背 소나무 달그림자 학등에서 잠 청하고
 風雷聲壯毒龍威 바람소리 우레 같아 용도 겁을 먹게 하네
 碧窓冷觸惺無夢 푸른 창가 찬 기운에 꿈도 꾸지 못하고

激激飛湍撩靜機 거친 물결 부딪치는 소리 정막을 깨트리네(『설악산 백담사』)

<한계사 폐허(寒溪寺 廢墟)> - 이은상

무서운 불길 속에
타다 남은 기와조각
딩굴어 비바람에

닿고 남은 한 조각이
애그나
천년이 지났건만
무슨 숨소리가 들린다(『인제군사』)

<한계사(寒溪寺) 폐허(廢墟)에서> - 이은상

적막(寂寞)한 산중고옥(山中孤屋) 찾을 이 뉘 있으리
어느 벗 무슨 손님 도둑인들 있으리오
개조차 짓는 천분을 잊고 그냥 앉았더라

나그네 석양(夕陽)길에 한계사(寒溪寺) 찾아드니
절도 주인(主人)도 없고 바람부는 빈터인데
깨어진 옛탑(塔) 이마저 풀숲 속에 묻혔더라

흩어진 기와조각 비 맞고 흙이 묻어
이끼로 덮힌 것이 돌속에 들었는데
지는 잎 그 위에 떨어져 다시 한 겹 가리나니(『인제군사』)

<한계산(寒溪山)> - 이우(李堦, 1469-1517)

我從嶺東來 내가 영동에 올 때부터
奇觀所歷遠 지나오며 기이한 볼거리 많이도 보았다네

巘峴而浩漭 가파르게 솟은 산, 넓디넓은 바다
 牢籠一詩圈 하나의 시집에 모두 아울렀다네
 寒溪雖在西 한계산은 비록 서쪽에 있지만
 川源山脈相連混 천원과 산맥은 서로 이어져 섞여 있다네
 周遭毀堞何代城 주위의 훼손된 성첩은 어느 시대 성이던가?
 一條白練穿重巖 한 가닥 흰 비단이 닫혀 있는 자물쇠를 뚫고 나왔다
 散爲百虹飲萬壑 흩어져 무지개 되어 골짜기에 물 마시려는 듯 드리웠고
 兩邊晴雷殷半嶺 양쪽으로는 맑은 날 천둥소리 산자락에 울려 퍼진다
 左右翠壁挾一水 좌우로 푸른 절벽이 물줄기 하나를 끼고 있는데
 三十六渡巧往返 서른여섯 번 물을 건너갔다 왔다
 樹木森聳旁無枝 나무들 뻗뻗이 솟아 있는데 곁가지 하나 없어
 上戛雲霄爭偃蹇 위로는 구름과 하늘에 닿아 다투어 머리 숙인다
 千仞南峯獨一泓 천 길 남봉엔 홀로 하나의 물줄기
 巖作甃清泉生 바위엔 잇몸처럼 울퉁불퉁하고 맑은 샘물 솟아나며
 仄罅坡陀石爲阪 비스듬한 틈과 비탈진 고개에 돌은 가파르다
 緣崖細蟒曲復斜 길은 절벽 따라 가는 뱀이 굽었다 다시 펴듯 나 있는데
 呀然窾穴迷混沌 입을 벌린 듯 넓은 구멍 혼돈 속처럼 헛갈린다
 我行漸盡景不盡 나의 여정은 점점 끝나가지만 풍경은 끝나지 않아
 西與江流同滾滾 서쪽으로 강물과 함께 끝없이 흘러 간다네
 欲待東嶺月全吐 동쪽 고개에서 달이 완전히 떠오르기를 기다리고자
 却向清泠騎赤鯁 다시 청령을 향해 적혼공을 탄다네
 隨波上下恣幽討 물길 따라 위아래로 다니며 마음껏 유람하고자 하지만
 局促不效窮途阮 일에 얽매어 길이 막혀 상심한 완적을 본받지 못한다(『
 2012설악산』)

<한계산(寒溪山)> - 이덕수(李德壽, 1673-1744)

丹崖翠壁對開張 붉은 벼랑 푸른 절벽 마주하여 펼쳐져 있는데
 松下清流晚吹涼 소나무 아래로 맑은 시내 흘러 늦도록 서늘함 뿜어댄다
 千古水春無底壑 천고에 걸쳐 끝없는 골짜기로 물은 절구질해대고
 四時花布別般香 사계절 꽃은 별도의 향기 내며 펼쳐 있다
 雲霞世外多僧氣 속세 밖이라 구름과 노을엔 스님의 기운 많고

鐘梵林中放佛光 숲속이라 종소리는 부처의 빛 내보낸다
明日欲尋深院路 내일은 깊은 절간 길 찾고자 하는데
赤城高處石梁長 적성 높은 곳엔 돌다리 길다랗다(『2012설악산』)

<한계폭(寒溪瀑)> - 김창흡(金昌翕, 1653-17220)

見山必其峻 산 보면 그 험함을 보고
見水必其瀑 물 보면 그 폭포를 보아야지
危在寒溪瀑 높이 걸려 있는 한계폭포
起自萬丈壁 만장이나 되는 절벽에서 떨어지네
壁高不着水 절벽 높아 물 붙지 않는데
蒼蒼竟一石 맑고 맑아도 끝내는 하나의 돌
輕風拂中流 가벼운 바람 폭포 허리를 스치니
霧散飄南北 물 맑은 안개처럼 흩어져 남북으로 날리네
餘沫久徘徊 물보라 오랫동안 공중에 뒹다
颯颯吹風柏 보슬보슬 풍백에 안기네
風栢結陰深 풍백은 짙게 우거져
不可窺中谷 중곡(中谷) 보이지 않네
西峰日殷隱 서쪽 봉우리로 해 넘어가니
東臺坐付得 동쪽 누대에 앉았을 수 없네
將以向上源 물길 찾아 오르고 싶으나
夜爲招堤宿 밤 되니 절에서 쉬어야 겠지(『2012설악산』)

<한계폭(寒溪瀑)> - 정범조(丁範祖, 1723-1801)

靑壁千尋勢 푸른 절벽 천 길의 형세
飛流一道懸 하나의 물줄기 날듯이 매달려 흐른다
風飄稀到地 바람이 세차 땅에 떨어지는 게 드물고
空曠盡爲烟 허공에서 햇빛 받아 모두 연기 되었다
蜿蜿來何歇 구불구불 흘러와 어느 때나 다할까
迢迢望可憐 멀리까지 바라보자니 가련하다네
山僧善觀瀑 산속 스님들 폭포에 대한 안목 높은데

言勝九龍淵 금강산 구룡폭포보다 낫다고 말하네(『2012설악산』)

<한계폭포(寒溪瀑布)> - 조인영(趙寅永, 1782-1850)

瀑布如飛飛若浮 날아가는 듯한 폭포, 공중에 떠 있는 듯
層峰老木半天幽 층층 봉우리 나무 우거져 하늘은 킁킁하다네
淋瀝氣勢聞全夏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의 기세 여름 내내 들리고
蕭灑精神見杪秋 상쾌해진 정신으로 초가을 본다네
萬道霞生蒼石脚 노을 지는 길, 돌 끝에 푸른 이끼
一時虹起白雲頭 갑자기 무지개 흰 구름 끝에 생겨났다
嶺西閱盡名山水 영서지방 유명한 산수 다 보고자 하여
獨有寒溪不負遊 마지막 남은 한계에 유람 왔다네(『2012설악산』)

<한계폭포 증옥상인(寒溪瀑布 贈玉上人)> - 이명환(李明漢, 1595-1645)

한계폭포 옥상인에게 주다

宿雨收昏翳 어두침침했던 장맛비 그쳐
新曦輾碧空 파란 하늘에 새롭게 해 떠올랐다
瀑流肥舊白 폭포는 옛날보다 더 흰 빛으로 쏟아지고
楓葉媚初紅 단풍잎은 처음 붉은 빛 띠어 아양 떠다
客似仍皆羽 나그네 모두 신선인 듯 하고
山疑到是蓮 산은 봉래산인가 의심스럽다
一年淹使節 일 년간 공무에 얽매어 있다가
強半宿琳宮 억지로 숲속 절간에서 잠든다(『2012설악산』)

<향한계(向寒溪)> - 김창협(金昌協, 1651-1708)

한계를 향하여

問瀑寒溪去 한계폭포 물어가는 길
渾疑鴈蕩過 안탕산 지나는 길 너무 흡사해
淸江棧底急 잔도 아래 맑은 강 물살 급하고
疊巘馬前多 말 앞에 첩첩 산 많기도 하다

幾里行松樹 솔숲을 몇 리나 걸어왔을까
 諸天指薛蘿 덩굴 사이 비로소 하늘 나타나
 數峯來雪色 두세 산봉 하얀빛 눈이 부시니
 奇興欲如何 그 얼마나 높은 흥취 일어나는지(『2012설악산』)

<향한계산중(向寒溪山中)> - 홍태유(洪泰猷, 16712-1715)

한계산을 향해 가는 도중에

亂葉空山路 텅빈 산길엔 어지러이 낙엽만 날려
 相看人似狂 서로 쳐다보니 미친 사람 같다
 疲來衣欲重 피곤함 밀려와 옷도 무겁게 느껴지고
 危處語還忘 위험한 곳이라 말도 안 나온다
 林密窺天小 숲이 뻑뻑하니 하늘도 자그맣게 보이고
 泉高到嶺長 샘물이 높아 고개 오르는 길 멀다
 寒溪大名在 한계라는 명승지가 있으니
 力盡一筇忙 힘을 다해 지팡이질 바빠 한다(『2012설악산』)

<한삼연담설악산수형승 개이치옥기심처운(閑三淵談雪嶽山水形勝 盖已置屋其深處云) - 홍세태(洪世泰, 1653-1725)

삼연이 설악산 산수의 명승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미 설악산 깊은 곳에 거처를 잡았다고 한다.

寒溪瀑比朴淵雄 한계폭포 박연폭포의 웅장함과 비견되니
 落勢銀河掛半空 마치 은하수에서 떨어지듯 하늘에 걸려 있다네
 萬壑四時吹亂雪 골짜기에는 사계절 내내 어지러이 눈 날리고
 蒼崖白日鬪雙虹 푸른 절벽엔 한 낮에 쌍 무지개 뜬다지
 寺懸雲霧皆生下 절에 매달린 구름과 안개 모두 아래에서 생겨나고
 峰缺滄溟忽在東 봉우리 푸른 바다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동쪽에 나타난다네
 此地誅茅君已得 이곳에 띠풀 집 그대 이미 얻었으니
 桃源一入有誰通 무릉도원 한 번 들어가면 통할 사람 누구일까(『2012설악산』)

<현곡사(玄谷寺)> - 이명한(李明漢)

玄谷何年寺 현곡사는 언제 절인가
無僧逕轉幽 좁은 길로 돌아가는 스님은 없네
今朝經使節 오늘 아침은 사절로 왔지만
他日記仙游 내일부터 신선처럼 노닐며 기록하리
東海三山近 동해는 삼산에 가깝고
西風萬木秋 서풍에 나무들은 가을이 뚜렷하네
半酣書滿壁 벽마다 가득한 책 반쯤은 접어두고
橫笛下高樓 누에서 내려와 피리를 부네(『설악산 백담사』)

4. 내설악 관련 기문

<한계산기(寒溪山記)> - 왕유정(王維楨, 1507~1555)

한계산은 강원도 인제현에서 동쪽으로 50리에 있다. 산 위에 성이 있고 냇물이 있는데, 성 안에서부터 흘러 나와 폭포를 이루어 내려온다. 폭포는 수백 척인데 올라다보면 마치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운 듯하다. 원통역부터 동쪽으로 좌우가 모두 큰 산이고, 골짜기가 깊고 깊으며 시냇물은 종횡으로 흘러 건너야 되는 것이 36개이다. 수목은 대자리 같아 위로 뻗은 것이 구름과 하늘을 찌르고, 옆에는 걸가지도 없다. 송백은 더욱 높아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남쪽 봉우리는 절벽을 이루었으니 높이가 천 길이나 되어 기괴한 것이 형용할 수가 없으며, 새들도 날아 건너갈 수가 없다. 그 아래로는 맑은 샘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못을 이루었고, 너럭바위는 평평하고 넓어 앉을 수가 있다. 또 동쪽으로 몇 리를 가면 골짜기 입구는 매우 좁고 가는 길이 벼랑을 따라 나있는데, 골짜기 안은 험하다.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는 가파르게 솟아 있어 마치 용처럼 낚아채고 범처럼 활쫓는 듯하고 층층이 대를 이룬 듯한 것이 무수하니, 그 형승은 영서에서 으뜸이다.(『2012설악산』)

<김시습과 설악산,仙境(仙境)에 깃들다> - 이학주

<저물 무렵(晚意)>

천 봉우리 만 골짜기 그 너머로
한 조각 구름 밑 새가 돌아오누나
올해는 이 절에서 지낸다지만
다음 해는 어느 산 향해 떠나갈까나

바람 자니 솔 그림자 창에 어리고
향 스러져 스님의 방 하도 고요해
진작에 이 세상 다 끊어버리니
내 발자취 물과 구름사이 남아있으리

(萬壑千峰外 孤雲獨鳥還 此年居是寺 來歲向何山 風息松窓靜 香銷禪堂閑
此生吾已斷 棲迹水雲間)

설악산 백담사 경내에 있는 김시습시비의 내용이다. 아름다운 설악산 언저리에서 새들이 보금자리 찾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감회를 읊었다. 정처 없이 떠다니는 김시습의 부평초 인생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방황에도 그의 인생관이 뚜렷하여, 이미 이 세상의 인연을 초월하여 신선이 되어 선경(仙境)에 들거나 부처가 되어 극락(極樂)으로 들어간 김시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설악산에 몸을 담으면 누구나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없이 신산(神山) 설악산을 찾는 지도 모르겠다.

오세 신동하면 우리는 바로 김시습을 떠올린다. 난지 8개월에 글을 알고, 2살에 시를 음미하고, 3살에 한시를 지어 사람을 놀라게 한 인물이다.

“비도 오지 않는데 천둥소리는 어디서 나는가(無雨雷聲何處動)/ 누런 구름이 조각조각 사방으로 흩어지네(黃雲片片四方分)”

3살 때 그의 유모가 멧돌로 밀을 가는 것을 보고 지은 시이다. 그의 천재적인 명성은 5살에 궁궐에까지 가서 시를 지어 세종대왕도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의 학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 장차 크게 쓰리라”하며 비단상금을 주어 돌려보냈다.

훗날 그가 죽은 지 18년 후 임금 중종이 명을 내려 시문집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율곡에게 <김시습전>을 짓도록 했는데, 김시습의 문사(文辭)를 일컬어 이율곡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 문사(文辭)는 물이 용솟음치듯, 바람이 일듯, 산이 감추어진 듯, 바다가 잠긴 듯, 신(神)이 부르고 귀신이 화답하는 듯, 사이사이에 드러나고 꾸역꾸역 솟아나와 사람으로 하여금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 보통사람의 생각보다 멀리 뛰어나니 글귀만 꾸며대는 자들

이 발돋움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김시습전>)

최고의 찬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사람 모두가 꿈꾸는 글쓰기의 영역이다. 글 속에서 온갖 자연의 조화가 담기고, 또한 그 조화를 맘껏 부리는 그야말로 여의주를 얻어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다.

그러나 김시습의 천재성을 악마는 가만 두지 않았다. 그 때문에 김시습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드디어 21세 때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승려가 되어 세속을 등졌다. 그로부터 전국의 명산을 찾아 다리품을 팔며 무수한 작품을 토해 내었다.

그가 입적한 곳은 부여의 무량사이다. 그러나 죽기 전 그를 도의 경지에 들게 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 준 것은 바로 설악산이었다.

그가 설악산 오세암에서 머물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다. 서울의 부잣집 자녀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학문을 사사받겠다고 찾아왔다. 그러자 김시습은 그들을 나무나 돌로 치려하였고, 혹은 활을 당겨 쏘려 하여 그 성의를 시험했던 까닭에 그의 문하에 있는 자가 드물었다. 그리고 글을 가르치기 보다는 산전(山田)에서 김매고 곡식을 거두도록 일을 시켜 매우 괴롭게 하여 학업을 전해 받은 자가 드물다고 하였다. 김시습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 신산 설악산에 세속의 때를 입히고 쉽지 않았을 게다. 이율곡이 김시습의 글을 칭찬한 것처럼 설악산의 맑고 빼어난 봉우리의 기상을 담은 그의 글이었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경지이다. 서울에 사는 부잣집 아이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였다. 그렇기에 김시습은 아예 그의 문하에 사람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김시습이 설악산에서 오래도록 머문 것은 산을 좋아했기도 하지만, 양양의 수령 유자한(柳自漢)이 그를 예로써 대접하였기 때문이다. 김시습이 설악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유자한과 오랫동안 교류를 했다. 그때 유자한이 김시습에게 서신을 보냈다.

“재주가 아깝습니다. 가업(家業)을 회복하고 세상에 행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김시습은 유자한의 서신에 답했다.

“장차 긴 꼬챙이를 만들어 그것으로 복령(茯苓)과 삼주를 캐고, 일만 나무에 서리가 영키면 성긴 옷을 걸치고, 온 산에 눈이 쌓이면 신선의 옷을 입으리라. 보잘 것 없이 세상에서 살기 보다는 차라리 소요하며 일생

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천 년 후 나의 본 뜻을 알아주겠지요.”

마치 설악산 신선이 되어 노니는 김시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처럼 청빈하게 살고, 신선 같은 풍채를 지닌 동진(東晉) 때의 사람 왕공(王恭)처럼 신선 같이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어느 삶이 낫고, 참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시습은 세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설악산에서 신선처럼 사는 모습을 선택한 것이다.

김시습은 설악산에 살면서 참 많은 시문을 썼다. 붓을 들고 설악산을 다니며 나무에다 글을 쓰고, 돌에도 글을 썼다. 그리고는 혼자서 오랫동안 읊조리다가 갑자기 목 놓아 울고는 지워버렸다. 종이에 글을 써도 대부분 태워 버렸고, 물에 흘려 보냈다. 선경의 비밀을 어찌 세속 인간에게 전한단 말인가? 물에 흘려 보낸 시들은 그의 제자들이 물가 기슭에서 주워 기록하였다고 『임영지(臨瀛誌)』에 전하고 있다. 지금 전하는 시문집은 그렇게 모아진 것이다. 그 때문에 김시습이 쓴 글 중 열의 예닐곱은 잃었다고 한다.

김시습은 이미 『금오신화』에서 별세계를 말하고 있다. <취유부벽정기>처럼 신선의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용궁부연록>처럼 용궁의 세계도 말했다. 소설 속의 세계는 그가 꿈 꾸 별세계의 유토피아였다. 불합리와 비리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바로 설악산이 그런 선경이라는 것은 그의 시 <기산명(紀山名)>에서 “설악산은 옥잠화(玉簪花)가 핀 곳 이네”라고 한 구절에서 읽을 수 있다.

김시습의 설악산 사랑은 그의 시문과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 대단했다. 그 가운데 <불여귀(不如歸)>를 보면 그가 설악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불여귀(不如歸)>

不如歸去好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何處可安歸 어느 곳으로 편안히 돌아갈 수 있으랴
宦路風濤惡 벼슬길엔 바람 따라 파도 모질게 일고
候門知識稀 공후 집에는 아는 사람 드물다
爲人長戚戚 남 위해 언제나 근심하지만
弔影正依依 그림자 조문하느라 정녕 안타까워하누나
莫若甘吾分 차라리 내 분수 달게 여겨

林泉不履機 숲속에 살면서 속심이나 찢어야겠지(『매월당집』)

사람들이 그의 재주를 아까워서 세속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세속은 모진 파도가 이는 공허한 곳이었다. 그 사람들은 김시습을 위해 걱정하지만 실상은 김시습의 겉모습인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시습이 살고 있는 선경, 김시습이 꿈꾸고 있는 별세계의 진실을 세속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이미 김시습은 그런 선경 설악산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해 무엇 하리.

그러나 김시습은 언제나 그런 설악산처럼 맑고 고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다. 어찌면 영원한 동경이며, 그런 자신의 마음이 행여 게으름까 봐 자신을 채찍질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이란 잠시 눈을 팔면 세속으로 가는 것이거든.

<한계(寒溪)>

嗚咽寒溪水 아아, 목메어 우는 듯 한계의 물은
空山日夜流 빈 산에서 밤낮으로 흘러가는데
不能隨俊父 그 뛰어난 재주를 따를 수 없어서
且可任優休 잠깐만이라도 여유롭게 쉬어 가면서
地僻雲牙淨 깊은 골에서 마시는 차 맛에 정신이 맑다오
潭清石髮柔 한계의 웅덩이는 맑아 이끼도 거의 없고
夢魂歸未得 꿈에라도 돌아가지 못하느니
飄轉實堪愁 바람 따라 떠도는 시름뿐이구려(『매월당집』)

설악산 한계천에서 노니는 김시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계천 물의 매력에 푹 빠져 그 물로 차를 끓여 마시면서 물을 닦고자 했다.(이학주, 『설악산 스토리텔링』)

<곡연기(曲淵記)> - 김수증(金壽增, 1624~1701)

한계와 설악의 사이에는 이른바 곡연(曲淵)이라는 곳이 있다. 그 지역은 무려 수십 리에 달하며 바로 고개의 동서에 웅거하였다. 사면이 험하게 막혀있어 사람의 자취가 통하지 못한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세가 평

평하고 넓어서 농사를 지으며 살만하다. 울창한 숲은 해를 가리고 토지는 기름지다. 산골짜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수석의 승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나다.

간혹 산삼을 캐는 사람이 오간다. 옛 집터가 한 자리 있는데, 부유한 백성이 예전에 살던 곳이라고 전한다. 혹은 동봉(東峯, 김시습)이 유람하며 살던 곳이라고도 한다. 야사에서는 동봉은 한계와 설악의 사이에서 대부분 살았다고 했으니, 이곳이 그곳이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피할 만한 매우 험한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가지를 못했다. 이곳에 들어가 살려고 계획한 간성의 유민이 한 사람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산을 돌며 곡연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 곳을 엿보았다. 인제의 한계사로부터 들어가면 벼랑을 더위잡고 올라가느라 배와 등은 닳고, 아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양양의 신흥사로부터 들어가면 40리만 가지만 또한 매우 험하게 막혔다. 그러나 나무를 베어서 구렁에 가로질러 놓으면 통행할 수 있다.

곡식이나 물고기나 소금도 바닷가에서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장차 들어가려고 했지만 혼자 가기 어려워 결국 가지 못했다. 만약 송아지를 품에 안지 않는다면, 소나 말이 들어갈 수 없다. 또한 큰 나무의 마른 등걸들이 산골짜기에 뒤섞여 어지러워 가지를 쳐 없애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산에 불을 놓아 조를 파종하면 소로 밭을 갈지 않아도 수확은 두 배 다섯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논을 만들 만한 곳이 있다. 초목은 가을이 되어도 서리와 눈은 다른 곳보다 조금 늦게 내리며, 물은 맑고 물고기가 많다. 열목어[餘項魚]가 가득하여 힘들이지 않고도 잡을 수 있다.

곡운의 산수사에는 한계사에 살았던 중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게 들었다. 또 인제와 양양 사이를 오가는 선비가 한 사람 있어 그곳의 형세를 자세히 탐색했다는데, 그의 말이 모두 앞에 한 말과 같으며, 유민 몇 집이 들어가 산다고 한다.(『곡운집』권3. 『지역원형과 명승』)

<유한계록(遊寒溪錄)> - 문익성(文益成, 1526~1584)

을해년(1575) 내가 양양 군수로 있을 때, 최도경과 배경부 및 두 아들

여(勵)·할(劫)과 함께 한계를 유람하기로 했다. 현산성(峴山城)으로부터 향현(香峴)을 넘어 한령(寒嶺)에서 말을 쉬었다. 동쪽으로 푸른 바다가 임해 있어 구름 낀 물결이 까마득하였다. 서쪽으로 설악산을 바라보니 돌부리가 높이 솟아 있는데, 더구나 장맛비가 그쳐 새로 날이 개어 얽은 구름이 사방에서 견혀 한계에 이르기 전에 맑은 흥취가 먼저 날아오른다.

고개를 내려와서 5리쯤에 그윽하고 조용한 골짜기가 있는데 이름이 백암(白巖, 양양 백암리)이다. 몇 개의 서까래를 얹혀놓은 띠집이 온 골짜기의 자연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진실로 그림 속 외진 마을이다. 서쪽으로 2리쯤 가서 시내 하나를 건넜다. 서성이며 사방을 돌아보니 끊어진 산기슭이 하나 있는데, 암벽이 천 길로 솟아 있다. 두 시내가 끼고 흐르며 거센 폭포가 옥같은 물방울을 뿜어낸다. 아래에는 돌로 된 못이 있는데 깊고도 맑으며, 위에는 푸른 소나무가 있어 교대로 푸름을 발산하니 참으로 명승지이다.

드디어 석축대로 옮겨가서 그 위에 열을 지어 앉았다. 이곳이 팔선구역의 제 일장이다. 도경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니 ‘쌍폭대(雙瀑臺)’라 했다. 경부로 하여금 늙은 잣나무 줄기에 글씨를 쓰게 하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여 송강의 송사리를 얻어 회를 찼다. 추로주 몇 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청담으로 만나절을 보내니 속세에 대한 생각이 점점 작아짐을 문득 깨달았다.

시내를 거슬러 오르며 십리 쯤 가니 옛 역터 자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맑은 물과 흰 바위가 있어 갈수록 더욱 기이하였다. 또 서쪽으로 5리 남짓 가니 본사가 있었다. 양쪽으로 벼랑인데 좌우로 깎아지른 듯이 가로질러 있는 석벽이 몇 겹이나 되었다. 말을 재촉해서 절에 도착했다. 사면에 돌 봉우리가 은빛 족자처럼 깎아지른 듯 서 있고, 한 줄기 맑은 시내가 벽옥같이 흐른다. 뜰 가운데 매우 오래 된 오층석탑이 있어 각자 오언 절구를 읊어 그 면에 쓰게 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지팡이 짚고 시내를 따라 서쪽으로 갔다. 수십 보쯤 가니 천석이 더욱 절묘하여 각자 돌을 차지하고 자유롭게 앉았다. 혹은 시를 읊고 혹은 고기를 낚고 혹은 술을 들어 서로 따라주었다.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층층이 이어진 산과 겹겹이 포개진 봉우리, 연하에 감싸인 소나무와 계수나무가 어우러져서 어렴풋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석문을 돌아 나왔다. 돌아서 북쪽으로 칠팔 리 쯤 가서 형제령(兄弟嶺)을 넘었다. 말을 세우고 남쪽을 바라보니 어제 저녁 북쪽으로 보이던 여러 봉우리들이 모두 눈 아래 있었다.

구불구불 비스듬히 서쪽으로 삼사 리 쯤 가서 소동령(所冬嶺, 한계령)에서 말을 쉬게 했다. 고개를 내려와 한계로 들어가 골짜기를 오르니 천그루의 소나무, 전나무가 울창하여 계곡에 가득했다. 혹은 바위 벼랑에 홀로 우뚝 서 있는데, 저절로 말라 부러져 동량(棟樑)의 재목됨을 헛되이 저버렸도다. 장식(『장자』에 나오는 뛰어난 목수)의 거뒀음을 만나지 못했으니 감흥이 없을 수 있겠는가? 점점 내려가 이삼 리쯤에 골짜기가 그윽하고도 깊어 나무들이 무성히 우거져 뺨뺨한 잎들이 햇빛이 드는 것도 막으니 맑은 그늘이 매우 좋았다.

한 줄기 긴 시내가 만 번이나 꺾여 구불구불 흐른다. 말이 가는 대로 맡겨두어 천천히 가니 몇 번이나 물길을 건넜는지 모르겠다. 이십 리 남짓 가서 시내를 하나 건너니 대여섯 명이 앉을 만한 평탄한 바위가 있다. 푸른 소나무 그늘이 그 위로 드리웠고 흰 돌이 아래에 펼쳐져 있다. 맑은 물이 여울져 흐르니 갓끈을 씻을 만하다. 시냇물은 설악의 상봉에서 시작되어 서남쪽으로 흘러 여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육십 리에 달한다.

여기로부터 한계사의 옛 터에 이르기까지 천암만학(千巖萬壑)이 온통 돌이다. 혹은 크고 넓어 웅장하게 솟아 있고 혹은 치아처럼 깎아지른 듯서 있어 기이하고 괴이한 형상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드디어 말에서 내려 청려장(靑藜杖)을 짚고, 푸른 넝쿨을 부여잡고 바위틈으로 난 한 줄기 길을 따라 물고기 꿩미처럼 한 줄로 나아갔다. 열 걸음에 아홉 번을 쉬면서 비로소 환희대(歡喜臺) 꼭대기에 이르렀다. 좋은 땅은 험한 곳에 있음을 바야흐로 알겠다. 신선의 풍채나 도인의 골격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곳에 이를 수 있으리오?

대승암(大乘庵)으로 돌아와서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 폭포는 암자에서 오륙 리 떨어져 있는데, 돌길은 딱딱하고 메말라 발을 제대로 댈 수도 없었다. 폭포의 남쪽 산에 도착하고 나서 바라보니, 푸른 벼랑 검은 절벽이 몇 만 길인지 알지 못하겠다. 한 줄기 맑은 물줄기가 그 사이에서 곧바로 떨어지는데, 혹은 돌에 부딪혀 흩어져 물방울이 진주구슬처럼 뒤섞이고 혹은 바람을 따라 떨어졌다가 옥같이 하얀 실처럼 날아오른다. 다만 물이

적어 웅장한 경관을 만들지는 못했다. 하인에게 푸른 가지를 꺾어 오게 하여 물길을 가로 막았다가 잠시 후에 터트리게 하니 물길이 빠르고도 웅장하였다.

천둥과 바람이 서로 부딪히고 대낮의 푸른 하늘에 벼락이 치듯 소리가 온 골짜기에 진동하고 기세가 여러 산을 흔들며 머리털이 다 곤두서고 마음속도 모두 시원해졌다. 아래 연못을 굽어보니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당장이라도 손으로 떠서 장난치고 싶었지만 매우 험준한 절벽에 달려 있어 다가갈 틈이 없었다. 이곳이 또 신룡의 굴집이로다. 그늘 진 벼랑을 따라가 앉아서 종일토록 노닐며 쉬었다. 가슴속에 막힌 것들을 십분 풀어냈다. 앉아있던 대를 ‘완폭(玩瀑)’이라 이름 짓고, 산사람에게 노송나무 줄기에 크고 가지런하게 쓰게 했다.

사방으로 천봉이 옥처럼 둘러서 조아리는 듯하다. 대의 북쪽에는 청룡봉(靑龍峰)과 백운봉(白雲峰)이 있고, 대의 동쪽에는 부용봉(芙蓉峰)과 경일봉(擎日峰)이 있고, 대의 남쪽에는 법옥봉(法玉峰)·천옥봉(天玉峰)·천주봉(天柱峰)이 있다. 그밖에 희고 아름다운 등성이는 능히 다 셀 수 없다. 제령(弟嶺)을 넘어서 시냇가 돌 위에서 쉬었다. 바라보니 천 개의 바위가 빼어난 돌 다투고, 만 개의 골짜기가 다투어 흐르니, 신선이 숨어 사는 곳이라 일컬을 만하였다.

근원을 다하여 끝까지 찾아보고자 시내를 따라서 내려가니 아름답고 하얀 나무숲이 아지랑이 사이로 가려 보인다. 붉은 벼랑과 푸른 절벽이 구름 끝에 우뚝 솟아 있고 한 줄기 시내가 그 사이로 흐르는데 모두 흰 돌로 한 점의 티끌과 모래도 그 사이에 끼어 든 것이 없었다.

삼사 리를 가니 시냇물 가운데에 바위 하나가 널찍하고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자라 등에 바위가 있는 듯한데 ‘생학대(笙鶴臺)’라 명명하였다. 시냇가에 반석이 있는데 맑고 평평하여 오륙십 명이 죽히 앉을 만하였다. ‘반타석(盤陀石)’이라고 이름 지었다.

돌의 위아래에 모두 맑은 못이 있다. 돌 위에 열 지어 앉으니 표연히 먼 곳으로 훌쩍 날아갈 듯한 생각이 들었다. 아! 이같이 빼어난 명승지가 가시덤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몇 천 년이었는지 알지 못하며, 고개(곧 한계령)를 거쳐 동서로 가는 자 또한 몇 만 명이었던지 알지 못하겠다. 다만 일찍이 이 경치를 평한 자가 하나도 ○ 너 땀어 우리들이 처음으로 드러내니 이것이 운명이 아니겠는가? (『옥동집』권하. 『지역원형과 명승』)

<한계산기(寒溪山記)> - 김수증(金壽增, 1624~1701)

▷ 신미년(1691) 5월 초6일(신묘)

맑음. 아침을 먹은 뒤에 조카 창흡과 함께 곡운정사에서 출발하여 30리를 갔다. 오리촌(梧里村)에 도착하여 점심을 해먹고 북쪽으로 큰 내를 건넜는데, 이 내는 곡운의 하류이다. 가현(加峴)을 넘자 길이 매우 가파르고 위험했다. 원천역(原川驛)을 지나 낭천읍(狼川邑) 아래에 이르러 정대보(程大寶)의 집에 묵었다. 이 날은 60리를 갔다.

▷ 초7일(임진)

새벽에 가는 비가 뿌렸고 저녁에는 개었다. 동쪽으로 15리를 가서 대리진(大利津)을 건너고 관불현(觀佛峴)을 넘어서 강을 따라 올라가자 논밭들이 평평하고 넓었다. 강의 북쪽 인가가 그림처럼 둘러있다. 오시에 방천역(方川驛)에 이르러 역리(驛吏) 김영업(金英業)의 집에서 점심을 해먹었다. 강을 따라 벼랑길을 하나 지난 뒤에 동쪽으로 10여 리를 가서 서사에(西四涯)에 이르자 목도(木道)가 여기에서 끝났다. 여기가 두 강물이 모이는 곳이다. 왼쪽 강물은 황벽동(黃蘗洞)의 하류이고 오른쪽 강물은 만폭(금강산 만폭동)에서 발원하는 물이다.

드디어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을 따라 올라가다가 벼랑길을 하나 지난 뒤에 또 그 오른쪽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내가 하나 나왔다. 이 내가 양구현(楊口縣) 북쪽의 물이다. 냇가에는 나무 그늘이 있는데 나뭇가지가 무성해서 앉을 만했으므로 조금 쉬었다가 갔다. 또 벼랑길을 두 가닥을 지나서 함춘역(咸春驛)에 닿았다. 역리 이기선(李起善)의 집에 묵었다. 이 날은 80리를 이동하였다.

▷ 초8일(계사)

맑음.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고 7~8리를 갔다. 작은 재를 넘고 또 몇 리를 가자 부령동(富嶺洞) 입구에 들어섰다. 돌길은 돌이 많고 구부러지고 꺾이며 올라가서 모두 몇 구비인지 모르겠다. 큰 나무들과 깊은 숲은 길을 끼고 해를 가렸다. 고개 위에 닿아 설악을

멀리 바라보니 안개 속에서 가려졌다 나타났다 하여 꿩꿩어 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내려가서 동쪽으로 몇 리 못 가서 산골짜기가 하나 나왔다. 나무 그늘 아래를 구불구불 가서 산골짜기를 반 정도 지나가자 마을이 계곡 물 위쪽에 있었다. 앉을 만한 곳을 찾아서 말을 쉬게 하고 밥을 먹고 잠시 잤다가 갔다. 산은 꼬불꼬불 돌아가고 물길은 굽이굽이 휘어져서 한 구비 다 지나가면 다시 한 구비가 나타났다.

이런 길을 30리를 가서 교탄(交灘)을 건넜다. 교탄은 서화(瑞和)의 하류로서 맑고 넓어서 즐길 만했다. 여울은 깊고 빨리 흘러서 적은 비에도 나그네들은 다니지 못한다. 물가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서 남쪽을 바라보니 긴 다리가 냇물 위에 건너질러 있었으니, 이 다리가 인제현(麟蹄縣)으로 가는 길이다.

원통역(圓通驛)에 이르러 역졸(驛卒) 박승률(朴承律)의 집에서 조금 쉬었다가 5리를 가서 큰 내를 세 번 건넜다. 이곳이 남교역(藍橋驛)의 하류이다. 고원통(古圓通)을 지나 한계사(寒溪寺)에 들어갔다. 모래 길과 소나무 숲은 풍악(楓嶽, 금강산)의 장안동(長安洞) 입구와 비슷했다. 여러 번 시내를 건너자 북쪽으로 골짜기가 나왔다.

그 골짜기 길은 비스듬히 꺾이며 절(한계사)에 이르렀다. 절이 처한 곳은 빙 둘러 싸인 곳이라 다른 볼 만한 것은 없었으나 절 뒤쪽에 있는 봉우리는 그윽하고 높아서 멀리 바라볼 만하였다. 좌우의 승방은 새로 판옥(板屋)으로 지었으며, 법당은 한창 차례로 짓고 있었다. 승도(僧徒) 10여 명이 어지러이 허둥대며 일을 하느라 겨를이 없었으며, 또한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밤에 동쪽 승방에서 묵었다. 이 날은 80리를 갔다.

▷ 초9일(갑오)

맑음. 아침을 먹은 뒤에 남쪽으로 동문(洞門)을 나섰다. 시내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소개촌(小開村)을 지나서 소나무 숲 뺨뺨한 그늘 아래를 지나갔다. 북쪽으로 여러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진귀하고 빼어난 것을 눈여겨보았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특히 곧고 빼어나며 하얗고 선명하였다. 드디어 백련(白蓮)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또 마치 붉은 표지를 세워 놓은 것처럼 하늘로 높이 솟은 붉은 민둥산을 가리켜서 채하(彩霞)라 하였다.

동행하는 한계사의 중들은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라고 하였다. 4~5리를 가자 북쪽에 작은 내가 구불구불 흘러와서 5~6길 높이 폭포를 만들었다. 폭포 위에는 층으로 소가 있는데 형태가 절묘하였다.(옥녀탕을 말함) 벼랑을 따라 올라가서 소의 중심을 굽어 바라보니 모양은 가마솥과 같고 빛깔은 영긴 눈썹떡 같았다. 소의 서쪽 바위 위에 옥류천(玉流泉) 세 글자를 새겼다.

이곳을 지나서 가자 오른쪽에 바위가 네 개 있는데 난새가 빙빙 돌며 날고 봉황새가 날아오르는 것과 비슷했으며, 절벽은 만 길 높이에 기세가 층만하여 수백보가 이어졌다. 이곳은 아마도 중국 사람이 기록한 바 “남쪽 봉우리는 절벽이 되었다.”는 것이리라.

잠시 뒤에 한계사의 옛터를 지나자 북쪽 면의 여러 봉우리들이 우뚝 서서 뻣뻣하게 벌여 있어 늠름하여 두려워 할 만하였다. 남쪽에는 가리봉(加里峰)이 있는데 기발하게 높이 솟아 공중에 버티었다. 좌우를 돌아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놀라게 하고 넋을 요동치게 하였다.

10리를 가서 진목전(眞木田)에 이르렀다. 형세를 둘러보니 모인 봉우리 와 겹친 민둥산이 가로로 뒤쪽 면의 특수한 모양과 기이한 형태에 이어졌다. 높은 곳은 하얀 눈처럼 빛났고, 흙 언덕 세 가닥이 북쪽으로부터 구불구불 왔는데 거의 수백 보에서 천보 정도 되었다. 가운데 가닥은 우뚝 웅크리고 솟았으며, 좌우 두 흙 언덕은 형세가 마치 양쪽에서 부촉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앞산은 그리 높지 않아 푸른산에 초목이 무성하여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해와 달이 밝게 비추므로 그 가운데에 집을 지을 만하였다. 언덕 위아래의 토지는 기름져서 농사지을 곳이 매우 많았다.

살펴보기를 마치고 일어나서 수백 보를 가서 시냇가에 이르러 돌 위에서 점심을 먹었다. 지나가는 중을 만나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고 물었더니, “오색령(五色嶺)을 말미암아 양양(襄陽)에 이르는데, 대개 바다까지 가는 길의 거리는 80리입니다.”라고 하였다.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대승암(大乘庵)을 방문하고 싶었으나, 피로가 심하여 일어날 수가 없었다. 유숙(留宿)할 계책을 생각하니, 정금(丁金, 정금은 곧 조카 창흡의 농노(農奴)이다. 올봄에 소를 끌고 이곳에 와서 살고 있다.)의 집은 서까래만 했을 뿐 지붕이 없었다.

드디어 철노(鐵奴)로 하여금 나무껍질을 벗겨서 대충 위를 덮게 하고

아래는 풀을 깔게 하였다. 이곳에서 밤을 보내는데 별빛과 달빛이 들어와 비추고 바람과 이슬이 몸에 가득하니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 초 10일(을미)

맑음. 해가 봉우리에서 올라오니, 봉우리 빛깔이 밝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작은 시내를 따라 1리 남짓 올라가니 작은 언덕이 하나 나왔다. 지세가 높고 물이 모이는 곳이 그윽하여 또한 암자를 지어놓을 만했다. 아침을 먹고 한계사의 옛터로 내려갔다. 불전(佛殿)이 지난해에 화재가 나서 돌부처 3구는 깨진 기와와 잿더미 속에 타서 망가졌다. 다만 돌탑이 뜰에 서 있고 작약 몇 떨기가 어지러운 풀 사이에서 활짝 피어있을 뿐이었다.

마침 마을 사람을 만나 대승암으로 가는 길을 물었더니, 북쪽 가 두 봉우리의 돌틈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가고 5리를 올라가면 갈 수 있지만 지극히 험난하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배회하며 고개 들어 쳐다보니 구름 서린 암벽이 공중에 꽃혀서 사람으로 하여금 뜻이 꺾이게 하였다.

돌아서 동쪽 가의 작은 시내에 이르렀다. 이 시내는 폭포의 하류이나 오래 가물어서 거의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폭포에는 불만한 경치가 없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드디어 아래로 소개촌에 이르러 시냇가에서 팔을 베고 잠깐 잤다. 술을 걸고 점심을 해먹었다. 저녁에 원통의 박 씨 집에 내려와서 묵었다. 이 날은 40리를 갔다.

▷ 11일(병신)

비. 역리(驛吏) 김세민(金世民)이 와서 봤다. 그 사람은 자상하고 분명하여 한계산의 여러 승경을 매우 자세히 말할 수 있었다. 옥류천(玉流泉)·아차막동(阿次莫洞)·백운암동(白雲菴洞)은 모두 그가 산삼을 캐 때 직접 다닌 곳이다. 다음은 김세민이 말한 내용이다.

“옥류천은 물이 다한 곳에 옛 성터 유지가 있으나 내를 따라 난 길이 딱 끊어져서 곧장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 비스듬히 큰 내와 너럭바위를 따라서 북쪽으로 5리 남짓 들어가면 옥류천에 닿는다. 절벽이 3면을 둘러 있고 터진 한 곳에는 내를 건너질러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4~5길은 된다.”

다. 또 동문[石門]이 완전히 아직 그대로 존재한다. 성 안의 토지는 평탄하여 거처할 만하다. 그 북쪽 언덕을 넘으면 곧 지리곡(支離谷)이다. 거기서 다시 수십 리 내려가면 삼룡추(三龍湫)가 있는데 기이한 장관은 감상할 만하다.

아차막동은 진목전 동쪽 5리 남짓에 있는데, 시내를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면 5~6길 높이 되는 폭포가 여러 개 걸려 있다. 내를 따라 올라가면 상설악의 백운암(白雲菴)에 올라갈 수 있다. 진목전으로부터 아차막동 입구까지는 겨우 10리이다. 시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냇물과 돌이 맑고 그윽하며, 아름다운 나무들이 즐비하다. 5리를 가면 암자터가 나오는데 절벽을 등지고 동남쪽으로 얼굴을 향하였고, 여러 봉우리들은 빙 둘러 있었다. 마치 은을 무더기로 쌓거나 옥을 깎아 놓은 것 같다. 남쪽에는 상필여봉(上筆如峯)이 있고 서쪽에는 입모봉(笠帽峯)이 있으며, 북쪽에는 상설악이 10여 리 안에 있다. 그 북쪽 봉우리에 올라가면 동해를 볼 수 있다.

▷ 12일(정유)

맑음. 말이 지쳐 그대로 머물렀다.

▷ 13일(무술)

맑음. 아침을 먹고 여정을 돌렸다. 듣자니 교탄의 물이 불어서 건너기 어렵다고 해서 하류를 비스듬히 따라 내려가 다리를 건너갔다. 서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작은 고개 하나를 넘어서 부령 아래 촌가(村家)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고개 위에 이르러 설악을 돌아보니 산의 모양과 봉우리의 빛깔을 역력히 움켜질 만했다. 웅장하게 서린 남북의 형세는 한번 봐서 다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가니 잠깐 사이에 고개를 내려왔다. 올라가고 올라가며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 형세가 기이하였다. 함춘 이기선의 집에 도착하여 말을 쉬었다. 저녁에 방전(方田)에 도착하여 김영업(金英業)의 집에서 묵었다. 이 날은 100리를 갔다.(이하 화천으로 돌아 간 이야기임으로 생략함. 『지역원형과 명승』)

<백담사 지나 마등령 넘는 단풍터널> - 허단(許檀)

빨강 노랑등 밝힌 단풍터널

해발 1,327m 말(馬)등처럼 생겼다는 마등령(馬登嶺)의 단풍은 10월 5일께가 피크다.

올해(1992년)는 절기가 다소 늦다는 것이 설악산을 자주 찾는 산악인들의 설명이다.

설악산의 주봉, 대청봉이 멀리 보이고 동해가 한눈에 들며 내설악과 미시령까지 조망할 수 있는 마등령은 옛날 한계령이나 진부령 미시령이 없던 시절, 동해안에서 한양으로 갈 때 가장 빠른 지름길로 알려진 고갯길이다.

지금도 설악동 신흥사 와선대 비선대를 거쳐 가파른 길을 따라 오르지만 이 길이 열리기 전에는 신흥사에서 신선대 조금 못 미쳐서 산등성이를 타고 마등령을 넘어 오세암 원통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다고 양양군지 등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마등령 정상은 벌써 10월 들어서면 단풍을 즐기는 전국의 관광객이 몰려 외설악으로 넘어가고 내설악으로 넘어오느라 원색의 줄이 꼬리를 문다.

때맞춰 점심을 먹거나 샘물을 길어다 마신 후 등산객들은 그 붉고 샛노란 단풍숲 속으로 사라져 간다.

설악산을 자주 오르는 산악인에게 설악 제1의 등산로를 짚어 보라면 마등령코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코스에 비해 아직도 원시림의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다른 산에서 보기 어려운 반달곰이나 산양, 사향노루 등 희귀동물과 설악 조팝나무 눈썹백 금강초롱 등 많은 희귀식물군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대 자연보호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금강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없는 뽕죽바위의 절경, 공룡능선을 옆으로 감상하면서 오르내리는 산허리 코스와 설악산에서 제일 먼저 단풍이 불붙어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꽃 진원으로서도 마등령은 산악인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한다.

인제 북면 용대리에서 설악동으로 넘어가는 내설악 길목엔 유서깊은 사찰 백담사와 오세암이 있어 나그네는 이 산길에서 더러는 회색 장삼의 중

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백담사에서 출발, 오세암, 마등령으로 오르는 길은 계속 이어지는 단풍터널이며 그 오른쪽에 역시 백담계곡이 계속 새로운 장관을 펼쳐 놓는다.

유리알처럼 맑은 물이 어느 웅덩이에서는 정지한 명경 같기도 하고 어떤 바위 사이에서는 요란하게 흰 포말로 부서지고 또 어느 여울목에서는 잔물주름을 일으키며 아래로 흘러간다.

주위의 돌들은 햇바닥으로 밟고 싶도록 모두 깨끗하다.

노랗고 빨갱게 물든 단풍은 그 숲 사이로 쫓히는 햇빛을 받아 마치 투명한 노란 등이나 붉은 등을 매단 것처럼 터널 속을 밝히고 있다. 신비스런 발광체들 같다. 가을 색깔은 정말 아름답다.

춘천에서 진부령을 넘어 고성 쪽으로 가는 새벽 첫차는 6시 40분에 출발한다.

이 버스는 인제와 원통 정류장을 지나 백담사 입구에서도 정차한다.

용대리는 말하자면 영서에서 마등령을 넘어 동해안으로 빠지는 설악산 등산 코스의 기점(起點)이라고 할 수 있다.

백담사와 오세암을 지나

약 20분 걸어올라가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나선다. 입장권(1인 600원)을 사야한다.

백담사까지는 이곳에서 얼마 오르지 않은 곳에서부터 백담사 신도수송용 소형버스를 이용하거나 걷는다.

길따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나서는 이 계곡의 가을 풍광 또한 장관이다.

특히 흐르는 물이 깨끗하여 누구도 이 길에선 속세를 떠나 선경에 진입했음을 실감나게 한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이 창건한 고찰이며 불교 시인 만해 한용운이 한때 머물렀던 사찰로도 널리 알려진 백담사(百潭寺)는 최근에 이보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2년 남짓 이곳에 살던 흔적과 일화에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크다.

백담사측에서 이를 간파, 전 씨가 쓰던 바로 그 방에 전 씨 내외가 묵었다고는 붉은 고무함지며 들통과 세숫대야 그리고 의류 등을 걸어놓고

유리창살을 통해 이를 누구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있다. 사찰 정문 앞의 많은 공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돌기둥 난간의 긴 다리, 수심교(修心橋)나 전기(電氣)문제해결 등 전 씨가 이곳에 와 있기 이전에 비하여 백담사는 변모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나한정 법당 큰 불사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난 한 스님은 이 같은 변화와 전두환 씨를 연결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임을 애써 강조했다.

백담산장을 거쳐 수렴동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본격 오르막길에 접어들었나 하면 소청(小青) 중청(中靑)을 거쳐 설악의 주봉이며 정상인 대청(大靑)에 이르는 오른쪽 길과 오세암을 거쳐 마등령을 넘어 비선대로 빠지는 왼쪽 갈림길이 나선다.

오세암까지 2.9km, 소청봉까지 7.9km, 봉정암 6.5km, 백담사까지는 4.4km지점이라는 이정표가 서 있다.

단풍숲 터널을 2시간 이상 오르고 또 올랐다. 두 사람이 팔을 벌리고 둘러도 모자랄 굵은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고 솟아 있었다.

대지의 힘줄 같은 거미줄 나무뿌리가 땅밖으로 튀어나와 등산객의 발길에 매끄럽게 닳아 있기도 했다.

오세암은 가파른 세 고개 너머 있었다. 숲터널이 끝나면서 서서히 하늘이 밝아졌다.

오세암 절터는 연(蓮)꽃이 반쯤 피어난 형국이라 했다.

오세암 뒤편에는 관음봉 바위가 있고 그 오른쪽에 촛대바위 그리고 왼쪽에 나한봉이 있으며 전면 오른쪽에는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만경대(萬景臺) 봉우리가 솟아 있다. 왼쪽에 칠성봉이 솟은 데다 정면엔 멀리 사자봉이 보이며 산악이 병풍을 두른 듯 오세암을 싸안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이 절은 처음에는 관음암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선조 21년(1643)에 당시 명승 운정선사가 이를 중건했다.

고려시대 설정조사(雪頂祖師)란 분이 이 절에 있었다.

어느 해 겨울 식량이 떨어져 강릉 신도집으로 시주를 나갔다가 설정 스님은 엄청난 폭설로 다시 되돌아 올 수 없어 강릉에 머물다 이듬해 봄 눈 녹은 후 돌아오니 함께 있던 5세의 동자가 굶어죽지 않고 흰소복한 여인의 도움으로 부처께 공양까지 하고 있었다. 이것을 필시 부처의 은총이라

여겨 그 후 이 절 이름을 오세암이라 붙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절의 신도는 전국의 1,000만 신도가 다 해당된다고 주지승 김명오 씨는 밝힌다.

7년 전부터 새 법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건축자재는 모두 헐기로 운반했다는 것. 1회 헐기 사용료는 50만원. 모두 700회 이상 사용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상주스님은 34명.

무엇보다 전화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했다.

전기는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14년 마등령 지키는 이일성 씨

마등령 정상에는 통나무 기둥 몇 개에 비닐 천막을 덮은 작은 매점이 하나 있다. 음료수와 라면, 간단한 과자류, 필름 등을 팔고 있어 마등령을 넘는 길손의 쉼터가 되고 있다.

캔 음료 하나에 1,500원, 200원 짜리 초콜릿 1개 700원, 당귀차 한잔 1천원 썩이다.

평지에 비하면 3배 이상의 비싼 값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속초 설악동에서부터 짐꾼이 6시간 이상 걸려 지고 올라와 10만원(40kg)을 받는다니 이해할 만했다. 매점주인은 속초 설악동 장재터에 사는 이일성 (李一成, 54).

경북 영천이 고향이나 산이 좋아 전국을 주유하다가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다.

“마등령은 설악산에서도 비교적 원시림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이곳은 대체로 공룡능선을 타는, 산을 아는 산악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등산객은 매년 20~30% 증가 추세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1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이 마등령을 넘어가고 넘어옵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의 자연보호 의식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빈 깡통은 물론 담배꽂초 발견도 쉽지 않아요.”

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씨는 이곳의 자연보호 파수꾼이기도 하다.

마등령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동남쪽으로 톱날 같은 공룡능선이 나타나고 북서쪽엔 미시령과 저항은선 그리고 동으로는 비선대와 멀리 동해바다가 한 눈에 든다.

영동에서 이 마등령을 넘어 서울로 가야했던 옛날, 이 영마루에는 산적

들이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이일성 씨는 밝힌다. 실제 마등령 꼭대기에 행인의 땅을 보기 위한 그럴듯한 바위가 있고 이 주위 곰골로 불리는 곳에는 쿵쿵 솟는 샘물이 있으며 산채 두어 채썸 지을만한 숲속의 평지도 있었다.

실제 산적들이 땅을 보았다는 전설의 땅바위는 비선대 아래쪽에 있다.

오세암 비탈코스나 공룡능선을 타고 마등령 정상을 정복한 등산객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간단한 요기를 마친 후 다시 비선대를 거쳐 설악동으로 하산하는 등 분산된다. 마등령에서 비선대로 내리는 코스는 간혹 평탄한 곳도 있으나 대체로 잔돌을 밟고 내리는 돌길이다.

마등령 마루턱 밑과 비선대 쪽에는 경사 급한 돌계단이 보행을 괴롭힌다.

그러나 내설악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활짝 피어난 단풍은 현기증을 일으키게 한다. 내설악의 은은한 빛깔에 비하여 외설악의 단풍은 뜨겁고 작열하듯 열정적인 색채들이다.

설악동까지 내리 바라보이는 공룡능선의, 그 가을 햇살 비낀 장중한 멋을 어디에 비기랴.

이 주위에서 가장 절경을 이루는 천화대(天花臺)는 외설악에서 가장 험한 봉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다. 바위로 이루어진 하늘의 꽃밭이다. 겨울에 눈이 덮이면 이곳의 모습은 햇빛에 반사되어 때로는 붉은 빛 혹은 푸른빛을 띠어 더욱 신비스럽게 느껴진다고 산악인들은 말한다.

마등령에서 세 시간 가까이 하산하면 맑은 물이 반석위에 미끄러져 흐르며 꺾이고 다시 폭포를 이루는 비선대에 이른다.

가히 선경이다.

용대리서 출발한 나그네가 비선대까지 60여 리의 산길을 걷고 나면 실제 체감 거리는 100여 리 쯤 달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엄습하기도 한다. 설악산이 처음인 나그네에겐 엄청나게 험준한 산악로임을 새삼 실감한다.

그러나 이 산행길에 만나는 모든 산악인들은 누구라도 전혀 낯설지 않다.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하는 서로의 인사가 또 다른 산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한다.

멀리서 보면 운무속에 숨바꼭질하는 말안장형의 마등령(馬登嶺). 어떤 기록에는 길이 곳곳이 서 손으로 기어 올라가야 비로소 오를 수 있는 험

준한 영(嶺)이기 때문에 마등령의 명칭이 붙여졌다는 고사도 전한다. 이 길은 1664년 한국 산악회가 처음 개척했다.

마등령은 설악산에서 가장 먼저 가을을 맞아들이는 영마루 중 하나다.

설악동 계곡에 비하면 15~20일쯤은 더 빨리 장엄한 꽃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고갯길로 많은 산악인들은 마등령을 기억하고 손꼽는다.(『산간마을 사람들』)

<설악산 마장터, 화전민터> - 이학주

설악산 마장터에 가면 새로운 삶을 볼 수 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산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옛 모습 말이다. 어쩌면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을까? 말로만 듣던 산간가옥, 너무나 단출 했다. 아마도 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태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된 삶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이리라. 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의 일부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누구나 그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산은 사람을 품고, 사람은 산에 안겨 있었던 것이다. 결코 산과 인간이 둘이 될 수 없는, 하나로 산 현장이다. 이곳엔 두 가지 형태의 산간가옥이 있었다.

하나는 작은 부엌에 달랑 방 한 칸이 전부인 집이다. 마당도 하나 없이 작은 집터에 동그라니 그렇게 놓여 있었다. 이런 데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것이다. 가구는 꿈도 못 꿨을 것이다. 비바람만 막아주고, 짐승들로부터 방어만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때문에 가끔 옛 이야기에 보면 집에서 자고 있는데 호랑이가 방에 들어와서 사람을 물고 갔다는 사건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부엌에는 아궁이 하나에 숯 하나가 걸려 있었고, 찬장도 없이 몇 개의 주방용기가 있을 따름이었다. 부엌문만 닫으면 온통 캄캄하고 겨우 한 사람 정도 앉아서 불을 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방도 그랬다.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길이에 달랑 창문 하나만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엌을 통해야 했으니, 그 창문마저 없다면 어찌 답답해 살았을까? 창문살에는 몇 번이나 덧바른 창호지가 찢들어서 까맣게 절어 있었다. 그렇게 설악산 마장터의 산간가옥은 산의 일부가 되어 동그라니 놓여 있었다.

또 하나는 단칸 방 보다 조금 큰 집이었다. 가운데 부엌이 있고 양쪽으로 방이 나 있고, 본체에 붙여 지은 마굿간이 있었다. 아무래도 식구가



단칸 산간가옥



새 토막집의 모습

더 많은 집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누가 썼는지, 집 앞에는 꽤나 오래된 빨래가 걸려 있었다.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가 햇빛에 낡아 컬러색이 변했다. 나무토막을 베어서 엮갈려 포개지은 토막집이다. 나무토막 사이에는 진흙을 이개서 메웠다. 상당히 오래된 집이지만 아직도 멀쩡하였다. 지붕은 새를 베어서 이었다. 부엌을 열어보았더니, 양쪽으로 놓인 아궁이가 있고 그곳엔 가마솥 하나에 밥솥 하나가 걸려 있었다. 허름하지만 제법 주방그릇을 포개 올려놓은 찬장이 있는 것을 봐서 꽤나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산 집이었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이곳에는 새로운 산간가옥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 가옥 옆에만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다. 집으로 들어서자 그 노인은 싸리비를 맬 싸리를 단으로 묶고 있었다. 얼굴을 보니 설악산처럼 해맑은 모습이였다. 노인은 37년 전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정준기(72세) 씨였다. 필자에게 길 안내를 해주신 박관신(77세) 씨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박관신 씨는 “있는 줄 알았으면 소주라도 한 병 사들고 오는 건데 ...”라며 아쉬움을 말했다. 속초에 가족들이 있고, 정 노인 혼자서 이곳에 머문다고 했다. 얼음을 깨서 우물을 하고, 샘이 나오는 곳에 작은 토막으로 광을 만들어서 냉장고로 쓰고 있었다. 샘 옆에 나무토막으로 된 찬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 흐르는 물에 대충 그릇을 씻어 사용하는 것 같았다. 정 노인의 집 역시 옆에 있는 오래된 산간가옥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기에 조금 다르게 느껴질 따름이었다. 부엌문을 열자 사람의 손이 간 흔적만 다를 뿐이었다. 집의 크기도 살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원래 있던 가옥 중 하나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성냥을 써서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넣었다. 정 노인의 집은 설악산을 찾았다가 날이 저물어 오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피 장소로도 쓰인다고 한다.

여기 있는 집들이 언제 지어졌느냐고 필자가 물었다. 정 노인은 수복 후에 지은 집이라고 말했다. 정 노인이 이곳에 들어오기 한 참 전부터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산 것이다. 그리고 보니 정 노인은 이곳에 화전 정리를 한 직후에 들어온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산간가옥은 6.25한국전쟁이 끝난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찾아든 사람들이 남긴 집이다. 하지만, 집의 모양새 등으로 보면 아주 오래 전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짓고 살아온 그 방식대로 지은 집이리라. 설악산의 토막집은 잘 보전을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사 연구에 아주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여기 마장터에는 1975년 화전정리를 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바로 이곳이 동서를 잇는 교통로의 중간이었다. 게다가 넓은 화전터가 있어서 삶의 터전을 이루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화전을 일궈 농사를 지어 생산을 하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의 기점이 되기도 했다.



산간가옥의 부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 생계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제에서 고성으로 고성에서 인제로 드나들던 길목이었다. 말 등에, 소 등에 물건을 싣고, 사람은 등에 물건을 힘껏 지고 다니다가 모이는 곳이었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은 터전

을 잡고자 가족의 손을 잡고 넘기도 했으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장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끓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 때문에 이곳을 잘 아는 노인들은 물물교환을 했다고 말한다. 바로 동해안에서 지고 온 어염(魚鹽)과 인제에서 지고 온 잡곡을 바꾸어가기도 했단다. 그 증거로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에 있는 팽자나무거리의 역사를 들 수 있다. 팽자나무거리에서는 무곡보부상들의 검문소가 있었다 한다. 그곳에서는 동해바다에서 나는 저린 고기와 식염을 지고 인제로 가서 곡식과 바꾸어 오던 통과요로였다.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넘나들었으면 고을의 현에서 물건을 지고 가는 것을 검문할 정도였을까? 하기야 마장터 주막집에서 손님들 술을 대기 위해서 양조장을 운영했다고 하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처럼 마장터는 5,6만평의 넓은 평지로 된 산간

마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마장터로 가기 위해서는 대간령(大間嶺)과 소간령을 넘어야 한다. 고성 방면에서는 대간령을 넘고, 인제 방면에서는 소간령을 넘어야 마장터로 갈 수 있다. 설악산 북쪽의 신선봉(1,204m)과 마산(1,052m) 사이에 있는 령이라 하여 새이령이라 부르기도 하고,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에 있는 령이라 하여 또 새이령이라 부르기도 한단다. 사이령이라 한자로 사이 간(間)자를 써서 간령(間嶺)이라 불렀던 것이다. 대간령을 기점으로 작은 계곡의 물이 고여 흐르는데, 인제 방면으로는 북천을 이루고, 고성 방면으로는 문암천을 이룬다. 인제는 용대3리로 이어지고 고성은 문암리 쪽으로 이어진다. 진부령과 미시령의 국도가 뚫리기 전에는 동서 교통의 주요 통로였다.

인제에서 마장터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지금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조만간 출입이 허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그 길을 따라 가보았다. 멋진 설악산 소개를 위해서였다. 눈으로 봐야 현장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제 용대3리에서 미시령 옛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얗게 우뚝 솟은 창바위를 볼 수 있다. 창바위는 바위 가운데 창모양의 네모진 구멍이 뚫려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군사지도에도 나올 정도라니 상당히 중요한 바위일 게다. 창바위를 오른쪽으로 끼고 개울을 건너면 시원하게 뚫린 산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 산길을 줄곧 따라 가면 소간령을 지나서 마장터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 산길이 시원하게 뚫린 데는 이유가 있다. 약 20여 년 전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당근과 무를 마장터에 심어서 군용트럭으로 날라 팔았기 때문이다. 트럭이 마장터까지 다녔던 것이다. 설악산에 트럭이 다녔다고 하면 좀 의아하기도 하겠지만, 이곳 길은 평탄해서 길 폭만 넓히면 얼마든지 트럭이 다닐 수 있다. 농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 지금은 천연보호구역이면서 국립공원관리구역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길을 따라 가다가 보면 작은 계곡물에 버들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오밀조밀 모여 노니는 풍경을 구경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길옆으로 가득 우거진 수림이 눈을 압도한다. 하늘을 볼 수 없이 나무가 우거져 있어 수풀터널을 빠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길은 무엇보다도 아주 많은 계곡물을 건너야 한다. 하기가 길을 걷다가 잠시 신발을 벗고 물을 건너

는 재미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참을 단조롭게 걷다가 보면 소간령을 오르는 길을 만나게 된다. 소간령을 오르다 보면 길가에서 작은 돌무더기를 만나게 된다.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그 돌무더기 안에는 샘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 양은그릇을 바쳐놓아서 길손들이 목을 축일 수 있었다. 아주 달콤한 물맛이 일품이었다. 세상에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살만하지 않은가?

샘터에서 목을 축이고 힘을 내어 소간령 정상으로 올랐다. 소간령 정상에는 가운데 나무를 두고 빙 둘러 누군가 쌓아놓은 꽤나 큰 돌무더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돌무더기는 새이령을 지나던 길손들이 무탈과 소원을 바라면서 서낭신께 기원을 하던 흔적이었다. 돌을 집어 들고 가다가 서낭당 돌무더기에 올리면서 각자 소원을 빈 것이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큰 돌무더기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서낭당 돌무더기를 바라보다가 보면 왼쪽 큰 나무 밑에 새로운 당집이

소간령 서낭당 돌무더기와
산신당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토막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소반을 놓고 제물을 올려놓았다. 싱싱한 감귤이 있는 것을 봐서 이곳을 지나는 최근의 등산객이 올려놓고 기원을 한 것일 게다. 궁금해서 정 노인에게 소간령 당집에 대해서 물었다. 그 당집은 2014년 정 노인이 설악산 신령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 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새벽 동트기 전에 그곳에서 정성으로 제의를 지낸다. 제물이라야 소주 1병으로 제주를 삼고, 메(밥)를 한 그릇 올리는 것이 전부라 한다. 물론 비손 기원은 당연히 할 것이다. 정 노인의 수고로 설악산 마장터를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위로를 받는 것이다. 영마루를 넘으면서 산령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들 것이기도 하다. 정 노인이 등산객의 무사고와 안녕을 위해서 행한 배려라 봐야 할 것이다.

소간령을 지나면 마장터까지 다시 평평한 길이 이어진다. 우거진 숲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데, 그곳에서 사람 사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드디어 오막살이 한 두 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장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았던 흔적을 마장터의 가옥들에서 찾고, 그리고 설악산 사람들이 사는 모습, 수림이 우거진 설악산의 또 다른 모습을 모두들 만끽하기를 빌어본다.(이학주, 『설악산 스토리텔링』)

<찬 계곡 그대 살결 닿을 때면> - 이학주

설악산의 한계산성(寒溪山城)과 천제단(天祭壇)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 마의태자의 전설이 깃들여 있다. 그리고 한계산성은 『고려사』에 의하면 안흥민 장군이 1259년 고려 고종 46년에 조휘의 무리가 몽고병을 이끌고 고려의 관인이라고 속여 한계산성을 공격하였을 때 섬멸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한계산성과 가까운 치마바위는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왜군과 싸울 때 이곳까지 피난을 온 여자들이 치마로 돌을 날라 왜군을 무찌르게 했다고 전한다. 한계산성은 지금까지 누가 쌓았는지, 언제 쌓았는지 알지 못한다. 아울러 천제단도 언제 어떻게 누가 쌓아 기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곳에 적힌 명문으로 보면 대략 신선이 되어 간 옛 임금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 한계산성은 인제군 김부리와 갑둔리에 전하는 전설과 연계하여 김부왕의 행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당시의 상황으로 재구성해 보인다.

경순왕 9년(935년) 10월의 일이다. 천년사직 신라가 망하고 새 왕국 [고려]이 커지는 날이다. 그날 참 많은 사람이 울었다.

“폐하! 사직을 보전 하시옵소서.”

“아니 될 말이다. 어찌 저 무지한 백성들을 외면한단 말이냐?”

“폐하, 어찌 천 년 사직을 이렇게 허망하게 버리십니까?”

그날 어전회의는 그렇게 파행을 겪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너무나 황당하게 신라는 망하고 말았다.

경순왕 9년 10월이었다. 왕은 사방의 토지가 다 타인의 소유로 되어 나라는 약해지고 세력도 뺏칠 곳이 없어 외로웠다. 능히 스스로 안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여러 신하들과 회의하고 나라를 들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기를 꾀하였다. 여러 신하들은 혹은 가하다 하고 혹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왕자(마의태자)가 말했다.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하늘의 명이 있으니, 오직 마땅히 충신과 의사들과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야 말 것이니, 어찌 일천년 나라를 하루아침에 남에게 내 줄 수 있겠습니까?”

왕은 말했다.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아 형세는 기울어 이제 나라를 바로 할 수 없소. 강하지도 약하지도 못한 형편이오. 무죄한 백성들의 간과 뇌를 땅에 버리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이오.”

왕은 국서를 써서 시랑 김봉휴에게 주어 고려 태조에게 바치라 하였다. 그러자 왕자는 통곡하며 왕에게 떠남을 말하고 곧 개골산으로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삼베옷[마의]을 입고 풀을 뜯어 먹으며[초식] 일생을 마치었다.(『삼국사기』)

그날 이후 경순왕은 왕건의 딸 낙랑공주를 맞이하여 여러 자식을 두며 평생을 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한편, 마의태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버지가 버린 나라를 구하고자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왕자가 금강산에서 마의와 초식을 하다가 죽었다고 했으나 그것은 승자의 역사일 뿐이었다. 그의 행적은 곳곳에서 구국의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인제군 김부리와 갑둔리에 전하는 유적, 마을제사, 지명 유래 등이며, 또 하나가 설악산의 한계산성과 대승폭포와 관련한 것이다.

아버지 경순왕과 헤어진 태자는 힘을 키워서 신라를 되찾고자 한다. 충주의 미륵사지와 덕주사는 그의 누이 덕주공주와 같이 신라구국을 부처님께 기원한 것이며, 원주 귀래면 미륵산의 미륵불도 그의 기원의지가 담긴 곳이다. 태자가 깊고 오던 지팡이가 살아 있을 피웠다는 용문사 은행나무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 그는 흥천 노천리의 공작산에 이르러 잠시 터를 잡고 살다가 다시 더 깊은 산골인 인제로 향한다.

인제 김부리와 갑둔리는 천연의 요새였다. 그를 따르던 맹 장군은 이곳에 터를 잡자고 태자에게 권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2의 신라건국을 선



설악산 천제단

포하였다. 태자를 김부대왕(金富大王)이란 칭호로 부르게 했다. 새롭게 흥하는 대왕이란 뜻으로 부자 부(富)자를 썼다. 부국강병의 나라로 키우고자 한 원대한 뜻이었다. 맹 장군은 가까운 곳부터 다니면서 뜻있는 자를 찾아 군사를 모으고 군량미를 비축했다. 맹 장군의 생각대로 김부대왕을 축으로 해서 구국의 준비는

착실하게 이어졌다.

김부리에 궁궐을 짓고, 군사 훈련장을 마련하였다. 김부왕은 구국의 기치를 살리기 위해 가까운 곳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워 부처의 힘을 빌렸다. 갑둔리 김부탑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산골의 백성들은 김부왕의 뜻을 따라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김부왕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문명을 일깨우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 주었다.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김부왕과 맹 장군은 착실하게 구국의 길을 실현시켜 나갔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가끔 설악산을 오르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맹 장군은 설악산 한계령 부근에 새로운 요새를 발견했다. 만약을 위한 마지막 항쟁의 터였다. 또한 신라구국의 뜻을 하늘에 알리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 하늘에서 내려 온 신라 조상들에게 하늘과 가장 가까운 설악산 봉우리에서 천제를 지낼 터였다.

“폐하! 설악산 정상에서 천제를 지냄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지요. 맹 장군의 뜻에 따르겠소.”

김부왕과 맹 장군은 설악산을 올랐다. 마침 좋은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맹 장군 이곳이 어떻겠소. 신라의 세 선왕에게 이곳에서 천제를 올리면 좋을 듯합니다.”

“폐하 말씀대로 하지요. 그러시면 제단은 박·석·김의 세 선왕이 있으니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맹 장군은 신라의 후손인 일행에게 제단을 만들도록 일렀다. 김부왕과 맹 장군은 함께 올라 간 일행들과 천제단에서 준비한 제물을 진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라를 되살려 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천제를 지내고 멀리 남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서라벌에 있는 궁궐이 눈

오른쪽	가운데	왼쪽
<p style="text-align: center;">仙上帝 角山壇 風隱師 義仙雲將 金成鎭</p>	<p style="text-align: center;">金江山佛者上帝芙蓉仙王隱師 一坤武誠山榻 庚午十二月二十七日午時貞仙陽日星 金世震</p>	<p style="text-align: center;">時國大東壇昭金山 道君子誠山榻 昭申上帝石山壇南隱師 附仙天主申光澤 辛未八月十五日</p>

〈설악산 천제단의 명문〉

에 들어오는 듯했다. 김부왕은 눈물을 흘리며 구국의 의지를 다졌다. 흘림골, 그 이름이 범상치 않다.

천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던 김부왕 일행은 이곳에 산성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폐하, 이곳에 산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맹장군의 생각이 짐의 생각과 일치하는군요.”

그로부터 신라의 마지막 역사(役事)가 시작되었다. 깊은 산 중에 석성을 쌓아 여차하면 마지막 항전을 벌릴 곳이었다. 산성 토목은 익히 해왔던 터라 기술은 충분하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성은 완성되었다. 성에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절을 짓고, 김부왕이 머물 대궐도 근사하게 지었다. 그리고 샘을 파서 식수와 생활용수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맹 장군, 고생이 많았소.”

“모두 폐하의 덕이옵니다.”

성이 완성되고 김부리 일대에서 훈련하는 병사들도 어느 덧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병장기를 다루는 솜씨가 익숙해 있었다. 김부왕과 맹장군은 흐뭇하게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고려를 치고 신라를 부흥시킬 날만 남았다. 군량미도 지방의 토호들이 힘을 보태서 충분하게 창고에 채워져 있었다.

“맹 장군! 맹 장군! 어서 눈을 떠 보시오.”

김부왕은 느닷없이 쓰러져 누운 맹 장군을 깨웠다. 그러나 맹 장군은 눈을 뜨지 못했다.

“신이시여!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신라는 정녕 끝이란 말입니까?”

김부왕은 맹 장군의 시신을 흔들면서 통곡을 했다. 맹 장군은 그렇게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김부왕의 신라구국 꿈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맹 장군을 대신할 장군이 없었다. 병사들은 하나 둘 떠나갔고, 김부왕도 상심이 깊어 매일 한탄만 하다가 맹 장군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김부왕이 세상을 등지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구심점을 잃고 말았다. 사람들은 깊은 인제의 산골에 문명을 전해주고, 백성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던 김부왕을 잊을 수 없었다. 다시 돌아가신 김부왕을 구심점으로 살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매년 단오가 되면 김부왕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수리취떡과 미나리를 제물로 하여 대왕각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마을의 잔치를 열어 온 동네 사람이 함께 김부왕을 추모했다. 그네를 매어 타면서 김부왕의 호연지기를 이어받았다. 수리취떡을 나뭇가지에 숨겨 찾아 먹기를 하며 총각이 떡을 찾아 먹으면 벼슬을 하고 처녀가 떡을 찾아 먹으면 길쌈을 잘 한다고 하여 널리 김부왕의 뜻을 전했다.

지금 김부왕은 이미 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신라의 마지막 화랑으로써 남긴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가 인제까지 온 발자취이며, 인제에서 구국활동을 한 대의의 자취인 것이다. 그 자취가 지명, 대왕제사, 김부탑, 한계산성, 천제단 등이다. 한계산성과 천제단에 오르면 아직도 마의태자 김부왕의 숨결이 느껴진다.(이학주, 『설악산 스토리텔링』)

※내설악산을 방문하고 기록한 기문은 위에 기록한 것 외에도 상당히 많다. 참고로 위의 기록과 함께 그 중 몇 개를 아래에 목록으로 제시한다.

<조선조>

김금원(金錦園, 1817- ?)의 <호동서략기(湖東西洛記)>(1850)

김몽화(金夢華, 1723-1792)의 <유설악록(遊雪嶽錄)>(1787)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의 <곡연기(曲淵記)>(1679)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의 <한계산기(寒溪山記)>(1691)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의 <유곡연기(遊曲淵記)>(1698)
 김유(金樛, 1653-1719)의 <유풍악기(遊楓嶽記)>(1709)
 김창즙(金昌緝, 1662-1713)의 <동유기(東遊記)>(1712)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동정기(東征記)>(1696)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설악일기(雪嶽日記)>(1705)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동유소기(東遊小記)>(1710)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유봉정기(遊鳳頂記)>(1711)
 문익성(文益成, 1526-1584)의 <유한계록(遊寒溪錄)>(1575)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왕유정(王維楨, 1507-1555)의 <한계산기(寒溪山記)>(?)
 이만부(李滿敷, 1664-1732)의 <한계(寒溪)>·<설악(雪嶽)>(1730)
 이복원(李福源, 1719-1792)의 <설악왕환일기(雪嶽往還日記)>(1752)
 정범조(丁範祖, 1723-1801)의 <설악기(雪嶽記)>(1779)
 홍태유(洪泰猷, 1672-1715)의 <유설악기(遊雪嶽記)>(1709)

<현대>

홍종인- 설악산등반기, 1955. (『인제군사』, 1023쪽)
 김경봉- 설악산 기행, 1961.
 백경호- 산중일기, 1961.
 김영수- 설악산등반기, 1961.
 김지현- 설악산 등반기,
 이기원- 설악산 횡단도로 등반기, 1968.
 조필대- 설악산의 겨울, 1976.(『인제군사』,1028쪽.)
 송원희- 남성미를 실감(오세암), 1968. (『인제군사』, 1031쪽.)
 박순녀- 자지 못한 하룻밤(백담사), 1968. (『인제군사』, 1032쪽.)
 김영기- 설악만보. (『인제군사』, 1033쪽.)

5. 내설악의 설화

<고행곡과 임금행차>

고행곡(故行谷) 또는 고행계(故行溪)는 한계산성을 서남쪽에서 올라가는 골짜기인데 오늘날 ‘굉곡’ 또는 ‘굉계’라고 부른다. 이를 한자 의미로 풀이해 보면 “(임금이) 지나간 연고가 있는 골짜기”가 되며 또 다른 한자로 표기하면 고행(苦行: 힘든 여행)이었을 수도 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생기게 된 연유는 이렇다. 옛날에 어느 적군에게 쫓기는 임금이 이 골짜기를 지나 한계산성으로 들어가다가 긴 여행에 지치고 지친 몸을 잠시 앉아 쉬면서 “온 길도 험하거늘 산성에 오르기는 더욱 힘들구나.”라고 말하니, 신하가 아뢰기를 “마마,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 성은 보이지도 않고 험하여 적군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임금을 안심 시켰다.(『인제 조상의 얼』)

<대문을 돌로 막지 못해 죽은 김 씨네 장수>

옥녀탕, 그 골짜구니 들어가게 되면 성이 있어요. 성, 성 째게. 근데 거기 가게 되면 대문이 있어요. 말하자면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오일륙 형명인가, 박정희 때에 한계령을 뚫은 거 아니에요. 박정희 때 도로를 뚫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소로였었어요. 이승만 박사 별장있는 데까지 올라갈려구 해두,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옥녀탕 있는 데 조금 올라가다 보면 하늘벽이라는 찬야만해한 절벽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거기에 내복골 돌이 하나 큰 게 하나 있었는데. 말하자면 돌 성에다가, 옥녀탕에 있는 그 성에 집 같은 네모방(方)자 굴이 있었는데

데, 그 장수가 그걸 막으려고 그 돌을, 이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 돌을 운반하지 못했다는 얘가지. 거기까지. 하늘벽 밑에 그 돌을 우리도 봤으니까.

그리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아주 절벽 위에 큰 바위가 둥그스름한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말뚝바우. 장수가 말을 매놨던 데서 뚝을 싸가지구 그렇게 내려와 흘렀다, 해서 말뚝바우, 말뚝바우 그랬는데. 이 장수가 기력이 다했는지, 운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돌을 문을 만들려고 했던 돌을 운반해서 문을 잠그지 못했기 때문에 후면에서 치는 장수한테 쫓겨서 기린 어디가 죽었다는 거 같아. 성은 김 간데 이름은 모르겠고 들은 얘기야. 성터는 그대로 있어요.(『강원의 설화』)

<대승폭포>

옛날 대승이라고 부르는 총각이 북면 한계리에 살았다. 대승은 석이(石耳)를 따서 그것으로 생업을 삼았는데 하루는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에 동아줄을 매고 내려가서 석이를 따다. 잔뜩 석이를 따 놓은 참인데 절벽 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승아! 대승아!”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대승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침에 소스라쳐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간곳없고 동아줄에는 신작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고 있었다. 동아줄은 막 지네에 뜯겨 끊어지려는 참이었다. 대승은 동아줄을 급히 타고 오르느라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으나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의 위험을 가르쳐준 대승의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 친다하여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승폭포는 88m로 북면 한계3리에 있는 폭포로 내설악의 장수대 입구에서 2km 지점에 있는 한국 3대 폭포의 하나로 특히 최장으로 알려지고 있다.(『인제군사』, 『태백의 설화』)

<도둑바위>

옛날에 이곳에 산적이 숨어 있다가 한계령을 넘는 나그네나 상인들에게 돈과 물건을 빼앗았다고 한다. 도둑 무리 중 한두 명은 망대암산에서 망

을 보고 있다가 양양 쪽에서 나그네나 상인이 오는 것을 보고 바위굴에 있는 도둑에게 알려 지키고 있다가 물건이나 돈을 빼앗았다고 한다.(『인제 조상의 얼』)

<드림봉>

전설에 의하면 원래는 충청도에 있던 산이었는데 아득한 옛날에 금강산 산신령님이 전국에 유명한 산봉우리를 금강산으로 가져다 모았는데 충청도에서 이 돌덩이를 가져 가다가 볼품없고 작으므로 이곳에 버렸다. 그 후 한계사에서 당간지주 대신에 이 두 개의 돌산을 문기둥으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충청도에서 사는 산 주인이 한계사에 찾아와 산값을 내라고 떼를 쓰므로 갈식(절에서 식사 심부름 하는 아이)이 나가서 “정 그러시면 산을 떠가지고 가시오”라고 말하니, 노인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고 한다.(『인제 조상의 얼』)

<문필봉>

문필봉은 재내 동쪽(한계초교 뒷산)을 말하는데 이 산은 아홉 봉우리로 되어 있다. 예부터 구봉지하옥녀탄발형이 명당이라 했는데 그 건너편 언덕에 명당이라 하여 묘를 쓴 후 그 앞으로 미시령 가는 도로가 났단다. 그때 글과 글씨를 뛰어나게 잘 하는 7살 된 아이가 재내에 살고 있었는데 9살 때 도로가 나니 곧 죽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문필(文筆)의 신동인 어린아이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어 산을 문필봉이라 했단다.(『인제 조상의 얼』)

<미륵바위>

한계령에서 내려오면서 세 번째 골짜기 위에 보이는 우뚝 선 바위로 장군바위라고도 하며 이 바위를 숫미륵바위라고도 하는데 이와 꼭 같은 미륵이 전북 익산 황토2리에 있는 데 이를 암미륵이라 한단다.(『인제 조상의 얼』)

<백담사와 100인의 도적떼>

백담사의 전신인 영취사(靈鷲寺)의 한 스님은 다섯 살의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양의 임천(林泉)으로 장을 보러 나가게 되었는데, 어린 동자승을 남겨둘 수 없어 함께 데리고 갔다. 때는 바로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철이라 들판은 온통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마침 조밭 쪽으로 난 좁은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린 동자승은 누렇게 익은 조 이삭이 신기하여 어루만지자 공교롭게도 조 알갱이 서너 알이 손바닥에 떨어졌다. 더럭 겁도 나고, 버리자니 아깝기도 하여 재빨리 입속에 털어 넣었다. 이를 본 스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를 탐하여 먹어 치웠느냐? 더욱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느냐?”

하시며, 버럭 화를 내었다.

스님이 화를 내는 것을 좀체 본 일이 없는 어린 동자승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러는 동자승에게 스님은 또

“지금은 비록 몇 알갱이에 불과하나, 씨앗은 땅에 묻히면 몇 천 배 만 배로 소출이 늘어나는 만큼 너의 죄는 참으로 크느니라. 허니 너의 죄를 면하려면 주인집에 가서 소가 되어 10년 동안 일을 거들어야 할 것이야.”

하며 근엄하게 꾸짖었다.

그 뒤로 동자승은 바로 발주인인 황 부자 집을 찾아가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뒤부터 황 부자 덕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리 10년 풍년이 들어 황 부자는 재산이 몇 갑절로 늘었다. 그렇게 10년이 막 끝나가는 어느 날 밤 동자승의 꿈에 흰 옷을 입은 어른 한 분이 나타나

“모월 모일에 도적 떼 100여명이 주인집을 털러 올 것이니 주인에게 고해라. 그리고 아울러 버선과 수건을 각각 100개씩 준비하여 도적들이 당도하는 대로 나누어 주면서 융숭히 대접하도록 일러 주거라. 그러면 너의 죄가 면해지리라.”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어린 동자승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황 부자는 동자승의 말이 믿기지 않았으나, 그 동자승이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이 번성하고 만사형통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동자승의 말을

믿고 실행에 옮겼다. 동자승이 알려주던 날 저녁 무렵부터 신기하게도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주인은 미리 준비하였던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험한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안부를 물으며 미리 준비한 음식을 차려 융숭하게 대접을 하였다. 도적들은 주인의 이런 행동에 감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새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어린 동자승은 어느 새 15세의 성년으로 성장하여 영취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영취사는 불타버리고 반겨주는 것은 잿더미뿐이었다. 무슨 날 벼락이란 말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로 창건한 한계사(寒溪寺)도 불타고, 뒤로 새로 지었던 운흥사(雲興寺), 심원사(深源寺), 선귀사(旋龜寺)도 모두가 불에 탔다고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또 지금 화재를 당하다니 마치 자기의 잘못인양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동자승은 잿더미를 뒤적이며

“스님! 스님!”

하고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마치 그의 통곡소리가 높고 험한 설악산을 넘어 양양까지 들렸던지 영취사(靈鷲寺) 복원을 돕겠다며 100인의 도적떼들이 몰려오고, 황 부자도 기꺼이 많은 돈을 불사하여, 지금의 백담사 자리에 새로 절을 세우게 되었는데, 처음에 지은 이름은 100인의 도적이 세운 절이라 하여 백도사(百盜寺)라 하였다가, 듣기에 민망하다하여, 100인의 도적을 새로운 길로 인도 하였다는 뜻으로 백도사(百道寺)로 개칭 하였다고 한다.(『설악산 백담사』)

<백담사의 유래>

백담사는 인제군 북면 용대2리 설악산에 있는 절이다. 설악산 신흥사의 말사이다. 이 절의 기원은 647년(진덕여왕 1)에 자장(慈藏)이 창건한 한계사(寒溪寺)이다. 몇 번에 걸쳐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었다. 근대에 한용운이 머물면서 〈님의 침묵〉, 〈불교유신론 佛敎維新論〉을 집필하는 등 만해사상의 산실이 되었다. 6·25전쟁 때 불탄 것을 1957년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前)대통령 내외가 대(對) 국민사과성명 발표 후 이 절에 은거했다가 1990년 12월 30일에 연

회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에 얽힌 설화는 다음과 같다.

인제군 용대리에 있는 백담사는 원래 지금의 화천 땅에 있던 비금사라는 이름의 절이었다고 한다. 당시 비금사 주변에는 산짐승들이 많아 포수들이 산짐승을 잡으러 많이 몰려와 절 옆에서 산짐승들을 마구 잡아 갔다. 함부로 생명 있는 것을 죽이는 일은 불도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스님들이 사냥꾼들에게 수십 번 사냥을 중지할 것을 설득했으나 사냥꾼들은 스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 사냥을 하였다. 그래서 스님들은 부득이 화천에 있던 비금사를 인제군으로 옮기게 되었다.

인제군 북면 한계리로 절을 옮기고 절 이름도 한계사로 바꾸어 불렀다. 이 절을 옮길 때 낭천에서 한계까지 도술을 써서 통제로 옮겼는데, 옮기는 도중에 청동화로 하나와 절구를 떨어뜨렸다. 양구군의 절구골은 이때 절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한계리 부근의 청동골은 그때 청동화로가 떨어져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계리에 옮긴 이 절은 자주 화재를 입었다. 화재가 나 다시 지어놓으면 얼마 안 있어 원인도 모르게 또 화재가 나고 하였다. 그렇게하기를 무려 5차례나 계속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지 스님의 꿈에 도포를 입고 백마를 탄 노인이 나타나 절터를 옮기고 이름을 바꿔보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화재가 날 때마다 똑 같은 꿈을 꾸었으므로 주지스님은 여러 스님과 상의하여 또 절을 옮기기로 하였다.

절터를 이리저리 찾던 중 그 부근 용대리 암자동이 좋을 것 같아 절을 옮기고 절 이름을 영취사라고 하였다. 절터를 옮기고 절 이름도 바꾸었는데 이곳에서도 원인 모를 화재를 당하였다. 주지스님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백방으로 생각했으나 화재가 나는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절터를 옮겼으니, 그러면 이름이 문제인가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골똘히 생각에 잠겨 밤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좋을 듯한 이름을 이것저것 지어서 스님들에게 물어봐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었다.

또한 화재 난 절을 다시 짓느라 애를 무척 쓰고 있었다. 절을 다 지어 가는데 절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해 뜬 눈으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주지스님은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며 온갖 생각을 하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그 백발노인이 나

타나서 주지스님을 꾸짖었다.

“이 미련한 주지야, 청봉에서 절까지 이르는 곳의 ‘깊은 못이나 늪의 물’인 담수의 수를 세어 보아라.”

하고는 도포자락을 펼터이며 안개 속으로 휘적휘적 걸어가더니 이내 모습 보이지 않았다.

주지스님은 다음 날 스님들을 풀어 청봉에서 절까지에 이르는 곳의 물이 고여 못을 이룬 담수의 수를 세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담수의 수가 무려 일백 개에 이르렀다. 일백 개가 넘지도 빠지지도 않는 꼭 일백 개였다. 그래서 주지스님은 절의 이름을 일백 백(百)자 못 담(潭)자를 써서 백담사(百潭寺)라고 하였다. 절의 이름을 백담사라고 명명한 이후 다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날로 절을 찾는 시주들이 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강원의 효열과 전설』)

<선호암>

옛날에 선녀들이 대승폭포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지네가 선녀들을 해치려 하므로 옥녀탕으로 쫓겨 왔으나 지네가 계속 쫓아오므로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내려다 보시고 선녀들을 구하려고 벼락을 치며 이 바위를 내려 던져 지네를 죽였다고 한다.(『인제 조상의 얼』)

<설악산과 길두목>

길두목 이야기는 용대리의 도적소와 설악산 권금성 일대와 양양군 서면 갑천리에 걸쳐 있다. 옛날 권금성과 용대리 도적소 지역은 현 고성, 속초, 양양 일대의 사람들이 인제로 해서 한양으로 통하던 길목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이곳에는 도적들이 들끓던 유명한 곳이다. 용대리의 아니오니 같은 곳은 도적들이 살면서 양민들을 필요에 의해 한 번 끌고 가면 아니온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 이곳에는 ‘아니오니 산제당’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조 연산군 때의 일이다. 설악산에는 길길도(吉吉道)라는 산적이 있었다. 그는 수 백 명의 도적을 이끌고 양양 땅에 80칸의 집을 짓고 살아

가는 사람이었다. 길길도는 워낙 날랜데다가 재능도 있었다. 마을 씨름대회에 나가서 수십 마리의 황소를 끌어올 정도로 힘도 세었지만 수 백 명의 도적을 아무 탈 없이 이끌 정도로 지략도 갖춘 인물이었다.

다만, 그에게 있어 아쉬운 것은 그가 양반의 신분을 타고 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길길도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을 원망하던 길길도는 도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은거지를 권금성에 잡았다. 권금성은 설악산 중턱에 있는 성이지만 길길도에게는 천하의 요새로 활용되었다. 그 지역은 당시 인제로 넘어오는 길목에 해당했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비적질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들의 활동무대는 속초에서 설악산을 주거지로 해서 인제 용대리의 도적소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권금성에 은거지를 잡은 비적들은 내려다보이는 도로 옆 주막촌과 은밀한 연락을 하며 비적질을 했다. 그 길은 첩첩산중이었기 때문에 길을 넘는 나그네들은 꼭 주막촌에 들러 시장기를 가지고 걸쭉한 탁주로 킁킁한 목을 축이곤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멀고 험한 계곡을 넘을 수 없었고, 날이 저물면 주막촌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곤 하였다. 주막촌에는 여러 명의 주모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남편이 없거나, 남편을 잃고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주모들은 권금성의 비적들과 공공연히 정을 통하여 비적의 아내 구실을 했다. 그러면서 비적들의 연락망으로 돈 있는 손님들이 오면 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했다. 주막에 손님이 들면 밖에 불을 피워서 비적들에게 알렸다.

주막촌의 주모가 불을 피워 연락을 해오면 미리 길목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그네의 돈을 털었다. 돈을 털 것 이 알려질 것 같으면 아예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조정의 정보를 입수해서 자신들의 은거지를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일삼았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이들의 활동은 더 쉬웠고 호경기를 만났다.

길두목은 비적질이 익숙하고 가진 재물이 많아지자, 산 아래에 있는 정고마을에 사는 '분'이와 성대하게 혼인까지 하였다. 마을에서 치른 혼례에는 심복부하인 떡쇠를 비롯해서 많은 줄개를 거느렸다. 혼인 후 3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20살이 되자 아버지 뒤를 이어 비적의 두목을 했다. 대를 이어서 산적의 두목이 된 것이다.

아들에게 두목 자리를 물려준 길 두목은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며, 양양

군 서면 갑천리에 있는 자신의 80칸짜리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앞에는 당시 양양도호부사와 강원도 감찰사를 지냈던 이광열이라는 사람이 청빈하게 살고 있었다. 이광열은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갑천리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길 두목과 이광열 감찰사는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게 되었다.

길 두목이 이광열 감찰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배울 것이 아주 많았다. 길 두목은 감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글도 배우고, 때론 벗이 되어 세월을 같이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길 두목은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민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길 두목은 권금성의 산적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산적의 두목을 하던 아들도 불러들여 양민이 되어 살게 하였다.

그래서 양양군 서면 갑천리에는 두 개의 무덤에 각각의 비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광열의 비석이고, 또 하나는 “백장 길길도”라고 쓴 길 두목의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석은 어디로 사라져 지금은 없어졌다.(『인제군사』)

<십이선녀탕>

남교에는 태초에 열두 명의 선녀가 목욕을 하기 위해 천하를 모두 찾아보고 옥황상제에게 만천만산만하에 이곳 탕이 있는 곳이 제일이라 아뢰고 승낙을 얻어 열두 명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던 곳이라 하여 12선녀탕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골짜기를 탕수골이라 불리어 왔다.

현재 많은 등산객이 이르길 8탕 8폭이라 하고 있으나 오랜 옛 어른들의 구전에 의하면 작은 탕까지 모두 12탕 12폭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25 동란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계곡은 여인들이 들어가면 천지개벽이 일어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곡입구부터 출입을 금하기도 했다. 동란 이후 수복이 되면서부터 등반객 출입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으나 그 때문인지 큰 사고로 조난되어 숨진 이들이 많다. 이는 인제 8경의 하나로 경치가 가히 절경이며 어느 명산 계곡과도 견줄 수 없는 계곡과 폭포와 탕의 조화가 일품이다.(『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

<仙女 쫓긴 玉女湯>

먼 옛날 대승폭포에 월궁(月宮) 옥선녀(玉仙女)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 지네라는 괴물이 있어 옥선녀를 보고 해치고자 하여 옥선녀는 쫓기어 다른 소로 옮기었다. 둘째 소까지 쫓겨 왔으나 지네가 다시 쫓아와 여전히 해코자 했다. 옥선녀는 갈 곳이 없어 지네로부터 막 해침을 당할 판국이 됐다.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옥선녀의 편을 도와 벼락을 내렸다. 지네는 그만 벼락을 맞아 죽고 옥선녀는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곳에 옥선녀가 노닐었다하여 옥녀탕(玉女湯)이라 이름 지어 부른다고 한다.(『태백의 설화』)

<아니오니의 유래>

옛날 아니오니 쪽으로 가면 김 부자 터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무가 덜 나서 그런데. 거기 메. 엄청난 산지기 부자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로 들어간 사람은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 들어 간 사람은 못나온다고 그래서 간 사람은 안 온다고 그래서 아니오니. 한 번 가서 못 오니까 아니오니. 아예 들어가서. (조사자: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왜.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지기들. 산 두목들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붙들어 가지고 농사짓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옛날에. (조사자: 아 그러니까 산 도적들이네요.) 예, 그런 식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넓어요. 그 터가 거기가 산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아름 들이 나무가 몇 백 년 흘렀으니까. 그 전설이 그렇게 흘러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알지요.

거기 들어가는 데가 입구가 문이 얼마 안 커요. 그리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 능선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니 거기가 길이 이렇게 좁아져요. 거기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면 붙들어가고 했겠지요.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 확실한 것은 모르지요.(장범수(66, 남), 2009.9.9)

<양반바위와 한계사>

한계사 맞은편에 있는 양반바위가 한계사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절에 해롭다하여 한계사를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배척하였으며 양반은 대부분 유교를 숭상했기에 나온 전설인 듯하다.(『인제 조상의 얼』)

<오세암>

오세암은 잘 알려진 암자 중의 하나이다. 643년 선덕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이곳에 선방을 짓고 머물렀던 자장율사는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관음보살의 도량임을 나타내기 위해 관음암(觀音庵)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습이 1445년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곳이다. 또 조선중기 1643년 설정 스님이 중건하면서 관음암을 오세암(五歲庵)으로 바꾸었다. 그 후 조선후기 고종 때 백하 스님이 중건하면서 만일염불회를 열기도 하였다. 만해 한용운 스님도 이곳에 머물며 <님의 침묵> 등의 글을 쓰기도 하였다. 6.25한국전쟁으로 불탄 것을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세암에 얽힌 설화는 다음과 같다.

인제군 북면 용대2리에 있는 설악산 백담사(百潭寺)에서 수렴동 계곡을 따라 7km정도 올라가면 오세암을 만나게 된다. 암자의 앞뜰에 서면 오른편으로 만경대가 보이고 왼편으로 기룡대가 보인다. 그리고 암자의 지붕 위 뒤쪽으로 관음봉과 동자봉이 보인다. 이 암자는 내설악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설악산에 있는 사찰들 중에서 아늑하기로 유명한 암자이다. 이 암자의 원래 이름은 관음암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오세암으로 바뀌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조선조 인조대왕 때 설정 선사(雪淨禪師)가 이곳에서 불도를 닦고 있었다. 어느 해 봄날 설정 스님은 꿈을 꾸었다.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서 빨리 고향에 가보라는 것이었다. 생시처럼 또렷한 꿈이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갔다.

고향에 이르러 설정 스님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이 폐허

가 되어버린 것이다. 집들은 오래 전에 죽어 썩은 짐승처럼 여기저기가 허물어진 채 널브러져 있고 빈터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쭉대밭의 처참한 침묵 속에서 설정 스님은 스님으로서도 마음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설정 스님은 아랫마을에 가서야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 몹쓸 전염병이 돌아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네 살밖에 안 된 사내아이인데 지금 이 마을에서 기르고 있다고 동네 노인이 알려주었다.

노인을 따라 그 아이를 찾아가 보니 뜻밖에도 그 아이는 설정 스님의 조카였다. 설정 스님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설악산 관음암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조카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스님은 조카에게 일거수일투족부터 엄불까지를 찬찬히 가르쳤고 조카아이는 착하고 총명하여 가르침 하나하나를 착실히 배웠다. 봄 여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설정 스님은 월동준비를 해야 했다. 이 깊은 산중에서 두 식구에게 겨우내 필요한 먹을거리며 옷가지 등등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했다. 보통 때보다 밥을 많이 지어놓고 설정 스님은 어린 조카에게 말하였다.

“산 너머 양양에를 다녀와야 하겠다. 겨울 지낼 준비를 해야지. 내일 늦게야 돌아올 테니 혼자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설정 스님은 법당 안의 관세음보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들면 저 어머니 앞에 나아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외거라. 저 어머니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스님은 산을 넘어 외설악으로 해서 양양으로 갔다. 그런데 그날 밤 눈이 내렸다. 눈은 밤새도록 내려 쌓였다. 그것은 근래에 없던 폭설이었다. 양양 물치장에서 장을 보아 가지고 신흥사에서 밤을 지낸 설정 스님은 거의 키만큼 쌓인 눈을 보며 혼자서 속을 태웠다.

설정 스님은 이듬해 봄에야 관음암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겨우 녹기 시작하는 눈을 헤치며 고생스레 돌아오는 스님은 관음암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애써 억제 하려 하여도 나이 어린 조카의 처참한 모습이 방정맞게도 자꾸만 눈에 어른 거렸다. 거의 기진하여 관음암에 도달한 설정 스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당 안에서 목탁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었다. 달려가 보니 나이 어린 조카가 목탁을 치며 관세음보살을 외고 있었다. 법당 안에는 낭랑한 엄불소리와 함께 훈훈한 기운과 신이한 향기가 배어나고 있었다. 한없는 반가움과 기쁨에

스님은 눈물을 머금었다. 스님은 한참 후에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때 어린 조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매일 찾아오시어 저에게 젖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때 암자 뒤의 관음봉에서 흰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천사처럼 내려왔다.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책을 안겨 주고는 홀연히 파랑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갔다. 곱게 장정된 그 책의 표지에는 『보리지기(菩提之記)』(혹은 『관음지기(觀音之記)』)라고 써어 있었다. ‘보리’는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설정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법당 밖으로 나왔다. 하얀 눈에 덮인 온 세상이 더없이 청정해 보였다. 암자 뒤에 솟아 있는 관음봉(觀音峰)과 동자봉(童子峰)은 햇살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 암자를 오세암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그때 그 아이가 5살이었던 것이다.(『태백의 설화』)

<옥녀탕>

북면 한계3리 장수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소재하고 있는 옥녀탕(玉女湯)에 옛날 대승폭포의 월궁선녀(月宮仙女)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 지네라는 괴물이 있어 옥선녀(玉仙女)를 보고 해치고자 하여 선녀는 쫓기어 다른 소로 옮기었다. 둘째 소까지 쫓겼으나 지네가 다시 쫓아와 여전히 해코자 하였다. 선녀는 갈 곳이 없어 지네로부터 막 해침을 당할 판국이였다.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옥선녀(玉仙女)의 편을 도와 벼락을 내렸다. 지네는 그만 벼락을 맞아 죽고 옥선녀는 생명을 구했다.

후세 사람들은 이곳에 옥선녀가 놀았다고 하여 옥선녀탕(玉仙女湯)이라 하였다.

또 이곳을 지나는 국도 중앙에 큰 바위가 위치하고 있는데 벼락을 칠 때 떨어진 바위라고 해서 선호암(仙護岩)이라 명명했다.(『인제군사』)

<절임소 물이>

한계사지 왼쪽 골짜기에는 6.25때 이곳에 살던 사람이 피난을 가면서

피난에서 돌아오면 식량으로 쓰려고 소 한 마리를 잡아 소금에 절여 땅속에 묻고 갔다고 한다. 그 후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인제 조상의 얼』)

<하늘벽과 독사>

옛날에 독사가 하늘벽을 훔치려다 이에 노한 신선이 벽락을 치게 하여 죽였다는 전설이 있다.(『인제 조상의 얼』)

<한계산성의 대궐터>

한계산성 안 높은 곳에 있는 언덕으로 된 터로 전설에는 경순왕이 산성을 쌓고 대궐을 짓고 이곳에 머물렀다는 전설이 있으나 기록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순왕이 축성하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경순왕의 제일자(第一子)인 마의태자 김일(金鑑 = 金富)이 성을 보수하였다는 것은 좀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한계산성은 한계사 창건 전후에 신축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이곳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으며 삼국통일을 준비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자장법사가 굳이 오지였던 이곳에 한계사를 세운 것은 불교가 호국불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과 산성은 불가분의 관계였을 것으로 본다. 마의태자가 이곳을 항려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하기 위해 주둔하면서 수축했을 가능성은 있다.(『인제 조상의 얼』)

<한계산성의 천제단>

내용을 자세히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천지신명께 국가의 안녕과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생각된다.(인제군, 한계산성지표조사보고서, '86)

천제단 돌탑 속에 사기로 된 잔이 2개 있었는데 한계리에 살았던 고 신평택 씨가 가져갔다고 한다.(한계리 최병권(71세) 제보)

그리고 물을 담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질용기항아리 파편이 발견되었다. 한편 가운데 돌탑은 거의 붕괴 직전에 놓여 있어 시급히 보수하여

야 할 것이다.(2000.3. 이태두)(『인제 조상의 얼』)

<한계산성 축조>

한계산성은 고주왕 6년에 큰 아들이 쌓았고, 둘째 아들이 춘천의 봉의 산성을 쌓았으며, 셋째 아들이 개성의 구월산성을 쌓았고, 그 사위가 강화도 마니산성을 쌓았다는 전설과 한계산성은 우두산성(안산 모양이 소머리 같이 생겼다함)이라고도 하였다.(『인제 조상의 얼』)

<호랑이가 많았던 한계리>

1930년대까지만 해도 한계리에 호랑이가 많아서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했는데도 잡지 못했다.

이 씨(금광의 덕대)가 산제를 지낼 쌀로 아이의 돌을 해 주었다. 다음 날 박춘범(66세, 원통거주)씨의 선친이 한 묘소 앞을 지나는데 어디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가 아이를 데리고 장난을 치더라는 것이다. 그 아이가 이 덕대의 아들 같아 그 집으로 찾아가니 두 내외는 깊은 잠에 들어 있어 급히 깨우고 아이를 찾아보니 없으므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그곳으로 가서 호랑이를 쫓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머리부분에 호랑이가 장난치며 핏자국만 있을 뿐 무사하였다. 아이는 그 충격으로 자라면서 바보스런 사람이 되었다.

한 번은 호랑이가 매우 큰 집돼지를 우리에서 물어 던졌는데 그 거리가 9발자국이나 되었다고 하며 모노골에서는 부부가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부인은 호랑이가 물고 가도 남편은 코만 골며 깊은 잠에 빠졌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호랑이가 쇠 소리를 무서워하므로 버섯(쟁기) 등의 쇠붙이를 두들기며 호랑이를 찾아가니 그 여인은 이미 실신하였으며 며칠 후 사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광산에서는 호랑이를 쫓으려 티엔티(TNT)를 터뜨리기도 하였고 주민들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손외칼이라는 장치를 하기도 하였다. 손외칼은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나무 끝에 날카로운 칼을 잡아매고 나무를 휘어 호랑이가 지나다가 건드리면 장치가 풀려서 호랑이가 칼에 찔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 장치를 해 놓으면 호랑이가 나타나면 건드리지 않아도 풀려 호랑이의 영험함을 보여주었다.(『인제 조상의 얼』)

6. 내설악 지역의 동제

<용대리 산치성(龍垜里 山致誠)>

마을과 인접해 있는 뒷산 山麓에 자리 잡고 있던 堂이 74년 한 심메만 이의 잘못으로 불타버리자 마을 앞 수리 峰턱 세 계곡이 모인 곳인 ‘삼물치’ 바위 밑에 슬레이트 지붕을 입힌 1평 규모의 堂을 지어놓고 1년에 한번 씩 산치성을 드린다. 마을사람들은 이 堂을 제당이라고 부르는데 76년에는 음력 9월 9일인 九重日에 祭를 지냈다. 약 15m 높이의 바위 밑에 지어놓고 이 제당 안에는 가로지른 원새끼가 매어 있고 그 새끼줄에는 한지를 걸어놓았다. 神位는 안치되어 있지 않다.

현재 27세대인 이 마을에서는 祭費를 매년 1家口堂 쌀 5되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출하는데 이 해에는 家口當 1천원씩 班長이 주동이 되어 걷어들였다. 이 해에는 이 마을의 반장인 申正業씨(33세)가 祭主가 되었는데 ①喪主이거나 장례에 참여한 경우 ②집안에 해산이 2주일 안에 있었던 경우 ③부정한 음식, 이를테면 개장을 祭日을 앞두고 일주일 안에 먹은 경우는 祭主는 될 수 없다는 禁忌를 갖고 있다. 祭主뿐 아니라 마을 사람인 경우도 몸이 淨하지 못하면 祭禮에는 참석치 않는다.

이 마을에서는 祭主가 都家의 역할을 함께 해오고 있었는데 제물은 酒, 果, 肉을 준비한다. 肉은 소나 돼지 머리를 근년에 썼다. 마을 사람들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뿔 두 그릇 떴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하나를 뜨게 되었다고 말한다.

祭時는 아침 10시계인데 祭物의 진설에 앞서 예단이라고 불리는 한지 3장을 원새끼에 걸어 매단다. 祭物의 진설이 끝나면 祭主의 獻爵에 이어 <부정푸리>를 먼저 하는데 <부정푸리>는 근처에서 卜術을 불러댄다. 이 해에는 이곳에서부터 12km 떨어져 있는 元通에서 全丙男(59)이란 卜術을 불렀었다. 祭主의 三拜가 끝나면 마을의 老人들에 의해 獻과 三拜가

있고 卜術에 의해 家家戶의 소지가 올려진다.

祭儀가 끝나면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과 몸이 부정해서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堂에서 5백m쯤 내려오면 흐르고 있는 강가에 모여 제사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날 하루를 지낸다.(『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

<산삼채취인의 치성제(山蔘採取人の 致誠祭)>

山蔘採取人は 심메마니를 가리킨다. 심메마니의 生活習俗全般을 지배하고 있는 思想은 山神崇拜의 샤머니즘적 信仰이다.

심메마니의 分布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麟蹄郡 용대리, 한계리 등과 五臺山을 中心으로 한 平昌郡 珍富面 동산2리 그리고 嶺東地方의 溟州郡 連谷面 退谷里 등이다.

심메마니들이 在家時에는 一般山村民의 生活과 다른 점이 전혀 없으나 이들이 採蔘키 위하여 入山날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在家平時 生活과는 달라진다. 이들이 入山을 앞두고 不淨을 가리키는 것은 山 自體의 靈異性도 있지만 그들이 캐려는 山蔘이 靈草이기 때문에 不淨한 몸에는 보이지도 않고 부정한 몸으로 入山하면 山神의 노여움을 받는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土俗信仰의 영향 때문에 入山에 앞서 禁忌를 한다.

採蔘時期가 되었다 하여 採蔘人은 아무 때나 入山하는 것이 아니고 入山의 날짜를 고른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擇日한 뒤에 入山하는 採蔘人은 거의 없어졌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傳來習俗을 繼承하는 採蔘人들은 반드시 日官에게 吉日을 擇한 뒤에 그 길일에 入山을 한다. 이 擇日의 방법은 隣近 日官에게 가서 天機大要로 擇日하기도 하되 寅日과 ‘백호대살일’만은 피한다고 한다. 택일이 되면 그날부터 門에는 出入을 禁하고 이 날부터 夫婦間의 性生活도 中斷한다. 이 禁忌 기간에는 집안에서 개, 닭들의 殺生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喪家에도 가지 않고 路中에서 喪主를 만나는 것도 피한다. 개고기 닭고기를 먹지도 않으며 개나 닭이 죽는 것을 보는 것도 피한다. 이 禁忌기간 중에 금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달이 지나고 다음 달이 된 뒤에야 다시 擇日하여 금기를 한다. 이 금기의 기간은 7일, 5일, 3일의 奇數의 기간을 택하고 있다.

入山日에는 沐浴齋戒를 하고 行裝을 차려 3,5,7奇數로 編成을 하여 指

定한 場所에 集合하여 出發을 하는데 이들이 入山을 하기 위하여 집을 나설 때에는 採蓼人 자신도 家族에게 갔다 오겠다는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이들에게 잘 갔다 오라는 人事를 안 한다.

採蓼人이 入山을 하면 반드시 致誠祭를 지낸다. 그 횃수는 일정치 않으나 반드시 지내야 하며 致誠祭의 종류는 ‘山神祭’, ‘城隍祭’, ‘수배祭’, ‘어인선생祭’가 있다.

入山初日에는 山神에게 入山祭를 지낸다. 산신제는 古木이나 巨巖을 當處로 하여 壇을 쌓고 잘 할 때는 石壇 위에 지붕까지 나무로 만든다. 入山初日에 반드시 入山祭를 지내는 것은 이날이 擇日된 吉日이기에 山神祭祭日로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고 入山祭 이외의 祭는 수시로 지낸다.

山神祭는 前記한대로 設壇을 하고 지내기도 하지마는 古木이나 巨巖에 禁索이나 예단(한지만을 접음)을 걸어놓고 지내기도 한다. 祭官의 의복은 평상복이나 沐浴齋戒해야 하고 祭物로는 새 용메를 쓴다. 멧밥을 새용에 지을 때는 쌀에 물을 넣고 새용 뚜껑을 한번 닫으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山神祭를 지낼 때까지는 그 뚜껑을 열지 아니하고 壇 앞에 새용 채로 갖다 놓는다. 祭官은 불을 피워 향을 사르고 수저를 향에 쬐인 뒤 비로서 새용 뚜껑을 열어 새용메 한 가운데 손가락을 꽂고 四拜를 하고 告辭를 올린 뒤에 다시 四拜를 하고 그 뒤에 燒紙를 두 번 한다.

첫 번째의 燒紙는 山神의 應感與否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다음 것은 採蓼與否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소지를 하여 종이 탄 재가 바람을 타고 空中으로 잘 올라가면 山神이 應感하여 좋다하고 그 재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應感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 燒紙가 끝나고 나면 다시 四拜를 하고 山神祭를 마친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山神祭 하나만으로 致誠祭를 끝내는 수도 있으나 山神祭 다음에 그 옆자리에 城隍堂을 設壇하고 다시 山神祭와 같은 節次에 따라 城隍祭를 지내고 그 뒤에 ‘수배祭’를 지내고 이 ‘수배祭’가 끝나면 同一한 장소에서 ‘어인先生祭’를 지내는데 祭物은 主祭에 썼던 것을 그대로 다시 쓰고 節次도 같으나 다만 告辭만이 다를 뿐이다.

祭가 끝나면 잡곡을 섞지 않은 白米로 지은 멧밥으로 점심을 먹고 그 자리에서 낮잠을 자는데 낮잠은 꿈을 꾸기 위한 것이다. 山蓼은 靈草이기 때문에 山神의 계시 없이는 캐기 어렵고 산신은 꿈을 통하여 啓示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致誠祭에는 어떤 종류의 祭이건간에 반드시 告辭가 있는데 告辭는 일종의 祝願으로 祭種에 따라 內容이 다르고 사람에게 따라 다소 다르고 사람에게 따라 다소 다르나 山中생활을 보호해 달라는 것과 山蓼을 캐게 해달라는 內容으로 集約된다. 이 告辭는 文字에 執着해 傳承되어 온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口傳되어 온다.(『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용대1리 십이선녀탕 마을 산신제>

음력 3월3일, 9월9일 산신제를 지냄(『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

<용대1리 무연고 별초 및 제사>

용대1리에는 약 210기 정도의 주인 없는 공동묘지가 있다. 이 중 주인을 찾은 7기를 빼면 아직도 대부분의 묘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대1리는 38선 이북의 수복지구로 마을주민들은 이 공동묘지의 90%이상이 강제월북 또는 6.25 전쟁 시 사망한 사람들의 무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묘지 주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 공동묘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묘지자체가 임야화 됐다. 그런 상황을 주민들이 이 공동묘지의 역사도 우리 마을의 역사라고 여기며 마을의 가을 정례행사로 별초를 하고 제를 올려주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가을에 청장년을 주축으로 별초를 하고 제를 올리는데, 벌써 13년째를 맞이했다. 무연고 별초행사는 용대리 마을의 안녕과 번창을 기리는 취지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무연고 별초행사의 절차는 별초를 하기 전에 술, 과일, 포를 놓고 예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별초행사는 용대리 마을의 중장년층의 남자들이 참여한다. 210기의 묘를 다 별초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참여하는 마을 주민은 평균 40명 정도 된다.

별초는 주인 없는 묘지 외에도 마을의 재산을 기증한 사람의 묘역도 함

게 벌초한다. 벌초의 시기는 추석을 전후로 이뤄진다. 벌초가 끝나면 주민들이 모두 모여 주인 없는 묘를 위해 공동 제사를 올린다. 제사 절차와 제물은 서낭제나 산신제와 비슷하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사과, 배, 복어포, 소주, 산자 등을 올린다. 제비는 마을운영비를 사용해서 제물을 구입하고 제사준비를 한다. 2010년 무연고벌초행사에는 총 5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

<용대1리 꼬부랑 할머니에 대한 제사>

꼬부랑 할머니제사는 30여 년 전 마을에 거주하던 할머니 한 분이 당신의 전 재산을 마을에 기증하고 사망하셨는데 꼬부랑 할머니의 그 뜻을 보전하고 기리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꼬부랑 할머니의 기일인 음력 11월 22일에 맞춰서 경로당과 할머니 묘지에서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올린다.

꼬부랑 할머니는 30년 전에 평생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마을에 기증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마을에서 주관하여 고인의 뜻과 좋은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올린다.

제사 당일이 되면 노인회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를 올리는데, 제비는 마을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물로는 밥과 탕국, 부침개, 각종 전과 나물, 생선, 강정, 과일 등의 일반적인 차례상과 비슷하다.

꼬부랑 할머니 제사는 경로당과 묘지에서 두 번 지낸다. 제를 올리는 순서는 제사장인 노인회장이 향을 피우고,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주면 제주가 모삿그릇에 3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한다. 경로당에서는 모삿그릇에 나누어 붓지만 묘지에서는 모삿그릇 대신에 땅에 붓는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일동이 모두 두 번 절한다. 주민들이 함께 절을 하고 나면 제사장이 다시 술을 받아서 상위에 올린다. 이어서 밥에 수저, 시접에 젓가락을 정돈한다. 정돈이 끝나면 다시 제사에 참여한 주민들 모두 절을 하고, 제사장은 수저를 거둔다. 밥뚜껑이 있으면 덮고 다시 두 번 절한다. 지방을 불사르고 차례를 종료한 후 안쪽에 있는 음식부터 차례로 음식을 내린 후 음복을 한다.

2010년 꼬부랑 할머니 제사는 1월 6일(음력 11월 22일)에 지냈다. 제

비는 마을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총 50만원이 사용됐다.(『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

꼬부랑 할머니 제사의 신위로 봐서 파주 강 씨임을 알 수 있다.

<용대1리 남교리 선녀마을 서낭제>

용대1리 주민들은 현재도 남교리나 선녀마을 등의 지명을 많이 사용한다. 남교리 선녀마을에는 현재 3개의 서낭당이 있으며, 각 반별로 지금도 마을제사를 지내고 있다.

윗남교리 서낭골 입구에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큰 소나무 밑에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아래에 돌을 쌓아 서낭당을 만들었다. 서낭당 안에는 흰실과 한지를 접어서 걸어 두었다,

아랫남교에는 탕수골의 고송(古松) 밑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다. 탕수골은 탕숫골 또는 탕수동이라고도 하는데 지리실 위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12선녀탕을 의미하는 지명이다. 제당은 돌과 시멘트로 바닥과 좌우를 막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막았다. 서낭당 내부에는 나무로 틀을 짜서 한지와 실을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의 서낭당은 탕수골에 있다고 해서 탕수골서낭당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정자문 마을에도 서낭당이 있다. 정자문 마을의 서낭당의 형태 역시 윗남교리, 아래남교 마을과 마찬가지로 시멘트와 돌을 사용해서 좌우 벽을 만들고, 함석으로 지붕을 덮은 형태이다.

용대1리 서낭제는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지낸다. 제사 시간은 오전 일찍 서낭당에 올라서 제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관과 도가는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과 도가는 보통 제사 일주일 전에 선출한다. 제관으로 뽑히면 몸가짐을 바로하고, 부부관계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제일까지 부정하다고 해서 상가에 출입하거나 피를 봐서는 안 된다. 항상 목욕재개를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제비는 주민들에게 각출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마을운영비로 제물을 구입하거나 제사준비를 하기도 한다. 제물은 제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통돼지나 소를 잡아서 머리는 제물로 쓰고 나머지는 제사가 끝난 후

주민들끼리 함께 구워먹고 나눠 가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통돼지를 잡기 보다는 돼지머리를 구입해서 제물로 올리고, 각종 과일과 제주, 북어포, 메 등을 올린다.

용대1리 주민들은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서낭제를 지낸다. 서낭제가 다가오면 용대1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이 서낭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일이 되면 여자들은 주로 도가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허드렛일을 하고, 남자들은 돼지나 소 등 제사상에 쓰일 제물을 손질한다. 제비가 녀 녀할 때는 통돼지나 소를 잡아서 제사상에 올리고, 제비가 많지 않을 때는 돼지머리와 메, 북어포, 각 종 과일만을 올린다.

제사는 오전 6시에 시작한다. 제당에 도착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 진설을 하고나면 서낭당 안에 촛불을 켜서 불을 밝힌다. 그리고 당 안에 한지와 실을 건다.

제사 준비가 끝나면 참가자는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당 앞에 선다. 그리고 제사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재배한다. 참가자의 재배가 끝나면 제관이 재배를 하고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올린다. 잔을 올리고 난 후 축원을 한다.

축원은 주민들의 안녕이나 자식들의 무병장수와 입신출세를 빌고, 마을의 잡귀를 쫓아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축원이 끝나면 재배를 하고 나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다 올리고 나면 참가자들 모두 재배를 하고 제물을 물린다. 제사가 끝나면 주민들 모두 모여 식사를 한다.(『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2』)

<인제군 용대리의 가족신앙>

집에서 탈이 없게 하기 위하여 제사하는 安宅을 이 지방에서는 <뒷기도>, <뒷제사>라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 ‘땅이 얼기 전이나 땅이 녹기 전’에 제사지내기 위해 10일이나 정월보름에 지내고 있다. 햇곡식을 떨어서 10월에 지내는 집에서는 집안 식구의 생기에 맞추어 날을 잡아 지낸다.

이 마을 안용수(42세) 씨의 어머니朴 씨(61세)는 지난해 10월에 뒷기도를 드렸는데 팔시루 1개, 백설기 1개, 물탕 1개, 포 1개 그리고 제주를

부엌 큰 솥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진설하고 저녁 어두워지면 대주(집주인 남자 이름)가 제사를 지냈다. 이때 되는 큰 그릇에 떠놓은데 뽕그릇에는 식구 수대로 수저를 꽂고 절은 백설기시루와 팔시루에 각각 한 개씩 꽂는다.

대주는 두 잔에 헌작하고 이어 三拜한 후 식구대로 소지도 올렸다. 이 집에는 부엌 아궁이 위 기둥에 한지를 접어 숯겨성 1개, 소금 한 줌을 매달아 놓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집에서는 성주와 조왕을 함께 제사지내는 것으로 보였다. 박 씨는 성주를 부엌에 모신 것을 용마루 촛꽂이 기둥 밑이기 때문에 부엌이나 마루를 상관 않고 이곳에 모셨다고 한다.

신기봉(59세)씨 집에서는 <뒷제사>를 금년 음력 정월 보름 저녁 11시~12시 사이에 지냈다. 제물은 백설기 1그릇, 뽕 1그릇, 어물 1그릇, 나물 1그릇을 차렸는데 이 집에서는 되는 큰 그릇에 떠놓고 그곳에 식구대로의 수저를 꽂는다. 제사순서는 전기한朴씨의 집과 같으나 헌작은 단작을 했고 제사장소는 방에서 지냈다.

이 마을에서는 25호 중 <뒷제사>를 지내는 집은 불과 6戶밖에 안 되고 대부분 20리 떨어져 있는 백담사나 산에 가서 기원하고 있었다. 이 마을이 이와 같이 안택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은 이 마을의 입지적인 조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 마을은 원래 백담사 토지에 이루어진 마을로서 현재에도 전 경작지의 20%는 절의 소유지였다.

이밖에 藥草採取에 나서는 家戶에서는 주로 <산>을 위하는데 마을 앞산에 있는 堂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정한곳>(나무나 바위)을 信仰한다.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또는 藥草를 캐러나간다던가 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이곳을 찾아 축원하는데 제물은 뽕나祭酒만을 사용하며 일반 家神 神祀에 主婦가 주동이 되는데 비해 이 경우는 家長이 주동이 되어 祝願을 한다.(『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용대리의 무속>

인제군 北面 용대2리 내가평마을(以下 1976年度 조사)

인제군은 全國에서 面積은 가장 넓은 郡인데 人口는 가장 적은 郡이라고 한다. 그만큼 山岳地帶가 차지하는 面積이 많은 郡이고, 그만큼 地理性에서 오는 信仰面의 특징도 있는 곳이다. 그러나 여기는 1945年~50年

사이는 北傀 治下에 있었던 곳이고, 인제군의 住民 構成은 ①土着民 ② 軍人家族 ③6.25 以來의 定着難民의 3種類로 混成되어 있다고 한다. 그 比率는 一定치 않아서 먼저 調査團이 着目해 보았던 흘리는 80世帶中 土着民은 4世帶뿐이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내가평마을은 25戶中 約 90%가 土着民이었다.

내가평마을 25戶를 포함한 龍垌2리는 120戶인데 여기에도 藥局도 病院도 없다. 禮拜堂이 하나 있는데 15名정도의 信者를 가지고 있다. 20리를 가면 百潭寺가 있고, 그쪽으로 좀 더 가면 庵子들이 있다. 용대2리에는 本來부터 무당은 없고 高城郡의 무당들이 백담사를 지나서 40리의 고매골에 山致誠을 들이러 자주 여기를 지나다니는데 여기도 그 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里長은 말한다. 그래서 病긔 종류가 年 平均 1,2回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차차 여기 사람들도 취미가 들어서 高城으로 넘어가서 긔을 하는 婦人들이 더러 있다. 남편 몰래 쌀을 퍼내서 긔을 하러 가는데 高城郡 杆城面 검문소 앞의 명심이女巫(56세)에게로 간다. 里長으로서는 이것이 새마을 事業에 물이 든다는 것이고, 이주 못마땅하다는 말이었다. 어제 넘어간 婦人도 食口는 많고 農土는 적어서 살림이 어려운데다가 男便이 山蓼을 캐러 다니니 심(山蓼)을 얻게 해달라고 간 것이었다고 한다.

里長 말에 의하면 여기에는 山蓼과 藥草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철이 되면 40~50名씩 되며, 그래서 山神靈을 위하고, 不淨을 안하며 迷信이 많다고 한다. 개는 勿論 닭도 안 잡아먹는다고 한다. 쌀도 지금은 ‘새옹’ 대신 ‘항고오’ 같은 그릇들에 담아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淨한 곳에서가 아니면 밥을 지어먹지 않는다고 한다.

때가 되면 5~6名씩 무리를 지어서 山蓼과 藥草들을 캐러 다니는데, 여기에는 外地에서도 많이 모여든다. 그런데 不淨한 일을 하고 다니면 禍害를 입는다고 里長도 말하고 있었다. 不淨은 어떤 것이고, 害라면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에 對한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不淨이란 개와 닭을 잡아먹는 일, 이웃에 初喪이 난 일, 女子를 가까이 하는 일들이고, 害라는 것은 所得이 없는 것, 범의 侵害를 입는 일인데, 범을 본 사람도 많고, 범에게 혼이 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었다.

山蓼은 40세 이상 돼야 캐러 다니고, 50代가 제일 많다. 그들은 자약(작약), 당귀, 세신, 황계, 표고, 석이, 느타리, 개자약, 봉양들을 철을 따

라서 採取하러 다닌다.

지금도 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새옹을 가지고 다닌다. 또는 무쇠로 만든 뚜껑이 있는 개구남비라는 것을 심메마니(山蓼 採取人)들은 가지고 다닌다. 새옹이나 개구남비나 用途는 마찬가지로이며 둘 中 하나는 가지고 다닌다. 山蓼을 發見한다는 것을 “심메 본다”고 한다. 여기서는 山神을 많이 위해서 때때로 家族끼리라도 山神을 위한다. 더 山속에 들어가면 집집마다 個人堂으로 나무나 숲을 定해서 위하나 여기서는 共同으로 위한다.

山은 두려운 곳으로 그들은 알고 있다. 이것은 近來 잦은 都會地의 輕薄한 마음가짐에서 생기는 登山事故들에 比하면 바람직한 경건성이다. 그러한 이곳 사람들의 마음씨의 表現이 개 닭을 기르기는 되지만 補身湯이나 닭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壯年은 山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再昨年에 이 마을에서도 봉양을 캐러 갔다가 그만 失手로 山에서 굴러서 平生 病身이 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혼난 적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한다.(『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용대2리 매주골 산신제와 내가평 서낭제>

용대리(龍垌里)의 명칭은 용바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북면 용대리는 설악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비교적 다른 인제 지역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계곡은 백담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백담계곡이라 한다. 그 탓에 이 지역은 농사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장사는 민박과 기념품과 식당이 대부분이다.



용대2리 4,5,6반 매주골 산제당

특히 용대리는 황태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래서 황태를 파는 가게와 황태를 주재료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황태는 명태를 사다가 덕장에 넣어 말린 것이다. 겨울에 추운 기온을 이용해서 얼리고 녹임을 반복하고 가끔 눈이 내려 적셔주기도 하여 이루어낸 걸작이다. 명태는 노가리, 생태, 명태, 황태 등으로 불리는 바다고기이다. 그 쓰임이 다양해

서 많은 요리 재료가 된다. 탕, 구이, 찜, 무침, 국, 라면 등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이 지역은 백담사와 만해마을이라는 인문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백담사와 오세암은 역사를 거둬하면서 많은 선사가 찾은 곳이고,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신을 해서 머문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설악산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때문인지 이곳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인다. 게다가 인제군에서 만해마을을 조성해서 많은 시인묵객들이 발길을 멈추는 곳이 되었다.

이 마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유명한 미시령이 나온다. 미시령은 금강산의 마지막 자락이다. 전설처럼 울산바위가 조금만 더 갔으면 금강산에 닿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 그 때문에 설악산이 한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미시령 옛길은 필자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군사용 비포장도로였다. 그래서 100km 행군을 할 때면 간성에서 속초를 거쳐 미시령을 넘어 진부령을 따라 걸었다. 그 길을 따라 28시간을 걸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다. 중간에 가다가 도로가 파였으면 차를 통과시키기 위해 흙을 메우기도 하였다. 그때 그 길은 힘든 훈련 중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용대리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이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기에 예부터 많은 선사와 시인묵객이 찾았을 것이다. 누구든 한번 가면 시를 남겨야 하고, 발길을 땔 수 없는 곳이었다.

십이선녀탕으로 이어지는 설악산 자락도 일품이다. 푸른 물결과 계곡의 단풍은 깨끗함과 붉은 자태가 몹시도 빼어났다. 땀 흘리며 산을 오르다가 풍덩 발이라도 담그면 시원하다 못해 시려서 참을 수 없다. 십이선녀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절경임은 자타가 인정한다.

원래 이 지역은 고성과 속초를 잇는 곳이었다.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만든 소금과 생선을 가지고 와서 인제와 양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물물교환을 하며 시장(市場)이 서기도 했던 곳이다. 아직도 고성군 건봉사 주변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대간령을 넘어 물물교환을 하던 얘기를 하곤 한다.

산이 깊은 곳이라 사람들은 대부분 산에 의지해서 삶을 이어갔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은 산신제를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인공치

하와 새마을운동을 할 때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맥을 끊을 수 없었다. 특히 설악산은 명산이라 신령도 영험하고, 산삼을 비롯해서 많은 영약을 주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관념이 특별한 지역이다. 사람들은 마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산삼을 캐기를 원하면 제당에 와서 개인적으로 메를 지어놓고 기원을 했다. 어디 그 뿐이랴, 자식기원도 하고 건강을 빌기도 하고 예쁜 색시 얻기를 빌기도 하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기도 하였다.

현재 용대 2리의 인구는 200명이 넘는다. 요즘 들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내려와서 정착을 많이 했다.

이 지역의 소지명은 응지골, 양지동, 너래비(광역동) 등이 있다.

이 마을은 백담사로 들어서는 매표소 부근에 위치했다. 이 마을에서는 제보자를 구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노인회장과 축원을 담당하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안용수 제보자는 서낭당까지 직접 안내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안용수 제보자는 마당 앞에 있는 정자에서 제보를 해 주었다. 이 마을과 마을제사에 대해서 두 제보자는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에 장곤옥 제보자를 만난 것은 이 마을의 마을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를 만난 것이었다. 날이 더운 탓에 제보자는 문을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장곤옥 제보자는 마을제사의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묻는 즉시 줄줄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오랫동안 채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용대 2리 6반 산신당 내부

마을에 들어서서 제보자를 구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일하러 가든가 불 일 보러 갔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산신당부터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오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백담사 쪽으로 가다가 무슨 모텔이 있는 곳으로 들어서서 산으로 가면 된다고 하였다. 다들 바쁜 탓에 안내를 받을 수도 없어서 혼자 가기로 했다.

그런데 알려준 모텔에 도착했으나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모텔에 들어가 봤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산신당 위치를

알려준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위치를 물었다. 그랬더니 무조건 산으로 들어서면 길이 보인다고 하였다. 길로 접어들면 송이 밭이 보이는데 그곳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무조건 산으로 접어들었다. 산에 접어들자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산신당을 향해 올랐다. 너무나 조용했다. 얼마나 올랐을까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한참을 오르니 작은 개울이 나왔다. 그리고 개울을 건너 맞은 편 언덕 약 20m지점에 시멘트로 만든 제각이 나왔다. 개울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 중 한 지점에 둥글게 파 놓은 것으로 봐서 정화수를 뜰 때 사용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여전히 숲이 우거져서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산신당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있었다. 붉은 기와를 올렸는데 이끼로 인해서 붉은 색은 거의 사라졌다. 마치 베트남의 최초소설 『전기만록』에 나오는 오래된 사당인 산원사 같았다. 그래도 필자는 용기를 내어 취재를 했다. 사진을 찍고 녹음기를 켜서 산신당의 형태와 집기류 및 주변흔적에 대해서 녹음을 했다.

산신당은 큰 암벽 앞에 있었다. 돌로 축대를 쌓고, 축대 위에 시멘트로 세 벽과 바닥을 했다. 지붕은 나무를 걸쳐 놓고 그 위에 나무판자를 올리고 판자위에 붉은 기와를 얹었다. 언제 지었는지는 상량문이 따로 없어서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산신당 바로 옆에는 당목인 듯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다. 당목은 아마도 엄나무 같다. 산신당 옆에는 금줄이 걸려 있었다. 금줄은 왼새끼에 한지를 끼워 두었다. 지난 제사 때 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지러이 술병 등이 놓여 있었다.

내부에는 향로, 촛대, 동전 몇 개, 술잔이 놓여 있었다. 산신당 내부를 가로지르는 나무 막대는 예단을 거는 것 같은데, 예단은 없고 빈 나무막대만 있었다. 원래 예단은 세 개를 건다고 한다.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세 개를 건다. 세 개를 거는 것은 신이 세 명이기 때문이다. 곧, 산신령님과 어인하고 수부하고 세 분이다. 어인은 산에 다니면서 산삼을 캐고 하던 사람을 말한다. 수부는 산에 같이 다니던 사람을 말한다. 예단이 없는 것은 바람에 떨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취재를 마치고 올라오던 길로 다시 내려왔다. 9월 9일인데도 날씨는 더워 한 여름 같았다.

제당의 이름은 제당이 있는 골이 매주골(每酒洞)이므로 ‘매주골 산신제’

라 명했다. 매주골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산삼을 봐두고 매일 술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 가서 산삼을 보고 술만 먹었으므로 매양 매(每) 술 주(酒)를 써서 골 이름을 명명하였다. 제당 이름은 ‘매주골 산제당’이라 한다.

원래는 다리 옆 봉정식당 있는 위에 있었다. 그런데 누가 술을 먹고 산제당에 불을 놓아서 탔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옮긴지는 한 20년 정도 된다. 제당을 옮긴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산제당을 옮긴 사연>원래 산제당은 여 밑에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 한 몇 십 년 됐어요. 벌써. 여기 있었는데. 그 동생이 군인으로 있다가 대위로 제대를 했어. 그런데 경상도 사람인데 형하고 동생하고 여기 와서 살았어. 군인은 지금은 제대하면 정부에서 뭘 줘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고. 군인들도 뭐 부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근데 형이 인제 저 어디 가서 심을 백담사 들어가는 데서 심을 캐다가 팔았는데. 형도 살아야 되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 형이 심을 캐가지고 그러는 걸 보니까. 자기도 심을 캐야 되겠거든. 그만 이게 실성을 했어. 그만. 아주 돌았어. 그래 가지고. 산제당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여 곰굴 밑에 돌아가는데 있었어. 그런데. 거기 가서 제사 지낸다고 막 자고 그러더니. 제 맘이 아니고 이게 돌았어. 아주. 그래 가지고는 불이 나서 산제당이 탔어요. 그래 여기 돌아가셨지만 나이 많은 노인네가

“이 신은 으스스하고 조용한데가 좋으니까 인제는 사람들이 그 전과 달라 참 등산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도 많이 온다. 그러면서 저 옮기자고.”

그래 저 매주골로 옮겼어.

매주골은 왜 매주골이냐면, 옛날에 매주라는 술이 있거든. 옛날에. 그 심을 봐 놓고는 그걸 파가지고 팔리면 가을이면 인제 돈. 처서 지내야 파니까. 처서 전에 캔 심은 아무래도 약효가 없다고. 그래서 처서 지내서. 그래 그때 심을 캐면 준다고. 주막집에 가서 맨날 술만 먹었어. 그래서 매주골이야. 매주라는 술을 맨날 먹어서.

그래서 처서 지낸 다음에 가서 캐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컸나 보니까. 짝은 크거든. 이게. 이 얼마나 크나 하고. 이렇게 캐 봤다 말이야.

그런데 이게 썩었어. 썩어서 아주 없어. 심을 봐놓고 크나 작으나 얼마나 보냐면. 이렇게 돌려 보면 안 돼. 썩어요. 안 돼.

그래서 매주골에다 산제당을 지은 거지. 부락에서 집 짓고 저 기와도 다 해 이어서 비가 안 새요.(장곤옥(87, 남), 2009년)

산신은 여신(女神)이라고 한다. 여신이라고는 하는데 신의 이름은 알 수 없다.

이곳 사람들은 자식을 기원하든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산제당에 가서 축원을 많이 했다. 자식은 절에 가서 빌기도 했으나 산을 타는 사람들은 산신께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마을에 와서 수소문을 해서 안용수 제보자를 만났다. 안용수 제보자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마을제사에 관해 여러 질문을 했고, 성실히 답을 해 주었다.

취재가 끝나고 안용수 제보자를 따라서 마을 서낭당으로 갔다. 서낭당은 마을 뒷산에 위치해 있었다. 거리는 얼마 되지 않으나 논두렁길로 꼬불꼬불 돌아갔다. 서낭당이 있는 산은 서낭봉이라고 한다. 또는 수리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수리봉이라고도 한다.

서낭당은 벽돌로 세 벽을 야트막하게 쌓고 지붕은 통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얹었다. 서낭당의 크기는 밑면이 1.5m정도 되고 높이는 약 60~70cm정도 된다. 당목은 수명이 상당히 보이는 큰 소나무였다. 수명이 300년은 넘어 보였다. 그 주변에는 이 같은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우람하게 보이는 것이 서낭목이었다. 서낭당 내부에는 예단이 두 개가 걸려 있었다. 원래는 서낭신이 세 분이므로 예단을 세 개를 걸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여기도 산제당의 신과 같이 서낭신과 어인신과 수부신이라 하였다. 어인과 수부는 서낭신의 부하이다. 예단은 실은 걸지 않고 한지만 건다. 그리고 서낭당 옆 작은 나무에도 예단이 걸려 있었다. 작은 나무에 걸려 있는 예단은 지난 예단을 버리지 않고 매어둔다. 그러면 자연히 없어진다.

서낭당의 명칭은 내가평에 있으므로 '내가평 서낭제'라 하였다. 마을 건너는 외가평이라 하고, 이쪽은 내가평이라 한다.

현재 서낭당은 6.25전쟁이 끝나고 새로 만든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용대2리 6반 서낭당

제사를 지냈으나 인공치하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수복이 되고 나서 마을제사를 다시 지내게 되었다. 인공치하 때는 집안의 제사도 지내지 못했다.

서낭당의 신은 남신(男神)이라고 한다.

용대2리 4,5,6반의 마을제사인 산신제는 용대2리에서 가장 큰 마을제사이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상당히 많다.

서낭당 제사는 3월 3일에 지낸다. 시간은 새벽이다. 몇 시랄 것도 없이 날이 새기 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산신제사는 음력으로 9월 9일 새벽에 지낸다. 산신제사의 도가를 맡은 사람은 새벽에 배낭에다가 제물을 지고 올라간다. 그곳에서 메를 짓기 때문에 아주 일찍 올라간다.

제관은 따로 뽑지 않고 동네에서 나이 많은 노인이 매번 제관을 한다. 노인은 장곤옥 제보자다. 각자 정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관은 없어도 된다.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생기를 봐서 사람을 따로 선정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옛날에 도가를 선정할 때는 보통 일주일 전에 하는데, 부정을 가려 했다.

현재 마을제사 주관은 반장이 한다. 반장이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자고 해서 같이 간다. 그러니 도가도 반장이 되는 것이다.

제비는 집집이 얼마씩 거두어서 사용한다. 제비를 낸 사람은 모두 참가하고, 돈 낸 사람은 소지를 한 장씩 다 올린다. 산신제의 경우 3,4반 사람들도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비용을 내고 함께 한다.

서낭제를 지낼 때 제물은 명태와 두부와 삼탕을 한다. 돼지를 쓰지는 않는다. 서낭제의 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종을 받아서 쓴다. 서낭제는 산신제보다 규모가 작다. 메는 새옹에다가 반장이 지어 온다. 떡은 현재는 올리지 않는다. 옛날에는 떡을 시루로 올렸다. 정화수는 그곳에 우물이 없으므로 반장 집에서 정화수를 떠간다. 정화수를 떠갈 때는 주전자나 페트병에다가 떠가서 그릇에 따른다.

제기는 동네 그릇을 쓰는데 낡고 오래돼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반장네 집에 있는 좋은 그릇을 가져다가 쓴다.

산신제는 소머리를 쓴다. 옛날에는 소를 잡든가 돼지를 잡든가 했다. 소머리를 여기서는 소머리라 하지 않고 마리라 한다.

소를 잡아서 올릴 때는 소를 통째로 다 올린다. 곧,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머리는 따로 올리고 큰 함지박에다 고기를 다 담아서 올렸다. 그리고 일부는 산적을 만들어서 고기를 불에 구워 올렸다. 싸리나무에 소고기를 꿰어서 꼬치를 만들어 올린 것이다. 내장은 올리지 않고 간이나 콩팥 같은 장기만 같이 올렸다.

돼지를 잡을 때는 새벽에 강에 가서 돼지를 잡아 손질해서 날것을 통째로 올렸다. 이때 내장만 빼고 간이며 콩팥 등의 장기는 다 올렸다. 돼지를 잡아서 지게에 지고 올라갔다.

그러니 처음에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올리다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올렸고, 지금은 소머리만 올린다. 소머리를 올릴 때는 삶아서 올린다.

메는 산에 가서 지어 올린다. 생쌀을 갖고 가서 산제당이 있는 앞개울에서 우물을 파고 쌀을 씻어서 메를 짓는다. 메는 새옹에다가 두 개를 지어 올렸다. 신은 세 명인데 메는 두 개만 한다. 숟가락은 한 개씩 꽂는데, 메를 산신에게 먼저 올리고, 새옹메를 옮겨서 수저를 다시 꽂아서 어인과 수부에게 또 올린다. 메를 지을 때는 절대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된다. 물이 넘치든 쌀이 제대로 익든 간에 그대로 뚜껑을 닫고 메를 짓는다. 나무는 작게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때면서 했다. 남자들이 메를 지었다. 지금은 가스렌지를 사용한다.

떡은 동네에서 시루떡을 찌서 지게에 지고 올라가서 제사에 썼다. 지금은 떡을 하지 않는다.

제단에 소머리 하나, 메 2개, 과일 3개(사과 배 밤), 향, 초, 소금을 올린다. 그리고 무나물을 3개 올린다. 탕은 3탕을 한다.

메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황덕불을 해 놓고 둘러앉아서 제를 지낼 준비를 하였다.

옛날에는 산에 술을 담가서 썼다. 누룩을 빚어서 술을 직접 산제당 옆에 담가서 제사에 썼다. 옛날에는 도가를 특별히 지정해서 제물을 준비했으므로 도가가 술을 담는다. 술은 단지를 가져가고 산에서 직접 밥을 해서 술잎을 따서 조금 넣고 누룩과 비벼서 단지에 넣어 묻었다.

요즘은 정종을 사다가 쓴다.

제수는 시장에 가서 사서 쓰므로 특별히 가릴 것은 없지만, 되도록 깨끗한 것을 고른다. 다만 메를 지을 때 쓰는 쌀은 햅쌀이 나오면 따로 보관을 했다가 제사 때 쓴다.

서낭당에 옛날에는 금줄을 쳤으나 지금은 치지 않는다.

산제당에는 금줄을 친다. 금줄은 왼새끼에 한지를 꼰다.

옛날에는 도가에도 금기를 했는데, 금기 방법은 송침을 꼰 것이었다. 황토는 뿌리지 않고 송침만 하였다.

또한 술은 제당 옆에 땅을 파고 묻었다가 꺼내서 썼는데, 술을 채반에 걸러 병에 담고는 부정을 가신다고 술가지를 꺾어 병 입구에 꼰다.

메를 지을 때는 절대로 뚜껑을 열지 않고 하였다.

서낭당 제사에는 많은 사람이 참가한다. 동네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간다. 서낭당은 미리 가서 청소를 하지는 않고, 당일 날 아침에 가서 제당 청소를 한다.

서낭제사를 지낼 때 따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장꾼옥 제보자가 혼자서 다 한다. 절은 처음 시작할 때 다 같이 하고 끝날 때 또 다 같이 한다. 두 배 반 한다. 복장은 평상복으로 깨끗한 것을 골라 입는다. 옛날에는 한복을 다 갖춰 입고 가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면 세대주별로 소지를 올린다. 고수레는 바가지에 제물로 올렸던 것을 조금씩 담아서 옆에 버리면서 잡귀 잡신들 먹고 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음복을 한다. 음복은 제관부터 시작해서 한다. 제사가 끝나면 모두 반장 집으로 가서 아침밥을 같이 먹는다. 참가 인원은 30~40명 정도 된다.

산제당의 경우 옛날에는 도가가 산에 올라가는 길 청소를 하고 제당 주변 청소도 하였다. 그리고 우물도 함께 쳐놓았다. 보통 며칠 전에 가서 한다. 그리고 술을 산제당 옆에 땅을 파고 묻었으므로 도가는 미리 가서 금줄을 치고 술을 담갔다. 술을 담글 때는 술 단지를 묻을 곳에 땅을 파고 불을 해 놓아 땅을 따뜻하게 달군다. 그 다음에 밥을 해서 누룩과 비벼 넣은 후에 땅에 묻었다. 보통 술은 7일 전에 해 넣었다. 이 술은 채반을 가져가서 아침 일찍 걸러서 병에 따라서 썼다. 이때 병 마개 부분에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 꼰다. 소나무 가지는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만든 술을 제주로 쓰고, 음복을 할 때 먹어보면 아주 맛이 좋았다.

요즘은 술을 정종을 사서 쓰기 때문에 담그지 않는다. 다만 도가가 하던 길청소와 제당과 우물청소는 반장이 가서 한다.

산제사의 메는 도가가 새벽에 남들보다 먼저 산에 가서 짓는다. 정화수

는 그곳에 있는 물을 떠서 올린다. 절은 두 번 반씩 한다. 먼저 산신령님께 잔을 올리고 절을 한 다음, 어인신과 수부신께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사 마지막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제사비용을 낸 사람만 올린다. 몇 십 명이 올라가더라도 모두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는 인제군에 사는 무슨 생 누구 무엇을 바라니 소지 잘 올라가게 해달라고 한다. 잘 오르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리는데, 그래도 올라가지 않으면 그만 올린다. 소지가 오르지 않고 남는 것을 낙점이라고 한다.

고수레는 바가지에 제물로 쓴 여러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담았다가 제당 옆에 뿌린다. 그러면서 잡귀 잡신 잘 먹고 가라고 한다.

음복은 역시 제관부터 돌아가면서 한다.

제사가 끝나면 동네 강가에서 음식을 끓여 같이 나눠 먹었다. 제사 지내는 곳에는 부정한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당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바로 내려온다. 내려오면 강가에 술을 걸어놓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음식을 장만한다. 장소는 강가 떡바우소라는 곳이다. 떡바우소에서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하루 종일 놀았다. 떡바우소는 옛날에 그 바위에서 떡을 찼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바위가 넓고 반반해서 떡을 치기에 좋았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떡을 쳐서 모양을 내 왔다.

제사 복장은 옛날에는 한복에다 두루마기를 갖춰서 입었다. 그런데 요즘은 평상복 중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간다.

축은 따로 없고, 제관이 축원으로 대신한다. 옛날에는 축문을 써서 읊었는데 축문을 쓰던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축원만 한다.

심마니제의 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메와 술을 준비해 가서 빈다.

(먼저 연월일을 초들고) 산신님께 노구메 올립니다. 부정하지만 부정하다 마시고 내려 시망하시오. 뽕뚜루 감사합소사. 산신님께 산에 들어와서 뭘 부정한 일을 하더라도 산신님께서 그저 다 짐작을 불에가 합소사. 이 쇠술로 밥을 먹어도 초지일장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인간이 산신님만 믿고 이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구메를 올립니다. 그저 산신님께서서는 우리 마니를 언제든지 높으데 올라갈 때는 위로 올려 주시고, 또 내려올 적에는 안아 내려주시고, 그저 하탈들이 불천하시는

산신님께서 그제 풀어해라 하시고서 이 마니들을 많이 돌봐주시면 그제 산신님 복인 줄 알겠습니다.(장곤옥 제보, 심마니 개인치성)

라고 축원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있어도 맘이 든든하다. 나쁜 것 안하고, 설악산 같은 명산에 들어갈 때는 보신탕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보신탕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돼지나 소고기는 먹어도 괜찮으나 보신탕은 나쁘니 먹지 말아야 한다. 그걸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축원을 이렇게 하고 산에 들어가면 밤에 잘 때도 든든하다. 심마니제를 지낼 때 제상에는 메, 술, 정화수, 향, 초를 올린다. 바람이 많이 불면 그냥 불을 켜지 말고 초를 쬐는다. 심마니제를 지내면서 소지를 올릴 때는 “산신님이 나를 잘 돌봐서 깨끗하게 하산할 때까지 돌봐주세요. 그렇다면 소지로 알려주세요. 우리 인간은 모르니까 산신님께서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한다. 이때 소지가 잘 올라가면 좋다고 한다.

집안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는 대주부터 내려오면서 축원을 한다. 종이를 말아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말하는 순간에 다 타기 때문에 불이 타는 동안에 말을 빨리 한다.

산신님께, 우리 이 인간은 쇠술로 밥을 먹어도 초지일장을 내다보지 못하니 산신님께서 이 인간이 요번에 산신님 덕을 많이 본다고 하옵거든 소지 승천하옵소서....

그리고 하술처자(下鋤妻子, 식구를 데려갈 때 부르는 표현)하고, 내 몸이 금년에 아주 깨끗이 낳는다고 하거든 소지 승천하옵소서.

라는 식으로 올린다. 그 다음에 불을 대려 올리면 아주 좋으면 종이가 반도 타지 않았는데도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직성이 나쁘면 빌면서 “이 인간은 모르니까 그제 산신님께서 부정하고 누추하고 재미 못 본다고 하옵거든 소지를 저울 부수다(타지 않는다는 뜻임)해야 아옵니다.”하면 소지가 타다가 남는다. 그러면 나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남는 것은 자우를 둔다고 한다. 자우는 네가 암만 그래도 네가 드린 정성을 내가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직성이 나쁘다는 뜻이다. 그런데 소지가 잘 올라가면 내 몸이 개운한 것이 좋다는 뜻이다.

산에 올라가면 막을 치고 자더라도 뱀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짐승도 보이고 하니 산신님께 그런 것을 제해 달라고 축원하는 것이다.

서낭당에는 서낭신이 있고, 서낭신을 보좌하는 수부가 있고, 어인이라고 노구메 지으려고 장사하던 것이 있다. 수부는 군인으로 말하면 대장 연락병과 같은 것이다. 어인마니는 산에 들어가 산삼 캐러가서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사망해서 된 신이다. 또 산삼 캐고 장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산 고개 넘어갈 때 서낭당에 빌면서 서낭님 이번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서낭치성 들이던 사람들인데 죽어서 서낭님 퇴반(退飯)을 받아먹고 지낸다. 그래서 종이로 예단이라고 해서 세 군데에 건다. 산신도 그렇다. 그러니 맨 꼭대기부터 내려오면서 서낭신, 수부, 어인마니 순으로 한다.

나중에 고수레를 할 땐 맥없이 전쟁하다 죽은 귀신, 돌에 맞아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같은 잡귀들은 다 벌고 나서 밥이랑 명태대加里등을 떼어서 버리면서 “이 골짜기에 서낭님 퇴반 받아먹고 다니는 잡귀들은 다 물러나고, 우리 하는 일에 객토질 하지 말고 이 퇴반 받아먹고 물러나라.”고 한다. 이는 산신당과 서낭당 모두 똑 같이 한다.

빌 때는 날짜와 서낭님 산신님의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은 다 같다. 산에 들어가면 아무 때고 아침저녁으로 밥을 해서 지내는 사람도 있다. 밥을 해서 그냥 먹지 않고 산신한테 빌면서 오늘 큰 소망을 달라고 한다. 산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설악산은 명산이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옛날 이 마을에 살던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산제당에 가서 불을 놓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으로 산제당을 옮겼다. 불을 지른 사람은 얼마 있다가 바로 죽었다. 불을 일부러 지른 것은 아니고, 산삼을 캐려고 산제당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기도할 때 켜 놓은 촛불을 끄지 않고 나뒀는데 그것이 옮겨 붙어서 불이 났다. 그 사람 형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는데, 본인도 산삼을 캐려고 기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사람도 산삼을 캐기는 했는데, 또 캐려고 하다가 그랬다. 제사를 지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을에 특별히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옛날에는 산제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산삼을 캐면 돼지를 잡아서 산삼을 캐게 해 줘서 고맙다고 제사를 또 지냈다. 그래서 다들 산을 잘 모셨

다.

서낭당의 제사는 아예 비용이 드는 만큼 제비를 거둬서 쓴다. 반장이 제물을 사오면 뭐가 얼마씩 해서 전체 얼마가 들었다고 하면, 집집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을 한다.

산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결산을 한다. 결산을 하는 방법은 서낭당제사와 같다. 얼마를 거뒀는데 제비로 얼마를 썼다고 얘기한다.

결산을 할 때 다음 해 도가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도가는 제사 며칠 전에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는 제사를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봄에는 서낭제사를 지내고, 가을에는 산신제사를 지내고 있다. 서낭은 남신이고, 산신은 여신이다. 그 규모는 산신제사가 더 크다.

서낭당 제사는 남녀 모두 참가한다. 보통 그 집에 호주가 참석한다. 그런데 산신제사는 남자들만 올라간다. 메를 지을 때도 남자들이 한다.

이 지역의 산신제사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소를 잡아 제사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아울러 영험성도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삼을 캐 때는 산제사를 지냈고, 산삼을 캐면 고맙다고 해서 돼지를 잡아 또 산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금기 중에서 술을 거른 후 병 입구에 부정을 가시기 위해 술가지를 쫓았다고 해서 특이했다.

이 마을에는 산신제와 서낭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다고 한다.(『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용대2리 2반 아니오니 산신제>

인제군 북면 용대2리는 백담사 입구에 위치한 마을이다. 백담사 입구로 완전히 접어들기 전 오른 쪽에 위치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음식점 같은 장사로 살아가고 있다. 곳곳에 민박집, 음식점, 찻집 등이 있다. 용대2리 2반의 지명은 구만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산신각이 있는 곳은 아니오니라고 한다.

마을로 들어서는 곳에는 설악산의 입구답게 절경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 자태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내(川)는 그야말로 절경이다.

가끔 폭우로 인해 우마(雨魔)가 마을을 뒤덮고 가서 인명피해를 내기도 하지만 역시 아름다운 내는 그 자태를 숨길 수 없었다.

이곳의 내에는 예전부터 열목어, 산천어 등이 서식하고 있었고, 물이 맑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 때문인지 요즘 용대리에서는 겨울에 열목어축제를 하고 있다. 아직은 찾는 손님이 적지만 조금만



용대2리 2반 아니오니 산제당

더 활성화적으로 마을주민이 움직이면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황태축제와 결부하면 또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로 인제의 이미지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을 확신한다.

용대2리 2반에서는 3월 3일 아침에 산신당에 가서 제사를 한 번만 지낸다. 용대2리 4,5반에는 마을제사를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곧 3월 3일과 9월 9일에 지낸다. 1반도 따로 3월 3일에 제사를 지내고, 3반은 마을제사가 없다. 그래서 3반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4,5반 제사에 동참한다.

필자가 아니오니는 왜 그렇게 부르냐고 물었더니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아오니의 유래는 앞항의 설화부분 참고)

아니오니 입구에 산신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2반은 37~40가구 정도 살고 있다.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 인구도 있으나, 불교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민속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을제사의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거의 100%에 가깝다. 직접 참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명단은 마을 사람 모두 한다. 여기는 자신의 종교를 떠나서 마을제사에 동참하고 있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민박과 식당 등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 모두가 농사를 했으나, 차츰 농사를 짓지 않더니, 이제 논농사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다. 밭농사는 조금 있다.

용대2리 2반은 3월 3일에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따로 지낸다. 산신각의 명칭은 “아니오니 산신각”이라 한다.

용대2리 4,5반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3월 3일은

마을에 있는 서낭에서 지낸다. 따로 제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나무에서 지낸다. 그러니 소나무가 당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산신각에서 지낸다. 산신각은 따로 만들어 놓았다.

2반에서 지내는 제사는 그냥 3월 삼짇날 산신제 지낸다고 한다.

제당까지 거리는 마을 뒤로 난 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다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든 곳에서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간다. 밭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얼마정도 가면 길가에 연이어 제당을 볼 수 있다.

제당의 형태는 자연석으로 된 암석 밑에다가 모셨다. 제당은 암석 밑에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모두 세 칸으로 이뤄져 있다. 산 쪽부터 마을 방면으로 산신당, 서낭당, 마니당 순으로 되어 있다. 산신당과 서낭당은 같은 높이로 만들었고, 마니당은 조금 낮게 쌓았다. 당의 지붕은 나무를 가로 걸치고 함석을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나무막대를 걸치고 예단을 걸어 놔는데, 산신당은 하나, 서낭당은 둘, 마니당은 셋을 걸어 놓았다. 예단은 한지에 오색 천과 실타래를 둘러놓았다. 오색 천을 걸어놓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옛날부터 마을 어른들이 오색 천을 걸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할 뿐이다. 예단은 봄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모두 거둬서 없애고, 다시 건다. 거둔 오색 천은 마니당 옆에 보관했다가 많이 쌓이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마을에 가서 태운다.

나름대로 독특하고 운치 있는 당의 형태이다. 시멘트로 해 놓은 것과는 달리 정감이 가는 모습이다. 당의 아래에는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가고, 그 경치 또한 아름다웠다. 군데군데 웅덩이를 이루며, 주변의 나무들과 조화를 이뤄 그야말로 절경이다.

누가 다녀갔는지, 돈 천원과 사탕과 정화수가 놓여 있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예전에는 마니당이 없었다. 산신당과 서낭당만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현재 마니당 아래에 불을 놓아서 뒤에 있는 돌이 연기에 그을려 검게 변했다. 그 후 마을에서는 마니당을 쌓고 불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는 옛날부터 산신, 서낭, 심메마니라 해서 셋을 모신다. 신은 산신님 한 분, 서낭님 두 분, 그리고 마니신 세 분해서 잔을 6잔을 붓는다. 그



아니오니 마니당 내부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옛 날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따라할 뿐이다.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알 수 없다. 신의 명칭도 알 수 없다. 옛날에 축문을 읊을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6.25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지냈으므로 알 수 없게 되었다. 인공통치와 전쟁으로 인해서 전승이 되지 못하고 잊히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비는데, 대체로 자식기원이나 합격기원은 절에 가서 많이 한다.

용대2리 2반은 3월 3일에만 아침에 산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시간은 아침 7시 경이다. 7시에 준비를 해서 지내고 나면 아침 9시 정도 된다. 9월 9일은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가서 지낸다.

용대2리 4,5반의 마을제사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지낸다. 시간은 아침 6시이다. 3월 3일은 서낭제이고, 9월 9일은 산신제이다. 산신제와 서낭제는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 지낸다. 1반도 따로 3월 3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3반은 지내지 않는다. 3반은 희망자에 한해서 4,5반 제사에 동참한다.

옛날에는 제관과 도가를 생기를 봐서 따로 선정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 예전처럼 엄격하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3일 전쯤 제삿날이 다가오면 누구보고 좀 해라 하는 식으로 선정한다. 주로 2반에는 반장이 한다. 그러면 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사를 준비한다.

제관은 반장이 하고, 도가는 반장이 봐서 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한다. 요새는 강변식당 집이 3년째 하고 있다.

옛날에는 도가를 선정할 때 아주 엄하게 가릴 것을 가려 했다. 그래서 도가로 선정되면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리는 것도 많았다. 목욕재계도 하고, 젓밥을 지어서 가져갔다. 또한 도가를 선정할 때 아주 깨끗한 사람을 가려 뽑았다. 도가는 일 년 전에 선정을 했다.

제비는 마을에 기금이 있어서 그 이자로 충당을 했다. 요즘은 기금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집집이 얼마씩 거둬서 사용한다. 올 해까지는 크게 돈을 거두지 않았다. 마을 기금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외지에서 펜션 같은 것을 지어서 온 사람들이 얼마씩 기부를 해서 지낸다. 어떤 이는 돼지를 한 마리 내고, 어떤 이는 돈을 조금 내고 해서 그것으로 제비를 충당했다.

제물은 비교적 간단하게 차린다. 돼지머리, 과일, 메밥은 각각의 신마다 한 개씩 놓는다. 그런데 요즘은 따로 놓지 않고 수저만 신의 숫자대로 놓는다. 떡은 시루채로 하는데, 산신각에 먼저 올리고 다음 서낭신께 올리고 다음은 마니신께 올리는 식으로 한 개의 시루로 모두 지낸다. 산신이 제일 높으시니까 산신부터 서낭신 마니신순으로 한다.

메를 지을 때는 몸이 깨끗한 사람이 한다. 현장에서 하지는 않고 집에서 지어 간다.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불 때문이다. 일체 불과 관련된 것은 현장에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와 떡을 모두 집에서 지어 온다. 다만 촛불만 겨우 켜 놓을 따름이다.

옛날에는 모두 현장에서 했다. 메도 현장에서 짓고, 떡도 산신각 앞에서 썰어서 올렸다.

메를 지을 때 끓여 넘치더라도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닫아 두어야 한다.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뚜껑을 연다. 메를 짓는 술은 냄비라고 한다.

요즘은 떡을 아예 맞춰서 가져온다. 옛날에는 떡을 한 말 정도 했기 때문에 시루가 아주 컸다.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했다. 떡 뿐이 아니었다. 그곳의 골짜기가 좋으니까 그곳에서 아예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친럼을 했다. 그래서 계곡에서 돼지를 삶아 먹고 술을 마시면서 한 나절 동안 놀다가 산에서 내려왔다.

제기는 일회용 접시를 쓴다. 따로 마련한 것이 없다.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지내고, 성의도 많이 줄었다.

술은 정종을 쓴다. 산신께 먼저 따르고 서낭신께 따르고 마니신께 따른다. 옛날에는 막걸리를 썼다. 도가가 막걸리를 비롯해서 모두 해서 가져왔는데 요즘은 그냥 슈퍼에 가서 정종이나 소주를 사다가 쓴다.

준비하는 과정은 반장이 하는데, 반장이 차리는 집하고 같이 가서 장을 봐서 준비를 한다.

돼지는 이곳에서 돼지라 하지 않고 마리라 한다.

제수는 예전처럼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슈퍼에 가서 사서 쓴다. 쌀이며, 모두 사 온다. 옛날에는 따로 제수를 독에 두었다가 썼다. 왜냐면 도가를 일 년 전에 정했기 때문에 그 집이 하나씩 준비를 했다. 집에서 가장 먼저 나는 것, 깨끗한 것을 따로 준비했다가 썼다.

뭐가 죽은 것을 봤던가 하는 사람은 산신각에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 거의 다 가듯이 하나까 누가 뭘 봤는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도가가 정해지고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금줄을 치고 일체 외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금기를 했다. 그런데 요즘은 금줄을 치지 않는다.

제사 날짜가 되면 아침 일찍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당 주변의 청소이다. 사람들이 여럿 가서 청소하면서 준비를 한다.

정화수는 계곡의 물을 깨끗한 그릇에 떠서 올린다. 따로 우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계곡 물은 원래 깨끗하니 따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정해진 것은 없다. 그래서 먼저 절하는 사람이 술을 따르고 같이 빈다. 같이 절을 하면서 각자 바라는 바를 빈다.

복장은 자유복이다. 따로 제복을 정한 것은 없다. 각자 집에서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온다.

소지는 이름을 적어가서 부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한다. 소지는 마을 전체 소지를 먼저 올리고, 개개인은 올리지 않고 세대주만 올린다. 한 4~50장정도 올린다. 마지막엔 산신님께서 잘 받아 잡수셔서 고맙다고 한장을 올린다.

축원은 소지를 올리면서 한다. 가령, 이 소지는 아무 개 소지인데 차를 몰고 다니면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고, 공무원이면 아무 탈 없이 승진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잘 받아 잡수셔서 고맙습니다.’고 한다. 여기는 소지가 잘 안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올리지는 않는다. 왜냐면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오른다.

소지를 올리고는 여럿이서 다 같이 배례를 하면 마을제사는 끝난다.

고수레는 사과 배 돼지 등을 조금씩 떼어서 접시에 담아 산신각 옆에 둔다. 두면서 산신님이 잘 잡수셨으니, 여러 잡귀들 여기서 먹고 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절을 한 번 한다. 고수레를 할 때 산신각에 따랐던 술을 모두 붙는다. 이때는 술 뿐 아니라, 떡 등 모든 것을 다 조금씩 떼서 놓는다. 정화수도 함께 붙는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가보면 고수레 했던 것이 모두 없어진다. 뭐 짐승이 먹었을 것이다.

음복은 나이 많은 순으로 한다.

참가 인원은 보통 20명 정도이다. 마을의 가구 수가 40여 가구가 되는데 20여 명이 참가하니 반은 참가하는 것이다.

축문은 따로 없다. 다만 동네 사람들 명단을 적어가서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을 한다. 오래 전부터 축문을 읊는 것은 보지 못했다.

축원의 내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2반이 구만동이므로 구만동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시작은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2리 2반 주민일동이 오늘 정성을 드리러 왔으니 산신님께서 그저 잘 돌봐 달라고 빈다. 그리고 같이 절을 한다.

마지막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불나지 않게 해달라고 빈다. 그리고 설악산에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빈다.

제사를 지내고 고수레를 해 둔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두 없어진다. 뭐 짐승이 먹었겠지만 접시만 남고 내용물은 모두 없어진다.

좋은 일보다도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내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꾸 교통사고도 나고 하였다. 그래서 이젠 마을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다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인식을 했다. 그 이후에 다 같이 마을제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마을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고 있다.

결산은 연말에 가서한다. 가령, 용대2리 2반 총 재산이 얼마인데 이번 산신제 지내는데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남았다고 한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돼지 얼마 등으로 얘기를 한다.

국립공원 정비할 때 마을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뒀는데, 개인이 하는 제당은 모두 철거를 하였다. 그런데 마을에서 지내는 제사는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은 제사를 지낼 때 마을에서 국립공원공단에 미리 연락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곳의 마을제사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동계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인공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신의 명칭을 잊었든가 축문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산불 때문에 메와 떡을 집에서 썰 오고, 마을 사람들의 회식이 계곡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예전과 다른 것이었다. 아울러 예전에는 살아있는 돼지를 가져가서 잡고 함께 나눠 먹었으나, 요즘은 돼지머리만 올리고, 계곡에서 하던 회식이 없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신격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국

의 성황신이 유입되면서 산신신앙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은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신과 성황과 마니신을 함께 모시고 있었다.

특히 마니신은 심메마니신이라고 하였다. 심메마니는 산삼 캐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을에는 과거에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많았다든가, 산삼을 캐기를 기원할 때 이곳 산신당에서 제를 올리고 갓을 의미한다.

가끔 가서 보면 술잔도 색 다른 것이 있고, 사탕도 놓여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간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등산로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제사 참가는 남녀 모두 하나 산에 올라가는 것은 남자만 하지 여자는 올라가지 않는다. 집에 내려와서 먹을 때는 여자들이 해 온다.

이 지역에서 특별히 비는 것은 3가지다. 하나는 마을 사람들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국립공원 아무 탈 없이 해달라는 것이고, 셋째는 초등학교 잘 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하기가야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설악산에 의지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가 산신제의 주요한 기원대상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하다. 이는 초등학교가 마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교육에 대한 인식도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마을에는 솟대와 장승제는 없다. 장승은 해 세우기는 했으나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7. 내설악 인근의 대표 먹거리

<명태의 유래>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의하면 조선조(인조 때쯤) 함경도 관찰사(민모씨)가 명천군(明川郡)에 초도순시를 했을 때 반찬으로 내놓은 생선이 담백하고 맛이 좋기에 이름을 물었더니 명천에 사는 태(太)씨성의 어부가 처음으로 잡아온 고기라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명천의 명자와 태씨 성을 따 명태(明太)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제 황태축제 즐기기>

인제의 용대리황태축제는 매년 2월 말에 북면 용대3리 삼거리를 거점으로 치러진다. 겨우내 눈맞으며 얼었다 녹았다 꾸덕꾸덕 말린 황태가 딱 좋게 말랐을 때이다. 주변경관이 수려한 광장에서 공식행사를 비롯, 황태놀이체험, 요리와 시식, 문화체험행사, 전시이벤트, 그리고 황태마을 장터도 열린다. 난타공연과 무용단공연을 보고나서 황태라면, 황태강정 같은 흥미로운 요리체험도 할 수 있고 황태탑 쌓기, 덕장체험, 황태투호던지기 등 황태와 함께 하는 놀이, 그 외에 떡메치기 같은 다양한 문화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맛과 멋이 함께 있는 용대리황태축제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향토축제임에 틀림이 없다. 황태는 원래 함경도 원산이 주산지였다고 한다. 원산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의 음식을 되살려내려고 노력한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이다. 좋은 황태 만들기의 필수요소인 강추위와 눈을 찾아서 강원도 전역을 찾아 헤메다가 발견한 곳이 용대리라고 한다. 이곳은 진부령과 미시령이 만나는 지점이라 눈이 흔하고,



그림 20 용대리 덕장

독특한 기압구조를 하고 있어서 주변 지역보다도 기온이 낮다고 한다. 용대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정도는 유독 추운 날씨를 보여준다니, 신이 우리에게 황태를 선물하기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닌가 싶기까지 한다. 속살이 보송보송 부드럽고 표면이 노랗게 일어나는 고소한 황태가 되려면 4개월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20번 이상

반복이 되어야하는데 최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꽤나 까다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한다. 명태를 말리는 동안 기온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지면 안 되고, 영하 15℃~영상 2℃ 사이를 꾸준히 유지해야한다고 한다.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살이 썩어버리고 너무 세게 불면 살이 딱딱해진다. 북어는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수도 있지만 황태는 영양소가 4배나 더해진다. 숙취해소와 간장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연탄가스에 중독되었을 때 황태국물을 먹이기도 했다고 한다. 요즘엔 임산부들과 노인들의 보양식으로도 애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 황태를 생산하는 용대리 사람들의 자긍심은 클 만도 하다. 황태덕장에서 마치 자기들의 몸값을 높여 준다는 걸 알고 눈보라와 칼바람을 묵묵히 견뎌내기라도 하는 듯 보이는 황태들의 요지부동함에서 결연함마저 느껴진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축제 한마당을 탄생시키기도 하니 이름이 하나 더 생겨날지도 모르겠다.(『설악산 스토리텔링』)

<명태의 명칭 및 황태>

명태(明太): 명태를 총칭하는 명칭.

간태(杆太): 강원도 간성 앞바다에서 잡힌 명태.

간태(干太): 명태업자들이 부르는 동건 명태.

강태(江太): 11월 경 강원도 연해에서 잡아 동건(冬乾, 얼려 말린)한 질이 나쁜 명태.

건태(乾太): 명태업자들이 부르는 동건 명태.

골태: 속살이 딱딱하여 부드럽지 못한 황태.

그물태: 망태의 다른 말. 그물로 잡은 명태.
 금태(金太): 잘 잡히지 않아 귀하다고 하여.
 깡태: 기온이 높아 얼리고 부풀리기가 안 돼 바로 건조된 황태.
 꺾태: 산란하여 살이 별로 없이 뼈만 남은 명태.
 낙태(落太): 건조과정에서 부주의로 땅에 떨어진 황태.
 난태(卵太): 산란 전에 알을 뺀 상태로 잡은 명태.
 냉동진공태: 공장에서 기계로 급속하게 얼리고 부풀려 말린 푸석한 명태.
 노가리: 명태 새끼. 앵치라고도 한다.
 더덕북어: 1월 중 신포(新浦)에서 잡아 동건한 어육(魚肉)이 노랗고 부풀부풀한 가장 좋은 마른 명태.
 동지(冬至)바지: 동지 전후에 찾아오는 명태.
 동태(凍太): 얼린 명태.
 막물태: 마지막 어기(漁期)에 잡은 작은 명태.
 망태(網太): 그물로 잡은 명태.
 먹태: 기온이 높아 색깔이 검게 변한 황태.
 매가리: 강원도와 서울에서 25cm 내외의 생명태 또는 건명태를 지칭.
 무태어(無泰魚): 함경도 명천의 토산물로 알려짐.
 무두태(無頭太): 머리를 떼고 몸통만 건조시킨 것.
 바닥태: 바람태. 해안에서 바람과 햇볕으로 빨리 건조시킨 것.
 백태: 기온이 지나치게 추워 얼어붙어 살이 희게 변한 황태.
 북어(北魚): 말린 명태. 북방에서 온 고기 또는 북방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
 북태(北太): 일본 북해도에서 수입되던 명태.
 북홍어(北蕘魚): 얼려 말린 최상품의 명태.
 생태(生太): 얼리지 않은 싱싱한 명태.
 선태(鮮太): 신선한 명태.
 선달바지: 음력 12월부터 떼를 지어 오는 명태.
 애태: 애기태. 작은 명태.
 염태(鹽太): 간명태. 소금에 절인 명태.
 왜태: 아주 큰 명태.
 원양태(遠洋太): 원양어선에서 잡은 명태.

은어바지: 은어(도루묵) 떼를 쫓아 내유(來游, 찾아오는)하는 명태.

조태(釣太): 낚시로 잡은 명태.

진태(眞太): 동해안 근해에서 잡은 명태. 원양어선과 구분.

짜태: 내장을 빼고 소금에 절여 넓적하게 말린 명태.

찢태: 덕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 육질이 흐물흐물해진 황태.

추태(秋太): 가을에 잡은 명태.

춘태(春太): 봄에 잡은 명태.

코다리: 명태의 내장을 빼고 반쯤 말린 것.

통태(統太): 내장과 같이 건조시킨 황태.

파태(破太): 건조 과정에서 흠집이 생긴 황태.

황태(黃太): 겨울에 말려 색이 누렇게 된 명태.

월별명태: 함경도 지방에서는 월별로 잡히는 명태를 一太, 二太, 三太
... .

크기에 따라서: 대태(大太), 중태(中太), 소태(小太), 왜태(倭太), 아기
태 등

속담 “명태가 잘 잡히면 사찰의 승려까지 평안히 보낸다.”(『동해안 어촌
의 민속학적 이해』)

<명태로 만든 젓갈>

귀세미젓: 명태의 머리로 만든 젓갈.

명란젓: 명태의 알로 만든 젓갈.

서거리젓: 명태의 아가미로 만든 젓갈.

창란젓: 명태 내장으로 만든 젓갈.

<용대리 황태 만드는 과정>

내설악의 품에 안긴 용대리 백담마을은 백담사 아래에 있는 사하촌이
다. 이 마을은 백담사를 머리 위에 두고 있어 유명세를 탔지만 속풀이에
좋은 황태로도 널리 알려졌다. 용대리는 황태에서 얻은 소득으로 전국 최
고의 부농을 이루었다.

겨울이 시작되면 용대리 사람들은 빈터에 통나무로 덕장을 세운다. 완성된 덕장에 두 마리씩 주둥이를 끈으로 묶은 명태를 쪽 걸어놓는다. 걸린 명태는 긴 겨울 동안에 열고 녹고를 반복하며 육질이 부드러워진다. 용대리는 황태를 하기에 기후조건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는데, 세찬 골바람이 강하게 불어 '풍대리'라고도 부른다. 이 바람이 명태를 잘 말려주어 최고의 황태가 만들어진다. 덕장에서 눈과 바람을 맞으며 겨울을 난 명태를 봄이 시작되기 전에 걷으면 속풀이에 그만인 최고 품질의 황태가 된다.

황태는 원래 북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용대리에 살며 70년대부터 시작했던 황태가 지금은 마을에 더할 수 없는 효자다. 하지만 초기에는 황태일을 하기가 무척이나 고되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황태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추운 겨울에 황태일을 하니 그 고생이 오죽할까. 그 과정을 듣고만 있어도 오싹 추위가 느껴진다.

겨울 초입이 되면 용대리 사람들은 동해안의 가진에 가서 잡은 명태를 구입해 진부령을 넘어온다. 동네의 개울을 막고 그 물에 명태를 넣고 하루를 채우며 명태를 얼린다. 땡땡 언 명태를 물에서 꺼내 배를 따고 명란젓과 창란젓을 만들 알과 내장을 꺼낸다. 이 작업을 '할복'이라고 한다는데 이름이 꽤 끔찍하다. 그 다음에 설치한 덕장에 명태를 걸면 된다. 이 모든 일을 내장까지 얼리는 추위에서 송곳 같은 바람을 맞으며 해야 했다. 그 시절에 이 일을 한 분들의 손은 나무껍질처럼 갈라지고 마디는 나무뿌리처럼 굵단다.(『인제사람들의 전통음식』)

<참고문헌>

- 『강원의 설화』. 강원도. 2005.
- 『國譯 江原道誌』. 강원도. 2005.
- 『國譯 關東誌』. 강원도. 2007.
- 권삼문.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2001.
- 김선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2』. 인제문화원. 2010.
- 김철우 역주. 『여지도서』 강원도. 흐름. 2009.
- 김풍기 외. 『2012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조사 학술용역 보고서』. 인제군·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2.
- 김풍기 외. 『지역원형과 명승』. 청운. 2015.
- 『襄州誌』. 襄陽郡. 1990.
- 이만철 편.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인제문화원. 2007.
- 이태두. 『인제 조상의 얼』. 강원도인제교육청. 2000.
- 이학주. 『아들 낳은 이야기』. 민속원. 2004.
-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 『麟蹄郡史』. 麟蹄郡. 1996.
- 정무교. 『인제사람들의 전통음식』. 인제문화원. 2012.
- 『朝鮮地誌資料』. 景仁文化社. 2007.
- 최병헌. 『설악산 百潭寺』.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13.
- 최병헌. 『인제를 소재로 한 국역 漢詩集』. 예맥. 2004.
- 최병헌. 『麟蹄의 地名』. 인제문화원. 2011.
- 『태백의 설화』. 강원일보사. 1977.
- 『韓國民俗綜合報告書』江原道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 한명희·이학주·최정숙. 『설악산 스토리텔링』.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 2014.(미출판)
- 許檀. 『山間마을 사람들』. 강원일보사. 1993.

편저자

李學周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내설악 그 명승에 빠지다

초판인쇄 2015년 9월 20일

초판발행 2015년 9월 31일

펴낸이 남덕우

편저자 이학주

기획인 백창현

펴낸곳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5

전화(033)461-6678/ 팩스(033)461-0220

편집·인쇄

ISBN

※ 이 책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설악 무산 오현 큰스님의 지원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